

김만덕 자료총서 I

恩光衍世



재단
법인

김만덕재단

恩光衍世

김만덕 자료총서 I

恩光衍世



재단
법인

김만덕재단

● 발간사

김만덕은 조선후기 신분과 성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립과 나눔의 삶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제주라는 변방에서 상업 활동을 통해 스스로 부를 일구었고, 갑인년 대흥년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습니다. 국왕 정조가 그녀를 궁궐로 불러 공을 치하하고 금강산 유람을 허락한 전례 없는 사례는, 그 공적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대의 관료와 문인들이 앞다투어 그녀의 삶을 기록하고 찬양한 것은 단순한 미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김만덕은 단지 제주의 인물을 넘어, 시대를 앞서간 여성의 상징이자 나눔과 공동체 정신의 본보기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성평등, 사회적 책임, 공공의 가치가 중시되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김만덕의 삶은 그 의미를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김만덕 자료총서 1』 2025년 증보판은, 2008년 초판 이후 변화된 시대의 흐름과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증보판에서는 1971년부터 2025년까지 김만덕상 수상자 현황과 김만덕상 관련 조례 제정 내용을 수록하여, 김만덕 정신의 제도적 계승 과정과 그 성과를 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료 정리를 넘어, 김만덕의 뜻을 오늘의 사회 속에 보다 실질적으로 녹여내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자 출발점입니다.

2025년 6월

양 원 찬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

● 발간사

조선후기 변방 제주섬의 여인 김만덕이 유교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조선사회에서 천시되던 상업 활동으로 부를 축적해서 갑인년 대흥년 때 굶주려 죽어가는 제주 백성을 구제했다는 사실은 전설과 같은 일화로 우리에게 전승되어 왔다. 더욱이 국왕 정조가 최남단 제주섬의 하찮은 여인을 궁궐로 불러들여 공적을 치하하고 금강산 유람을 시켰다는 것은 당시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특이 사례였다. 한양의 유명 관료 사대부들이 너나 없이 김만덕의 전기와 칭송시를 남겼다는 것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기에 제주도민들은 우리를 살린 ‘만덕할망’으로 칭송하여 왔고, 많은 역사가·문인들도 김만덕의 일대기를 기록과 작품으로 남겨왔다. 1971년 제주의 여러 유지들은 뜻을 모아서 ‘의인김만덕기념사업회’를 조직하였고, 1977년 초에는 벽지에 방치되어 있던 김만덕묘를 사라봉 모충사에 이장하고 묘탑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후 김만덕은 단순한 향토사의 한 인물 정도로 취급되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갔다. 모충사 안에 자리잡은 기념관은 그림과 민속품 몇 점만이 허전하게 공간을 메웠다. 1980년부터 시작된 만덕봉사상 수상과 만덕제 등도 기관장과 일부 관심있는 인사들만이 참석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버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만덕은 저변의 대중들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로 넘어오자 양성평등 관념이 확산되고 경제성장에 따라 가치관이 변하면서 김만덕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교방을 박차고 나와 객주를 차려 재산을 형성하고 적절하게 분배한

김만덕의 행적은 어느 조선시대 알려진 여인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03년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재발족 하게 된 것도 오늘의 시대성을 읽어낸 결과였다.

이번에 김만덕기념사업회가 발간하는 『김만덕 자료총서』는 21세기 벽두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김만덕을 재인식하기 위한 작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김만덕과 관련해 기왕에 쓰인 대표적인 전기류, 논문, 연구보고서, 발표문 등을 엄선하여 첫 번째 책을 내게 되었다. 이번 총서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당시대 문서에 보이는 김만덕 관련 원사료를 추출한 사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료총서를 발간함으로써 김만덕의 행적과 정신을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 자료총서를 출판함에 즈음하여, 좋은 글을 수록하는 데 동의하여 주신 연구집 필자 여러분과 발간비를 도와주신 제주도 행정 당국과 여성정책과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2007년 2월

강 재 업 (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공동대표)

● 축간사

이번에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정성을 들여 『김만덕자료총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 출신도 아닌 제가 김만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개인 김만덕의 삶이 갖는 인간적이며 사회적인 보편성이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거상인 그는 본래 양가 출신으로 기생에 편입된 것을 알고 제주목사에게 여러 번 청하여 자신의 신분을 회복할 정도로 의지가 강했습니다. 객주와 관가의 물품조달, 상품유통 등으로 부자가 되었고, 1794년 전 재산을 진휼미로 내어 제주백성을 구제하였습니다. 이에 정조가 그의 소원을 듣고 제주민은 물으로 나갈 수 없다는 관례를 벗고 금강산 구경을 시켰고, 당시 재상이던 채제공은 그를 위해 〈만덕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로 상업을 택했고 뛰어난 상술로 성공한 경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덕은 어렵게 모은 재물을 가장 값지게 썼다는 데 있고 후대에 이름을 남기게 된 까닭입니다.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는 제주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김만덕의 삶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김만덕의 삶을 접하는 이들의 반응은 늘 한결같습니다. 조선 땅에 이런 여장부가 다 있구나 하고 탄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숭고한 정신을 알릴 수 있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주변 지인의 권유를 받고 김만덕기념사업을 위한 전국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여인들의 삶은 가려지고 숨겨지고 왜곡되어 왔습니다. 조선 시대 변방의 미천한 여인으로 태어나 김만덕이 부딪쳐야 했을 사회적인 장벽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오늘날에 와서 더욱 칭송받아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가부장적 유교문화 속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나눔과 베품을 실천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결실을 맺은 『김만덕자료총서』의 발간을 계기로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새로운 여성상이 그려지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만덕 할머니가 제주여인의 이미지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멋있는 사랑받는 여인으로 인식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2007년 2월

이 인 호 (명지대 석좌교수·전 러시아 주재대사)

● 일러두기

- 이 책에 실린 글은 김만덕과 관련하여 기존에 발표된 대표적인 전기, 논문, 보고서 중에서 일반 서점에서 구해보기 힘든 것을 선정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발간된 동화, 전기 등 입수 가능한 단행본에 수록된 글은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 기존 간행도서의 글은 당시 표기한 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명확한 오탈자는 수정했다.
- 이 책에 실린 글의 저자 및 출처를 아래와 같이 밝혀둔다.

1부. 김만덕 전기

1. 의녀 김만덕전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2. 제주기(妓) 만덕 (정비석, 『명기열전』 6, 신정사, 1981)
3. 구원의 여인상 김만덕 (김봉옥, 제주도, 1989)
4. 김만덕의 자선 (양중해, 『제주여인상』, 1998)
5. 의녀반수 김만덕의 삶 (김창집, 『제주시』 제45호, 2003)
6. 김만덕, 굶주린 백성을 살린 사업가 (이순구, 『한국역사 속의 여성 인물(상)』, 한국여성개발원, 1998).

2부. 김만덕 시대의 사회경제상

7. 김만덕과 조선후기 제주사회 (박찬식,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 조사 연구보고서』, 김만덕기념사업회, 2004)
8. 18·9세기 제주사회의 진흥과 김만덕의 사회적 공헌 (진관훈, 『제주도사연구』 13·14합집, 2005)

3부. 김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해석

9. 〈萬德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김준형, 『제주도연구』 17, 2000)
10.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김경애,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2004)
11.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연구의 사적 전개 (윤치부,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 김만덕기념사업회, 2004)
12. 실존인물 김만덕의 문학화 과정 (현승환, 『백록어문』 20·21합집, 2005)
13. 김만덕의 삶을 통해 본 정신적 가치의 탐색 (변종현, 『김만덕기념 전국 학술세미나 자료집 “김만덕의 시대와 현실”』, 2005)

4부. 김만덕 기념사업의 방향

14. 김만덕기념사업회의 활동 방향 (김경애, 『김만덕기념 전국 학술 세미나 자료집 “김만덕의 시대와 현실”』, 2005)
15. 김만덕 기념사업의 정책 제언 (김은석,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 조사 연구보고서』, 김만덕기념사업회, 2004)
16.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제주 경제의 활성화 방안 (정창권, 『김만덕 기념 전국학술세미나 자료집 “김만덕의 시대와 현실”』, 2005)

목 차

1부. 김만덕 전기

- 의녀 김만덕전 _ 김태능 17
제주기(妓) 만덕 _ 정비석 44
구원의 여인상 김만덕 _ 김봉옥 121
김만덕의 자선 _ 양중해 149
의녀반수 김만덕의 삶 _ 김창집 193
김만덕, 굶주린 백성을 살린 사업가 _ 이순구 208

2부. 김만덕 시대의 사회경제상

- 김만덕과 조선후기 제주사회 _ 박찬식 217
18·9세기 제주사회의 진흥과 김만덕의 사회적 공헌 _ 진관훈 243

3부. 김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해석

- 〈萬德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_ 김준형 273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_ 김경애 302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연구의 사적 전개 _ 윤치부 330
실존인물 김만덕의 문학화 과정 _ 현승환 367
김만덕의 삶을 통해 본 정신적 가치의 탐색 _ 변종현 408

4부. 김만덕 기념사업의 방향

김만덕기념사업회의 활동 방향 _ 김경애 437

김만덕 기념사업의 정책 제언 _ 김은석 442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제주 경제의 활성화 방안 _ 정창권 456

참고문헌 474

부록

1. 구 묘비문(舊 墓碑文) 487
2. 만덕묘 이장 경위 489
3. 義人의 묘소 벌초 홀로 60年 493
4. 김만덕상 관련 자료 496



1부

김만덕 전기

의녀 김만덕전 _ 김태능

제주기(妓) 만덕 _ 정비석

구원의 여인상 김만덕 _ 김봉옥

김만덕의 자선 _ 양중해

의녀반수 김만덕의 삶 _ 김창집

김만덕, 굶주린 백성을 살린 사업가 _ 이순구



김만덕 전기

의녀 김만덕전

김 태 능

머리말

김만덕(金萬德)은 이조 영조(英祖) 때 제주에서 출생하여 순조(純祖) 때 죽은 여인인데, 그는 정조(正祖) 때, 제주에 4년간 연거푸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갈 때, 거액의 사재를 내놓아, 육지연해(沿海) 지방에 사람을 보내어 양곡을 사다가 관청에 바쳐, 부황민(浮黃民)들에게 분급(分給)케 하여 아사 직전의 그들을 구제해 준 의기(義氣)있는 희대(稀代)의 자선가이었다. 이제 미덕의 주인공 김만덕의 생애와 기민 구호의 경위와 전후 행적을 적어본다.

불우한 소녀 시절

만덕은 영조 一五年(一七三九年) 제주성 부근에 거주하던 김응열(金應悅)의 자녀 3남매 중의 외딸로 태어났는데, 그는 어렸을 적부터 남달리 아름답고 귀여웠으므로 가정은 비록 가난했으나, 만덕 어린이를 중심으

로 하여 온 집안이 단란하고 부모의 마음도 언제나 흐뭇하였다.

이리하여 만덕은 부모님과 오라비들의 사랑 속에서 아무런 구김살 없이 고이고이 자라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 가정에는 큰 비운이 닥쳐 왔던 것이다.

이제 만덕의 나이 一二세 가량 되던 해인 영조 二六年(一七五一年)의 이조 실록을 보면, 이 해 봄부터 우리나라 전국에 유행병이 번져서 5월 말까지 병사자가 이미 五二萬四千명에 이르렀으며 제주에는 이 때 기근까지 겹쳤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악질(惡疾)은 조금도 종식되지 않고 계속 퍼졌으므로 이 해 十一月 한 달 동안만 해도 전국에 죽은 사람이 六萬七千八百六拾七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제주도민의 병사자수도 八百八拾二명이 포함되었으니, 당시 인구수가 六萬명 정도에 불과했던 제주도로서는 큰 참상이라 아니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료(史料)와 만덕에 대한 전후 사실들로 미루어보아 이 때 만덕의 부모도 기근과 유행병으로 인하여 철 모르는 어린 자녀 3남매를 남겨놓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여 세상을 떠나버린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만덕은 일시에 부모가 구몰(俱沒)되어 버렸으므로, 아직 미거한 오라비 만석(萬碩)과 만재(萬才)와 더불어 3남매는 의지 의탁할 곳 없는 가없는 천애무변고아(天涯無邊孤兒)의 신세가 되었다.

이 때, 제주성내에서 한 기녀(妓女)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귀여운 만덕 소녀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불쌍히 생각되어, 이 여아(女兒)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잔심부름도 시키면서 양육하고 친딸 같이 사랑하였다. 짐작컨대 이 때 만석과 만재 두 형제는 친척집이나 아니면 동리 사람 집에 목동이나 사동으로 고용되어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기생집에 의탁되어 살고 있는 만덕은 본시 타고난 용모도 아름답고 태도도 단정하거니와, 마음씨가 곱고 얹전하며 재주도 있어 영리하므로, 그 기생은 더욱 기뻐하여 만덕을 극진히 사랑하여 수양딸로 삼았다.

세월이 흘러 만덕 아가씨가 수양어머니에게 의탁되어 살아온 지도 어언 간 5, 6년이 지나서 처녀로서는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一七, 八세의 방년(芳年)이 되었으므로 그는 더욱 아름답고 요조하여 진흙 속에서 피어 오르는 연꽃과도 같고, 장차 요염과 풍만을 발산하려는 모란꽃 봉오리와도 같았다. 그러므로 그는 탐라의 젊은 남성들의 눈과 마음을 매혹시켰고 같은 또래 처녀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예기(藝技)에도 뛰어난 소질이 있어서, 수양어머니의 어깨너머로 보고 듣는 거문고와 가야금 등의 음률에도 일취월장하였고 가무도 곧잘 하였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녀는 신분상으로 천민(賤民)인 하호(下戶)에 속했으며, 이에 따라 기생의 딸은 박색이 아닌 이상 대개는 기생이 되는 것이 상례였던 것이다. 이런 사회계급제도 하에 살고 있는 만덕은 비록 자신은 양가(良家)의 소생이라 할지라도 이미 기생집 수양딸이 되었으므로, 기생이 되어야 하는 신분제도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거니와, 특히 만덕은 자색이 아름답고 음률과 가무도 잘 한다는 소문이 관청에까지 들려왔으므로 관에서도 그를 관기(官妓)로 삼으려고 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세상사에 익숙치 못한 만덕 아가씨에 대해 관청에서는 권유 겸 강요가 심하였고, 또 만덕의 주위 사람들의 권고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만덕이와 가장 가깝다는 권고자는 말하기를

“옛적 태종 임금은 어떤 연회석에서 강계 기생 가희아(可喜兒)의 자색과 가무에 반하여 그를 후궁으로 들여 놓았다가 후일 왕자를 낳게 되자 빈으로 봉한 일도 있다. 너는 어째서 기생이 천하고 나쁘다고만 생각하느냐? 너는 인물 좋겠다. 춤과 노래도 잘하겠다. 그러니 기생이 되어 한양에서 출장 나온 점잖은 손님들의 연석에라도 출입하다가 운이 좋아 높은 손님에게 점이라도 찍히게 되면 훗날 왕후(王后)나 장상(將相)의 아내가 될지 누가 알겠니? 여자란 남편 잘 만나는 것이 상팔자란다. 너는 아직 철이 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모양이다. 아무 생각 말고 관청에

서 하자는 대로 하려무나.”

하고 기생들이 성공한 예를 들면서 극구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만덕의 귀에는 거슬렸으나, 아직 추리와 판단력이 부족하고, 또 자기 신상에 대해 진정으로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부득이 관청의 강요와 주위 사람들의 권고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기적(妓籍)에 등록하는 것을 승낙하고 본의 아닌 기역(妓役)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기생 시절

만덕이 기생이 된 후에는 가무와 음률을 더욱 익히고 손님 접대하는 방법과 예절도 배웠으므로 그의 타고난 미모와 상냥한 성격과 귀여운 교태에 한층 더 금상첨화가 되어, 만덕의 기명(妓名)이 날로 높아져 기생된 지 불과 수년에 명기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기생 만덕은 관청에서 베푸는 대소연회와 민간인들이 벌이는 모든 놀이에도 자주 불려 나갔으며, 특히 서울에서 어사(御史)나 점마별감(點馬別監) 등 높은 정부 관리들이 제주에 출장 왔을 때나 떠나갈 때의 환송영의 연석이나 삼읍 수령(守令)들의 연회석에는 반드시 만덕이 끼어 있어야만 그 자리가 어울려 흥취가 더욱 돋고 흐뭇하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그의 인기가 높아졌던 것이다. 이처럼 만덕은 재색을 겸비한 명기였으므로 삼읍 수령을 비롯하여 위에서 말한 경래관(京來官)들도 그의 자색과 예기와 인품에 매혹되어 “과연 제주에도 저런 명기가 있었더냐!”

고 하면서 상찬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만덕은 이와 같이 상하 모든 손님들로부터 극진한 사랑과 귀여움을 한몸에 담백 받게 되어 인기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생활면에

도 여유가 있게 되어 화려한 생활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는 二〇세가 넘어서면서부터는 관기의 우두머리인 행수기생(行首妓生)이 되었으니 수많은 탐라기녀들이 모두 그의 부하였고 목사를 비롯한 삼읍 수령과 영문(營門)의 이교(吏校)들까지도 그의 일소 일비에 뇌쇄(惱殺)되지 않을 자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기생인 만덕의 인품과 몸가짐을 살펴보면, 그는 비록 노류 장화(路柳牆花)의 신세인 천기였으나 불타는 정욕의 청춘시절에도 흥분에서 극력 자신을 억제하였고, 부귀와 권력의 유혹 속에서 그는 힘써 부덕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정절을 또한 생명과 같이 중히 여겼다. 그러므로 당시 호협한 남자들은 어떻게 했으면 만덕의 마음을 사서 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겠나 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 보기도 했으나 모두 허사였던 것이다.

그 좋은 예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한 가지를 들면 만덕의 인기가 가장 높았던 어느 해의 일이다.

이 때 제주에 탐욕과 호색의 목사가 부임되어 왔다.

그는 지방민으로부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기회 저런 기회를 이용하여 구하기 어려운 우황(牛黃)을 비롯하여 귀중한 각종 약재와 진주와 준마(駿馬)들을 슬금슬금 거두어들여 그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일방, 탐라의 명기 만덕도 정복하여 자기 손아귀에 넣어보려고 흥계를 세웠다. 그래서 그는 심복 부하를 시켜 만덕에게 수청들도록 꾀여 달래게 하고, 만일 불응할 때는 이리이리 해서라도 기어코 그를 동헌(東軒)으로 데려오라고 일러 보내었다.

목사로부터 수청들라는 전갈을 받은 만덕은 그대로는 도저히 거절하지 못하리라 짐작하고 어떤 꾀를 생각한 후, 데리러 온 자를 따라 동헌 안 목사 거실에 이르자 목사는 만년 즉시 호색에 찬 너털웃음으로 만덕을 반가히 맞아 들였다.

만덕은 이미 어떤 계교를 생각하고 들어온 것이므로 술자리가 끝난 후, 목사의 요구대로 비위를 맞추어 섬섬 옥수로 주무르기도 하면서 기분을 좋게 하니 목사는 눈을 지긋이 감고 비스듬히 드러누워 흐뭇한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목사는 심중에서 생각하기를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만덕은 비록 기생이나 그녀의 행동이나 태도는 정절부인이나 다름없는 깔끔하고 얌전한 여인이므로 누구라도 함부로 그녀에게 접근하여 깊은 정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그렇다는 미기(美妓) 만덕이가 자기 곁에 앉아 있고 동현에도 밤이 깊어 인적이 고요해졌으니, 만덕이도 이제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의기가 양양하고 만족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애욕과 정욕에 사로잡힌 목사는 만덕의 손과 몸을 이리저리 어루만지면서 할말 못할 말과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정답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목사는 웬일인지 만덕이에게 비천한 기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도리어 인품이 고상한 현부인과 같은 용모와 체취를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안에 정욕에 불타는 목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점점 심각한 경지로 이끌어 들이려고 하였다. 이런 눈치를 챈 만덕은 목사 곁으로 쭉 들어앉아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고 우아한 말씨로

“사또님은 선대감(목사의 선친을 존칭함)과 얼굴이 꼭 닮으시네. 입이랑 코랑, 어찌면 그리도 닮으실까.” 하고 슬그머니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런즉 이 말을 들은 목사는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몸을 일으켜 앉으면서 만덕을 향하여 나지막한 소리로 묻기를

“그래 네가 우리 선친을 어떻게 해서 잘 안단 말이나?”고 반문하였다. 그런즉 만덕은 거짓 조심스럽게 부끄러운 듯한 태도로 대답하기를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어제밤 꿈에 선대감님을 뵈었는데, 그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고을 목사 아무개의 아비다.” 하시면서 소녀를 극진히 애무해주셨습니다…….”

하고는 고개를 조금 숙이고 말을 마치지 아니하니, 묵사는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 궁금하다는 듯이 “왜 꿈꾼 이야기를 계속하지 아니하느냐?”고 독촉하였다. 그런즉 만덕이 말하기를 “비록 꿈이라 하지마는 여쭙기에는 너무 죄송스런 말씀이 되어서 그리하옵니다.”고 하였다. 묵사는 이 말을 듣고 더욱 궁금히 생각되어 독촉하여 말하기를 “무슨 일이 길래 그러느냐. 어서 이야기를 끝까지 일러보아라.”

고 하였다. 이에 만덕은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표정을 거짓 지으면서 머뭇거리는 척 하다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때 소녀를 희롱하셔서 그만 관계를 맺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깨고 보니 남가 일몽으로 너무도 망칙한 꿈이 아니겠어요. 이제 사또님을 뵈오니 꿈꾸었던 생각이 나면서 선대감님 얼굴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라 황송하고 부끄럽기만 하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묵사는 점잖은 체면에 아무리 꿈이었다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다는 여인과 어찌 수작할 수가 있겠니 하고, 단념하여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려서 이야기 하다가 만덕을 그대로 돌려보내었다고 한다. (장우철편 진선미 참조)

만덕은 기생의 몸이면서도 것처럼 피하기 어려운 장소와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임기응변의 기지를 요령 있고 멋지게 발휘하여, 그의 정절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로만 보더라도 그가 몸가짐을 얼마나 조심스러이 하는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이렇듯 기묘하고 그럴싸한 기지를 구사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두뇌가 명석하고 지혜가 백출하는 지자(智者)였던 점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만덕은 탐라 일경에서는 제일 가는 명기가 되어 기생으로서는 만족하리만큼 좋은 위치에 처해 있었으나, 그가 차차 나이가 들어 자기 스스로 사리를 판단할 만큼 생각하기를 기생이란 양가집 딸이 하는 짓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천한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확실히 양가에서 태어난 몸인데 어찌다가 기생이 되어 버렸으니, 나로 인하여 가문이 욕되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에 면목이 없으며, 혁혁했던 조상의 이름을 더럽혔으니, 차라리 나 같은 인간은 목숨을 끊어 속죄해도 시원치 않다면서 늘 고민 속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 이런 번민 속에 쌓여 있는 그는 “죽어서는 아니된다…….”고 다시 생각하였다.

가문을 더럽힌 죄를 씻으려면 살아서 무엇이든 보람 있는 일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돌렸다. 그래서 기생 만덕은 화류계에서의 방탕과 사치와 허영 등 퇴폐적인 생활에서 하루 바삐 벗어나, 자기가 장래 나갈 좌표(座標)를 정하여야 하겠다고 결심하여 분연히 일어섰다.

그래서 그는 우선 자기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절차상 관청에 비치된 기적(妓籍)에서 자기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양녀(良女)로 복귀

만덕은 결심한 바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느 날 관청에 나가서 자기를 기생 명부에서 해제하여 친가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러자, 관에서는 깜짝 놀라 생각하기를 만덕은 이름 있는 일류기생으로 그 지위와 생활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을 터인데 이게 별안간 은퇴와 제적을 원하니 이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일이라 하여 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만덕은 초지(初志)를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교섭했으나 역시 허가해 주지 아니하므로 세 번째는 직접 판관과 목사 앞에서 다음과 같이 눈물로 호소하였다.

“소녀는 본시 양가 출생이온데 조실부모하여 부득이 기생집에 의탁한 바가 되었다가 그 집 수양딸이 되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장성함에

기안(妓案)에 기재되어 버렸으므로 현재 기억(妓役)에 종사하는 몸이 되어 있사오나, 양가집 딸이 기생노릇 한다는 것이 불가한 일이며 또 이런 생활을 오래 계속하다가는 저의 장래가 암담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기적에서 해제하여 다시 양녀(良女)로 회복시켜 주시면 집에 돌아가 힘껏 노력하여 친가를 재흥시키고, 또 남은 힘이 있으면 곤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다하고자 하오니, 비록 미천한 계집아이의 보잘 것 없는 소망이오나 사또님께서 이 소원(訴願)을 통촉하시와 다시 양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하해 같이 넓으신 은혜 결초보은 하오리다.” 하고 간곡히 애원하였다.

당시 목사는 신광익(申光翼)이요, 판관은 한유추(韓有樞)인 듯하며 만덕이 나이는二三,四세요, 시대는 영조三七,八년경인 듯하다.

이 불우한 젊은 여인이 걸어온 딱한 사정을 들어보고 친가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기특한 정신과 굳은 결심을 살핀 목사와 판관은 만덕을 일면 위로하고 일면 기특하다고 칭찬하면서 그의 소원대로 기적에서 기명을 삭제한 후, 다시 양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이리하여 소원이 이루어진 김만덕 여인은 본의 아니면서도 七,八년 동안 몸담아 왔던 교방(敎坊)을 떠나 자기 친가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가 소녀시절에 집을 나온 후, 약 十二年만에 3남매가 서로 만나 한 집에 모여 살게 되었던 것이다.

식산(殖産)에 전력

만덕은 일반 부녀자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시달려 왔으므로 그만큼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많게 되었고, 또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도 많으므로 충분히 자활할 수 있는 자신이 섰다.

그래서 우선 생각한 것은 자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자기가 본의 아닌 기생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오라비 형제가 남의 집 사동으로 전전하면서 고생살이를 하여야 한 것이 모두 우리 집이 가난한 때문이었으니, 나는 우리 집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다소라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서 친가를 재흥시키기로 노력하고, 그 다음은 내 지방을 위하여 또는 고난에 허덕이는 모든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이나 보람 있는 일을 해보겠다는 것이 젊은 만덕여인의 이상이요, 포부였던 것이다.

그는 이 포부를 실천하기 위하여 약간 모아 가지고 온 돈으로 토지와 우마를 사서 오라비 형제에게는 농사 짓고 목축하게 하고, 자신은 장사하기로 결심하여 그는 우선 자기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주막을 겸한 객주업을 시작한 듯하다.

옛적의 객주업이란 여객들에게 숙식의 편의도 보아주고 물건의 매매 알선도 해 주는 곳이다. 그러므로 특히 객지 상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상업기구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일류 기생이었던 김만덕이 객주업을 경영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한량 패와 관리들이 이 집에 드나들고 삼읍 상인과 육지 상인들도 대부분이 이 집에 투숙하므로 개점 초부터 성황을 이루었고 투숙한 상인들 간에는 서로 상거래로 성립되게 되므로 상인들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한 객주집이 되었다.

만덕은 이런 영업을 하고 있기 까닭에, 도 내외의 많은 상인들도 알게 되었고 물자의 유통경로와 교역에 대한 상식도 자연히 얻어 알게 되었다.

그는 또 기생 시절의 경험과 견문에서 관청 용품, 관리 집안의 일용품 등을 비롯하여 기녀들의 의복감과 장신구와 화장품 등 특수인들이 쓰는 상품도 잘 알고 있었으며, 또 그들의 기호품과 수요 관계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런 물건들을 투숙 손님인 육상(陸商)들에게 부탁하여 사오고 육

상들이 구하는 제주토산물들도 수집해 주는 것이었다. 더구나 퇴기(退妓)요, 독신인 만덕이 객주업을 하고 있어서 객상들이 허물없이 이 집에 출입할 수 있어서, 그들은 마치 자기 가정과 같은 친밀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손님 접대에 있어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예절과 친절을 다하므로, 육상들이 제주에 들어오면 의례히 이 객주집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내외 상인들이 번번히 출입하게 된 것이 영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어 처음에 초라하게 시작했던 만덕의 영업은 불과 수년만에 유수의 객주업으로 발전하게 되어, 이제는 도내의 상인들에게 물자의 알선과 매매와 위탁 등 사업도 경영하므로, 상인으로서 당당한 지보(地歩)를 확보하게 되어 더욱 번영해 나갔다.

이러하여 자본도 점차 축적되었으므로 사업을 확장하여, 시기에 따라 미역과 마른 전복과 말총, 양태 등 제주 특산물을 수집하여 이를 강경리(江景里)와 기타 지방에 해운(海運)하여 판매하고 귀로선편에는 일용 잡화와 백미와 잡곡 등도 사다가 팔았는데, 특히 백미와 잡곡은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물물교환으로 방매하여 이익을 보아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덕은 나중에 육지 본토 지방과 직접 교역하는 거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만덕은 자신이 직접 육지에 왕래했던 것은 아니었으니, 그 이유는 당시 탐라 부녀자는 도외에 나가는 것 출육이 국법으로 엄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덕은 상인으로서도 기초가 확고히 되었고, 자금도 충분히 있었으므로 사업경영에 있어서 투기적인 행위는 일체 이를 배제하고 건실하고 안전한 방법에 늘 유의했던 것이니 토산물이나 육지 산품을 막론하고 물건이 흔하여 가격이 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염가로 사두었다가 품귀하거나 시세가 오르게 되면 고가로 팔아 이득을 보는 것이다.

만덕이 이처럼 사업에 성공하여 거상이 되고 축재도 많이 하였으나, 그의 일상생활은 검소하여 화려한 의복이나 진미의 음식을 삼가고, 주택과 거실도 평범하게 꾸며 쓰며 언제나 근면과 절검(節儉)을 미덕으로 삼아 조금도 교만한 태도가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범적인 여인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이다.

앞에 말한 바와 같이, 만덕은 집에 돌아 온 이래 一〇여 년간을 불철주야하고 식산에 전념했으므로 一〇수년 후인 사십 대에는 사업 기초가 확립되었고, 오십 대에는 육지 본토지방의 부자들과도 견줄 만한 대부호가 되었다.

일개 독신 여성인 만덕은 순전히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일세의 여류 재산가(財産家)가 되었던 것이다.

그가 이처럼 크게 성공하게 된 것은 그에게 천품적(天稟的)인 사업가적 자질도 있었거니와, 그는 특히 근면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온 데도 있었던 것이므로 만인이 크게 본받아야 할 것이며, 당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없었고 또 무능력했던 시대인 만큼 여성의 능력이 과시된 표본이었으며, 더구나 자립활력이 강하다는 평이 있는 탐라여인의 대표적인 실례였던 것이니 또한 제주여성의 자랑이기도 하였다.

정조(正祖) 시대의 흉년 상황

제주도는 풍다석다한 절도로 토지가 척박하고 풍해와 조풍해(潮風害)가 많으며, 때에 따라 한해(旱害)도 심한 땅이므로 농작이 실패되어 흉년이 자주 일어나기 까닭에, 제주 거민(居民)들은 언제나 결핍한 식량 사정 하에서 허덕여야 했다.

최근세에 와서는 거금(距今) 칠팔십년 전에 일본 나가사끼현 지방의 어민들에 의해 고구마가 본도에 전래했고, 그 재배방법을 제주풍토에 적용하므로 구황(救荒)식물로 크게 이용되어 기근 사정이 이로 말미암아 다소 완화되었던 것이나, 옛적에는 식량은 단지 곡물에 한해 있었으므로 흉년만 들면 이 선도민들은 굶주려 죽는 일이 허다했던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흉작에는 제주도민의 기근을 구제하기 위하여 온갖 힘을 기울여 왔고, 특히 제주 기근 구제를 위하여 나리포곡(羅里鋪穀)을 설치하여 흉년에 대비해 오기도 하였으나, 육지 본토에서 절해 고도인 제주에 다량의 구호곡을 제때에 맞추어 해상으로 수송한다는 것은 당시의 해운 사정으로 보아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큰 흉년이 들었다면 많은 주민들이 기사(飢死)를 면치 못했던 것이 옛적 제주도민들이 당하여야 하는 슬픈 현실이었다.

이제 정조 一六년서부터 동 一九년까지四년간 흉년이 계속되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은 일을 정사(正史)와 야사(野史)를 통하여 알아보고, 아울러 김만덕의 기민 구제사업과 그 공적을 적어 본다.

정조 실록 一七年 정월조에 의하면 정조 一六년에 제주에서 추곡이 크게 흉작되어 이 해 겨울에 기근이 일어났으므로 관에서 구호곡 二萬二千 百八二석을 풀어 동년 十二月로부터 익년 정월까지 두 달 동안 제주, 정의, 대정의 3읍 기민 육만천사백오십삼명을 구호했으며, 이 때 명월만호(明月萬戶) 고한록(高漢祿)과 목사 이철운(李喆運)과 판관 이휘록(李輝祿)과 정의현감 허식(許湜) 등이 각각 많은 양곡을 기민 구호에 희사한 일도 있었다.

이 해 정월 현재의 제주도 호수와 인구수를 알아보면 호수가 一〇七七一戶요, 인구수는 六四,五八二人이었다.

또 정조 실록 一七년 十一月조의 장령(掌令) 강봉서(姜鳳瑞, 제주 출신)의 상소문에 의하면 정조 一六년 겨울서부터 一七년 여름까지 기근에

의한 사망자수가 기천에 이르렀고, 또 一七년 八월에는 연일 태풍이 불었으므로 조풍(潮風)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대정 지방은 적지(赤地)와 다름이 없게 되었고, 제주 좌면(左面-현 조천면, 구좌면)과 우면(右面-현 애월면, 한림읍, 한경면 일부)에도 피해가 혹심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에서 2년간 흉년이 계속되어 기사자가 속출하고 민심이 또한 흉흉하므로 조정에서는 정조 一七년 十二월에 홍문관 교리 심낙수(沈樂洙)를 위유어사로 삼고 「유탐라대소민인」(諭耽羅大小民人)이라는 정조대왕의 어제윤음(御製綸音)을 가지고 제주에 보내어 삼읍민을 위유하게 하고, 논(論), 책(策), 부(賦), 시(試), 명(銘), 송(頌)에 대한 시제(試題)도 주어 도과(島科)를 설하여 유생들을 시취하고 무과(武科)도 동시에 시행하게 하였다.

제주에 온 심낙수는 정조 一八년 정월에 문무도과(文武島科)를 설하고 이 과시에 응시한 유생들의 답안을 밀봉 상송하였던 바, 우등합격자 7인을 뽑아 곧 상경하여 전시(殿試)에 응하게 하였고, 무과에서도 소정의 실기시험에 우등합격자 7인에게 곧 상경하여 회시에 응하게 하라는 왕의 회유가 있었다.

이와 같이 흉년에 도과를 설하여 문무과시를 행한 것은 제주도민의 흉흉한 민심을 위유하고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취한 것이었다.

정조 一八년 갑인에도 가을 농사가 큰 흉년이었으므로 一九년 정월에 서부터 기민구호 사무를 개설하여 5월에 이르러 마쳤는데, 그간 소요된 양곡이 이만오천구백오석이었고 제주, 정의, 대정 3읍민의 피구호자 연인원수는 칠십이만오천삼백이십구명이었다고 한다.

또 변경봉(邊景鵬, 문과급제한 대정 출신인데 현 서울지방법원판사 변정일 씨 6대조)의 수기문에 의하면, 정조 一九년 을묘(一七九五年) 八월 二七일에 큰 태풍이 제주도를 강타하였으므로 대목(大木)이 뽑혀 넘어지고 신조 가옥이 도괴되었으며, 바다에서는 무서운 파도가 일어나 비말(飛沫)

이 비처럼 날렸으므로 바람이 분지 불과 반나절에 풍해와 조풍해로 말미암아 들에 가득찼던 오곡이 삽시에 전멸되어 버려,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전야가 모두 흑색이나 황색, 또는 적색으로 변해버렸으므로 황량하기 짝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해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기사가 속출하였는데, 길가와 굴렁이에는 행여(行旅) 사망자의 시체들이 있는 참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갑작스런 태풍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전멸되어, 제주 삼읍민이 거둬 기아에 빠져 있는 사실을 변경봉이 삼읍 수령들의 완만한 공식보고에 앞질러 현지의 생생한 피해 실정을 구진하여 구호곡 2만포가 있어야 아사 직전의 삼읍민을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정에 상계한즉, 그제야 정조대왕이 비로소 제주에 대풍 피해가 컸었던 것을 알으시고 크게 마음 아파하여 긴급히 국호 양곡 만오천포를 제주에 배정 수송하게 하였다.

제주 3읍이 이처럼 급속히 구호 양곡을 배정 받게 된 것은 변경봉의 상소가 주효했던 것이라 하겠다.

또 변씨의 수기문에 의하면 기민들이 우육(牛肉)으로는 요기가 되어 주림을 면할 수 있었으나, 마육(馬肉)은 먹어도 배고픔을 느꼈고, 육산물(陸產物)을 먹으면 속이 실하나 해산물만을 먹으면 속이 허한다 하였고, 곡물을 조금씩 먹으면서 주림을 견디어 가는 사람은 살아났으나 소채를 많이 먹어서 충분한 자들은 죽더라고 하였다.

이러한 고인(古人)의 견문담은 우리들이 잘 참고해 둘 만한 일로 생각되는 것이다.

또 제주도 기근 참상에 대해, 정조 실록 二〇년 정월 우의정 윤시동(尹蓄東)의 계언조에도

“정조 一八년(갑인) 겨울에 제주 3읍의 기민수가 육만이천육백구십팔인이었는데 작년(정조 一九년) 겨울의 기구수는 사만칠천칠백삼십오명

이었으니, 일년 동안에 감축된 인구수가 만칠천구백육십삼명의 다수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는 아마도 굶주리고 병들어 죽은 기병사자들의 수가 아니겠느냐.”고 하였다.

전기한 변경봉의 문헌에도 을묘년(정조 一九年)에 제주 인구가 격감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조시대에 제주도에는 불행히도 4년간 흉년이 계속되었고 그 중에도 갑인년과 을묘년 흉년이 더욱 심하였다.

이런 대기근의 참변이 있었던 까닭인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민들 간에는 “흉년”하면 의례히 “갑인년 흉년”을 예로 들었고, 또 제주도에는 음료수도 지방에 따라서는 귀한 것이므로 물을 청하여 주지 않거나 또는 여자들간에 언쟁이 나면 “갑인년 흉년에도 먹다 남은 것은 물이 아니냐.”고 반박을 하면서 말다툼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었다. 이러한 일들로만 미루어 보아도 이 때의 기근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큰 흉년이 있을 때는 3읍 수령들이 구호곡을 정부에 요청하면 정부에서는 이 요청에 의하여 구호양곡을 보내어 기민들을 구제해주는 것이나, 당시의 제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절도에 대한 이 시무가 신속히 진행될 수가 없었을 것이며, 가령 정부에서는 구호곡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도 선박에 실어 대해를 건너서 운반해 와야 하는 것이므로 풍향과 풍파와 우천관계로 지연되는 경우도 많으며, 때로는 운곡선이 표류 유실되거나 혹은 파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곡의 도착을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 시대에는 제주도민의 기근 구제를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나리포곡창(羅里舖穀倉)이 임피(금강 연안)에서 나주에 이설되어 있는 때인데, 이 때 나주 창고에는 저장되어 있는 나리포곡이 없었다고 하니, 생각컨대, 이 때 제주에 보낸 구호곡은 연해 각읍 지방의 대동곡(大同穀)과 통영곡(統營穀) 등을

이용한 듯하다. 그러므로 운송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여 제주에 양곡 도착이 더욱 지연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구호곡(救護穀)을 기증

이 때 五七세의 재산가 여인 김만덕은 4년간 계속되어 오는 기근의 참상을 보았고, 또 주위의 친척과 친지들이 식량난에 허덕이는 실정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때그때 친근자들에게는 구호의 손길을 펴기도 하였다.

금번은 4년간 계속된 만성적인 대기근이므로 일반 민중들의 기사가 날로 늘어나기만 했고, 비록 관에서 구호곡을 나누어 줄 때도 있었으나, 양이 너무 적었을 뿐 아니라, 관곡 도착이 언제나 늦어지므로 이미 기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비참한 사실을 목격하고 있는 만덕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자기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한 위에 흉년까지 들어서 부모님과 자기를 3남매가 배고파하던 생각. 영조 四六년과 동五〇년에도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았던 기억. 또 이제 다시 미증유의 기근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사하는 것을 보게 되니, 마음이 아프고 옛적 회상이 새로워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루루 흘러 두 뺨을 적시는 것이었다.

소년시절에 기생이 되어 불우했던 내가 함정에서 벗어나와서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오로지 관인들과 이웃사람들의 덕택이며, 나의 초지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그만한 힘이라도 되어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었던 까닭에 내가 일평생을 여자 독신으로 식산에 전심해 온 것이 아니었던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소망이 이루어졌고, 제주도 중에서 나를 가리켜 부자 여인이라 하고 있다. 내게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수전노나 탐욕의 화신도 아니다. 이제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내 재산을 죽어가는 내 지방 사람들을 위하여 하루바삐 아낌없이 유효적절하게 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식산에 노력한 목적인 것이요, 또 나의 본회(本懷)이기도 하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 굶어서 죽어가는 내외 친척과 모든 이웃사람들을 나의 힘으로 속히 구제해 주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측근자들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이제 곡식을 사다가 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니, 자네들은 속히 가까운 육지 연해지방에 나가서 이 돈으로 양곡을 구입해 오라.”고 하면서 1천금(1천만원 가량)의 거금을 내 놓았다.

뜻밖에 이 중대한 사명을 위임 받은 측근자들은 운반선을 차선하여 육지로 건너가서 연해지방 여러 군현에서 양곡을 매입하여 이를 긴급히 운송시키고 또 일부 사람들은 다른 지방에까지 가서 쌀과 조를 사서 그 지방 선박으로 기일을 늦추지 않고 속히 제주에 도착시켰다. 이리하여 양곡의 매입과 운반이 순조로히 진행되어 출육한지 불과 一〇여 일에 김만덕 앞으로 양곡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며칠 간격으로 매입한 양곡 전량이 도착되었으므로 만덕은 양곡의 一〇분의 一은 내외 친척에게 분배용으로 떼어내고, 남은 一〇분의 九는 모조리 관에 납부하여 구제에 보태 쓰게 하였다.

이 때 관청에서는 구호곡 도착이 늦어져 부황난 기민들이 날로 늘어나 초조하던 차에 다량의 양곡을 회사받았으므로 목사와 판관을 비롯하여 모든 관원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이 때 목사는 이우현(李禹鉉)이요, 판관은 조경일(趙敬日)이었다.

관에서는 즉시 주성 안팎에 살고 있는 절양자들에게 기별하여 김만덕 여인이 여러분에게 나누어 달라고 기증한 양곡을 분배해 주겠으니 관정(官庭)으로 모이라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기민들이 앞을 다투어 구름 같이 모여들었다. 그런즉 관에서는 기아의 정도를 참작하여 가장 곤란한 사람에게 수량도 많이 주고, 또 우선적으로 분배해 줄 방침을 세워, 모인 군중 가운데서 우선 부황난 자들을 골라 그 죽수를 헤아려 적당한 수량의 양곡을 나누어 주고 기타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아의 완급상태를 보아 차를 두면서 공정하게 분배해 주었으므로 이 양곡에 의해 아사 직전의 사람들이 많이 구제되었다. 이리하여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 기죽과 더불어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아슬아슬한 고비에서 구제되었으므로 그 은혜를 입은 수천명의 남녀노소가 거리에 나와,

“우리들이 살아난 것은 오로지 만덕의 은덕이라”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치하하고 감사하기를 마치 아니하였다고 한다.

집안에 있으면서 환호성을 들은 만덕 여인은 일생을 통하여 가장 보람을 느끼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때는 정조 一九년(을묘) 추곡이 대흉작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기근이 일어난 이듬해 정조 二〇년 3, 4월경의 춘궁기였다. 정조 二〇년 4월에 목사 이우현은 경질되어가고 즉시 신 목사 유사모(柳師模)가 부임되어 왔는데, 조정에서는 목면 五〇〇필과 단목(丹木) 3백근도 함께 제주목사에게 보내어 진자(賑資)에 첨부하여 쓰게 하였다.

신목사는 진곡과 돈과 의복지와 약재 등으로 맥병기의 기민 구호업무를 마친 후 판관 조정일로부터 김만덕 여인이 다량의 구호곡을 육지에서 사다가 관에 기증하여 많은 기민들을 구원하게 한 사실을 보고 받았고, 또 지방 유지와 직접 혜택을 입은 사람로부터 사실을 들었으므로 목사는 김만덕의 자선심에 크게 감동하여 이 가룩한 선행을 조정에 상계하였다.

왕의 수이지은(殊異之恩)을 입음

정조대왕이 비로소 만덕여인이 기민 구호한 행실을 알으시고 매우 기특히 여겨서 목사에게 회유하기를

“만덕을 불러 그 여인의 소원을 물어보아서 난이(難易)를 막론하고 특별 실행하라.”

고 하였다. 목사는 왕의 유시대로 만덕을 불러 소원을 물은즉 그는 왕은에 황감하면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다른 소원은 없고 오직 한 가지 원이 있는데 그것은 왕경에 가서 성상이 계시는 궁궐을 우리러보고 다시 천하의 명산 금강산에 들어가서 일만이천봉이나 구경했으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고 하였다. 과연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대담하고 기발한 소원인 것으로서 이 때 여자로서 이런 착상을 한 것을 보면 만덕은 확실히 여걸(女傑)의 소질을 지닌 사람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제주 여성들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인조 초부터 출육이 일체 엄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육지인과의 인아관계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제주 여성인 만덕이 이 기회에 평생의 소원인 육지 구경이나 해보겠다는 심정인 만큼 왕궁과 금강산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과 요망이 있었음직도 한 일이다.

목사가 다시 만덕의 소원을 상계한즉, 왕이 이를 쾌허하시고 연로 각지의 관청에게 명하여 만덕 일행에게 역마다 숙식의 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만덕은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제주목 관리들에게 인솔되어 정조 二〇년 九월에 제주 바다를 건너서 육지 본토에 상륙한 후 연로 각지의 관청에서 제공하는 역마를 이용하면서 일로 서울로 향하였는데 한양에 도착된

것은 이 해 9월 중순경이었다.

만덕은 먼저 좌의정 채제공(蔡濟恭-호는 번암(樊岩))을 찾아가서 내의를 고하고 문안드리니 채상국(蔡相國)은 만덕이 서울에 도착된 사실을 임금님께 아뢰었다.

이에 정조대왕은 선혜청(宣惠廳)에 명하여 만덕 일행이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식량 일체를 공급해 주라 하였고 다시 수일 후에는 김만덕에게 내의원(內醫院)의 의녀반수(醫女班首-여의사의 수석)직을 제수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평민인 만덕으로 하여금 예궐(詣闕)할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마련해 주기 위한 임시적 조치였던 것이다. 이에 만덕은 의녀반수가 되어 예궐할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되었으므로 전례에 의하여 내합문(편전)에 들어가서 문안을 올리니 궁전이 각각 시녀를 통하여 교지(敎旨)를 전하여 가로되

“너는 일개 여자로서 의기심을 발휘하여 천백여 명의 기민을 구제하여 귀중한 생명을 건져주었으니 진실로 기특하다.”

고 하시면서 그 선행을 가상히 여기시고는 상도 후히 하사하였다.

이리하여 만덕의 소원 중 한 가지는 이루어졌고, 다음은 금강산 구경만이 남아 있었다.

이러는 동안에 그럭저럭 국추(菊秋) 9월도 이미 지나고 一〇월이 되어 겨울이 문턱에 닥쳐오고 있었으므로 금강산 유람은 부득이 명춘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만덕은 겨울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성 내외의 고적과 명승지를 두루 돌아보면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

익년 봄은 왔다. 왕이 관계 관청에 명하여 김만덕의 금강산 유람에 필요한 제반 준비와 편의를 공여하도록 하고 입산은 이 해(정조 二十一年 正事) 3월달로 정하였다.

이 때는 일기가 온화 화창하고 금강산의 충광이 더욱 아름다운 시기이므로 이 달이 금강산 탐승에는 가장 좋은 때인 까닭이었다.

그래서 만덕은 관청의 주선과 관인들의 인도에 따라 금강산에 들어가서 하늘을 떠받들 듯이 솟아 있는 높고 낮은 형형색색의 일만이천봉을 모두 바라보고 다시 골짜기에 내려가서 수정 같이 맑고 비단결 같이 고운 청류와 청담과 지축을 흔들면서 장엄하게 떨어지는 폭포들도 구경했으며 도처에 우거져 있는 향기로운 수목과 화초들도 보았는데 이 모든 경치가 속세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천하의 경승 금강산을 두루 구경한 후 안문령(鴈門嶺)을 넘고 유점을 지나 동해안의 고령을 향하여 내려갔다.

이에 앞서 만덕이 금강산 속의 사찰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들어가서 정성껏 금불(金佛)에 배례하고 공양도 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 나이 금년 五十八세인데 이 때까지 고향에서는 사찰이나 불상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생각컨대 그 이유는 숙종 때 목사 이형상(李衡祥)이 도내에 약간 남아 있던 사찰을 모조리 훼손(毀徹)하고 불상은 투해(投海)해버려 불교를 엄금하고 탄압하였는데 그 후 정조 때까지 불교가 다시 제주에 재건되지 못한 까닭이었던 듯하다.

동해변에 내려온 만덕 일행은 고성에 이르러 삼일포(三日浦)에서 선유하고 다시 통천(通川)에 가서 충석정에도 올라 거울 같이 맑고 잔잔한 동해 바다를 멀리 바라보면서 산중의 피로도 씻고 고향의 바다를 연상해 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금강산 전경과 관동 팔경을 두루 구경한 후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쉬고 있었다.

만도(滿都)의 칭송과 만덕전 저술

이 때 서울 도성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한창 꽃을 피웠다.

“제주 여인 김만덕이 비록 퇴기이나 본시는 양가 출신이라지? 그런데 그가 일생 동안 독신생활을 해 가면서 온갖 장사를 하여 큰 돈을 모아 두었다가 제주에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므로 그녀는 거액을 내놓아 육지에서 양곡을 사다가 관에 바쳐 그 많은 기민들을 구제해 주었으므로 상감님이 전해 들으시고 기특히 여기셔서 또 금강산과 관동팔경도 모두 국비로 구경시켜 주셨다고 하니 산자로서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여간 여자로서 그처럼 고맙고 장한 일을 하였으니, 응당 국가에서 포상도 있어야 할 일이겠지만, 성덕이 높으신 우리 상감님이 얼마나 감격하셨길래 그와 같은 파격적인 후대를 하셨겠나. 정말 자선심이 많고 의기심이 높은 여자로군. 우리나라 몇 백만의 여성 중에 다시 저런 여인이 나올 수 있을까? 참 희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씨의 여인일세!”

하는 소리가 이 거리 저 거리의 서민층의 입에서 나오고 사랑방 선비들의 화제거리에도 오르내리곤 하였다.

이리하여 만덕의 소문과 인기가 높아졌으므로 고관들을 비롯하여 모든 벼슬아치와 선비들과 못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만덕의 얼굴을 한 번만 보았으면 하는 것이 당시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고 한다.

그 후 만덕은 며칠 후에 내원에 들어가서 고향에 돌아갈 뜻을 밝히자 전궁(殿宮)이 모두 전별의 표로 전일과 같이 상을 하사하였다.

또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도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만덕은 자기가 체경(滯京) 중의 일이나 예궐과 금강산 구경에 대한 주선과 알선 이 모두 채상공의 노력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만덕은 노재상에 대한 감사에 마음이 더욱 깊이 느껴졌다.

그래서 만덕은 채상공에게 떠나는 인사 말씀을 드리려다가 목이 매어 울먹거리면서 말하기를,

“이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시 상공의 존안을 뵈을 기회가 없을까 하옵니다. 부디 만수무강 하옵소서.”

하고는 말도 마치지 못한 채 그만 눈물이 앞을 가리워 버렸다.

이 때 채제공의 나이가 七十八세였다.

이에 번암 채제공이 만덕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진시황과 한무제가 모두 삼신산이 우리나라에 있다 하였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한라산을 영주, 금강산을 봉래라 칭하고 있으니, 너는 탐라에 성장하여 이미 백록담 물을 먹어 보았고 이제 금강산까지 편답하였으니 삼신산 중에서 두 산은 모두 구경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너는 여자의 몸으로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명산 두 곳을 구경하였으니, 그 얼마나 기쁘고 영예로운 일이냐? 그런데 이제 귀향에 임하여 어린 여아처럼 슬퍼 우는 것은 그게 다 무엇이나.”

고 하면서 나무라고는 서재(書齋) 충간의담헌(忠肝義膽軒)에 들어가서 만덕에 대한 모든 일들을 적어서 “만덕전”이라 명명하고 웃으면서 작별 기념으로 그에게 주었다.

이 외에도 문인과 시인들도 글로 그의 선행을 칭송하였다고 한다.

현재 찬시(讚詩)와 칭송문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만덕전”은 번암집 중에 수록되어 있다.

제주 촌로(村老)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만덕이 처음 대궐에 들어가서 왕전하(王殿下)와 중궁께 배알하였을 때 정조대왕은 그의 의기심에 감동하시어 친히 만덕의 손목을 덥석 잡으시면서 칭송하시기를 마지아니 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만덕은 왕은에 크게 감동하여 임금님이 잡으셨던 손목에 찬을 감아서 일생 동안 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만덕은 이 해(정조 二十一年) 5월 하지 후에 서울을 출발하여 이 달 하순경에 제주에 귀향한 듯하다.

이 후부터는 제주에서 만덕에게 대해 애칭점 존칭으로 “만덕 할머니”라고 불렀으며 그는 독신 여성이므로 자녀가 없었고 장형(長兄)의 손 김시채(金時采)로 양손을 삼다 사후에 봉향토록 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七十四세 되는 해인 순조 十二年 임신(一八一二年) 一〇월 一二일이었고, 묘소는 구 주성 동쪽 “갑원이마루”에 있다.

김만덕 가계(家系)의 대략

이제 김만덕의 가보(家譜)와 현재 생존해 있는 동기(同氣)의 후손들을 알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만덕의 증조는 성순(性淳)·조(祖)는 영세(永世)·부(父)는 영조 때 사람으로 응열(應悅)이요, 오라버니는 만석(萬碩)이며, 조카는 성집(聲集)인데, 양손(養孫) 시채(時采)는 성집의 아들이다.

시채는 종진(鍾晉)과 종주(鍾周) 두 아들이 있었는데, 종주는 헌종 때로부터 철종 때에 걸쳐 제주영리(濟州營吏)를 지낸 사람이었다.

종진과 종주의 후손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므로 이 자손들의 내용은 아주 자세히 조사하지 못했으나, 우선 아는 대로 적어보면, 종주의 손인 고(故) 김동인(金東仁) 씨(일정시대 제주간 화객선 복목환 사무장)는 일찍 경남 김해군에 이주하였는데, 이들 균(均)과 철(哲)과 승웅(勝雄) 삼형제를 두었다. 균씨는 육군 중령으로 현재 육군 본부에 근무 중이고 승웅씨는 상공부 산하의 마산 공업 수출단지 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외에 종진의 후손 중에는 구좌면 덕천리(德泉里)에도 일부가 살고 있는데, 이 파의 인물 중에는 현재 일본 동경과 대판에서 사업을 경영

하고 있는 김재길(金才吉) 씨와 여식(麗植) 김주식 등이 있고, 덕천리와 서울에는 재흥(才興)과 연식, 우식 등이 있다.

현재 이 집안의 본관은 경주 김씨인데, 김만덕의 비문(碑文)에는 김해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본관이 변경된 유래를 조금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김해 김씨는 대별하여 혈통이 상이한 세 계통이 있다. 하나는 수로왕(首露王)의 후손인 김해 김씨(속칭 선김)요, 다음은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후인 김녕군(金寧君) 김시흥(金時興) (김녕 김씨 시조)의 후손 중의 김해 김씨(속칭 후김)파요, 또 다음 한 계통은 임진왜란 때 귀화한 일본인 사가야(沙可也)의 후손 김해 김씨인 것이다.

현재 제주 도내의 대성인 경주 김씨(속칭 가목관 김씨)는 상기한 김시흥의 후손 익화군(益和君) 김인찬(金仁贊)(이조 초 인물)의 자(子) 김검용(金儉龍)(입도조)의 후손들인데 본시의 본관은 김녕 김씨였다. 김녕과 김해는 옛적에는 오랜 유래가 있는 동명이므로 김녕 김씨 중에는 김해로 호관하는 파도 있게 되었다.(전국적인 현상)

그래서 수로왕 후손과 경순왕 후손의 두 김해 김씨 씨족들은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선김과 후김으로 구별되어 오기는 하나, 세월이 흘러가고 후손들도 많이 불어나므로 이런 정도의 구별만으로는 혼동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제주에 주거하는 김녕 김씨와 같은 입도조의 후손인 김해 김씨들만은 국왕의 윤허를 받아 현종 一二年(一八四六)년 선씨(先氏)의 본관인 경주(慶州)로 복관(復貫)하였다.

이런 역사적 관계로 미루어 보아 현재 만덕의 동기의 후손들이 경주 김씨이므로 만덕은 분명히 김녕 김씨계의 김해 김씨(후김)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씨족들은 김검용의 직계후손들이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만덕의 유덕을 추모하자

예나 지금이나 한 개인이 거액의 사재를 내놓아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자비로운 일인 줄은 알면서도 실지로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만덕 할머니와 같이 가난 속에서 지수 성공한 여인이 하물며 노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탐욕기의 노파가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대금을 선뜻 내놓아 아사 직전의 많은 인명을 구제했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드물게 보는 일이니 진실로 거룩한 정신의 발로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했기 까닭에 기아에서 생명의 구활을 받은 수많은 남녀 노소가 거리에 나와서 그 은혜를 칭송하였고, 탐라여인의 출육 금지의 국법 하에서도 국왕의 특별 윤허로 만덕을 왕경에 오게 하여 특수한 조치로서 예결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 전궁으로부터 우악한 칭예(稱譽)와 후상 하사의 은전을 받았고 또 국비로서 금강산과 관동팔경의 승경을 탐승하게 하였던 것이 아니었던가! 이뿐 아니라 一〇여 년간 재상 자리에 있는 정치가요 문장가인 채제공이 친히 만덕전을 지어 그의 공로를 천추에 전하게 하였고 대정성중(大靜城中)에 적거 중인 전참판(前參判)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도 은광연세(恩光衍世)라 친서하여 액판(額板)에 양각하고, 또 기민 구호 사실과 왕으로부터 수이지은(殊異之恩)을 받은 일들을 약기하여 동기의 증손별 되는 김종주에게 증하여 김씨가를 표창한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이 국왕의 우대와 포상과 칭송은 만덕의 감격적인 구휼정신(救恤精神)과 봉사적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찬양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사실을 들어볼 때 더구나 제주에서 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만덕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돕기 위하여 자기 일신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초월한 희생적 정신에 머리를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김만덕 전기

제주기(妓) 만덕

정 비 석

妓名은 萬德, 姓은 金氏, 英祖朝, 1739년 濟州胎生, 춤에 能했음. 愛鄉心이 강하여 濟州出身 아닌 男性은 한번도 가까이 한 일이 없었고, 理財에 밝아 巨富로서 六萬島民의 飢饉을 獨力으로 구제해 주었음.

萬德傳

이씨조선(李氏朝鮮) 시대의 최고의 관직은 「영의정(領議政)」이라는 벼슬이었다. 삼공육경(三公六卿 : 三政丞 六判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벼슬이 「영의정」이었던 것이다.

영의정이라는 벼슬을 오늘날의 관직에 견주면 무엇에 해당한다고 말해야 옳을까. 억지로 두들겨 맞추자면 국무총리(國務總理)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으리라. 그러나 권력과 세도로 보아 오늘날의 국무총리로서는 비교가 안된다.

삼권(三權)이 분립(分立)되기 이전의 일이므로 영의정이란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장(國會議長)과 대법원장(大法院長)과 국무총리의 권력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셈이니, 그 권세가 엄청나게 당당했으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 벼슬이 얼마나 높았으면 「一人之下, 萬人之上(임금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만백성의 우두머리라는 뜻)」이라고 일러왔으랴. 아무튼 인신(人臣)으로서는 최고의 권좌(權座)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그렇듯이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대감(大監)님으로서 기생의 전기(傳記)를 쓴 분이 있다. 체통을 생명처럼 존중해 오던 시절에 최고의 권좌에 앉아 계신 대감마마께서 인간 이하의 천녀(賤女)로 여겨오던 기생의 전기를 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모르면 모르되 그와 같은 일은 동서고금의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는 일일 것이다.

지금부터 2백 20여 년 전인 정조(正祖) 시대에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기생의 전기를 쓴 사람은 변암 채제공(樊巖 蔡濟恭)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전기의 주인공은 「만덕(萬德)」이라는 제주 기생이었다.

채제공은 역사적으로도 열조명현(列朝名賢)의 한 사람으로 꼽혔을 뿐 아니라 문사(文士)로서도 많은 작품을 남겨놓은 사람인데, 그의 「萬德傳」도 그 중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문학사상(文學史上)에 뚜렷이 있는 것이다.

정조시대에 비하면 현대사회는 크게 개화되었다. 그러나 개화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가령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 같은 「양반」이 기생의 전기를 썼다고 하면 세인의 빈축을 면하기가 어려우리라. 어찌면 신문, 잡지나 방송 같은 데서는 입을 모아 공격의 화살을 퍼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귀천의 차별이 뚜렷했던 봉건 시대에 영의정으로서 기생 전기를 썼으니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 점으로 따지면 현대라는 사회는 물질 문명은 크게 발달되었는지 몰라도, 정신문화면에 있어서만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아무튼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기생의 전기를 쓴 채제공이라는 사나이는 정신적으로도 그만큼 통이 크고 멋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런 인물로 하여금 전기를 쓰게 만든 제주 기생 만덕도 또한 출중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 기생 만덕의 이야기를 써보기로 하겠다.

萬德의 史蹟을 찾아서

제주 기생 「만덕」이가 일흔 넷을 일기로 세상을 하직한 것은 지금부터 1백 60여 년 전인 순조(純祖) 12년(서기 1812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제주도 사람들은 그녀를 만드시 「만덕 할머니」라는 존칭으로 부르며, 그녀가 기생이었다는 사실은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도의 토박이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녀에게 은혜를 입어온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인 것이다.

만덕이가 살아 있을 당시 제주도의 총인구는 6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 중의 어느 한 사람도 그녀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제주도 사람들로 보면 만덕이야말로 영세불망(永世不忘)의 은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녀가 기생 출신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은인에 대한 당연한 예의인지도 모른다.

나는 제주 기생 만덕의 사적을 알아보기 위해, 1976년도 저물어가는 12월 17일에 추위를 무릅쓰고 제주도로 취재여행의 길에 올랐다.

길동무는 최영해(崔映海) 씨와 그의 귀여운 두 손녀들이었다. 국민학교 일학년인 친손녀 「미아」양과 국민학교 삼학년인 외손녀 「김혜림」양의 진급 성적이 모두 일등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최영해 씨는 하도 신통하게 여겨져서, 겨울방학 동안에 제주도 구경을 시켜주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즐거운 나들이다.

나도 어차피 한번은 다녀와야 할 길이기예,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으로 덩달아 따라나선 것이었다.

나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 밖의 흰 구름을 망연히 내다보며 만덕의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삼국지(三國志)의 옛날 일화가 머리에 떠올라 혼자 고소(苦笑)를 금치 못했다.

만고의 걸작인 「三國志」에,

“죽은 제갈 공명(諸葛孔明)이 살아 있는 사마 중달(司馬仲達)을 삼십 리나 쫓겨가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는 온천하가 다 알고 있는 너무도 유명한 고사(故事)이다.

사마중달은 위(魏：曹操)나라의 모사(謨士)로서 대단한 군략가(軍略家)였건만, 촉(蜀：劉玄德)나라의 군사(軍師)인 제갈 공명의 지략(智略)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사마 중달은 촉나라와 싸우면 번번히 패배하였다.

그러다가 제갈 공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 중달은 대군을 일으켜 촉나라를 쳐들어갔었다.

그런데 제갈 공명은 자기가 죽고나면 사마 중달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자기를 살아 있는 사람처럼 허수아비를 만들어 수레 앞에 싣고 선두에 내세워 싸우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그래서 촉군은 그 유언대로 공명의 허수아비를 앞세우고 사마 중달을 맞아 싸웠더니, 사마 중달은 제갈 공명의 허수아비를 살아 있는 제갈 공명으로 알고 삼십 리나 쫓겨 달아났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내가 왜 느닷없이 그런 고사를 생각하고 쓴 웃음을 웃었느냐 하면, 지금부터 1백 60여 년 전에 죽은 제주 기생 김만덕이가, 오늘날 살아 있는 작가인 나로 하여금 수륙 수천리를 격해 있는 제주도까지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사실을 문득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어찌 고소를 아니 할 수가 있으랴.

죽은 제갈 공명이 살아 있는 사마 중달을 삼십 리나 쫓겨가게 했다는 고사와 내가 제주도로 만덕의 취재 여행을 떠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뜻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멸절하게 살아 있는 내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의 위력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점만은 일치된다고 보아야 옳지 않은가.

제주 기생 만덕은 그 점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만약 만덕이가 절세의 미인으로서 아직도 살아 있는 기생이라면 내가 아니라도 불원천리하고 찾아가는 오입장자들이 그 수 부지기리라. 쇠뿔이나 있고, 바람깨나 피우는 놈팡이들은 저마다 앞을 다투어 찾아갈지 모른다. 절구통에 치마를 휘두른 여자라도 꼬리만 치면 걸려들게 마련인 것이 사내들이고 보니, 명기 만덕이가 바다 건너 제주도에 있다고 해서 달려가지 않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러나 죽은 기생의 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제주도까지 날아간다는 것은 나 같은 부질 없는 호사가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있기 어려운 일이라.

하기는 영의정 같은 높은 양반도 체통을 돌보지 않고 「萬德傳」까지 썼으니, 시정의 한사(閑士)인 내가 만덕의 사적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까지 찾아가기로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랴.

나는 제주도로 떠나기 얼마 전에 예비 지식을 갖추기 위해, 제주민속 박물관장(濟州民俗博物館長)인 외우 진성기(秦聖麒) 형에게 만덕에 관한 사료(史料)를 구해줄 것을 편지로 부탁한 일이 있었다. 진 관장은 제주도 의 옛날 일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박물관자로서, 그 방면의 저서도 십여 권이나 가지고 있는 분이다. 지금부터 십 사오 년 전에 제주도에 왔을 때 나에게 만덕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준 분도 다른 사람이 아닌 진성기 관장이었다.

별로 녀석지 못해 보이는 가산(家産)을 모두 기울여가며 수지도 맞지 않는 「民俗博物館」을 이끌어 오고 있는 진성기 씨야말로 제주도로서는 보배 같은 존재다.

나는 나대로 만덕의 자료를 모아오기는 하면서도, 혹시나 새로운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진성기 관장은 이내 답장을 보내왔는데, 새로운 자료가 별로 없다고 하면서, 한글로 번역된 「만덕전」 한 권과 「萬德紀念事業會」의 「취지문」과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보내주셨다.

만덕전은 이미 나 자신도 가지고 있었지만, 제주도에 「만덕기념사업회」가 생겼다는 새로운 사실에는 적이 놀랐다. 제주도 인사들의 만덕에 관한 관심이 그토록 커가고 있는 줄은 전연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사실을 알고나자 나는 「名妓列傳」에서 만덕의 이야기를 적당히 얼버무렸다가는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낙 소설이란 하나를 쓰기 위해 열 개를 조사해야 하는 일도 왕왕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어차피 현지 답사는 할 생각이었지만, 제주도 인사들의 관심이 그토록 깊은 것을 알고나서는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졌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런저런 궁리에 잠겨 있는 동안에, 비행기는 어느덧 바다를 건너 제주 공항에 착륙하였다.

제주도는 일곱 번째 가보는 길인지라 공항에 내려도 별로 신기할 것은 없었다. 다만 공항 규모가 많이 확장되었고,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만은 대변에 눈을 끌었다.

게다가 전에는 없었던 야자수(椰子樹)와 종려(棕櫚)나무 같은 열대 식물을 가로수로 심어놓아서 「상하(常夏)의 나라」에 왔다는 느낌만은 제법 강렬하였다.

시내로 들어와 숙소를 정하고 민속박물관에 전화를 걸어보니, 진성기 관장은 출타하여 다음날에야 돌아온다는 대답이었다. 호사다마(好事多魔).

어쩔 수 없어 덮어놓고 「만덕기념사업회」를 찾아갔더니, 회장은 부재 중이었으나, 고원주(高元柱) 씨라는 분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내의(內意)를 말하니, 고씨는 비치되어 있는 사료(史料)를 이낌없이 제공해 주며, 만덕의 무덤을 직접 안내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다.

이것은 나중에 안 일이지만, 「만덕기념사업회」는 본디 민간 단체로 발족했으나 경제력이 미약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한 관계로, 지금은 총력 안보협의회(總力安保協議會)에서 그 사업을 도맡아가지고 사라봉(沙羅峯)이라는 경치 좋은 산에 「濟州義兵塔」과 「殉國烈士 趙鳳鎬紀念塔」과 「義女 金萬德紀念塔」 등등 20m 높이의 꼭같은 기념탑 삼기(三基)를 동시에 세우고 있는 중이었다.

높이가 20m라면 대단한 기념탑이다. 만덕은 죽은 지가 이미 1백 60여 년이나 되건만, 기생이었던 그녀를 위해 오늘날에 와서 그와 같이 거대한 탑을 세운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적선지가에는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이라던가, 한 옛날에 베풀어 놓은 적선의 여광(餘光)이 2백 년 후에 오히려 더한층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보고,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정확성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기념사업에 관한 설명을 대강 얻어듣고나서 나는 고원주 씨의 안내로 무덤을 찾아나섰다.

만덕의 무덤은 제주시의 동쪽 변두리인 건입동(健入洞 : 건들개)의 빈민촌 뒷거리에 있었다. 무덤 자체도 제법 큼지막하려니와 돌로 쌓아올린 울타리 규모도 보통 무덤보다는 훨씬 넓은 편이었다.

무덤 앞에 서 있는 묘비(墓碑)에는 「行首內醫女 金萬德之墓」라고 새겨져 있었다. 묘비만 보아서는 만덕이가 기생이었던 사실은 냄새조차 나지 않는다.

그녀가 기생 출신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어째서 묘비에는 얼토당토 않게 「行首內醫女 金萬德」이라고 새겨놓게 되었던 것일까?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본문에서 설명하기로 하겠거니와, 그녀는 많은 적선을 쌓은 덕택에 서울에 올라와 임금님을 배알하게 되었을 때 「行首內醫」라는 직함을 받았던 것이다.

나는 아직도 알뜰하게 보존되어 있는 만덕의 무덤 앞에 경건히 머리를 수그리며 그녀의 가룩한 모습을 머리 속으로 그려보았다.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거부(巨富)가 된 것도 대단한 일이었거니와, 약전 고투하여 자수성가한 사재를 모두 털어서 6만여 제주도민들을 기아에서 구출해냈다는 것은 정말 장한 일이었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속담도 있는데, 만덕은 제주도의 백성들을 혼자 구해냈으니 그 얼마나 장한 일인가.

무덤 참배가 끝나자, 나는 고원주 씨와 함께 「萬德紀念塔」을 건립 중이라는 사라봉 공사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사라봉은 제주에서 동쪽으로 2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나지막한 산이었는데, 사라봉 남쪽 기슭에서는 세 개의 기념탑을 동시에 세우느라고 토목공사가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내가 갔을 때에 때마침 제주시장이 현장에 나와 공사 감독을 진두 지휘하고 있었다.

그 공사가 완성되는 날에는 경내를 성역화(聖域化)하여 특수 관광지(特殊 觀光地)로 지정을 하게 된다니, 제주도로서는 또 하나의 명물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1억에 가깝다고 하니, 결코 작은 공사가 아니었다.

나는 제주시에서 용무를 대강 끝마치자, 다음 날은 최영해 씨 일행과 함께 서귀포(西歸浦)에 들렀다가 성산포(城山浦)의 일출봉(日出峰) 호텔에 투숙하였다.

바다에서 아침에 해 떠오르는 광경을 일출봉 산장에서 관망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날밤 천만 뜻밖에도 제주시에서 사시는 정태무(鄭太茂) 씨로부터 장거리 전화가 걸려왔다. 정태무 씨는 제주시에서 병원을 경영하시는 의사로서 나와는 친분이 두터운 분이다. 정태무 씨는 내가 만덕에 관한 소셜 자료를 구하러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의 행방을 백방으로 염탐한 끝에 성산포로 가더라는 말을 듣고 일출봉 호텔로 전화를 걸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나는 제주시로 다시 돌아와 정씨를 만났다. 정태무 씨는 만덕 기념사업회를 최초로 발기하신 분인 동시에 지금도 재정 담당 이사(財政擔當理事)직을 맡아보고 있는 분임을 처음으로 알았다. 정씨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만덕의 자료를 나에게 송두리째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덕이가 제주도민들을 구제할 때에 사용했던 맷돌이 지금 「木石苑」에 진열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곳까지 나를 안내해 주었다.

제주시에서 남쪽으로 십 리 가량 떨어져 있는 「木石苑」은 백모(白某)라는 삼십 대의 젊은 청년이 십여 년에 걸쳐 제주에서 나는 각종 수석(壽石)과 각종 고목(古木)들을 수집해 놓은 자연 동산으로서, 지금은 관광 코스에 들어 있는 명물이기도 하다. 지난해에 모 일본인이 「木石苑」에 와보고 「1億엔」을 줄테니, 수집품을 모두 자기에게 양보해 달라고 하는 것을, 백 씨는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일언지하에 거부해 버렸다는 일화까지 있는 명물이다.

나는 정태무 씨 덕택에 제주 명물인 「木石苑」도 구경하였고, 또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만덕이가 쓰던 거대한 맷돌」도 보았다.

아무튼 나는 만덕에 관한 귀한 자료를 정태무 씨에게서 얻게 된 것을 크게 감사한다.

나는 서울에 돌아온 지 두어 달 후인 지난 2월 초에 서울에서 정태무 씨를 다시 만났다. 그런데 내가 제주도에 다녀온 지 보름쯤 후에 기념사업회는 만덕의 무덤을 파헤쳐서 유골을 기념탑 속에 납골(納骨)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보면 만덕의 무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사람은 나 자신이 최후의 사람이 되어버린 셈이니, 그것도 무슨 인연이었던가.

취재 여행담은 그만하고, 이제는 만덕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자.

少女 萬德

지금부터 2백 20여 년 전인 영조(英祖) 중엽, 제주읍에서 동쪽으로 육십 리 가량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는 「동복(東福) 마을(現 舊左面 東福里)」이라는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조그마한 촌락이 있었다. 촌락이라야 20호도 채 안되는 지극히 영세한 마을이었다.

동복 마을에 바야흐로 아침 햇살이 비쳐오기 시작하는 이른 봄 어느날 아침 햇살은 아직도 완전히 퍼져 있지 않았는데, 어느새 바다에서 해초(海草)를 한 뭉대 등에 짊어지고 돌아오는 소녀가 하나 있었다. 나이는 7, 8세 가량 되었을까, 첫눈에 보아도 눈이 어글어글하게 빛나고, 용모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였다.

소녀의 이름은 김만덕(金萬德). 이 마을에서 삼대째 살아오는 김응열(金應悅)이라는 시골 선비의 이남일녀(二男一女) 중의 고명딸이었다.

동복 마을 사람들은 자고로 부지런하기 짝이 없어서, 이 마을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침이면 바다에서 해초를 한 짐씩 따오기 전에는 조반을 먹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구나가 어길 수 없는 규율처럼 되어 있어서, 조반을 먹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해초를 한 짐씩

따와야만 했던 것이다.

만덕 소녀도 그 규율에 따라 새벽같이 바다에 나가 해초를 따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버지 김응열은 그제서야 일어나 바다에 나가려고 망태를 들고 나오다가 벌써 해초를 따가지고 돌아오는 어린 딸을 보고 깜짝 놀란다.

“아니 너는 벌써 해초를 따오는 길이나?”

“벌써가 뭐예요. 아침 해가 중천에 솟아오른 걸요.”

만덕 소녀는 아버지의 게으름을 비웃듯이 상그레 웃는다.

“너는 참 부지런하기도 하구나. 바닷물이 차지 않디냐?”

“새벽물이 차기는 차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해야 할 게 아녜요”

막내 자식은 누구나 부모의 귀여움을 받게 마련이지만, 만덕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극진한데다가 얼굴이 남달리 예뻐서, 부모들은 그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도록 사랑했었다.

그처럼 사랑하는 딸이 새벽 바다에 들어가 해초를 따오느라고 손발이 새빨갳게 얼어 있는 꼴을 보자,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었다.

“애 만덕아! 너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해초를 따오지 않아도 괜찮다. 내일부터는 집에서 놀거나 하거라.”

그러나 만덕은 대번에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이었다.

“나도 남들처럼 밥을 먹고 살아가는 목숨이니까, 내가 먹는 밥값은 나 자신이 치러야 할 게 아녜요. 안 그래요, 아버지?”

“허허허, 허기는 네 말을 들어보니 그렇기는 하다. 너는 장차 뭐가 되려고 어려서부터 그처럼 부지런을 피우느냐?”

아버지 김응열은 어린 딸이 하도 기특해 너털웃음을 웃을 밖에 없었다. 생각할수록 사랑스러운 고명딸이었던 것이다.

이 날 아침 만덕은 조반을 먹고나자 마을 처녀들을 따라 들판으로 나물을 캐러 나왔다.

나이는 어려도 언니들이 하는 일을 뭐든지 따라 하려는 만덕이었다.

넓은 들에서 나물을 캐고 있노라니까, 조랑말 사오 필이 풀을 뜯어 먹으며 이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당시 제주도는 조랑말의 산지(產地)로 유명하였었는데, 들에서 방목(放牧)을 하는 까닭에 굴레도 씌우지 않은 말들이었다.

만덕은 조랑말을 보자, 별안간 눈에 광채가 빛났다.

“애들아… 우리 말 한번 타볼까?”

처녀들은 그 말을 듣고 악연히 놀란다.

“어머나, 여자가 말을 어떻게 타니?”

“머슴애들이 하는 일을 여자라고 못할 건 없잖아.”

“말을 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하려고 그러니?”

“떨어지긴 왜 떨어지니. 나는 그동안 여러 번 타본 걸.”

그 소리에는 모두들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며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게 정말이냐?”

“내가 왜 거짓말을 하니?”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데서 또 한번 타볼래?”

“그래라! 내가 말을 타보일 테니, 너희들은 구경이나 하고 있어.”

만덕은 풀밭에서 일어나 조랑말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몸을 날려 마상에 오르기와 동시에, 갈기를 움켜잡으며 발뒤축으로 말 배때기를 힘차게 걷어차는 것이었다.

말은 소스라치게 놀라 쏜살 같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만덕은 갈기를 움켜잡고 굴레도 안장도 없는 말등에 납작 엎드리더니, 인마일체(人馬一體)가 되어, 뽕얀 먼지를 일으키며 아득히 먼 곳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어머니! 저 애가 어찌면 저렇게도 말을 잘 탈까!”

나물 캐던 처녀들은 낮을 잃고 바라보다가 일제히 감탄의 소리를 올렸다. 만덕은 말과 함께 아득한 지평선 저편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가 싶더니, 거무하게 다시 눈앞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하여 몸을 날려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바람을 쐬고 나니까 기분이 상쾌한데…….”

하고 종알거리는 것이었다.

그 모양으로 소녀 만덕은 제주도의 대자연 속에서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자랐다.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만석(萬碩), 만재(萬才)의 두 오빠들도 극진히 귀여워해 주어서, 만덕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을 만큼 행복스럽게 자랐다.

그러나 행복이란 언제까지나 오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녀가 열 살 때에 김씨 문중에는 뜻하지 않았던 커다란 재앙이 닥쳐왔다. 부처님 처럼 자애롭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다.

게다가 화불단행(禍不單行)이어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애통에 잠겨 있던 아버지마저 얼마 후에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세 남매는 줄지에 사고무척(四顧無戚)한 천애의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열 살밖에 안 되는 철없는 아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절한 비운이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나버리자, 어린 고아들 만으로는 살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었다. 친척이라고는 외삼촌 하나가 있을 뿐이나, 그 역시 세 명의 고아들을 도맡아 키우기에는 살림이 너무도 군색하였다.

때마침 제주읍에서 퇴기 월중선(退妓 月中仙)이가 그 소식을 듣고 동북 마을을 찾아왔다. 만덕을 수양딸로 데려다가 기생질을 시키려고 찾아온 것이다.

외삼촌의 입장으로서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었다. 자라서는 기생이 되거나 말거나, 우선 하나라도 짐을 털어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열 네 살짜리 만석은 남의 집 머슴을 살게 하고, 외삼촌은 열 두 살짜리 만재만을 맡고, 열 살짜리 만덕 소녀는 퇴기 월중선을 따라 제주읍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세 남매가 각산분리(各散分離)로 뿔뿔이 헤어지게 되자, 두 오빠들은 어린 동생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만덕아! 너를 먼 곳으로 보내게 되었으니, 이제 헤어지면 언제나 만나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만덕은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고개를 힘차게 흔들며, 오빠들을 이렇게 위로하였다.

“헤어진다고 영영 못 만날 것은 아니니까 오빠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일년에 한 번씩 정초에는 오빠들을 반드시 찾아올 거야.”

열 살밖에 안 되는 계집아이로서는 놀랍도록 당돌한 계집이었다.

만덕은 제주읍내로 들어오자, 수양모의 계획대로 즉시 기적(妓籍)에 이름을 올리고, 그날부터 교방(敎坊)에 나가 기생 수업을 시작하였다.

무슨 일이나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극성스러운 만덕이었다. 그러기에 그녀는 노래도 남보다 뛰어나게 잘 불렀고, 사군자(西君子)도 누구보다 잘 쳤지만, 특히 춤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그녀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본디 아버지 김웅열이가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萬德」이라고 지은 데는 깊은 유래가 있었다. 그 옛날 가야국(伽倻國)이 망하자, 가야금(伽倻琴)의 창조자인 명악사 우륵(名樂師 于勒)은 신라(新羅)로 투항해 왔었다.

신라의 진흥왕(眞興王)은 음악을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에 그는 우륵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길러서 가야국의 음악을 길이 계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륵은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제자 세 명이 있었으니, 계고(階古)는 가야금에 출중하였고, 대나마 법지(大奈麻 法知)는 노래에 출중하였고, 태사 만덕(太舍 萬德)은 춤에 출중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 「萬德」하면 누구나 춤을 연상했던 것이다.

시골 선비 김응열은 그러한 고사(故事)들을 잘 알고 있는지라, 고명팔의 이름을 굳이 「萬德」이라고 지어주었는데, 우연치 않게도 만덕은 모든 기예에 능한 중에도 특히 춤에는 제주가 비상했던 것이다.

만덕은 숨씨가 그렇게도 뛰어난 까닭에 교방에 나간 지 5년도 안 되어, 이미 명기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만덕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불러, 동기로 있으면서도 모든 한량들의 총애를 독점해 왔다. 특히 그녀는 교방에서는 배우지도 않은 숨은 재주가 또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말을 잘 타는 재주였었다.

그 당시 제주도의 한량들은 기생들과 어울려 말을 달리며 사냥을 즐기는 풍습이 성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기예(技藝)가 제아무리 능하더라도 말을 탈 줄 모르는 기생은 명기의 대열에 끼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름난 기생은 으레 말을 잘 탔던 것이다.

그 무렵 제주 기생들간에 말타는 기풍이 얼마나 성행했던가는 당대의 대시인이었던 석북 신광수(石北 申光洙)의 「濟州城觀妓走馬」라는 시를 읽어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시인 신광수는 제주도에 갔다가 기생들이 말타는 광경을 보고 이렇게 노래하였다.

男裝走馬濟州娘

(제주 아가씨 사내 옷 입고 말을 달리니)

燕朝風流滿教坊

(연조의 풍류가 교방에 가득하다.)

一舉金鞭蒼海上

(바다를 향하여 채찍을 휘둘러서)
 三回春草石城傍
 (풀밭을 돌고돌아 돌담 옆에 이르네.)
 爭朝橘柚家家巷
 (아침이면 집집이 귤향기 그윽하여)
 獨步花柳處處場
 (간 곳마다 화류장의 멋도 색다르다.)
 教著峨眉北方去
 (아름다운 그 각시 북방으로 보내어)
 千金早嫁羽林郎
 (씩씩한 호반에게 시집가게 했으면.)

시인이 이와같은 노래를 부를 만큼 당시의 제주 기생들은 말을 잘 탔었다.

만덕이 기생으로서 제법 이름을 떨치게 되었던 열 다섯 살 나이는 해이른 가을의 일이었다.

제주도에서도 소문 높은 몇몇 한량들이 한라산으로 노루 사냥을 떠나게 되자, 그들은 만덕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만덕아! 너도 말을 탈 줄 알았으면 너를 꼭 데리고 가고 싶은데, 너는 말을 탈 줄 몰라서 유감천만이로구나”

그들은 만덕의 말타는 재주를 모르고 한 말이었다.

만덕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저도 사냥 구경을 가고 싶으니 꼭 데리고 가 주세요.”

“그건 안 될 말이다. 말을 못 타는 아이가 어떻게 사냥을 따라간단 말이나?”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타본 일이 있어요.”

“그래애?…… 그러나 장난삼아 한두 번 타본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사냥을 나가 노루를 발견했을 때에는 말을 비호 같이 달려 추적해야 하거든!”

“나리님들 사냥하시는 데 방해는 안 되도록 할 테니 데려가 주기만 하세요. 꼭 부탁이에요.”

귀여운 만덕이가 자꾸만 조르는 바람에, 한량들은 마지못해 그녀를 데리고 떠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작 데리고 떠나기는 하면서도 한량들은 만덕이가 낙상이나 하지 않을까 모두 불안해 하였다.

한량들과의 사냥

한라산으로 사냥을 떠나가는 일행은 한량들이 다섯 명에 기생들이 세 명. 기생들도 선머슴처럼 남장(男裝)을 하고 따라나선 것이었다.

“애 만덕아! 네가 남복으로 차리고 나서니 천하에 둘도 없는 미동(美童)이로구나.”

“아닌 게 아니라 치마 저고리를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예뻐보인다”

“이러다가는 동기 만덕이보다도 미동 만덕이에게 반해 버리겠는 걸. 하하하.”

한량들은 만덕의 남복 차림을 보고 제각기 한마디씩 놀려대었다.

그러나 정작 만덕은 일행을 보자 얼굴에 분노의 빛이 솟았다. 왜냐하면, 자기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곱 명은 모두가 한결같이 등에 궁대(弓袋)와 궁시(弓矢)를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냥을 데리고 간다면서 나한테는 왜 활과 화살을 주지 않아요?”

만덕은 마침내 노골적으로 불평을 터뜨렸다. 한량들이 웃으면서 대답한다.

“너는 말도 제대로 못 타는 주제에 활이 무슨 필요냐. 오늘은 건성으로 따라와 구경이나 하거라.”

“싫어요. 사냥꾼을 따라와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활을 주지 않으려거든 데리고 가지를 말거나, 데리고 가려거든 활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세요.”

“하하하, 네가 아주 기세가 당당하구나. 말도 제대로 못 타는 주제에 활을 어떻게 쏠겠다는 말이나?”

“말을 잘 타고 못 타는 것은 지내봐야 할 게 아녜요? 모르면 모르되 말 타는 제주만은 나리들보다 못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한량들은 한바탕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어린 것이 큰소리만은 제법 대단하구나. 소원이 그렇다면 너한테도 활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한량들은 즉석에서 여벌 활을 만덕에게 내주었다.

만덕은 남자들처럼 궁대와 궁시를 등에 짊어지고 나서야 싱그레 미소를 짓는다.

“인제 됐어요. 이래야만 나도 사냥가는 기분이 날 게 아녜요?”

일행은 소리내어 웃으면서도 만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동행하는 기생들은 당돌하기 짝없는 만덕의 언동을 은근히 비웃기조차 하였다.

그러나 정작 말을 몰아나가는 솜씨는 첫눈에 보아도 능수능란하지 않은가.

“아니, 너는 말을 몰아나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구나.”

“말에서 떨어지지 않는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왜 지금까지는 숨기고 있었니?”

“저는 별로 숨긴 것도 없어요. 말을 탈 줄 아느냐고 물으시기에, 몇 번 타보았노라고 대답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여자로서 겸양지덕이 아니겠어요?”

마상의 만덕은 넓은 풀밭을 구보로 달려가며 명랑하게 웃었다.

멀리 한라산 봉우리가 하얀 구름 속에 솟아 보인다.

사냥군 일행은 넓은 초원을 지나 깊은 숲 속으로 접어들었다. 거기서부터는 손에 손에 화살을 매워들고 일렬횡대(一列橫隊)로 흩어져서 노루를 찾으며 산으로 천천히 달려 올라갔다. 누구든지 노루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모두들 그쪽으로 몰려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붓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 명의 기생들은 한량들 사이사이에 한 명씩 끼었는데, 만덕은 그 중에서도 한복판에 끼여 있었다.

산은 오를수록 경사가 급하고, 숲이 우거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다.

험한 숲을 좌우로 갈라 헤치며 얼마를 올라가고 있노라니까, 문득 아득히 먼 곳에서,

“땃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온다. 노루가 나타났다는 신호였다.

일행은 소리나는 곳으로 일제히 달려간다. 만덕도 뒤질세라 말에 박차를 가하며 그쪽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얼마를 달려가려니까, 별안간 나무숲이 와슬렁거리더니 커다란 노루 한 마리가 쏜살같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땃다!”

만덕은 얼굴에 고함을 지르며 화살을 쏘아 갈졌다. 그러나 활을 생전 처음 쏘아보는지라 제대로 맞을 리가 없었다.

쏟살같이 달려오던 노루는 불의의 공격에 소스라치게 놀라 머리를 돌리더니, 이번에는 언덕을 나는 듯이 달려 올라간다.

만덕은 저도 모르게 노루의 뒤를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추격을 하면서 바라보니, 노루 엉덩이에는 화살 한 개가 꽂혀 있었다.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더욱 결사적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잖아도 노루라는 짐승은 앞다리가 짧아서 산을 내려올 때에는 더디지만 산을 올라갈 때에는 비호 같이 빠른 법이다. 그런데다가 몸에 화살을 맞고 결사적으로 달려 올라가는 판이니 엔간한 채주로서는 말을 타고도 쫓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만덕은 노루를 발견한 이상 놓쳐버릴 수는 없었다. 달려가면서 활을 쏘려다가는 오히려 시간이 더딜 것 같아서, 만덕은 숫제 노루를 추적만 하였다. 여기저기서 고함을 지르며 뒤쫓아 오고 있는 모양이었지만, 그런 소리는 만덕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았다.

화살 맞은 노루는 산을 맹렬히 달려 올라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나는 듯이 뛰어넘어 달린다. 만덕도 고삐를 바짝 당겨잡고 말등에 납작 엎드려 일사천리로 추적하였다. 그야말로 생사를 결하는 필사적인 도망이요, 필사적인 추적이었다. 이제는 노루를 잡는다는 생각보다도,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하는 필사적인 승부였었다.

산을 달려 올라가는 동안만은 노루와 만덕의 간격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이제는 노루도 숨이 가빠 속도가 느려졌지만 말도 혈떡거리며 빨리 달리지를 못한다.

이러다기는 노루를 놓쳐버리고 말 것 같아서 만덕은 다시 박차를 가했다.

노루는 산마루까지 올라가 잠시 달리기를 멈추며 뒤를 돌아다보다가, 사람이 아직도 쫓아오는 것을 보자 이번에는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가기 시작한다.

만덕은 다시금 박차를 가하며 산을 넘어 언덕 아래로 추격하였다.
산을 얼마쯤 내려오면 높이가 다섯 길쯤 되는 벼랑이 있다. 노루는
결사적으로 달리다가 제물에 벼랑 아래로 고꾸라져 버린다.

만덕은 정신없이 추격해 오다가 그 모양을 보자, 별안간 말고삐를
왼편으로 휩 잡아틀었다.

쏜살같이 달려 내려오던 말이 별안간 왼편으로 방향을 바꾸며 이삼십
보쯤 달려나와 걸음을 멈춘다.

말이 멈춰선 곳이 바로 벼랑 이마빼기여서, 한걸음만 더 나가면 그대
로 절벽에서 떨어져버릴 위치였다.

만덕은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자,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아차 잘못해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벼랑에 떨어져 저승에 갔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
이었다.

일행은 어디 갔는지 따라오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만덕은 말에서 내려 벼랑 아래를 굽어보았다.

벼랑에서 떨어진 노루는 풀밭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를 않는다.

만덕은 다시 말을 타고 길을 돌아, 노루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보았다.

노루는 풀밭에 쓰러진 채 눈만 깜빡일 뿐, 사람이 다가와도 움직이지
를 않는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모양이었다.

만덕은 그 광경을 보자, 별안간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다가와도 노루는 꿈쩍을 아니하고 누워 있을 뿐이다.

만덕은 노루 곁으로 오자, 엉덩이에 꽂혀 있는 화살을 뽑아주었다.
그리고 화살 자국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수건으로 닦고 문질러 주었다.

“미안하다! 내가 나 때문에 이 꼴이 되었구나.”

만덕은 소리내어 말하며 노루의 등과 목덜미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기
까지 하였다.

노루도 만덕의 자비심을 알아보았는지, 커다란 귀를 두어 번 쫓긋거리다.
만덕은 그럴수록 죄악감이 느껴져서 노루의 전신을 쓰다듬어 주었다.
얼마를 그러고 있노라니까, 일행은 그제서야 산마루에 올라왔는지,
“만덕아!”

“만덕은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치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온다.

“나 여기 있어요.”

만덕은 두 손을 입에 모아대고 산마루를 향하여 큰소리로 외쳤다.
이윽고 벼랑 아래로 내려온 일행은 살아있는 노루가 풀밭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아니, 이 노루를 네가 쏘아 잡았느냐? 살아 있는 노루가 왜 달아나지
를 않느냐?”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화살을 맞고 달아나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달아나지를 못하는가?”

다리를 만져보니 별로 부러진 데는 없어 보인다.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는데, 이 노루가 왜 달아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을까?”

일행은 누워 있는 노루를 에워싸고 신기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달아나기가 지쳐서 죽음을 각오한 때문일 거예요.”

만덕의 대답이었다.

“만덕이가 쫓아오지 않았던들 놓쳐버릴 노루였었는데, 이렇게 잡아
놓았으니 만덕의 공로가 대단하다. 달아나는 노루를 추적해서 붙잡았으
니 만덕의 말타는 재주는 정말 놀랍구나.”

그러자 한량 하나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며,

“자, 노루를 잡아 놓았으니 이제는 목을 따고 피를 빨아먹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말한다.

만덕은 그 소리를 듣자, 한량의 손에서 칼을 빼앗으며 악을 쓰듯이 외친다.

“그건 안 돼요 이 노루는 살려보내야 해요.”

일동은 그 소리를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노루를 살려보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노루를 살려주려면 사냥은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사냥을 하는 것과 죽어가는 짐승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얘기가 달라요. 이 노루를 죽여서는 안 돼요.”

“너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구나. 살아 있는 짐승을 활로 쏘아서 잡는 것과 달아나는 붙잡힌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뭐가 다르다는 말이냐?” 그러나 만덕은 그런 이론을 수궁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냥을 하느라고 쏘아 죽이는 것과 달아나다 붙잡힌 짐승을 죽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얘기가 달라요. 어쨌든 이 노루는 내가 잡은 것이니까, 누가 뭐라든 살려줄 생각이예요.”

그리고나서 만덕은 노루의 등을 다정하게 톡톡 두드려 주면서,

“죽지 않으려거든 빨리 달아나거라.”

하고 타이르듯이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노루는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이 지척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별안간 숲속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아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일순간, 일동은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살아 있는 노루가 달아나지 않고 누워 있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지만, 누워 있던 노루가 만덕의 말을 듣고 벼락같이 도망을 쳐버린 것은 더욱 신기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만덕은 노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한다.

“사냥 같은 것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만 먼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일동은 어이가 없어 하였다.

“너는 부처님 같은 소리만 하고 있구나. 사냥이 얼마나 통쾌한 오락인데 그러니.”

“부처님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락으로 살생은 하고 싶지 않아요.”

만덕이 그렇게 말하며 기어코 집에 돌아가겠노라고 우겨대는 바람에, 일행도 어쩔 수 없이 돌아와버리고 말았다.

자기 손으로 얹은 머리

동기 만덕이가 사냥을 가서 잡았던 노루를 살려 보냈다는 소문은 그날 중으로 제주 읍내에 짹 퍼졌다. 그리하여 한량들은 그날부터 만덕을 「부처님」이라는 별명으로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만덕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간에 그런 데는 조금도 개의하지 않았다.

“죽어가는 목숨을 구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에요. 나는 지금도 노루를 살려보낸 것을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하여 만덕의 이름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었다. 아니, 이름만 높아갈 뿐 아니라, 열 여섯, 열 일곱 살이 되면서부터는 얼굴도 눈부시게 아름다워져서 바람깨나 피우는 한량치고 만덕에게 탐을 내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돈푼이나 있는 한량은 저마다 만덕의 머리를 자기가 얹어주겠다고 집적거렸다.

그러나 만덕은 그들에게 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 당시 제주읍에는 이시현(李時憲)이라는 부자 한량이 있었다. 이시현은 만덕의 미모에 미쳐서,

“천 냥을 줄테니 만덕의 머리는 내가 없게 해주오.”

하고 수양모 월중선에게 교섭해 온 일이 있었다.

수양모는 크게 기뻐하며, 그 사실을 만덕에게 말했다.

그러나 만덕은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나는 아무리 기생이지만 돈에는 팔리고 싶지 않아요.”

“돈을 천 냥씩이나 준다는데 싫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천 냥이면 얼마나 많은 돈인데 그러니.”

“천 냥이 많은 돈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예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재물을 마구 써버리는 그런 탕아에게는 몸을 맡길 수 없어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떤 남자에게 머리를 없어 받겠다는 말이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거기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마세요.”

열 일곱 살 밖에 안 되는 동기치고는 당돌하기 짝이 없는 소리다.

수양모 월중선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를 데려다가 금이야 옥이야 키운 것은 노후에 덕을 보기 위해 서였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엇나가기만 하니 이래가지고서야 내 팔자가 뭐가 되느냐.”

“내가 어머니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누구 부럽지 않게 호강을 시켜드릴게요. 그 점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닌 게 아니라 수양모에 대한 만덕의 효성은 감탄할 정도로 극진하였다. 그러나 효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월중선의 노욕(老慾)이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호강을 시켜준다는 말이나?”

“돈 같은 것은 벌려고 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어머니는 나만 믿고 안심하고 계세요.”

그처럼 개성이 강한 만덕이었다.

만덕이가 열 일곱 살 나던 해 가을에 제주 목사(濟州牧使)가 새로 갈려왔다. 전에 있던 목사는 총애하는 기생이 따로 있어서 만덕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새로 부임해 온 사또는 만덕이가 첫눈에 들어서 만덕에게 수청을 들리는 분부를 내렸다.

만덕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분부였다. 기생으로서는 사또의 명령을 감히 어디라고 거역을 할 수 있으랴.

그러나 아무리 천한 몸이기로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는 몸을 제공할 수 없는 만덕이었다.

만덕은 생각다 못해 이날 밤 소복으로 하얗게 갈아입고 동헌 내당으로 들어왔다.

신임 사또는 수청 기생이 소복 단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대번에 노기가 충만했다.

“아니, 수청을 들려는 네가 해괴 망측하게 소복을 입고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요망스러운 것이냐?”

사또는 분노를 참지 못해 호통을 질렀다. 그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소복이란 남편 죽은 여자가 입는 옷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만덕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며 조용히 아뢰었다.

“소첩은 오늘밤 사또 어른을 모시고나서는 자결할 각오로 들어온 몸이옵니다. 그래서 소복을 입고 들어온 것이옵나이다.”

“너는 갈수록 해괴한 소리만 하고 있구나. 수청을 든 연후에 죽어버리겠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냐?”

“사또 전에 이런 말을 여쭙기는 매우 외람되오나, 소첩이 평소에 마음

속 깊이 품고 있던 결심을 잠깐만 들어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어서 말해 보아라.”

“소첩은 평소에 두 가지 결심을 품고 있었사옵니다. 첫째는 생을 제주에 타고 났으므로 소첩은 제주도 태생이 아닌 남성에게는 죽어도 몸을 허락하지 않을 결심이었사옵니다.”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없는 생각이로구나, 남자는 다 마찬가지로 구태여 제주도 태생이라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다는 말이냐?”

사또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만덕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한다.

“어리석은 생각일지 모르으나, 소첩은 그렇게는 생각치 아니하옵니다.”

“어째서 그렇지 않다는 말이냐.”

“초목에도 근본이 있거늘, 하물며 사람으로서 어찌 근본을 생각치 아니 할 수 있으오리까. 나뭇잎은 떨어져도 뿌리로 돌아가고, 호마(胡馬)는 울 때에도 북방을 향해 운다고 하지 아니합니까. 초목과 미물들도 그러하거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고향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오리까. 소첩이 제주 태생 남성에게만 몸을 허락하려는 근본 생각은 바로 그 점에 있사옵니다.”

“제주 태생이거나 본토(本土) 태생이거나 크게 보면 다같은 조선 사람이 아니겠느냐?”

“소첩은 위낙 소견머리가 좁아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사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크게만 생각하자면, 사람이기는 매일 반이니까 외국 사람과 결혼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매섭도록 날카로운 반론에 사또는 입을 딱 벌렸다.

사또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한다.

“이제 알고 보니, 너는 참으로 맹랑한 계집애로다. 자고로 제주도 여인

들은 생활력이 풍부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소문은 들어왔지만, 정작 와서 보니 결코 헛된 소문이 아니었구나. 너는 두 가지 결심이 있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결심은 무엇이나?”

“외람되오나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기는 했사오나, 몸이 여자로 태어났기에 일부종사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옵나이다.”

“음… 노류장화의 몸으로서는 그것도 매우 기특한 생각이로다. 오늘 밤 수청을 들고나면 그 두 가지 결심이 모두 무너져버리겠기 때문에 수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왔다는 말이나?”

“기적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소첩이 어찌 감히 사또 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사오리까. 그래서 오늘밤 사또 전의 분부를 받들고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각오로 소복을 입은 것이옵니다.”

“음… 들어보니 그 뜻이 매우 비장하구나. 나는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러 온 것이지, 사람을 죽이러 온 것은 아니다. 네 생각이 그처럼 가상하다면 내 어찌 너에게 굳이 수청을 강요하겠느냐. 네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 모조록 결심한 바를 잘 펴보도록 하거라.”

너무도 뜻밖의 관후한 분부에, 만덕은 감격의 눈물이 솟았다.

그야말로 구사(九死)에서 일생(一生)을 얻은 것과 무엇이 다르랴.

“사또 어른 감사 망극하옵나이다. 존귀하신 뜻을 받들어, 여자로서 한 평생 과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사옵나이다.”

이리하여 만덕은 사또에게 수청드는 것만은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또의 수청만은 어렵잖게 모면할 수 있었지만, 한량들의 끈질긴 유혹만은 간단히 물리쳐버릴 수가 없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날이면 날마다 별의별 감언이설을 다 부려가며 머리를 얹게 해달라고 졸라대는 데는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어떡하면 이런 곤욕을 면할 수 있을까?’

만덕은 생각다 못해 어느날은 자기 손으로 머리를 얹어버리고 말았다.

평소에는 머리를 깎아 늘였던 동기 만덕이가 어느날 머리를 엮고 나타나자 한량들은 모두 놀란다.

“아니, 네가 소문도 없이 머리를 엮었으니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너에게 머리를 엮어준 사내가 누구냐?”

“그런 것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진작부터 좋아하는 서방님이 계셨습니다.”

이리하여 수캐 같이 추근추근하게 따라다니던 한량들을 어느 정도는 물리쳐버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정작 머리를 엮고나니 그 때부터는 자기편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쉽게 느껴졌다. 그리하여 만덕은 일생을 의탁할 수 있는 남자를 남모르게 고르기 시작하였다.

돈이 많거나 지체가 높은 사람을 택하려는 것이 아니다.

순전히 인물 본위로 똑똑하고 독실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에 드는 남자 高善欽

만덕은 몇 달을 두고 남편 될 남자를 물색하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청년을 한 사람 발견하였다. 동헌에 근무하는 고선흠(高善欽)이라는 통인(通引)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통인이란 벼슬아치로서는 너무도 미미한 존재다. 그러나 고선흠은 제주 토박이로서 가문도 괜찮으려니와 인물이 매우 착실하였다. 게다가 학식도 제법 유식한 편이었다. 나이는 서른 한 살. 열 아홉 살에 장가를 들었다가 수년 전에 마누라가 죽고, 지금은 어린 딸 형제를 데리고 혼자 살아가는 홀아비였다.

그런 홀아비가 아니라면 누가 기생을 후취로 데려가 줄 것인가.

만덕은 혼자 결심을 하고나자, 어느날 아무도 모르게 고선흠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한 뒤에,

“만약 서방님께서 소첩을 고씨 가문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소첩은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기적(妓籍)에서 물러나, 고씨 가문을 위해 종신토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자기 소망을 말했다.

고선흠은 위낙 충직한 사람인지라 너무도 뜻밖의 제안에 매우 당혹하는 표정이었다. 물론 이름답기로 이름난 만덕이가 자진해서 후취로 외주겠다니 싫을 리는 없었다.

그러나 어린 딸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기생으로 있는 여자를 후취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닌가.

고선흠은 눈을 껌벅거리며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모처럼 고마운 일이지만 내집 형편으로서는 댁의 소청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소이다.”

“?...”

만덕은 눈앞이 캄캄해 오는 것만 같았다.

고선흠은 미안스러워 다시 말을 계속한다.

“보다시피 나는 살림이 무척 가난한 사람ियो. 게다가 나에게는 어미 없는 딸자식이 둘이나 있소. 댁 같은 명기가 뭐가 볼 것이 있다고 나의 가문에 들어오겠다는 것이요. 한 평생의 운명을 일시적인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피차간에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여기서 만덕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서방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소첩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서방님께 그런 말씀을 여쭙은 것은 아니옵니다. 서방님에게는 딸 형제가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서방님

께서 저를 용납해 주신다면 저는 두 아이들을 위해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어머니가 되어 주려는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고맙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요. 나는 팔자가 기박해 미누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린 자식들을 위해 숫제 혼자 살아갈 생각이라고요.”

고선흠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완강하다.

만덕은 그럴수록에 그의 인간성이 믿음직스러웠다.

만덕은 자기에게 머리를 얹어주겠다고 추근추근하게 따라다니던 수많은 한량들을 문득 연상해 보았다. 그들에게 비기면, 어미없는 자식을 위해 한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겠다는 고선흠은 얼마나 성실한 남성인가.

그러니까 고선흠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였다. 그녀가 찾고 있던 남성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만약 저를 고씨 가문에 용납해 주신다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만은 천지신명 앞에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선흠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다.

“말은 고맙소이다. 그러나 어미가 의붓어미면 친아버지도 의붓아버가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소. 나는 맥을 믿지 못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지 못해 그러는 것이요.”

만덕은 그 말에 더욱 감탄하였다.

“의붓어머니라도 친어머니 구실을 다하면 그런 걱정은 없을 것이 아니옵니까. 속는줄 아시고 저를 한번만 믿어보아 주시옵소서.”

“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다는 말이요.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우리 집은 가난하기 짝없는 집이요.”

재혼을 거절하는 이유의 하나가 가난에도 있다는 사실을 만덕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고선흠으로서는 그것도 당연한 생각인지 모른다.

높은 사람들의 총애를 받아오며 호강을 하던 기생 따위가 어찌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겠느냐 하고 걱정하는 것도 응당 있을 법한 생각이었다.

그래서 만덕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가난하기로 젊은 부부가 손을 맞잡고 꾸려나가면 무슨 일인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까. 저는 이미 그것까지 각오하고 서방님께 말씀드린 것이옵니다.”

“허허허, 보잘것 없는 사람을 위해 거기까지 생각해 주었다니 고맙기 한량없구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피차간에 좋은 것 같소이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데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서방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대변에 잘라 거절하시면 너무도 섭섭하오니, 얼마간 말미를 두고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머리를 올리고 있기는 하오나, 아직까지 동기 그대로의 몸이옵니다.”

“엣? 동기라뇨?... 동기가 머리를 없고다니는 일도 있소?”

“동기이기는 하지만, 귀찮게 따라다니는 한량들이 하도 많은 까닭에, 그들을 속이려고 거짓 머리를 없고 다니는 것이옵니다.”

“허허, 그런 일도 있는가요?”

“그것만은 믿어주십시오. 그럼, 후일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만덕은 일방적으로 후일을 기약하고 고선흠의 집을 물러나왔다.

만덕은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아도 고선흠처럼 착실한 남성이 좀처럼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를 놓쳐버리면 마음에 드는 남성을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렇다. 일단 결심한 이상 그 사람이 거절을 한다고 단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열 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고 하지 않던가. 내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줄 때까지 나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결심한 만덕은 다음날부터 하루에 한 차례씩 고선흙의 집을 찾아가 아이들의 뒷바라지와 살림살이를 직접 보살펴주기로 하였다.

어느날 고선흙의 집을 찾아가니, 때마침 고선흙은 집에 없고, 봉옥(奉玉), 봉실(奉實)의 두 딸아이만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어머니의 사랑에 굶주린 두 아이들은 만덕을 대변에 따랐다. 선물로 가지고 온 엿을 나누니, 아이들은 더욱 기뻐하였다.

만덕은 방 안과 부엌을 두루 살펴보았다. 할아버지의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부엌에는 밥그릇 세 개와 웅배기 질그릇 두어 개가 있을 뿐으로, 구석구석에는 거미줄이 첩첩이 쳐 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보니, 방 안도 역시 마찬가지다. 구석마다 빨래가 쌓여 있는데다가, 코답지근한 할아버지 냄새가 코를 찌르지 않는가.

“얘들아! 이 빨래를 누가 해주니?”

만덕은 빨래를 한군데 모으며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이따금씩 고모가 와서 해주고 가요.”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하며 연성 머리를 긁는다.

“어디 좀 보자. 너희들 머리에 이가 있는 모양이구나.”

아이들의 머리를 헤집어보다가 만덕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다. 머리에 모래알 같은 이가 득실거리고 머리카락마다 서캐가 하얗게 슬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덕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머리를 감겨서 참빗으로 이와 서캐를 모조리 훑어 내었다. 두 아이의 머리에서 나온 이가 물바가지에 하얗게 덮인다. 「할아버지집은 이가 서 말ियो, 과부집은 구슬이 서 말」이라는 속담을 이 날처럼 실감나게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다.

아이들의 이를 깨끗이 잡아주고나서, 이번에는 빨래를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샘터로 나와 빨래를 시작하였다.

아이들은 무슨 경사라도 난 듯이 빨래터까지 따라나와서,

“고모 대신에 이제부터는 언니가 빨래를 해주는거야?”

하고 묻는다.

“그럼! 이제부터 고모님 대신에 언니가 빨래를 해줄게. 너희들도 그래 줬으면 좋겠지?”

“응! 그랬음 좋겠어.”

솔직하고 천진스러워서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아이들이었다.

빨래를 말끔하게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고선흠의 집으로 다시 돌아 온 것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이었다.

그러나 고선흠은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언제쯤 돌아오시냐?”

“일찍 돌아올 때도 있고, 한밤중에 돌아올 때도 있고, …… 대중 없는 걸.”

만덕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쑥스럽게 느껴져서,

“그럼 언니는 그만 돌아가겠다. 이제 앞으로는 가끔 들를게.”

하고 이 날은 그냥 돌아와버렸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찾아가니, 이 날도 아이들만 이 집을 지키고 있다가 두 팔을 벌리고 달려나오며 반가와하였다.

“언니! 어제는 왜 안 왔어. 우리들은 언니가 올까 하고 무척 기다렸는 걸.”

“너희들이 나를 기다려주었다니 말할 수 없이 고맙구나.”

만덕은 아이들을 좌우에 하나씩 부둥켜안고 등을 두드려 주며 기뻐하였다.

“언니는 우리 아버지 몰라? 지난번에 언니가 다녀간 뒤에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언니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던 걸.”

“그래애? 아버지가 모르시면 어쩌냐. 나는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오는 걸.”

만덕은 그런 소리를 하며, 이 날도 방 안과 부엌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들의 헤어진 옷도 손수 꿰매주었다.

그 모양으로 일부러 고선흠이가 없는 틈을 타서 아이들과 놀아주기를 사오차. 그러는 동안에 집 안은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는 아이들도 친언니와 진배없이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만덕에게 이런 소리까지 하였다.

“언니도 우리집에 와서 우리랑 아버지랑 같이 살이주었으면 좋겠어.”

만덕은 그 소리를 듣자 가슴이 뭉클해 옴을 느꼈다. 아이들의 말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이 날도 진종일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해가 저물 무렵에 집으로 돌아 오다가 길가에서 고선흠을 딱 만났다.

만덕은 깜짝 놀라, 얼굴을 붉히며 발을 멈추었다.

고선흠은 만덕의 얼굴을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기만 하다가,

“난데없는 여자가 우리집에 와서 빨래를 해주고, 아이들의 옷도 꿰매 주고 한다가에 누군가 했더니, 역시 댁이었군요.”

하고 약간 나무라는 어조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서방님의 허락도 없이…….”

“그동안 우리집에 여러 차례 와서 수고를 많이 해주어서 고맙기는 하오. 그러나 나는 재취를 아니할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무엇 때문에 집에 찾아와서 그런 수고를 해주시오,”

이번에는 분명히 나무라는 어조였다.

만덕은 기생이란 이렇게까지 괘시를 받아야 하는 족속인가 싶어 눈물이 왈칵 솟았다.

“행길에서 긴 말씀 여쭙기 거북하니 잠깐 바닷가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실까요?”

만덕은 대답하듯 고선흠을 바닷가로 유인하였다.

고선흠은 말없이 바닷가로 따라나온다. 창창한 바다는 이 날도 변함없이 물결이 거칠었다.

만덕은 바위에 걸터앉아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벼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바다에 파도가 거칠 듯이 인생살이가 왜 이다지도 거치른지 모르겠습니다,”

고선흠은 무슨 말인가 싶어, 어리둥절하는 표정이었다 만덕이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서방님이 저를 맞이주시기를 꺼리시는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인에게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화류계 계집이 무슨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있으랴 싶어서, 저와 결혼하기를 꺼리시는 모양이지만, 저는 비록 화류계에 몸을 담고 있기는 하오나, 결코 허풍에 떠돌아가는 계집은 아닙니다.”

고선흠은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당황하는 빛을 보인다.

“그건 오해요. 나는 님이 화류계 여성이기 때문에 재취를 거절한 것은 아니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저와 결혼하기를 꺼리십니까?”

“지난번에도 말한 바와 같이 아이들을 위해 한평생 재취를 안 하려는 것이요. 그것만은 오해를 하지 마시오”

만덕은 고선흠이 결혼하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기생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적이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을 위해 독신으로 지내시려는 거룩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부(主婦)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글쎄…… 나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소. 그러나 의붓어

미 그들에서 자라는 불행에 비기면 홀아비 슬하에서 자라는 편이 훨씬 다행한 일이 아니겠소?”

“의붓어미도 의붓어미 나름일 것입니다. 악독한 의붓어미 그들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불행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게 악독한 여자가 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여자를 만날까봐 재혼을 아니하시는 것은 마치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글쎄…… 그럴까요?”

“서방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와, 서방님께서는 용기를 내어 저를 화류계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이 세상에서 돌도 없는 착한 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천지신명 앞에 다짐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만덕은 위낙 성질이 착하면서도 극성스러운 편인지라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토해 놓았다.

고선흠은 좀처럼 결심이 서지 않는지 심사숙고에 잠긴 채 오랫동안 말이 없다.

만덕이 다시 말을 잇는다.

“여자로 태어나서 기생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이라는 것을 서방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기생이 되기는 했지만, 남들처럼 남편을 모시고 어엿하게 살아가는 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그동안 서방님 댁에 몇 차례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보고, 여자의 참된 행복은 오로지 가정살림에 있다고 느껴져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생질을 그만두고 결혼을 할 결심입니다.”

고선흠도 수궁되는 점이 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기적에서 이름을 뽑아버리기 전에는 결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요?”
하고 묻는다.

“서방님께서 결혼해 주실 것을 응낙만 해주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류계에서 몸을 씻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응낙만 해주 시옵소서.”

“택에서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말인데, 우리집 아이들도 웬일인지 택 을 무척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아이들도 저더러 한 집에서 같이 살자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 까 오직 남아 있는 문제는 서방님의 응낙뿐이옵니다.”

고선흠은 또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긴다. 사내치고는 답답하기 짝없는 사내였다. 그러나 어진 사람이란 대개 답답한 반면에 성실한 편이다.

만덕은 그 점이 믿음직스러워서 고선흠을 골라잡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을 아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거절만 아니하 시고 다시 생각해보시겠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저는 일 년이고 이태고 기다리겠습니다.”

고선흠은 그 소리에 감동되었는지 얼굴을 힘있게 들어 만덕을 바라본다.

“택에서만 좋다면 같이 살아보기로 하지요. 기적에서 이름을 뽑아버 리고 여염집 여자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엣? 그럼 이 자리에서 응낙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만덕은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반문하였다. 그처럼 쉽게 단정을 내려 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고선흠도 그제서야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 것이지, 그런 일을 늙은 소 흥정하듯 질질 끌어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니요.”

답답한 성품이기는 하면서도, 의외에도 과단성이 있는데, 만덕은 더욱

매력을 느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혼약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저는 오늘부터 기적에서 이름을 뽑아버릴 공작을 개시하겠습니다.”

“기적에서 이름을 뽑아버리기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게요. 그러나 일 년이 걸리든 이태가 걸리든 기다리고 있을 테니 잘 힘써 보도록 하요.”

만덕은 말만 들어도 행복감에 전신이 자지러져 오는 것만 같았다. 기생 신세를 면하고 어엿한 가정 주부가 되어 보고 싶던 평생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만덕은 그날부터 고선흥을 하늘처럼 믿고, 틈이 있는 대로 집으로 찾아가 두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였다. 어미없는 아이들은 만덕을, “언니, 언니.”

하며 따라서, 이제는 언제 결혼해도 생소하지 않을 만큼 숙면이 되었다. 그러나 기생 신세를 면하는 것만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기적에서 이름을 뽑아버리자면 사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서 제주도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반드시 만덕을 만나 보고 싶어하는 까닭에 사또는 좀처럼 제적(除籍)을 허락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만덕은 그 때마다 실망은 하면서도 단념하지 않고 몇 번이고 제적 청원을 올렸다.

관가에 그와 같은 청원을 올리기를 여러 차례. 관가에서도 만덕의 정상을 매우 가공하게 여겨, 드디어 기안(妓案)에서 이름을 뽑아준다는 허락이 내렸다.

그 때의 광경을 번암 채제공(樊巖 蔡濟恭)은 「萬德傳」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만덕은 비록 머리를 숙여가며 기생 노릇은 했을망정, 자기 스스로 기생으로 자처해 본 적은 없었다. 나이 스무남은 살이 되자, 그는 울면서 자기 정경을 관가에 여러 차례 호소하였고, 관가에서도 그녀의 정상을

가궁하게 여겨, 기안에서 이름을 뽑아 양가 여자(良家女子)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 모양으로 만덕은 스무 살이 넘어서야 기생 신세를 어렵스레 면하였고, 그 때부터는 고선흠과 더불어 한평생을 화락하게 살아가려고 결혼식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행복에의 기대가 이 때처럼 부풀어 오른 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타고난 팔자는 도망을 칠 수가 없었던지,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만덕에게는 뜻하지 못했던 커다란 불행이 닥쳐왔다.

한평생의 남편으로 모시기로 철석 같이 결심했던 고선흠이가 돌림병에 걸려 하루 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렸던 것이다.

名妓 物産客主

불의의 참변을 당한 만덕은 친지가 함몰해버리는 것만 같았다.

그처럼 심혈을 기울여 쌓아올리려던 결혼생활이 하루 아침에 무참하게 파괴되어 버릴 줄은 몰랐던 것이다.

만덕은 며칠을 두고 울기만 하였다.

그러나 결혼생활도 못해 본 채 고아만 떠맡게 되었으니, 이제는 울고만 있을 형편도 못 되었다.

‘그렇다! 내 팔자가 기박해 이 꼴이 되었으니, 재혼을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라. 이제는 한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망부(亡夫)를 위해 두 아이들이나 잘 키워 나가자.’

만덕은 두 고아의 손을 부둥켜잡고 울며 그런 결심을 하였다.

일단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당장 눈앞에 다급스러운 문제가 아이들을

먹여 살릴 걱정이었다. 고선흙이나 살아 있다면 그런 걱정은 필요조차 없었던만, 그가 죽고난 지금에는 온갖 책임을 자기가 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무엇을 해먹고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할수록 눈앞이 막막하였다.

만덕은 지금 당장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이 돈이었다. 자기가 본의 아니게 기생이 된 것도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오라비 형제가 아직까지 이집 저집으로 남의 집 머슴살이로 떠돌아 다니는 것도 돈이 없기 때문이지만, 아버 없는 두 고아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나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이제부터 친정을 부흥시키고, 두 고아를 어엿하게 키워서 시집 보내기 위해서도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게 결심한 만덕은 그 날부터 두 팔을 걷고 나서서 부둣가에서 물산 객주(物産客主)집을 차리기로 하였다.

자고로 부둣가란 외지에서 많은 장사꾼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외지의 물건을 팔러오는 사람이나 제주도의 토산물을 사러오는 사람이나 장사꾼들은 으레 부둣가 객주집으로 모여들게 마련이었다. 만덕은 그 점에 착안하고 부둣가에서 물산 객주집을 벌였던 것이다.

왕년의 명기였던 만덕이가 물산객주집을 시작했다는 소문은 사흘이 채 못가 장사꾼들 사이에 쏙 퍼졌다.

그리하여 영업은 그 달부터 눈코 뜰 사이가 없도록 번창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만덕의 명성에 혹한 장사꾼들은 행여나 한코 걸릴까 하는 흑심에서 저마다 단골 객주집을 버리고 만덕이네 집으로만 모여들었기 때문이었다.

물산 객주집이란 장사꾼들을 재워주기도 하고, 밥도 지어주고, 술도 파는 곳이다. 그리고 외지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 쉽게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을 맡아서 팔아주기도 하고, 장사꾼들이 토산물을 사려고 할

때에는 앞장서서 물건을 모아주기도 하는 곳이다.

그처럼 복잡한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려면 많은 고용인이 필요하였다. 만덕은 석 달이 채 못 가 수하에 쓰고 있는 고용인이 십 여 명이나 되었고, 그 때부터는 돈이 쏟아지듯 모일 뿐만 아니라, 어엿한 도매상인 행세까지 하게 되었다.

자고로 젊은 미인에게는 유혹이 많은 법이다. 더구나 돈 많은 장사꾼들만을 상대하는 관계로, 만덕에게 대한 유혹은 어느날이고 끊길 때가 없었다.

만덕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상냥하게 웃으면서 엄연한 자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우리집에는 두 번 다시 오지 마세요. 외도를 하려거든 돈을 탐내는 창녀가 얼마든지 많은데, 왜 나 같이 먹고 살아가기에 바쁜 객주집 주인여자를 괴롭게 구세요. 나는 그런 소원을 풀어드리지 못하는 대신에 거래만은 언제든지 신용을 지켜서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사실 만덕은 손님들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신용을 지켰다. 그러기에 만덕과 몇 차례 거래를 해본 사람은 다른 객주집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지 않아서, 단골 거상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었다.

돈 모으기란 처음에 길을 트기가 어렵지, 한번 길을 터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모여들게 마련인 것이다. 돈이 돈을 모운다는 말은 그래 두고 생겨난 속담이리라.

만덕은 객주집을 시작한 지 일 년 후부터 이미 천 냥 부자가 되었다.

만덕은 처음에는 돈이 생기는 대로 장롱 바닥에 숨겨 두기만 했었다. 돈을 모으려면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푼이 생겨도 장롱 속에 넣어두고, 두 푼이 생겨도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장롱 속에 숨겨둔 돈이 천 냥 가량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설날(正初)이 보름쯤 지나간 어느날 목포에서 단골 거상 하나가 필목(匹木)과 솜(綿)과 기명(器皿)을 한 배 가득 싣고 왔다.

만덕은 그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구머니 ! 이런 물건을 가져오시려거든 세전에 가져오실 일이지, 왜 세후에 가져오셨어요. 지난 연말에는 이런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지만, 지금은 사는 사람이 없어서 값이 툭 떨어져 버렸는 걸요.”

“그러잖아도 연말 대목을 보려고 이런 물건을 가지고 떠났는데, 도중에서 풍랑을 만나 도착하기가 20일이나 늦었소이다. 2월 초에는 우리집 아이를 장가 보내기 때문에 나는 빨리 돌아가야 하겠으니, 이 물건을 속히 처분하도록 힘써 주시오.”

장사꾼의 대답이었다.

만덕은 단골 손님의 편의를 도모해 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세전에는 날개가 돋친 듯이 잘 팔리던 필목과 솜과 기명 같은 물건이 설을 쇠고나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설을 지나면서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 오는 바람에 그런 물건이 시급히 소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들의 결혼 날짜가 눈앞에 박두해 온 목포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 초조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다고 대사를 치르려면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장사꾼은 생각다 못해 만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달 말까지는 집에 돌아가야 하겠으니, 아주머니가 이 물건을 송두리째 맡고 나한테는 본전만 주시오. 이 물건을 맡아 두면 오는 겨울에는 세 갑절은 남길 수 있을 게요.”

“나 같은 것이 그 많은 물건을 맡아서 어떻게 처분합니까. 본전은 얼마나 되나요”

“내왕 부비까지 합해서 본전이 도합 일천 이백 냥이오.”

“단골 손님의 편의를 보아드리기 위해 그 물건을 제가 맡아드렸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어디 그만큼 돈이 있어야 말이죠.”

“아주머니 수중에는 돈이 얼마나 되요?”

“모두 끌어모아도 천 냥밖에 없는 걸요”

“좋습니다. 아주머니가 맡아주신다면 이백 냥은 손해를 볼 테니 천 냥에 맡아주시오” 만덕은 총재산을 털어 다량의 물건을 맡기가 겁이 덜컥 났다. 그러나 손님의 딱한 사정을 보아서 아니 맡을 수도 없었다.

만덕은 울며 겨자먹기로 마지못해 그 물건을 맡아버렸는데, 그 해 가을에 삼남 일대의 목화가 대홍작이어서 그 해 겨울에는 필목과 솜값이 다섯 배로 뛰어 올랐다. 그리하여 만덕은 일약 만냥 부자가 되었다.

충명한 만덕은 장사의 물리를 점점 깨닫게 되었다. 장사란 무슨 물건이나 비철에 혈값으로 사두었다가 당절(當節)에 가서 팔면 이문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기본 원리를 알게 된 것이었다.

게다가 만덕은 많은 장사꾼들을 상대하는 동안에 또 하나의 새로운 원리를 알아내었다.

제주도에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물건이라도 서울서는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으므로, 그런 물건을 혈값으로 사모아서 서울 장사꾼에게 넘겨주면 그 역시 몇 갑절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었다.

그 당시 제주도에서 흔해 빠진 물건이라도 본토에서는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한두 가지만이 아니었다. 말총과 미역과 마른 전복과 양태 같은 해산물도 그 중의 하나여서, 그런 물건을 사모아서 육지 장사꾼에게 넘겨주면 곱쟁이쯤 남기기는 누구의 돈을 받을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눈이 부시게 재미를 볼 수 있는 물건은 우황(牛黃)이었다. 제주도에는 소가 많아서 우황 같은 것은 어디를 가도 흔했다. 우황이란 소의 쓸개에 병으로 인해 생기는 특이 물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우황 같은 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그

우황을 서울에서는 녹용이나 인삼보다도 더 귀한 약재(藥材)로 여겼다.

그러므로 만덕은 우황을 있는 대로 사모아서 서울 장사꾼에게 몇 갑절 씩 비싸게 넘겨주었건만, 서울 장사꾼들은 그래도 감지덕지였다.

그같이 잇속 좋은 물건이 어디 우황뿐이라. 제주 특산인 모시포(毛施布)와 전복에서 나오는 진주(眞珠) 같은 보석도 서울 장사꾼들은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구하지 못해 애쓰는 물건들이었다.

만덕은 그와 같이 장사의 물리를 알고 나자, 끊임없이 물건을 사고 팔아서 재산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갔다.

그러나 만덕은 수전노(守錢奴)처럼 돈을 모으기만 했고, 쓸 줄은 모르는 여자는 아니었다. 그는 모시포와 진주를 수없이 다루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몸에 모시옷을 입어본 일이 없었고, 손에 진주 반지 하나 끼본 일이 없었다.

그토록 검소한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필요한 때에는 돈을 아낌 없이 썼다.

고선흠에게서 물려받은 두 고아를 곱게 키우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향에 있는 두 오라버니에게도 집과 농토를 사주어서 머슴살이와 총각 신세를 깨끗이 면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도 수없이 도와주었다. 빈둥빈둥 놀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피천 한 푼도 도와주지 않을 정도로 인색했지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도 힘이 부족해 가난하게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놀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만덕은 항상 그렇게 말하며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이다.

극심한 흉년

만덕이가 물산 객주집을 시작한 지 십 년이 넘었을 때에는 그녀는 이미 제주도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수만금의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것처럼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했을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안팎으로 나다니며 손님 치다꺼리에 분망하였다.

“돈을 그만큼 모았으면 이제는 방 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몸이라도 가꾸면서 편하게 지내시지 그래요.”

누가 그런 충고라도 할라치면 만덕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사람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아가야 한다오. 물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한 곳에 껴어 있기만 하면 썩어버리듯이, 사람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편히 앉아있기만 하면 반드시 병이 나는 법이오. 부지런한 사람만이 행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사실 만덕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이라도 하는 듯이 하루도 노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근면은 그녀에게 점점 많은 부(富)를 가져다 주었다.

그 때만 해도 만덕은 삼십을 갓 넘은 젊은 시절인지라, 화장이라도 잘하고 나서면 아직도 절세미인이었다. 게다가 돈까지 많아서, 그녀를 탐내는 사내들은 뒤가 끊이지 않았다.

중신 할미들이 가끔 찾아와 결혼 권고라도 할라치면, 만덕은 번번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남의 아내가 될 만큼 행복한 팔자를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오. 그러기 때문에 결혼은 애시당초 단념을 해버렸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남의 아내가 될 팔자를 타고나지 못했다뇨? 그게 무슨 말이요?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과 결혼만 하면 당장 남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소?”

그러나 만덕은 여전히 도리질을 하였다.

“내가 한평생 남편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이 팔자에 없어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이제 또 무슨 남편을 구한단 말이요. 기생 퇴물인 나를 데려가려는 사람은 필시 돈을 보고 탐을 내는 것이 분명할 텐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본들 무슨 신통한 일이 있겠소.”

“그럼 한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겠단 말이요?”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친정 오라비들도 돌봐줘야 하고, 두 딸 아이들도 남부럽지 않게 시집을 보내줘야 하고…….”

사실 만덕은 그로부터 몇 해 후에는 자기 손으로 키워오던 봉옥, 봉심의 두 고아를 어엿하게 시집을 보냈고, 재산도 군색하지 않을 만큼 나눠 주었다.

그리고 두 오라비들도 걱정없이 살아가도록 생활 기초를 튼튼하게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의 재물은 주지 않았다. 돈이란 지나치게 많으면 사람이 게을러져서 오히려 사람 자체를 버리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두 오라비와 두 고아들을 성가시킨 뒤에도 만덕은 물산 객주집만은 여전히 계속하였다. 그 때부터는 단순히 돈을 모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나마 윤택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제주도 사람들은 모두가 찢어지게 가난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해주려면 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비싸게 팔아주고, 외지에서 가져가 쓰는 일용 잡화는 헐값으로 공급해 줄 필요가 있었다. 만덕은 제 고향 동포들을 도와주려는 생각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자진해 맡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기에 만덕은 누가, 언제, 무슨 물건을 가지고 와도 제주도 사람들의 생산품은 덮어놓고 비싸게 사주었고, 외지에서 장사꾼들이 들어오는 물건은 도매금으로 넘겨받아서 주민들에게 헐값으로 나눠주었다.

오늘날로 치면 제주도민들을 위해 소비 조합 구실을 해오고 있는 셈이었다.

그로 인해 제주도민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만덕은 애시당초 그런 데는 개의치도 않았다.

‘나에게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은 내 고향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그들이 내게 물건을 팔아주지 않았거나, 내 물건을 그들이 사주지 않았던들 나는 돈을 어떻게 모았을 것인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주도 사람치고 나의 은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셈이니, 나는 그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만덕은 은혜를 갚는 방법의 하나로 땅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 농부에게는 농터를 사주어서 병작농(倂作農)을 짓게 하였고, 배가 없어 고기를 못 잡는 어부에게는 배를 사주어 동업을 하였고, 이도저도 아닌 농사꾼들에게는 소를 사주어서 새끼를 나눠갖도록 하였다. 이래저래 만덕은 제주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가면서도, 자기는 자기대로 재산이 자꾸만 불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만덕이 쉰 넷이던 정조(正祖) 14년에 제주도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이 해 12월에는 제주 3읍(濟州, 旌義, 大靜의 三邑)에 기아자(飢餓者)가 속출하게 되었다.

만덕은 각 지방의 기근 상태를 알아보려고 제주 읍내를 비롯하여 정의, 대정 두 읍을 끌고루 다녀보았다. 흉년이 심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평소에 부지런하던 사람들은 그런대로 견딜만 하였고, 끼니를 굶게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평소에 게으르던 사람들뿐이었다.

‘역시 하느님은 무심치 않으셔서, 평소에 게으르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기 위해 일부러 흉년을 가져다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만덕은 그들을 도와줄 기분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어서, 이 해 겨울에 구호곡 2만 2천여 석을 보내어 그들을 구제해 주었다.

첫해의 흉년에는 나라에서 구호곡을 보내주어 그런대로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그 이듬해인 정조 17년 계축(癸丑)년에는 한 여름에 대풍(大風)이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되어 이 해에도 제주읍을 제외한 정의, 대정 두 고을에는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 나라에서는 이 해에도 많은 구호미를 보내 기민 구제에 노력했지만, 흉년이 연달아 들고 보니 민심은 흉흉하기 짝이 없었다.

정조대왕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 해 11월에 어사를 특파하여 ‘탐라 대소민인(耽羅大小民人)’을 위무하는 ‘어제윤음(御製綸音)’을 내림과 동시에, 제주도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 과거까지 볼 수 있게 하였다.

(그 당시 조정에서는 제주도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흉년이 들거나 하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특별 과거를 보게 하는 행정 정책을 써왔던 것이다.)

그러나 흉년은 두 번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해인 갑인년(1769년)에도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 두 번 흉년으로 사람마다 피골이 상접해진 판국에, 세 번째의 흉년이 밀어닥쳤으니 이제는 너나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는 목포 연안에 있는 나리포 국고에서 구호곡을 배에 실어다가 구제해 왔지만, 이제는 나리포 창고도 바닥이 드러날 형편이었던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제주 3읍의 호수는 1만 7천 79호. 인구는 남녀 합하여 6만 4천 5백 82명인데, 남자가 2만 7천 8백 70명에 여자가 3만 6천 7백 12명. ‘女多’의 섬인지라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9천 명이나 더 많았다.

조정에서는 제주읍에 기민 구제 본부를 설치하고, 구제 사업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이듬해 5월까지 구호 양곡 2만 2천 9백 5석을 실어다 연인원 72만 5천여 명의 기민을 구제해 주었다.

그런데 이해 가을에도 4년째 흉년이 또 들어서, 백성들의 기아 상태에 비기면 관에서 공급해 주는 구호 양곡은 창해의 일속(一粟)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다 국고가 완전히 고갈되어 이제는 민간에게서 구호미를 사들이는 수밖에 없었는데, 부산 등지에서 구호미를 사서 싣고 오던 배가 설상가상으로 풍랑을 만나 행방조차 모르게 되었다.

절량 기민들은 죽지 않으려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어 먹어서 산과 들도 적토(赤土)가 되어버렸건만, 그래도 아사자는 속출하였다. 정조 19년 12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해 5월부터 12월 사이에 1만 8천여 명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으니, 그 당시의 참혹상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만덕은 그 동안에도 자기 나름대로 기민 구제에 힘을 써왔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에서조차 손을 들어버려서, 제주 거리에는 가는 곳마다 아사자의 시체가 늘비하지 않은가.

‘관에서는 우리들을 굶어 죽으라고 이대로 내버려 둘 생각인가?’

만덕은 거리에 늘비한 시체를 보자 분노심을 참지 못해 동헌으로 달려들어갔다.

동헌으로 찾아 들어오니, 마침 목사 이우현은 동헌에서 공사를 보고 있었다.

만덕은 동헌 마당에 엎드려 사또에게 큰소리로 아뢰다.

“소인, 사또 전에 급히 아뢰 말씀이 있어서 현신하였사옵나이다.”

사또는 대청 마루에 도사리고 앉아서 만덕을 굽어보았다.

“이 어지러운 판국에 여자의 몸으로 무슨 송사가 있어서 들어왔는고?”

만덕은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아뢰다.

“소인은 일찍이 이 고을에 관기로 있던 만덕이라는 계집이옵나이다. 소인이 오늘 이처럼 당돌하게 사또 전에 현신한 것은 사사로운 송사 때문이 아니오라, 실로 우리 고을 전체의 생사에 관한 일 때문이옵나이다.”

사또는 ‘만덕’이라는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직접 만나보기는 이 날이 처음이어서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오오, 네가 바로 과거의 명기 만덕이었느냐. ……우리 고을의 생사 문제를 호소하러 왔다니, 무슨 얘기인지 어서 말해 보아라.”

“사또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고을의 6만여 백성들은 연 4년간의 흉년으로 모두가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사옵나이다. 지금 제주 백성들은 누구나 끼니를 오래 굶은 까닭에 얼굴이 누렇게 부황이 나서 길을 가다가 쓰러져 죽은 자가 한가을의 낙엽처럼 흩어져 있으니, 이는 참으로 눈을 뜨고서는 바라볼 수 없는 참경이옵나이다. 우리 고을은 서울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건너 절해 고도이기는 하오나, 이 섬나라 백성들도 다같은 성상의 적자임에는 틀림이 없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목민관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계시는 사또 어른께서는 아사에 허덕이는 저희 고을 백성들을 하루 속히 구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나이다. 사또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고을에서는 1만 8천 명이라는 아사자가 났사옵고, 앞으로 반 년만 더 가면 나머지 5만여 명도 모두 죽음을 면할 길이 없사온데, 만약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 없이 굶어 죽으면 사또께서는 누구를 다스리려고 사또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겠사옵나이까. 요망스럽고 방자한 말씀 같사오나, 나라에서 기민구제를 지금과 같이 등한히 하면 몇 달 후에는 이 섬 안에서 사람의

그림자를 보기가 어렵게 될 것이옵나이다. 현명하신 사또 어른께서는 그 점을 깊이 통찰하시어 자비로우신 성상의 뜻을 높이 받들어 기민 구제에 비상한 시책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하게 앙망하옵나이다.”

만덕은 땅에 엎드려 울면서 호소하는 것이었다. 말씨만은 온화하고 공손했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전체 기아민들을 대표하여 절규하는 분노의 항변이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건만 호소하는 내용이 너무도 심각함을 깨닫자 사또는 등골에 식은땀이 쭉 흘렀다.

전재산을 내어놓다

사또 이우현은 만덕의 신랄한 항변에 형용하기 어려운 공포감조차 느꼈다. 그녀의 말은 이로(理路)가 정연한데다가 관가의 약점을 너무도 무자비하게 찢어주었기 때문이었다.

만덕이가 사또 앞에 나와 감히 모욕적인 말을 기탄없이 써부려댄 것을 보면, 그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왔음이 분명하였다.

‘에이 패썹한 계집 같으니라구…….’

사또는 일순간 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또라면 비위에 거슬리는 백성 하나쯤 죽여버리기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이다. 그러나 굶주림에 허덕이는 수만 백성들을 대표하여 항의하는 만덕을 죽여버리면 뒤가 결코 무사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사또는 만덕의 환심을 사려고 짐짓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한다.

“네가 몰라 그러지, 그동안 나라에서는 많은 구호곡을 나누어 주었고, 앞으로도 기민을 구제해 주려는 국가의 성의만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다만 흉년이 4년씩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에 나리포 창고에 저장해 두었

던 구호곡도 이제는 바닥이 드러나 버렸고, 목포, 완도, 부산 등지에서 모아오던 구호곡은 배가 풍랑을 만나 제주까지 오지를 못해서 일시 구호를 못해 주고 있을 따름이로다. 그러나 그 배들이 들어오거든 구호곡을 곧 나눠주도록 할테니 과히 걱정 말아라.”

만덕은 너무도 완만한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목포 등지에서 모아오신다는 쌀이 얼마나 되옵나이까?”

“네 척의 배가 모두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쌀이 오륙백 석은 될 것이로다.”

천 석도 못 되는 쌀을 가지고, 어떻게 오만여 명의 기민을 구제할 수 있단 말인가.

“나라의 창고가 바닥이 났다면 이제는 각지에서 돈을 주고 쌀을 사올 밖에 없사옵고, 오만여 명의 기아민을 가을까지 먹여 살리자면 아무리 줄 잡아도 이만 석의 쌀은 있어야 할 터인데, 그에 대한 재정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사옵니까?”

만덕이가 계수(計數)적으로 따지고 나오는 바람에 사또는 기가 딱 질렸다. 조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뒷받침이 없었고, 사또 자신도 별 다른 대책이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구호 사업이란 워낙 거창한 일이기 때문에 목전의 용무에 바빠서 아직 거기까지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조정에서 새로운 조치가 반드시 있을 것이로다.”

사또의 대답이 너무도 애매 모호하여 만덕은 기가 막혔다. 제주 백성 전체가 시각을 다투며 죽어가고 있는 이 판국에 오륙백 석의 구호미가 올 것만 기다리고 있다니, 그것은 마치 제주 백성들을 씨알머리도 없이 굶어 죽게 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백성이 굶어죽게 되면 구제를 해야 할 것은 나라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만덕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고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다.

만덕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해 가며 조용히 말한다.

“서울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앉아만 계시기에는 지금 우리 고을의 사정이 너무도 급박하옵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 주시려면 사또께서는 시급한 비상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할 줄로 민사옵니다.”

사또는 어안이 병병한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사정이 급한 것은 나도 모르는 바 아니로다. 그러나 돈이 없어 쌀을 구할 길이 없으니, 사또인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사또에게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음을 깨닫자, 만덕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한숨만 쉬고 있기에는 눈앞의 사태가 너무도 급박하지 않은가.

만덕은 한숨을 쉬며 동헌을 물러나왔다. 그녀는 동헌을 물러나오며, ‘관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들 모두가 꿈쩍 못하고 굶어 죽을 판이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갈 방도를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하고 비장한 각오로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 육지에서 교역 관계로 와있는 일곱 명의 선주들을 모두 자기집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장롱 속에서 수천냥의 현금을 비롯하여, 우항, 진주 같은 값진 물건들을 송두리째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과거 수십 년 동안에 여러 단골 손님들 덕택으로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 백성들은 연속적인 흉년으로 날마다 수없이 굶어 죽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주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으면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을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전재산을 내놓고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오니, 여러분께서는 이 재물을 필요한 대로 나눠가지고 가셔서, 재물에 해당하는 만큼 쌀을 구해다 주시면 고맙겠나이다. 사정

이 위낙 급박하니, 여러분께서는 나와서 평소의 교분을 생각하셔서 목포나 삼천포나 마산이나 부산 등지에서 되도록 쌀을 속히 구해다가 불쌍한 제주 백성들을 살려내게 해주소서. 나에게는 아직 소가 수백 필이 남아 있으므로 필요하시다면 소도 모두 내드릴 테니, 쌀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다 주시면 고맙겠나이다. 나의 일생 일대의 간청이니, 여러분께서는 꼭 들어주시기를 두손 모아 비읍니다.”

수십 년간 거래를 해온 단골 손님들은 만덕의 눈물겨운 호소를 듣고 크게 감동하였다.

“아주머니가 전재산을 털어 제주 백성들을 구제해 줄 생각이라면 평소 애 아주머니에게 신세를 지은 우리들인들 어찌 협력을 아끼오리까. 자제한 계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들은 아주머니가 내놓은 재물을 나눠가지고 가서 우선 구호곡을 한 배씩 실어오기로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일곱 명의 선주들은 긴급 회의를 한 결과, 구호미를 구입하려고 목포, 완도, 고흥, 여수, 통영, 마산, 부산 등지로 긴급 출동을 하였다. 옛날 사람들은 비록 장사꾼일지라도 의리가 깊었다.

외지에서 온 선주들은 만덕이가 전재산을 털어 기민들을 구제하겠다는 결심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그들 자신도 이해를 초월해 만덕을 도와 주겠다고 하였다.

쌀을 구하려고 각지로 떠나가는 배를 전송하기 위해 만덕이 부듯가로 나오자, 선주들은 제각기 그녀의 손을 움켜잡으며,

“값은 하여간에 힘자라는 데까지 먹을 것을 많이 구해 가지고 오겠소.”

하고 마치 선서라도 하듯이 굳은 결의를 보여주었다.

“보리도 좋고, 밀도 좋고, 감자도 좋으니, 돈 걱정은 마시고 먹을 것을 많이만 갖다주세요.”

만덕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배들이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몰라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그로부터 보름 후에 목포로 떠나갔던 배가 맨먼저 보리 이백 석을 싣고 돌아왔다. 만덕은 부둣가로 달려나와 돌아오는 배를 영접하며 소리내어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보리쌀을 입수하자, 제주 읍내의 관덕정 광장과 삼성혈 길목에 거대한 가마솥을 십여 개씩 걸어놓고, 거기다 죽을 쑙아서, 누구든지 굶주린 사람에게 죽을 한 그릇씩 나눠주기로 하였다.

관덕정과 삼성혈에서 죽을 나눠 준다는 소문이 퍼지자 십 리, 이십 리 밖에서도 손에 손에 그릇을 들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삽시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결사적으로 덤벼 들어서, 연약한 부녀자들은 죽을 얻어먹기는커녕 밟혀 죽을 지경이었다.

이에 만덕은 손수 몽둥이를 들고나와서, 군중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이제부터 보리죽을 한 그릇씩 나눠드릴 테니, 남자는 남자끼리, 아녀자는 아녀자끼리 도착한 순서대로 줄을 지어주세요. 쌀은 얼마든지 많아서 누구에게나 죽을 안드릴 걱정은 없으니까 빨리 줄을 서도록 하시오. 만약 줄을 서지 않고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드리지 아니하겠으니, 그런 줄 알고 빨리 행렬을 지어주세요 그것만이 죽을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도입니다.”

아우성을 치던 군중들은 만덕의 말 한 마디에 신기할 정도로 조용해지며 행렬을 짓기 시작하였다.

만덕은 너무도 수월한 순종에 형용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끼며, 다시 말했다.

“오늘 목포에서 배 한 척이 보리쌀 이백 석을 싣고 들어왔으므로 앞으로 당분간은 여러분에게 죽을 하루에 한 그릇씩만은 골고루 배급해 드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많은 사람이 골고루 나눠 먹기 위한 한 사람에게 두 그릇은 절대로 허용을 아니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

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그 사람에게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쌀은 앞으로도 마산, 부산 등지에서 속속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 알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군중들은 그 말을 듣자 제각기 만덕을 향하여 합장 배례를 하였다.

일찍이 효녀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맹인 잔치를 베푼 일이 있었다 하거니와, 만덕은 제주 읍내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관덕정과 삼성혈에서 날마다 죽잔치를 열었다. 그리하여 이백 석의 보리쌀은 열흘이 채 못가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다.

때마침 완도와 고흥 지방으로 떠나갔던 두 척의 배가 오백 석 가까운 감자와 보리쌀을 싣고 돌아왔다.

만덕은 자기 혼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구제하기가 어려움에 깨닫자, 이번에는 보리쌀 오십 석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사백여 석은 다른 고을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주도록 관가에 기탁하였다.

그리고 자기는 관덕정과 삼성혈에서 날마다 죽을 쑤어서 어린아이들에게만 나눠주기로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여수, 통영, 마산, 부산 등지로 떠나갔던 배들도 혹은 두 달 만에 혹은 석 달 만에 보리쌀을 여러 백 석씩 싣고 돌아왔다. 그리고 한 번 돌아왔던 배는 다시 떠나고 또다시 쌀을 구해 가지고 와서 제주 사람들은 그로 인해 모두가 아사를 면할 수가 있었다.

이해 정월부터 5월까지의 다섯 달 사이에 일곱 척의 배가 바다 건너에서 실어온 쌀이 무려 수천여 석. 5월 초부터는 풋보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해 봄에는 보리가 풍년이 들어서 그제서야 겨우 마음을 놓게 되었다.

그 다섯 달 동안에 만덕에게 구제를 받은 사람들은 연인원으로 무려 수 십만 명. 그러기에 제주도의 사람들은 남녀간에 서로 만나기만 하면, “만덕 할머니야말로 우리들의 생명의 은인이시다.”

하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때 만덕이가 관덕정과 삼성혈에서 보리죽을 쑤어 나눠 주었던 커다란 가마솥 한 개가 지금도 ‘木石苑’에 유물로 남아 있다.)

만덕은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느라고 전재산을 거의 다 탕진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호의 미련도 없었다.

‘내 재산으로 굶어 죽을 사람들을 구해 주었으니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으랴!’

제주도에서 그와 같이 무서운 기근을 겪고난 이듬해에 목사 이우현이 경질되어 신임 목사 유사모가 새로 부임해 왔다. 사또가 새로 부임해 오는 편에 조정에서는 무명 오백 필, 현금 사천 냥, 고추 백 근, 단목(丹木) 삼백 근을 위문품으로 보내왔다.

만덕 혼자 힘으로 구제한 막대한 물량에 비기면 조정에서 보내온 위문품은 너무도 초라했었다.

신임 사또 유사모는 임지에 내려와서 그간의 사정을 알아보고 만덕의 영웅적인 공적에 크게 감동하여, 조정에 그 사실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그 당시의 영의정은 변암 체제공이었다.

영의정 체제공은 제주 목사의 보고서를 읽어 보고 감격한 나머지 정조 대왕에게 이렇게 품하였다.

“만덕이라는 여자 혼자 힘으로 5만여 제주도민들을 아사에서 구출해 주었다 하오니, 이는 마땅히 성상께서 특별 포상을 내리셔야 할 일이 옅나이다.”

萬德의 소원

정조대왕은 만덕의 영웅적인 공적에 감탄하여 제주 목사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 유지(諭旨)를 내리셨다.

“만덕은 여자의 몸으로 5만여 제주도민들을 기아에서 구출해 주었다니, 이는 진실로 만인의 귀감이 되는 동시에 청사에 길이 빛날 선행이다. 이에 과인은 만덕의 선행을 높이 포상코자 하는 바이니, 제주 목사는 만덕을 직접 만나 그녀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아서 그 소원이 쉽고 어려움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소원대로 들어 주도록 하라.”

실로 전고에는 없는 우악(優渥)하신 유지였다.

성상의 특별 유지를 받은 제주 목사 유사모는 만덕을 동헌으로 불러들여 상감님의 관후하신 뜻을 전하면서,

“그대의 소원을 뭐든지 들어 줄테니, 그대는 주저 말고 소원을 말해 보라.”

하고 말했다.

만덕으로 보면 너무도 과분한 은총이었다. 성상의 특별 유지에 의해, 그녀는 지금 무슨 소원이든지 맘대로 이를 수 있는 형편이었다. 굶주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써버린 막대한 재물을 보상해 받아서 또다시 갑부가 될 수도 있었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달라서 여생을 땡땡거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다. 임금님의 특명이면 무슨 일인들 불가능하랴.

그러나 만덕은 사또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조용히 말했다.

“성상께서 비천한 소인에게 그와 같은 특별 유지를 내리셨다니, 소인은 오직 왕온이 망극할 따름이옵나이다. 그러나 소인이 무슨 일을 했기에 이처럼 과분한 은총을 망령되이 할 수 있으오리까? 소인은 다만 수중에 있는 재물로써 불행한 이웃들과 죽 몇 그릇을 나눠 먹었을 뿐이옵나이다. 재물을 가진 자로서 이웃 사람이 굶을 때, 죽 한 그릇쯤 나눠 먹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운데, 그런 하찮은 일로 어찌 성상의 은총을 함부로 더럽힐 수 있으오리까. 바라옵건댄 사또께서는 성상께서 소인에게 내리오신 은총을 다시 거두어 올리시도록 성상 전에 품달을 올려주시옵소서.

만덕으로서는 거짓없는 고백이었다.

그러나 성지를 받든 사또로서는 직책상 그 일을 유야무야하게 넘겨버릴 수는 없었다.

“그대의 가룩한 심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노라. 그대의 거룩했던 구제 사업이 포상을 바라는 소행이 아니었음은 본관인들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성지는 지엄하기 짝없는 것. 한번 내리신 성지는 반드시 그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법이다. 만약 그대의 말대로 성지를 휘지비지 꺾어뭉겠다가는 사또인 내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무슨 소원이라도 좋으니, 그대는 사또인 나를 위해서라도 소원을 빨리 말하도록 하라.”

듣고 보니 성지를 받든 사또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성실기도 하였다.

만덕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또를 궁지에 몰아넣지 않으려면 무언가 한 가지쯤 반드시 소망을 말해줘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만덕은 사실상 아무런 소망도 없었다. 그렇다고 기민들에게 써버린 재물을 보상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만덕은 생각다 못해 고개를 들어 사또에게 이렇게 말했다.

“소인은 사실상 아무 소망도 없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서울에 올라가 임금님이 계시는 대궐과 천하의 명산인 금강산을 한번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뿐이옵니다.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소인은 고대 죽어도 한이 없겠나이다.”

“대궐과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너무도 뜻밖의 대답에 사또는 크게 놀라며,

“그대의 소원이 그렇다면 그 뜻을 곧 성상 전에 상주하여 새로운 분부를 받들도록 하겠다.”

사또가 그 뜻을 곧 조정에 품달했더니, 보름이 채 못가 임금님으로부터 ‘그녀의 소원대로 만덕을 서울로 올려보내라’는 새로운 시달이 내려왔다.

그 당시 제주도의 여자들은 육지에는 건너가지 못하도록 국법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인조(仁祖) 7년에 제정된 국법이었다.

그러나 정조대왕은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국법조차 무시해 가면서,

“만덕을 서울로 올려보내되, 역마와 숙식과 그 밖의 모든 부비(浮費)를 관에서 제공하여 도중에 추호도 불편이 없게 해라.”

하는 특명을 내리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조 20년(1797년)인 이해 가을에 만덕은 관원들의 융숭한 접대를 받으며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 때 만덕의 나이는 오십팔 세였었다.

만덕은 서울에 올라오자 곧 영의정 채제공을 심방하였다. 영의정은 만덕의 선행을 높이 칭찬하며, 그녀의 상경을 성상에게 즉시 아뢰었다.

“오오, 만덕이가 서울에 올라왔다니 진실로 반가운 일이오. 그러면 선혜청에 명하여, 만덕이가 체경 중에는 선혜청에서 편의를 후하게 보살피주도록 하오. 과인도 만덕을 친히 만나서, 그녀의 선행을 직접 치하해 주고 싶소.”

만덕에 대한 정조대왕의 은총은 그렇듯 돈독하였다.

그러자 채제공이 말한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나 궁중 예법에는 위계가 없는 사람은 성상을 배알하지 못하게 되어 있사오니, 이 일을 어찌 했으면 좋겠나이까?”

“음… 과인은 만덕을 만나 치하의 말을 꼭 들려주고 싶은데, 예법이 그렇다면 어찌했으면 좋겠소?”

“성상께서 만덕을 기어이 만나보시려면 임시 방편으로 그녀에게 벼슬을 내리시고, 그러신 연후에 만나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꼭 만나보고 싶으니 그 일은 영상이 알아서 처리해주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영의정 채제공은 어전을 물러나오는 길로 만덕을 불렀다.

“우리 나라 궁중 예법에, 벼슬이 없는 사람은 상감님을 배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황궁하옵게도 성상께서는 그대를 꼭 만나보시고자 하시므로, 이제는 부득이 그대에게 벼슬을 내려서 만나보시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만약 벼슬을 준다면 그대는 무슨 벼슬을 원하겠는가?”

만덕은 그 말을 듣고 펄쩍 뛴 듯이 놀랐다.

“너무도 황궁하신 말씀이시웁니다. 성은이 아무리 망극하시기로 무지몽매한 하방천녀(遐方賤女)인 소인이 어찌 감히 벼슬을 바랄 수 있으오리까?”

“벼슬을 사양하겠다는 겸양지덕은 매우 가상한 일이다. 그러나 성상을 배알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나마 그런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무슨 벼슬이 좋을는지 소원대로 말을 해보아라.”

“소인이 어찌 감히 외람되게 그런 소망을 여쭙 수 있으오리까. 소인은 모든 것을 대감님의 분부대로 복종하겠나이다.”

“음…….”

영의정 채제공은 한참 동안 궁리에 잠겨 있다가,

“자고로 제주도에서는 여자 명의가 여러 사람 배출되었는데, 그대는 혹시 의술을 배워본 일은 없는가?”

라고 물었다.

영의정 채제공이 만덕에게 그와 같은 말을 물어본 데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었다. 일찌기 세종대왕 시절에 제주도 정의현에 ‘새자니(塞自尼)’라는 유명한 여자 의사가 있었다. 그녀는 의술이 방불한 중에도 특히 안질에는 천하의 명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세종대왕이 눈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으므로, 조정에서는 멀리 제주도에서 새자니를 대궐로 불러올려, 세종대왕께서 친히 치료를 받으신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안질이 깨끗이 치료되었으므로, 세종 대왕께서는 크게 기뻐하시어 새자니가 제주도로 돌아갈 때에는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에게까지 말을 하사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성종대왕 때에도 제주읍내에 ‘장덕(張德)’이라는 여자 명의가 있었다. 그녀는 무슨 병이나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뛰어난 명의였다.

그녀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귀금(貴今)’이라는 여종에게 어렸을 때부터 의술을 습득시켜서 장덕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귀금이 스승보다도 의술이 더욱 뛰어났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는 귀금에게 ‘여의관(女醫官)’이라는 벼슬을 내려 그녀의 특이한 의술을 길이 계승하게 하였다. 그런 연고로 귀금의 제자로서 ‘황을(黃乙)’이라는 여자 명의가 한 사람 생겨났다.

그와 같이 제주도의 여자 명의들은 연면하게 전통을 이어왔다. 그리고 그들의 비방은 서울 의료계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으므로 나중에는 서울의 의원들도 제주도 여의들에게서 비방을 배워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까닭에 영의정 채제공은 만덕에게 그런 말을 물어 보았던 것이다.

行首內醫女 萬德

만덕은 영의정에게 허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제주의 명의였던 황을 여사는 저의 집 이웃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분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소인이 그 분을 가끔 찾아 뵙고 의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생업이 따로 있는 까닭에 의술에 대해 깊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영의정 채제공은 그 말을 듣더니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

“깊은 관심은 없었을지 몰라도 그대와 같이 총명한 여인이 명의에게서 의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면, 비록 명의는 못됐을망정 돌팔이 의원은 될 게 아니냐. 하하하……. 그러면 성상을 배알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그대에게 ‘행수내의녀’의 직함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만덕은 ‘행수내의녀’라는 벼락 감투를 쓰고, 다음날은 대궐에 들어가 황궁하게도 대왕을 배알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만덕은 영의정을 따라 어전에 나오자, 옥좌에 앉아 계신 상감의 용안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에 이마를 조아렸다.

“상감마마, 황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성상은 용안에 미소를 띠며 만덕을 조용히 굽어보시다가,

“네가 제주에서 바다를 건너 온 만덕이라는 여인이냐?”

하고 하문하신다.

“예, 그러하옵나이다. 상감마마.”

만덕은 여전히 땅에 엎드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너는 일개 여자의 몸으로 의기를 발휘하여 제주도의 수만 기민들을 구활하였다니, 이는 실로 청사에 길이 남을 만큼 가상한 일로다.”

“소인은 아무 한 일도 없사온데, 상감마마께옵서 과람하신 은총을 내려주시오니, 소인은 몸 둘 곳을 모르겠사옵나이다.”

“음… 네 겸양지심이 또한 매우 아름답구나. …과인이 네 얼굴을 똑똑히 보아두고 싶다. 거북하게 여기지 말고 어서 얼굴을 들어라.”

“황궁무비하옵나이다.”

만덕은 어명을 받고 얼굴을 고요히 들었다.

나이는 이미 육십이 가까우나 살결이 희고 부드러워, 천하의 절색이었던 왕년의 자색이 아직도 역력하게 나타나 보였다.

정조대왕은 만덕의 아름다움에 심취한 듯 잠시 바라만 보고 계시다가, 다시 하문하신다.

“내가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나?”

“예, 사실이옵나이다.”

“금강산은 무슨 연유로 구경하고 싶어하느냐?”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고 들었사옵기에 이 나라에 생을 타고난 백성으로 금강산만은 꼭 한번 보아두고 싶사옵나이다.”

“음… 여자의 몸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가당한 일이로구나.”

정조대왕은 감탄의 고개를 끄덕이셨다.

대왕은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말씀하신다.

“여자의 몸으로 금강산을 다녀오자면 길은 멀고 산은 험해서 고생이 대단할 터인데, 그래도 가겠느냐?”

“금강산이 아무리 멀고 험하기로,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을 어찌 고생이라 할 수 있으오리까. 상감마마께옵서 윤허만 내려주시면 꼭 구경하고 싶사옵나이다.”

“허허허, 네 용기가 매우 놀랍구나. 과인도 아직 금강산을 구경하지 못했는데, 네가 여자의 몸으로 그런 용기를 내고 있으니, 실로 부럽기 짝없는 일이로다.”

정조대왕은 만덕의 용기가 부러우신 듯 감탄의 고개를 끄덕이시고 나서, 옆에 시립(侍立)해 있는 영의정에게 하교를 내리신다.

“저 사람이 금강산에 기어이 다녀오고 싶은 모양이니, 내왕에 불편이 없도록 연도 각 고을에 각별히 편의를 보아주도록 교지를 내려주소.”

그리고 이번에는 여시(女侍)에게,

“만덕에게 포상을 주고 싶으니, 명주 다섯 필을 지금 곧 가져오도록 하라.”

하고 명하셨다.

상감이 행정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평민에게 직접 상품을 하사하시는 것은 좀처럼 있기 어려운 파격적인 일이다.

만덕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정조대왕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은 셈이었다.
대왕은 만덕에게 명주 다섯 필을 손수 내려주시고, 황궁하계도 손목을
가만히 붙잡으시면서,

“너 같이 슬기로운 백성이 있다는 것은 비단 제주의 자랑일 뿐만 아니
라, 실로 과인의 다시없는 기쁨이기도 하다,”

하고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을 내리셨다.

만덕은 상감에게 손목을 붙잡히자, 황송하고도 감격스러워 얼굴을
수그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만덕은 대궐에서 물러나오자, 상감마마께서 친히 붙잡으셨던
손목을 어찌 함부로 비바람을 쐬게 할 수 있으랴 하는 생각에서, 명주로
자기 손목을 곱게 감았다. 상감께서 붙잡으셨던 손목을 명주로 곱게
감싼 채 일생 동안 거풍을 시키지 않을 결심이었던 것이다.

만덕은 그 해 겨울을 서둘러 보내고 이듬해 봄에는 금강산을 향하여
머나먼 길을 떠났다.

산이라고는 한라산밖에 보아오지 못했던 만덕에게는 금강산은 너무
도 절경이었다.

일찍이 중국의 모 시인은,

願生高麗國

(바라건대 고려국에 태어나)

一見金剛山

(금강산을 한번 보고지고)

하는 시를 읊은 일도 있었거니와, 실지로 답사해 보는 금강산은 상상
했던 것보다도 훨씬 뛰어났었다.

마치 조물주가 만천하의 산천경계를 만드실 때에, 뛰어난 산수만은 아끼고 아껴서 고스란히 간직해 두셨다가, 강원도 산 속에 한꺼번에 쏟아놓아서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명산을 만든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금강산이었다.

금강산은 그렇게도 뛰어난 산수였다.

중국에는 ‘동해에 삼신산이 있다’는 전설이 옛날부터 전해 오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삼신산’이란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의 세 산을 말한다.

그런데 ‘봉래산’이란 강원도 금강산의 별명이고, ‘방장산’이란 전라도 지리산의 별명이고, ‘영주산’이란 제주도 한라산의 별명이다. 그리고보면 중국에서 수천 년 내로 전해 오는 ‘삼신산’이란 모두가 우리 나라에 있는 산들인 것이다.

그 옛날 진시황과 한무제는 불로불사약을 구해 오기 위해 동남동녀(童男童女) 오백 명을 삼신산으로 보냈다는 전설이 있거니와, 전설만 보아도 중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산들을 얼마나 성스럽게 여겨왔던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만덕은 다행히 제주도 태생이어서 삼신산의 하나인 한라산만은 어렸을 때부터 눈에 진물이 나도록 보아왔다. 아닌게 아니라 오뉴월 염천에도 산봉우리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한라산은 누가 보아도 성스럽게 여겨지는 산이다.

그러나 금강산은 한라산과는 근본적으로 면목이 다르다. 한라산은 오직 하나뿐인 산봉우리가 항상 구름 속에 잠겨 있을 뿐이지만, 금강산은 산봉우리가 일만 이천 개나 된다는 것이 아닌가. 설마 누가 일일이 헤쳐보고 나서 일만 이천 개라고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 내금강에서 외금강으로 넘어가는 비로봉 꼭대기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산봉우리를 뿐이다. 게다가 하나하나의 산봉우리가 모두 웅장하면서도 기기묘묘하였다.

산의 형태가 각양각색이어서 세존봉은 부처님이 허공 중에서 삼천 세계를 굽어보시는 모습 같고, 옥녀봉은 몸에 우의(羽衣)를 입은 선녀가 반공에 높이 서 있는 모습 같고, 집선봉은 몇 사람의 백발 선인들이 정답게 둘러앉아 담화를 즐기고 있는 모습 같고…… 어느 산봉우리 하나도 기묘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산봉우리가 많으면 골짜기는 절로 많게 마련이다. 산골짜기는 산골짜기대로 파랗게 맑은 물이 주야로 풍부하게 흐르고 있는데,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이 벼랑에서는 폭포를 이루고, 좁은 목에서는 급단(急湍)을 이루고, 넓은 곳에서는 여울을 이루어서, 산 속을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즐겁게 해주고 있었다.

만공에 우뚝우뚝 웅장하게 솟아 있는 산봉우리들이 영웅 호걸의 기상 이라면, 주야로 감돌며 흘러가고 있는 물은 자비로운 여인의 마음씨 같다고나 할까. 산은 움직일 줄을 모르는데, 물은 자연의 교향악을 울리며 쉬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서, 동(動)과 정(靜)이 어울려 하나의 커다란 신비경을 이루고 있는 느낌이었다.

산에는 가지가지 수목들도 무성한데, 새는 웬 새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새소리의 교향악도 물소리의 교향악과 한데 어울려서, 눈으로 보는 금강산도 마냥 놀랍거니와, 귀로 듣는 금강산은 더한층 신비롭고도 황홀하였다.

萬德 할머니와 蔡濟恭

금강산의 놀라움은 그것만이 아니다. 금강산은 일만 이천 봉이나 있는 첩첩산중이건만, 절과 암자가 가는 곳마다 즐비하였다. 절과 암자의 수효가 무려 팔만 아홉 개나 있다고 하니, 그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어느 절을 막론하고 절에는 백발노승들이 수다하게 많은데, 그들은 한결같이 부처님 앞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염불을 외고 있어서, 만덕은 마치 극락 세계를 막바로 찾아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 당시 제주도에는 절이 하나도 없어서, 만덕은 ‘부처님’이라는 것을 말로만 들어왔지, 육안으로 구경하기는 그 때가 처음이었다.

(제주도에도 불교가 들어와 전에는 사찰이 더러 있기도 했었는데, 숙종 28년에 제주 목사 이형상이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 무당들의 근거지인 ‘당집’을 없애며 절도 함께 없애 버렸기 때문에, 정조 때에는 사찰이 하나도 없었다.)

만덕은 자비로우신 불상을 보자, 불심이 절로 솟아 올랐다.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불공을 드리며, 자기도 불세계에 귀의할 결심을 먹었다.

그 모양으로 만덕은 여러 달에 걸쳐 금강산을 끌고루 구경하고, 발길을 동해안으로 돌려 고성 삼일포와 통천 충석정까지 구경하고, 그 해 초가을에야 서울에 돌아왔다.

금강산을 구경하고 서울에 돌아오니 만덕에 대한 소문이 그동안에 널리 퍼져서, 공경대부에서 유생에 이르기까지 서울 장안의 남자들은 한결같이 만덕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였다.

그런 관계로 만덕은 서울에 그냥 눌러 있어도 얼마든지 호강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만덕은 서울에 눌러 있을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제주도는 나의 유일한 고향이다. 살아도 내 고향, 죽어도 내 고향. 상감을 뵈고 금강산까지 구경했으니, 내 이제 늙은 몸이 무슨 욕심으로 한양에 더 머물러 있으랴.’

그렇게 생각한 만덕은 어느날 작별 인사를 올리기 위해 영의정 채제공을 찾아뵈었다.

“성상마마와 영상 대감님의 각별하신 은총으로 필생의 소망을 풀었사옵기에 소인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옵나이다.”

채제공은 그말을 듣고 매우 섭섭해 하였다.

“고향에서 자여손(子興孫)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도 아니니, 차라리 서울에 그냥 눌러 있는 것이 어떠하겠는고?”

“고마우신 분부, 몸에 넘치는 영광이옵나이다. 그러하오나 비록 자손들은 없사와도 제주 백성들이 모두 소인의 혈육과 진배 없사오니 어찌 고향을 영영 등질 수 있으오리까. 영상 대감께서는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소인의 귀향을 양해해 주시옵소서.”

“음… 그대의 애향심이 그토록 애절하다면 내 어찌 그 길을 막으리오. 그러나 그대와 헤어지자니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구료.”

백발이 성성한 노재상 채제공은 만덕을 그옥이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그대가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온 것은 참으로 장한 일이야. 자고로 중국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한라산과 금강산과 지리산을 ‘삼신산’이라고 일러오는데, 그대는 탐라에서 생장하며 한라산을 싫도록 구경한데다 이제 금강산까지 보았으니, 세 개의 신산 중에서 두 개의 산을 구경한 셈이 아닌가. 그런 일은 남자로서도 있기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여자의 몸으로 그런 경험을 가졌으니,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야.”

“모두가 영상 대감님의 덕분이옵나이다.”

“천만에! 적선지가(積善之家) 필유여경(必有餘慶)인 법이야. 나라에서도 구제하지 못한 기민들을 그대가 구해 주었으니 모두가 적선의 업연(業緣)임이 틀림없어.”

채제공은 거기까지 말하고 문갑 속에서 옥지환 한 개와 책 한 권을 만덕에게 꺼내 주며,

“이 옥지환은 그대의 선행을 기리는 뜻에서 내가 선사하는 촌지일세. 대단한 것이 아니니 받아두게.”

“귀중하신 선물을 내려주셔서 황공무비하옵나이다. …… 이 책은 어떤 책이옵나이까.”

만덕은 감격에 떨리는 손으로 옥지환과 책을 받으며 반문하였다.

“이 책은 그대의 사적을 적은 책이야. 그대의 선행에 대한 감동을 참을 길이 없어, 내가 손수 ‘萬德傳’이라는 이름으로 그대의 전기를 적어 보았지. 이 세상에 그대 같은 자선가가 있었다는 것을 후세의 사람들에게 제도 알리기 위해 써본 것이니까, 그대가 기념으로 가지고 가게.”

만덕은 그 소리를 듣자, 감격의 눈물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이미 팔십이 가까운 노재상이 보잘 것 없는 하방천녀의 전기까지 써줄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다.

만덕은 선물을 두 손으로 우러러 받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소인 오늘 작별하오면 상공의 안모를 다시는 뵈을 길이 없겠사옵나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때 영의정 채제공의 나이는 이미 칠십 팔 세였었다.

“음… 내 나이 팔십이니, 그대를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구먼. 그러나 몸은 비록 바다를 건너 천리를 격해 있어도, 서로 통하는 마음에야 어찌 촌푼의 간격인들 있을 것인가. 고향에 돌아가거든 부디 건강에 유념하도록 하라.”

만덕은 그 소리에 설움이 북받쳐 올라서 입술을 씹어 삼키며 채제공 앞을 총총히 물러나왔다.

그리하여 숙소로 돌아오니 미지의 손님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덕이가 제주도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장안의 유지들이 떠나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아두고자 찾아온 것이었다.

만덕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장안의 명사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박제가 같은 대시인도 끼여 있었다.

萬德 할머니의 餘生

초정 박제가는 문명이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당대의 대석학이었다. 더구나 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는 그는, 만덕의 선행에 탄복한 나머지 그녀를 숙소로 찾아온 것이었다.

다정다감한 그는 만덕을 보고 말한다.

“영상 대감한테서 그대의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대가 불원간 고향으로 돌아간다가에 오늘은 제만사하고 일부러 찾아왔소. 나라에서도 구제하지 못하는 제주 기민들을 그대가 혼자 힘으로 구해주었다니 그 얼마나 장한 일이오.”

“고명하신 선비 어른께서 소인을 일부러 찾아주셔서, 이 영광 뭐라고 말씀을 올려야 좋을지 모르겠나이다. 소인은 다만 이웃간에 죽 몇 그릇을 나눠 먹었을 뿐이온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오리까.”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해 준 사실 그 자체도 대견한 일이지만, 겸손한 그 마음씨가 더욱 아름답구료. 내 그대를 위해 시를 한 수 읊어 주겠소.”

박제가는 그렇게 말하고 즉석에서 만덕에게 다음과 같은 시 녀 수를 써주었다.

大寰海外頭不出

(넓은 천지 바다 밖에는 못나가니,)

五獄誰能昏嫁畢

(넓다 한들 뉘라서 시집 장가 끝내랴.)

毛羅爲島界傳桑

(제주라 섬나라 이웃은 일본,)

星主千年僅貢橘

(사또는 천 년 세월에 골만 바쳐왔네.)

橘林深處女人身

(굴밭 깊은 숲속에 태어난 여자의 몸,)

意氣南極無饑民

(의기는 드높아 주린 백성 없었네.)

爵之不可問所願

(벼슬은 줄 수 없어 소원을 물으니,)

願得萬二千峰看

(만 이천 봉 금강산 보고 싶다네.)

翠袖雲鬟一帆峭

(의적이 다듬은 모습에 돛대도 높이,)

孤南所照回天笑

(남쪽별은 빛나 임금님도 기쁨을.)

催乘駟騎向煙霞

(바삐 말에 올라 금강산으로 향하니,)

佛日仙風環佩耀

(햇빛도 바람결도 노리개에 찬란타.)

眞覺新羅一念通

(정녕 깨달았으리 신라와 마음은 하나,)

異相巾幘符重瞳

(생김도 달라 여자몸 눈동자가 겹이라.)

從知破浪乘風志

(이제사 알겠노라 바다 건너 온 뜻은)

不是桑弧蓮矢中

(갓다란 세상일에 있지 아니했음을.)

- 宋志英 번역

박제가가 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소리를 듣고, 만덕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였다.

사실 만덕은 속된 욕심에서 임금님을 만나고, 금강산을 구경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인생의 황혼길로 접어든 그녀는 속세를 초월하여 영원한 영의 세계를 깨닫고 싶어서 금강산을 구경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대시인 박제가가 시로써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니, 만덕 으로서는 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없었던 것이다.

이 해 늦은 가을에 만덕은 영의정 채제공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사들의 융숭한 전송을 받으며 서울을 떠나 귀로에 올랐다. 이번 행보에서 상감님을 배알하게 된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장안의 저명한 시인 묵객을 많이 만나보게 된 것도 만덕 으로서는 다시없는 영광이요, 기쁨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은 금강산에 들어가 명산 대찰을 골고루 탐방하며 가는 곳마다 불공을 올리는 동안에 자기 자신도 불제자가 될 것을 결심한 점이였다. 워낙 자비심을 풍부하게 타고나서 남을 도와주는 데 한평생을 바쳐온 그녀였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불도나 닦다가 세상을 조용하게 떠나고 싶었던 것이다.

한때에는 속된 욕망에 현혹되어 남부럽지 않게 행복된 가정을 가져보려고 애를 써왔던 일도 있었다. 만약 고선흠이라는 사내가 불시에 죽어버리지 않았던들, 만덕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일생을 마쳤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제주도민들을 구제해 줄 길은 막혀버렸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생각하면 모두가 부처님의 계시인 것만 같이, 만덕은 일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것이 조금도 뉘우쳐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월여 후에 만덕이가 제주도로 돌아오게 되자, 제주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부두가로 영접을 나왔다. 성상의 부르심을

받고 상경했다가 돌아오는 길인 까닭에 제주 목사 유사모도 많은 관속들을 거느리고 영접을 나와주었다.

“그대가 서울에 올라가 성상을 배알한 뒤에 금강산까지 구경하고 돌아왔으니, 이는 진실로 우리 고을의 다시없는 영광이로다.”

사또는 배에서 내리는 만덕의 손목을 붙잡으며 말했다.

일반 백성들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반갑게 영접해 주었고, 무심한 아이들도 ‘만덕 할머니! 만덕 할머니!’ 하고 손을 흔들며 기뻐하였다. 설사 영의정이 오셨다한들 그렇게까지 반가와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만덕의 치마폭에 감기며 반가와 하다가, 그녀의 손목에 하얀 형겔이 감겨 있음을 보았다.

“할머니! 이 손목에 형겔은 왜 감았어? 어디가 아파서 그래?”

실상 그녀가 손목에 형겔을 동여맨 것을 보고, 일반 사람들도 무슨 상처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부터 은근히 걱정들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만덕은 어린이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며 대답한다.

“이것은 어디가 아파서 동여맨 형겔이 아니다. 임금님께서 할머니의 손목을 어수로 친히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잡아주셨던 손목을 함부로 거품을 시켜서는 안되겠기에 이렇게 명주형겔을 감고 있는 것이란다.”

그 소리를 들은 군중들은 제각기 환성을 올리며 ‘만덕 할머니 만세’를 외쳤다.

만덕은 제주도에 돌아오자 전과 다름없이 또다시 물산 객주집을 계속 하였다. 상감님에게서 포상까지 받고 돌아왔으므로, 거드름을 부리려면 얼마든지 뽐낼 수 있는 그녀였었다. 그러나 만덕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예전과 추호도 다름없이 겸손하고 근면하였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 집 안방에 불당을 새로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서 염불을 정성스럽게 외는 일이 있을 뿐이었

다. 그 당시 제주도에는 절이 하나도 없었던 까닭에 만덕은 부득이 자기 집에 불상을 모셔놓고 불법을 혼자 수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에 만덕은 회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회갑을 계기로 친정 조카인 김종주를 양자로 삼아서 사업체를 양자에게 물려주고, 자기 자신은 수도 생활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만덕이 회갑을 맞이하게 되자, 제주 사람들은 모두가 뜻을 모으고 돈을 모아 그녀의 회갑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 주기로 하였다.

그 해는 마침 대풍이 들어서, 제주도민들은 그녀에게서 입은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려는 정성에서 회갑 잔치를 거도적으로 성대하게 차리기로 했던 것이다.

만덕은 물론 회갑 잔치를 완강히 사양하였다 그러나 그녀에게 너무도 많은 은혜를 입은 제주도민들은 본인의 사양을 무시해 가면서 제각기 물자를 모아 사흘 동안이나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다.

만덕은 회갑을 계기로 외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일체 끊어버리고, 오로지 불당에 들어앉아 수도삼매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어느 집에 불행이 있을 때면 그 집에만은 반드시 찾아가서 위문금과 아울러 위안의 말을 들려주곤 하였다.

그처럼 만덕은 만년을 고승들처럼 깨끗하게 지내다가 순조 12년인 임신년(1812년) 10월에 칠십 사 세를 일기로 거룩한 일생을 마쳤다.

만덕이 세상을 떠나자 제주도민들은 마치 친어머니를 잃은 듯이 모두들 슬퍼하였다. 그리고 저마다 이렇게 말했다.

“만덕 할머니의 육신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거룩하신 정신만은 우리들의 머리 속에 찬란한 빛으로 영원히 남아 계시다.”

그로부터 30여 년 후에 추사 김정희가 윤상도의 옥사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정배를 왔다가 만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만덕의 양아들인 김종주에게,

‘恩光衍世(은혜로운 빛은 길이 빛나리)’라는 현판을 손수 써주었다.

그 현판은 지금도 만덕 할머니의 외손계인 백찬석 씨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지금부터 십여 년 전에 내가 제주도에서 만나본 백형석 씨의 말에 의하면, 만덕이 서울서 제주도로 돌아올 때 정조대왕은 만덕에게 여지종 3백 명을 하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덕은 그들을 그날로 해방시켜 자유민으로 만들어 준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은 어느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신빙성이 희박하다.

아무려나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만덕 할머니야말로 영원히 잊지 못할 구세주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김만덕 전기

구원의 여인상 김만덕

김 봉 옥

만덕이 자라난 환경

김만덕의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만덕은 영조 15년(1739년) 아버지 김응열(金應悅)과 어머니 고씨(高氏) 사이에서 제주성내에서 태어났다. 위로는 만석(萬碩), 만재(萬才) 두 오빠가 있었다. 비록 가난하였으나 선비 집안으로 증조부는 성순(性淳)이고, 조부는 영세(永世)로서 응선(應先), 응남(應男), 응신(應信), 응열(應悅) 4형제 분들이 있었다. 만덕은 자애로운 부모님과 두 오빠의 귀여움 속에서 자랐다.

영조 26년(1750년) 경오년에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였다. 정월부터 번지기 시작한 천행두(天行痘)는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봄이 되어도 그치지 않아 3월 한 달 동안 3만5천581명이 사망했다. 5월부터는 호열자(虎列刺)까지 유행하여 전국적으로 1만9천849명이 사망했다.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더 크게 번져 9월 한 달 동안에 전국적으로 6만7천871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해 9월 제주도에서도 882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제주의 인구는 제주목이 6,692호에 39,374명이었고, 정의현은 2,325호에 14,406명, 대정현은 1,704호에 8,463명이었으니 제주의 총 호수는 10,721호에 62,243명이 살고 있었다.

그 중에도 제주성내 상황은 일도리(一徒里)가 351호에 남자 838명, 여자 1,052명, 이도리(二徒里) 282호에 남자 624명, 여자 842명, 삼도리(三徒里) 337호, 남자 616명, 여자 1,054명, 건입포리(建人浦里) 69호에 남자 153명, 여자 186명으로 도합 1,039호에 남자 2,231명 여자 3,134명이 살고 있었다.

더욱이 제주에는 전도에 극심한 흉년이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봄에는 천행두, 여름에는 호열자가 휩쓸고 간 제주도의 상황은 처참한 것이었다. 특히 호열자는 전염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으로 병에 걸렸다 하면 급한 설사를 하고 3~4일 사이에 죽어가곤 했다.

이 때, 만덕의 집에도 불행이 닥쳐왔다. 정월에는 아버지가 돌아가고 6월에는 어머니마저 호열자로 사망하였다. 당시 만석의 나이 23살, 만덕은 12살이었다. 출지에 고아가 된 3남매는 각자 흩어져 살아야 했다. 만석은 백부의 도움으로 동네 부씨(夫氏)에게 장가들어 어렵게 집안을 이어가고, 만재는 백부의 집에 의탁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덕은 동네 여인의 주선으로 한 기녀(妓女)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만덕은 영리하고 부지런하였다. 어떤 일을 시켜도 재치있게 잘 해내므로 기녀는 흡족히 여겨 만덕을 수양딸로 삼았다.

기생이 된 만덕

몇 해가 지나가 타고난 미모의 만덕은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였다. 틈틈이 어깨너머로 익힌 가무와 거문고에도 능숙하였다. 만덕이 18세 되던 해 수양어머니는 갖은 방법으로 그를 유혹하여 기적(妓籍)에 올리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만덕은 본의 아니게 기역(妓役)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만덕은 철이 들면서부터 자기 앞 일을 깊이 생각하였고, 특히 아녀자로서 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그 때마다 어머니가 살았을 때 자주 들려준 곽지리 김천덕(金天德) 열녀(烈女) 이야기가 불현듯이 떠올랐다.

김천덕은 사노(私奴) 연근(連斤)의 처였다. 어느 날 남편이 진상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육지로 나가다가 화탈섬과 추자도 사이에서 배가 침몰하여 죽었다. 천덕은 슬퍼서 피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3년 동안 상식(上食)을 끊지 않고 삭망(朔望)과 속절(俗節) 때면 화탈섬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에 호소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원근(遠近)에서 듣는 사람, 보는 사람들이 모두 불쌍히 여기지 않은 일이 없었다. 그러나 천덕은 본시 재색(才色)을 지니고 있어서 못 남자들이 기웃거리고 탐내는 이가 많았다. 한번은 제주에 귀양 온 사람이 천덕을 탐내어 갖가지로 꾀었으나 완강히 따르지 않았으므로 관가에 무고(誣告)하여 대장(大杖)을 맞게 하였다. 이때 천덕은 거짓으로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풀려나온 후에 소(牛) 한 마리와 무명 30단(端)을 보내어 어려움을 면하였다.

그 후 명월만호(明月萬戶)가 그 호세(豪勢)를 믿고 사람을 보내어 천덕의 부친 김청(金淸)에게 뇌물을 주고 결혼 승낙을 얻었다. 천덕은 화촉(華燭)하는 날에야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천덕은 목을 놓아 통곡하며 자기 손으로 집을 헐고 목을 매었는데 집 사람들이 이를 구하

였다. 천덕은 죽음은 면하였으나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죽기를 맹서하므로 부친도 강요할 수 없었다.

이 때 천덕은 39세였다. 그 후 60여 세까지 살면서 강폭한 자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으나 어려움을 이겨내어 불경지의(不更之義)를 끝내 지켰다.

또 효성이 지극하여 80이 넘은 부친을 봉양하였는데 부친이 병으로 눕자 의상(衣裳)을 풀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시약(侍藥)하니 동네 사람들은 천덕의 열(烈)과 효(孝)에 감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선조 10년(1577년)에 임진(林晉) 목사는 이를 조정에 아뢰어 표창하고, 그의 아들 백호(白湖) 임제(林悌)는 크게 감동하여 김천덕전(金天德傳)을 엮어서 후세에 전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만덕의 어머니는 김천덕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여자의 정절(貞節)은 목숨보다도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만덕이 기녀가 되던 해(영조 33년)에는 정의사람 김천중(金千鍾)의 처 오씨(吳氏)가 남편이 병으로 눕게 되자 밤낮으로 간병하였다. 남편의 병이 점점 무거워지자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남편 대신 죽기를 축원하다가 드디어 남편이 죽자 그녀도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만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절개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긴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만일 그러한 처지에 놓인다면 그러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기생에게 절개란 거리가 먼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만덕은 그 모두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정결한 기녀로서 처신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그리고 더욱 예기(藝技)에 열중하였다.

만덕의 타고난 미모와 후리후리한 키에 상냥한 성품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고 정결한 몸가짐과 뛰어난 기예는 널리 알려졌다. 관가에서 베푸는 크고 작은 연회에는 물론, 민가 명사들이 벌이는 놀이 마당에서도 만덕이 나가고 아니 나가는 것으로 격이 좌우되었다. 그러나 때로는 호색한 자들이 집요하게 유혹하며 치근거리기도 했다. 그 때마다

어머니가 들려준 열녀 김천덕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가무와 거문고로 응수하여 고비를 넘겼다. 서울에서 내려온 어사(御史)나 점마별감(點馬別監) 등 경래관(京來官)의 환영과 송별연에는 반드시 만덕이 나갔는데 그녀의 자색과 풍류 예기에 매혹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주도에도 이러한 명기가 있는가 하고 칭찬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므로 훗날 사람들은 만덕을 탐라의 삼기(三奇)로 꼽았다.

탐라 삼기란 제주에서 태어난 세 가지 특이한 존재를 말한다. 고려 때 스님(僧) 혜일(慧日)과 기생(妓) 만덕(萬德), 그리고 어승마(御乘馬)가 된 노정(盧正)을 이른다.

만덕은 기역(妓役)에 종사한 지 5년 만에 명기로서 이름을 날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지만 항상 마음 속에는 번민이 있었다. 그것은 형제들로부터의 싸늘한 원성이었다. 특히 정월 12일 아버지의 기일과 6월 3일 어머니의 기일에 친척들이 모이면 선비의 집안이 만덕으로 하여 천민(賤民)의 대접을 받는다는 원망의 소리다. 만덕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집안에는 타격이 컸다. 이로 인해 만덕은 조상에 대해서 면목이 없고, 자기로 인하여 동기간이 천민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23세 되는 해, 만덕은 관가에 나가 기적(妓籍)에서 이름을 삭제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기안(妓案)은 함부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절하였다. 만덕은 뜻을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목사 신광익(申光翼)과 판관 한유추(韓有樞)에게 눈물로서 진정하였다.

소녀는 본시 양가(良家)의 출신이온데 지난 경오년에 부모님이 염병으로 돌아가신 후 의지할 곳이 없어 부득이 기녀의 집에 의탁하게 되었는데 소녀를 수양딸로 삼음으로 인하여 나의 뜻에 관계 없이 기안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양가의 딸이 기생이 될 수도 없거니와 조상님에 대해서도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도

께서 이를 불쌍히 헤아려주셔서 기안에서 제명하여 양녀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소녀는 친가로 돌아가서 친가를 재건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힘이 있다면 저와 같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겠습니다. 옛 사람도 자기 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남의 비난하는 말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조상의 근본을 욕되게 하는 것을 아프게 뉘우칠 줄 모르면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또께서 하해와 같은 은혜로 소녀의 소청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아니하고 결초보은(結草報恩)하겠습니다.

명기로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만덕이 방울방울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가냘픈 모습에서 목사와 판관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기안에서 제명하여 줄 것을 합의하고 말하기를,

기안에서 제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나 네가 집안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인륜을 밝히는 일에 해당되므로 만일 이를 거절할 경우 인륜을 바로 잡을 수가 없는 만큼 이를 허락하는 것이니 모쪼록 규문지범(閨門之範)으로 양가의 체통을 지키라.

만덕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비로소 청천하늘에 부모님을 뵈는 듯 판가를 나와서 그리던 양녀로 복귀하였다.

양녀(良女)로 복귀한 만덕

1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만덕은 오빠들을 땃땃하게 대할 수 있었다. 한때 기녀로서의 빛을 다 청산한 기분으로 즐거웠다. 만덕이 한창 나이였으므로 기안(妓案)에서 제적되자 지체 있는 집안에서 청혼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덕은 일찍이 결심한 바가 있어서 이를 물리치고 그동

안 모아두었던 약간의 돈으로 객주집을 차리기로 하였다.

만덕은 12년간의 식모살이, 기생살이에서 세상사의 여러 면을 직접 체험한 까닭에 비록 나이는 젊었지만 자립하는 데는 자신이 있었다. 당시 객주집은 상인들의 물건 매매를 소개하고 또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곳이었다. 육지 상인들은 이곳에서 상품 매매를 위탁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전도 적지 않았다. 만덕은 기생시절에 이를 보고 흥미를 느꼈던 것이다.

명기였던 만덕이 객주집을 차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육지 상인들이 즐겨 찾아 왔고, 삼읍의 상인들도 드나들게 되었다. 심지어 한량배 관원들까지도 투숙하므로 객주집은 날로 번창하였다.

한편 만덕은 전국 각 지방에서 오는 상인들을 대하다 보니 물자의 유통 경로와 교역에 대한 물정도 알게 되어 이에 대해서 궁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만덕은 장사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물자의 유통과 수요자의 편의를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은 사람에게 쉽게 물건을 얻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다. 또 육지 상인들이 제주의 토산물을 사고 가는데 제주 백성으로부터 적정한 값으로 구매하였다가 많은 구전을 받지 않고 넘겨주었기 때문에 육지 상인들이 앓다투어 만덕 객주로 모여들었다. 만덕은 장사하는 데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薄利多賣)이요, 둘째 적절한 가격 매매(正價賣買), 셋째 정직한 신용본위(信用本位)였다.

한편 만덕은 기녀시절에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상류층 부녀자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염가로 공급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관가에 사용하는 물품까지도 조달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육지 상인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만덕의 객주집은 곧 큰 무역 거래소가 되었다. 또 만덕의 거짓 없고 따뜻한 인품은 상인들로 하여금 마치 자기집처럼

드나들게 하였다.

만덕은 제주 토산물인 미역, 전복, 표고, 양태, 말총, 약초들을 수집하였다가 육지 상인들에게 공급하기도 하고, 육지 상인으로부터는 삼베, 모시, 청포, 비단 등의 피륙을 위시하여 지물, 잡화, 쌀 등을 사들였다. 만덕은 수년 동안에 자본도 축적되고, 이름 있는 거상(巨商)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특히 창고를 지어 물건을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물물교환도 하게 되니 육지 상인들은 물건을 실어온 배에 손쉽게 제주 토산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 편했다. 또한 제주인들은 토산품과 자기가 필요한 물건과 손쉽게 교환할 수가 있었으므로 모두 즐겨 이용하였다. 지금까지 제주인이 사용하는 육지 물건은 육지 상인들을 통하여 비싼 값으로 구하게 되거나 제주인이 직접 육지에 가서 구입하였다. 만덕 객주집은 제주도와 육지의 물자를 교역하는 곳이 되자 육지의 물건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제주 물건도 정당한 시세로 팔 수 있으므로 모두가 만덕의 뛰어난 장사 솜씨에 감탄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만덕은 사업에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그렇지만 만덕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검소하여 화려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가난하였던 시절을 생각하여 음식도 소식(疏食)하여 보리밥, 조밥을 먹고 주택과 거실은 꾸미지 아니하고 근검과 절약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며 인정으로 대하였으므로 그들은 자진하여 만덕의 일을 도왔다. 만덕의 객주집에는 언제나 10여 명 정도 일을 도우며 기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만덕은 늘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풍년에는 흉년 때를 생각하여 절약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여 어렵게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하여 검소하게 생활을 줄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만덕은 더욱 빛나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

제주의 흉년

제주를 삼재(三災)의 섬이라고 한다. 옛 글에 의하면 산이 깊으니 비가 오면 수재요(山高深谷水災), 돌이 많고 토질이 가물어도 한재요(石多薄土旱災), 사면이 큰 바다이니 태풍의 통로가 되어서 풍재(四面大海風災)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일 년 사이에 5월 장마철에는 홍수의 피해를 입고, 여름에 한 달쯤 비가 아니오면 한발로 농작물이 말라 죽고, 가을철에는 태풍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게 되므로 농경사회에서 보면 제주는 자연히 흉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흉년이 제일 많이 드는 곳이 바로 제주이다. 또 때로는 흉년이 해마다 계속되므로 제주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렸다. 제주도 내에 많은 목민관의 선정비(善政碑)는 모두 이러한 흉년 때 조정에 아뢰어 백성들을 구제한 내용들이다.

한 예로 현종 11년(1670년) 5월에 연일 큰 비로 온 섬이 물난리를 겪었고, 7월 27일에는 태풍이 불어닥쳐서 제주성 남북 수구홍예(水口虹蜺)와 누각(樓閣)이 무너지고, 많은 가옥과 전답이 유실되었으며 사람도 7명이나 죽었다. 당시 목사 노정(盧鎭)은 이 비참한 상황을 보고하기를 「노도(怒濤)가 분설(噴雪) 같이 온 산야(山野)를 덮으니 산야는 소금에 절인 것 같아서 농작물은 물론, 굴나무·대나무까지 다 말라 죽어서 생기(生氣)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는 또 치계(馳啓 : 급히 아뢰는 것)하기를 「아사자(餓死者)가 2천260명이나 되고 나머지 생존자라 할지라도 귀신 모양입니다. 닭과 개는 다 잡아 먹어서 사방에 닭과 개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우마(牛馬)도 다투어 잡아먹는 형편이니 상식지변(相食之變)이 조석으로 박두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조정에서는 백방으로 구호곡(救護穀)을 보내오고 특별히 선위어사(宣慰御史)를 보내왔다. 선위어사는 아사자를 위하여 위령제(慰

靈祭)를 지내고, 기민(飢民)들을 위문하였다. 또 과장(科場)을 마련하여 인재(人材)를 시취(試取)하고, 효자 열부를 발굴하여 표창하기도 한다.

만덕이 생존한 시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조 16년(1792년)부터 19년(1795년)까지 4년 동안 계속하여 흉년이었다. 그 중에도 정조 18년(1794년) 갑인년은 흑심하여 당시 목사 심낙수(沈樂洙)는 다음과 같이 장계를 올리고 있다.

금년은 삼읍의 농사가 그 사이에 단비를 얻어서 풍년이 예상되더니 뜻하지 않게 8월 27일에 동풍이 크게 일어나 기와가 날리고 돌맹이가 달아나니 마치 회오리 바람에 나뭇잎이 날리듯 하여 농작물이 유린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외에 해수(海水) 짙물이 날아와서 소금으로 김치를 절인 것과 같습니다. 팔구십세 노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난 계사년(숙종 39년)에 이와같은 재난이 있었는데 금년에 또 이 재난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대정과 정의현의 피해는 더욱 심합니다. 섬 안에 결실(結實)이 전혀 없는 면리(面里)와 조금은 결실이 있는 마을을 차례로 등급을 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결실이 없는 것은 고금(古今)에 드문 일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여름철 보리가 조금은 풍년이어서 백성들이 기근은 없을 것이나 10월 이후의 형세는 장차 조정에서의 구호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절미(折米) 2만여 석을 배로 운반하여 오지 않으면 장차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곧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시급히 조치하여 10월 내에 6, 7천석을 먼저 들여 보내 주십시오. 그 나머지 1만여 석은 정월부터 연속하여 도착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죽는 것을 서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정 대신들은 갑자기 2만여 석을 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의논하는 가운데 영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는 말하기를 「제주 흉년을 구하기 위하여 2만석을 청곡(請穀)하였는데 가까운 옛 등록(騰錄)을 두루 살펴보니 그 예가 없습니다. 비록 지난 두 번째 계사년에 우휼(優恤)한 은덕의 뜻을 말한 바 있었는데 쌀을 보낸 것은 1만석에 불과함

니다. 그러므로 쌀과 보리, 조를 합하여 1만석을 특별히 전라감사에게
 분부하여 연해(沿海)에 여유있는 고을 창고에서 남은 것을 형편에 따라
 5천석을 10월 안으로 수송하도록 하고 나머지 수량은 내년 봄에 계속하
 여 보내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또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은 말하기를
 「전라도 연해읍(沿海邑)도 제주와 특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설령 창고
 에 남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곳 기민들에게 줄 것을 뺏아서 제주
 백성들에게 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물며 곡물은 만드
 시 백성으로 하여금 부담시켜 수송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제주 백성들이
 목이 타게 구호곡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면 달리 경황이 없으나
 육지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2만석
 을 청곡(請穀)하였으니 등록(騰錄)을 상고하여도 전례가 없습니다. 지난
 계사년에 보내준 수량에 의하여 겨울과 봄에 적당히 수량을 나누어 배로
 수송하고 새로 부담하는 목사 이우현(李禹鉉 : 이때 삼남수 목사는 각기병으
 로 사임을 청하였으므로 이우현을 후임 목사로 삼음)으로 하여금 구호곡을
 갖고 가서 구호하는 데 정성을 다하도록 함이 마땅할까 합니다.」 하였다.

이에 대해서 임금이 하교하기를 「호남 연해읍(沿海邑)이 한재(旱災)와
 풍재(風災)를 가장 심히 입어서 백성들의 황급함이 눈에 선하여 그 생각
 에만 매달려 있었다. 어제 밤 제주목사의 청곡(請穀) 장계를 보니 제주
 백성들의 참혹한 재난이 어찌 불쌍하지 않겠느냐, 수많은 백성들이 배로
 실어갈 구호곡에 오로지 매달려 있지 않느냐. 우의정이 아뢴 말 중에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는다(得則生不得則死)고 하였는데 참으로 절
 실한 말이다. 육지 백성들은 오히려 다른 곳으로 옮겨 사는 길도 있으나
 제주 백성들은 이게 없으니 무엇으로 살겠느냐. 그러니 제주 백성을
 구하는 것이 더욱 급하다. 영중추부사가 아뢴 바에 의하여 곧 전라감사
 에게 분부하여 먼저 곡물을 나누어 주도록 하고 새로 부담하는 목사가
 가는 편에 받아가지고 가도록 하라. 비록 2만석을 보내준 전례가 없다

하더라도 장계의 사연을 보니 실정에 지나친 청은 아닌 듯하다. 절반으로 깎아 내리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할 일이다. 배로 조를 수송하는 계획은 이미 결정되었고 제주 백성들이 목이 타도록 기다리는 처지에 어찌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느냐. 연해 선부(船夫)들이 조를 수송하는 것은 제주 백성들을 구호하려는 걱정에서 하는 것이니 만약 특별한 예가 없다 하여 어찌 섬과 육지를 같이 볼 수 있겠느냐. 별도로 전라감사에게 타일러 기꺼이 나가서 빨리 수송하는 데 정성을 다하여 거행하고 사유를 갖추어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때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가 아뢰기를 「제주로 곡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장흥, 해남, 강진, 영암 등 제고을에 나누어 할당하고 별도로 능주목사 조익현(趙翼鉉)으로 하여금 독축 운반하여다가 새로 부임하는 목사에게 부치도록 하였으며 바람을 기다려 운반하여 갈 인부들에게도 역량(役糧)을 지급하고 부역을 감하여 주었으며 뱃사공에게는 배삔을 넉넉히 지급하였습니다. 해신제(海神祭) 날짜는 갑인년 10월 13일로 정하였사오니 전례에 비추어 향축(香祝)을 내려보내 주십시오. 나머지 구호곡 5천석은 봄이 되면 구획(區劃)하여 시기에 맞추어 수송할 계획입니다.」고 하였다.

한편 심낙수(沈樂洙) 목사는 거듭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갑인년 8월 27일 태풍 후에 온 섬은 비로 쓸어버린 것과 같아서 피차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 피해 상황을 3등급으로 나누면 본주(本州 : 제주목)는 78리(里) 중에서 32리가 더욱 심하며 대정·정의는 모두 더욱 심합니다. 적미(糴米 : 사들인 쌀) 중에 정지된 것이 1만460여 석이고, 마땅히 받쳐야 할 것은 2천290여 석입니다.

번(番)을 서는 신역(身役)을 줄여서 그 반을 정지하고, 노비 공미(貢米)와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도 그 반을 탕감하고 군병을 조련(操練)하는 것을 정지하십시오. 수전(水田)의 조생벼는 자못 결실하였으니 영읍(營邑)의 수미(需米)는 대략 거두었습니다. 지금 백

성들의 사정은 시일이 급하여 그 중에도 노약자와 무의탁자는 골라서 공해(公解)나 혹은 토굴(土窟)에 머물게 하여 봄 동안에 무상으로 식량을 지급하고, 남은 곡식 1백5십석과 별도로 구획(區劃)한 백여 석은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서 죽을 쑤어 먹이도록 하였습니다. 더욱 심한 자 중에 기아자(飢餓者)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봄 동안 환곡(還穀)으로 나누어주고 남은 곡식 2백석 및 보리 환곡 여분 2천여 석은 지금 10월 초부터 인구를 계산하여 환곡으로 나누어 주면서 우선은 살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곡을 받을 자는 장자(壯者)는 3만 7천919명이고, 약자(弱者)는 2만 4천780명이 되는데 10월부터 명년 보리고개까지 개걸호(丐乞戶:식량을 구걸하는 집)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한 달에 세 번 순회하면서 쌀을 넣어 주려면 마땅히 2만2천여 석이 됩니다. 그러나 토곡(土穀)으로 남아 있는 것이 2천 여 석이고, 새로 사들인 곡식이 2천여 석이 있으나 당장에 종자(種子)와 공료(公料)로 돌아갈 형편입니다. 청컨대 이전곡(移轉穀) 2만 석에 한하여 차차 들여올 것을 온 섬 백성들은 날마다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은 제주의 각종 공물(貢物)을 경감 정지시키고, 호남 위유사(慰諭使)를 보내어 돌보게 하였다.

한편 새로 부임하는 이우현(李禹鉉) 목사는 장흥, 영암, 강진, 해남 등지에서 옮겨온 곡물 5천석을 12척에 나누어 싣고 갑인년 10월 15일에 도착하였으므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 윤2월에 구호곡을 수송하여 오던 배 5척이 해상에서 파선 침몰하였으므로 이우현(李禹鉉) 목사는 급히 이 사실을 아뢰었다. 이 보고를 접한 임금은 하교하기를 「제주에는 다시 1만 1천석의 곡물을 수송하여야 능히 제주 백성들의 굶주림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밤에 장본(狀本)을 받아 보니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수송선 5척에 실은 몇백포의 곡물이 침실(沈失)되었다 하니 어이가 없다. 또 끝말에 보니 감관(監官) 한 사람도 익사(溺死)하였다 하니 더욱 놀랍고 측은하다. 오

직 백명에 가까운 사공과 격군(格軍)들이 생환하였다 하니 다행한 일이다. 익사한 수부(水夫)에 대해서는 전라감사에게 각별히 명하여 그 위족을 위휼(慰恤)하고 그 족속(族屬)을 선발하여 천거하라. 또 만사(萬死)에서 살아 돌아온 사공과 격군은 신역(身役)이 있는 지는 모두 면제하거나 감하여 주도록 분부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구호곡 수송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기민(飢民) 구호에 차질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기민 구휼에 나선 만덕

구호곡을 실어 오던 선박이 풍랑에 침몰하였다는 소식에 제주 백성들은 큰 낙망과 충격으로 하늘을 원망하며 암담한 마음으로 천명(天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정의 어느 마을에서는 굶주려서 부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동네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구호를 청하면 있는 대로 곡식을 털기도 하였다.

만덕은 지난날 흉년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더구나 정조 16년 이래로 4년간 흉년이 계속되었으니 도내 식량도 바닥이 났다. 을묘년 봄 보리고개까지가 걱정이 되었다. 어릴 때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굶주린 동포들을 구하라고 하는 것만 같았다. 어린 시절 의지할 곳 없어 식모살이를 할 때나 본의 아니게 기생노릇을 하던 때 그리고 객주집을 하는 오늘날까지 자신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 분들의 은혜에 보답할 때는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앞으로 보리고개까지 굶주린 동포들이 걱정이 된다. 내가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니 이 돈을 가지고 육지에 나가 되는대로 빨리 양곡을 사오도록 하라.」고 하였다.

쌀 살 돈 1천금과 배삯까지 받은 사람들은 배를 마련하고 서둘러 육지로 건너가 연해(沿海) 고을에서 되는 대로 곡물을 사들여 만선(滿船)으로 10여 일 만에 돌아왔다.

만덕은 의외로 빨리 수송하여 온 사공들을 후하게 대접하면서 숙종 때 제주의 흉년을 구제한 임금이 순풍을 타서 구호곡을 빨리 수송하였던 해창위(海昌尉) 오태주(吳泰周)에게 친히 내리셨다는 시(詩)가 생각났다.

천리 남쪽 바닷길이 건너가기 어렵다더니

(千里南溟利涉難)

바람 높아 쌀 보내줌이 또한 쉽지 않구나

(風高移粟亦間關)

배들이 모두 탈 없이 돌아왔다고 알려왔으니

(報來船舶皆無恙)

하늘의 뜻은 분명히 불쌍한 백성을 구제하라는 것이다

(天意分明濟寡鰥)

만덕은 육지에서 들여 온 양곡에서 10분의 1은 내외 친척과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일 보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나머지 4백5십석은 모두 관가로 보내어서 구호곡으로 쓰게 하였다.

이 때 관가에서는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과 홍삼필(洪三弼), 양성범(梁聖範) 등의 원납곡(願納穀)으로 위급한 사정은 넘기고 있었으나 굶주린 백성들은 날로 늘어가는데 구호곡 수송이 늦어서 초조하던 차에 만덕의 구호곡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우현(李禹鉉) 목사와 조경일(趙敬日) 판관은 기민을 구분하여 완급을 가리고 진장(賑場)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기민들은 날마다 구름과 같이 모여들어 말하기를 「우리의 목숨은 만덕이 살렸으니 만덕은 우리의 생

명의 은인이다。」고 하였다. 이 광경을 바라본 만덕은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한 보람을 느끼며 오늘까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은인들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해 5월에 보리농사는 비교적 풍년이었으므로 이우현(李禹鉉) 목사는 정월부터 시작한 진장(賑場)을 마감하고 삼읍 기민 연인원 72만 5천329명에 진곡은 2만 5천9백5석이었음을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장계하였다.

금번의 진사(賑事)는 원래 1만석을 획정하였으나 이미 우례(優例)에 의거하여 5천포를 별도로 내려 보내었으니 또한 특별한 은의(恩義)로 생각합니다.

정리전(整理錢)으로 진곡(賑穀) 1만석을 환작(換作)하여 특별히 바랐던 것 이외에 내려주심은 저 개천이나 도랑에 버려진 백성들을 요 위에 있게 하였으니 왕령(王靈)이 미친 바입니다. 그리하여 크게 진장(賑場)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전곡(移轉穀)에 대해서는 양태와 미역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이 이미 전례인데 지금 백성들의 형편을 보니 전과는 크게 달라서 명년 봄을 기다려 퇴봉(退捧)하고자 하오니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도록 분부하십시오. 본주 김만덕(金萬德) 여인은 곡식을 사서 진곡(賑穀)으로 4백5십석을 원납하였고, 전현감 고한록(高漢祿)은 진곡으로 보충한 것이 3백석에 이르며, 장교 홍삼필(洪三弼)과 유학 양성범(梁聖範)은 각각 원납곡(願納穀)이 1백석이 되니 지극히 가상합니다.

이에 임금은 진휼(賑恤)의 노고를 치하하고 특별히 하유(下諭)하기를 「김만덕(金萬德)에게는 불려서 그 소원을 물어보고 난이(灘易)를 논하지 말고 특별히 시행할 것이며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매번 연재(捐財)하였다. 해외의 토속(土俗)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능히 알 수 있으니 매우 가상하다. 대정현감으로 특별히 임명하여 군수(郡守)의 이력(履歷)으로 하라. 홍삼필(洪三弼)과 양성범(梁聖範)이 1백석을 원납한 것은 육

지에서 천포(包)에 필적하다. 모두 병조에 명하여 순장(巡將)으로 승진
임명하라.」고 하였다.

이 때 이우현(李禹鉉) 목사는 환곡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여 정조
20년(1796년) 파직되고 후임으로 유사모(柳師模)를 목사로 삼았다.

임금의 특별한 은혜

유사모(柳師模) 목사는 만덕을 불러서 임금님의 유지(論旨)를 전하고
소원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만덕은 임금님의 은혜에 감읍(感泣)하면서
「다른 소원은 없사오나 오직 소원이 있다면 한번 서울에 가서 임금님
게시는 궁궐을 우러러 보고, 천하 명산인 금강산 1만 2천봉을 구경할
수 있다면 한이 없겠습니다.」고 하였다.

이는 과연 어려운 소원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제주도 백성들은 육지
에 나가는 것은 통제되고 있었고, 특히 여자에게는 출륙하는 것을 법으
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 까닭은 제주도는 땅이 척박하고 삼재(三災)로
인하여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되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육지로 옮겨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결과 제주도의 인구가 줄어서 제주도를
방어할 절대 병력 인원이 부족한 까닭이다.

한 예로 선조 34년(1601년)에 김상헌(金尙憲)이 어사로 와서 소덕유(蘇
德裕) 역모사건을 처리하고 당시 제주 인구를 조사하여 남사록(南槎錄)에
기록하였는데 제주목은 호구 3천355호에 남자는 7천990인, 여자 1만
1천100인이고, 정의현은 호구 383호에 남자 990인, 여자 1천480인이고,
대정현은 307호에 남자 550인, 여자 880인이다. 그러므로 제주의 총호수
는 4천145호에 남자 9천530인, 여자 1만 3천460인 도합 2만 2천990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제주의 방어 시설로는 3성(城 : 제주성·정의성·대정

성)과 9진(鎭 : 화북·조천·별방·수산·서귀·모슬포·차귀·명월·애월)과 25봉대(蜂臺)와 38연대(烟臺)를 지키는 병력은 5천664명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제주에서는 남자는 15세부터 60이 넘어도 병역에 종사하였지만 임진왜란 이전에는 부족한 병력을 육지에서 보충하여 번(番)을 살게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를 파하여 제주 백성으로만 충당하도록 하였으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강건한 처녀들까지 동원하였다. 이를 여정(女丁)이라고 하였다.

유사모(柳師模) 목사는 만덕의 소망을 의외로 생각하였지만 교지에 난이(灘易)를 논하지 말고 시행하라 하였으므로 그대로 아뢰었다.

옛 기록에 의하면 제주 백성에게 임금이 내리는 상으로는 본인에게 품계(品階 : 가선대부·통정대부·통훈대부 등)를 높여주거나 현감·찰방·만호 등의 벼슬을 제수하기도 하고, 그 자식들에게 벼슬자리를 주기도 하였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비단옷을 내리거나 국유지를 하사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만덕은 이러한 공명심이나 물욕에는 뜻이 없고, 다만 법으로 출륙이 금지된 여인의 몸으로 출륙(出陸)하여 임금님 계시는 궁궐과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만덕의 여걸(女傑)다운 풍모를 엿볼 수 있다.

장계를 받아 본 임금은 캐히 허락하고 역마(驛馬)를 하사하여 연로(沿路)의 관(官)에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라고 분부하였다.

만덕은 관원의 안내로 정조 20년(1796년) 9월에 제주를 출발하였다. 그 때 만덕의 나이는 58세였다.

아침 일찍이 순풍에 화북포를 출발하여 저녁에는 추자도에 정박하고 다음날 관두량(館頭梁)에 상륙하였다. 관원의 말에 의하면 제주에서 육지로 나올 때는 이곳 외에 바람과 물 때에 따라 강진 백도도(白道島)나 영암의 이진포(梨津浦)로도 상륙한다고 하였다. 관에서 제공한 가마에 몸을 싣고 해남(海南), 강진(康津), 석제원(石梯院), 영암(靈巖), 수원(燧

院), 나주(羅州) 등지에 유숙하였다. 안내자가 말하기를 나주는 옛날 후백제의 견훤(甄萱)이 도읍하였던 곳이고 또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글안군이 침입하자 왕이 이곳까지 피난온 곳이라고 하였다. 또 고려 원종 14년(1273년) 제주에 들어온 삼별초(三別抄)를 토벌하기 위하여 김방경(金方慶)이 만여 명의 군대를 이곳에 집결시켜 제주로 건너간 곳이라고 하였다. 선암역(仙巖驛) 장성(長城) 갈재(蘆嶺) 정읍(井邑) 등지에서 유숙하였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정읍에서 이틀 간을 쉬었다. 이곳은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장희빈(張禧嬪)이 낳은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을 반대하였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숙종 15년(1689년) 2월에 제주로 유배되자 산지골 윤계득(尹繼得)의 집에 있었는데 100여 일 만에 다시 서울로 압송 도중 이곳에서 사약(賜藥)을 받아 죽은 곳이라고 한다. 태인(泰仁), 김구(金溝), 완산(完山), 삼례(三禮), 여산(礪山), 은진(恩津), 이산(尼山), 공주(公州), 천안(天安), 직산(稷山), 진위(振威), 수원(水原) 등지에서 유숙하였다. 가을비가 내려서 이곳에서 며칠 머물렀다. 정조 13년(1789년)에 팔달산(八達山) 밑으로 옮겼으므로 관아나 성곽이 훌륭하다. 용산(龍山)을 거쳐서 9월 하순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만덕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만덕의 얼굴을 보고자 하였고 때로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어 인심이 후함을 느꼈다.

만덕은 먼저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을 찾아 뵙고 상경의 뜻을 고하니 채제공은 먼 길을 올라온 노고를 위로하고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아뢰었다.

임금은 선혜청(宣惠廳 : 대동미와 포를 관장하고 진휼도 맡아 보는 관청)에 명하여 만덕이가 체류하는 동안 숙식을 돌보게 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내의원(內醫院 : 대궐에서 소용되는 의약을 맡아 보는 관청으로 고종 3년에는 典醫司로 개칭함) 의녀반수(醫女班首 : 내의원에 속한 女醫로 그 중 수석 여의를 말함)의 벼슬을 내렸다. 이는 평민으로서는 임금을 배알(拜謁)할 수 없으므로 만덕에게 예궐(詣闕)할 수 있게 하는 조치였다.

만덕은 궁인에게서 잠시 궁궐 예법을 익힌 뒤 궁궐의 법도에 따라 임금님을 알현하였다. 대신들과 수많은 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금님의 용안을 우러러 뵈게 되니 참으로 꿈만 같았다.

임금은 교지를 내리어 말하기를 「너는 한낱 여자의 몸으로 의기심(義氣心)을 발휘하여 천백여 명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호하여 귀중한 인명을 살리었으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다.」 하시고 상으로는 중국 비단 다섯 필을 내렸다. 만덕은 성은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나와 내전에도 뵈이니 중전도 우아(優雅)하신 말씀으로 치하 위로하며 장신구를 상으로 내리었다. 만덕은 거듭되는 영광에 그저 감격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리고 금강산 구경은 겨울이 문턱에 닥쳐오고 있었으므로 겨울은 서울에서 보내게 하고 이듬해 봄에 구경하도록 하였다.

서울에서 묵은 곳은 내의원이었는데 제주에서 말로만 듣던 서울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화려한 궁궐의 모습과 서울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도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전방(塵房) 구경은 서울의 물자 유통을 한 눈에 살필 수 있었다.

궁인의 안내로 궁궐의 인정전(仁政殿)과 주합루(宙合樓) 등 여러 궁궐을 보았다. 비원(秘苑)에는 소요정(逍遙亭), 태극정(太極亭), 연경당(演慶堂) 등의 아름다운 정자들은 사람 숨씨를 의심할만큼 대 걸작품이었다. 이 외에 돈화문(敦化門)과 홍화문(弘化門)은 보는 사람을 압도한다. 그러나 중전의 궁궐들은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어 이 궁궐들은 광해군 때 재건한 것이라고 한다.

장안의 명소 남대문(南大門), 동대문(東大門), 보신각(普信閣)과 한수석탑(寒水石塔)과 팔각정(八角亭)도 구경하였다. 또 청계천 수표교(水標橋)와 혜화문(惠化門)과 동대문 밖 민촌(民村)도 돌아보았는데 그들의 생활 수준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다음 해 3월에 임금은 강원관찰사에게 명하여 만덕이 금강산을 구경하는데 모든 준비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만덕은 관원의 안내로 강원관찰부에 들어가 관찰사에게 오게 된 뜻을 고하니 관찰사도 반기며 하명이 계서서 모든 준비는 다 되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두루 구경하도록 하였다. 관동영(關東營)은 어명에 의한 금강산 유람이라 하여 상하가 떠들썩하였다. 만덕은 관원의 안내로 금강산 1만2천봉을 눈앞에서 바라보았다. 일찍이 중국 어느 옛 시인이 고려국에 가서 친히 금강산을 보는 게 소원이라(願生高麗國親見金剛山) 한 바 있었는데 그 또한 소원으로 내세웠던 것이 오늘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내금강(內金剛)은 장군봉(將軍峯), 안문봉(雁門峯), 능허봉(凌虛峯), 영랑봉(永郎峯), 비로봉(毗盧峯), 월출봉(月出峯), 일출봉(日出峯), 차일봉(遮日峯), 백마봉(白馬峯), 내재무령(內在霧嶺) 등의 준령 고산이 이어져 있고, 명경대(明鏡臺)에 들어서니 네모진 적갈색의 크고 널찍한 바위가 우뚝 솟아 있다. 그 밑에는 맑고 깊은 물에 그림자로 비친 자태에 누구나 넋을 잃고 말을 멈추고 만다. 사람들이 이승의 행적이 여실히 비추어 보는 것과 같다고 해서 명경대의 이름이라 하였는데 그 황홀함에 감탄할 뿐이다. 또 만폭동(萬瀑洞)에 들어서니 흑룡담(黑龍潭), 분설담(噴雪潭), 선담(船潭), 진주담(眞珠潭) 등 여덟 개의 담(潭)이 주위 풍경과 어울려 말 그대로 신선들이 노는仙境(仙境)에 들어왔음을 느끼게 하였다. 경치에 취하여 장안사(長安寺)에 들렀다. 이 절은 신라의 진표(眞表)대사가 경덕왕 11년(752년)에 임금으로부터 시주를 받아 창건하였다고 하는데 사성전(四聖殿)과 나한전(羅漢殿) 속에 있는 화려한 불화에 넋을 잃었다. 또 백제의 관록(觀勒) 대사와 용운(隆雲) 대사가 혜왕(惠王) 1년(598년)에 창건하였다는 표훈사(表訓寺)와 경내에 무왕(武王) 1년(603년)에 관록대사가 창건하고 신라의 원효(元曉)대사가 문무왕 1년(661년)에 중건한 정양사(正陽寺)에 들렀는데 육면약사전(六面藥師殿)과 삼중석탑(三重石塔)

의 뛰어난 건축 솜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관록(觀勒)대사는 이 절을 창건한 후에 무왕 3년(602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백제의 불교를 가르친 고승이라고 하였다.

백운대(白雲臺) 산기슭에 있는 마가연(摩珂衍)에 머물면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단애절벽에 높이 60척이나 되는 거대한 좌불상이 조각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옆에 묘길상(妙吉祥) 세 글자가 새겨져 있으므로 묘길상 석불이라고 하였다. 언제 누가 암벽에 매달려 조각하였는지는 몰라도 몇 해를 걸려서 조각하였을망정 불력(佛力)의 가호가 없이는 생각도 못할 일이다. 또 삼불암(三佛岩)에 이르니 거대한 바위에 극락세계에 계시다는 아미타불(阿彌陀佛)과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란히 조각되어 있고 주위에 60여 개의 작은 불상들이 따르고 있는데 말을 멈추어 예불하다 보니 스스로 극락의 길로 인도되어 가는 착각마저 들었다. 만덕은 들리는 사찰마다 예불하였는데 제주에서는 보지 못할 일이었다.

제주에도 옛날에는 이름 높은 절들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배불정책(排佛政策)으로 쇠퇴하게 되고, 특히 명종 20년(1565년)에는 곽홀(郭訖) 목사에 의하여 절들이 헐리고 불상들이 없어졌다고 전한다. 그 중에 제주목에는 해륜사(海輪寺 : 용담포구 위에 있는 西資福)와 만수사(萬壽寺 : 산지포구 위에 있는 東資福)는 남아 있었는데 숙종 28년(1702년) 이형상(李衡祥) 목사에 의하여 절에 스님도 없고 건물은 폐퇴되어 가므로 이를 헐어서 관아의 용재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제주에는 무불지대(無佛地帶)이었으니 만덕은 이때 비로소 불상을 대하게 된 것이다.

또 보덕굴(普德窟)에도 들렀다. 한 개의 쇠기둥에 중력을 지탱하여 바위 꼭대기에 있는 암자(庵子)인데 보기만 하여도 아찔하다. 옛날 고구려 고승들이 수도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라고 한다.

북쪽으로 들어서니 외금강(外金剛)이 과도처럼 중첩하여 옥녀봉(玉女峯), 상등봉(上登峯), 온정령(溫井嶺), 오봉산(五峯山)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남동쪽으로 장군성(將軍城), 채하봉(彩霞峯)을 잇는 능선이 중첩하여 만태만상의 만물상(萬物相)이 여러 암봉과 관음연봉(觀音連峰) 집선봉(集仙峯), 세존봉(世尊峯)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도 만물상 중에 귀면암(鬼面巖)은 저승의 길목에 우뚝 서서 이승에서의 선행과 악행의 업보를 가리는 염라왕(閻羅王)을 방불케 하였고 그 장엄함에 압도되었다.

옥류동(玉流洞)에 이르니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제일의 계곡이다. 이 계곡은 옥녀봉(玉女峯)과 비로봉(毗盧峯)에서 발원하여 상류에 구룡폭(九龍瀑), 비봉폭(飛鳳瀑)이 걸려 있다. 구룡연(九龍淵)은 폭포가 떨어지면서 이루어진 깊은 못으로 아홉 개의 구혈(窟穴)이 화강암에 패어 있어 마치 용들이 빠져나오는 듯한 모습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관음 문필봉(文筆峯) 기슭에 신계사(神溪寺)가 있다. 이 절은 신라 법흥왕 6년(519)에 보운(普雲)대사가 창건하고 진덕여왕 7년(653년)에 김유신(金庾信) 장군이 중건하였다고 하는데 산과 절이 한폭의 그림과 같이 어울린다.

다음에는 유점사(楡岾寺)에 들렀다. 이 절은 금강산 4대 사찰 중에 가장 큰 사찰로 임진왜란 때 사명당(四溟堂) 대사가 이 곳에 있었으므로 침입한 왜적들이 사명당의 법력에 압도되어 오히려 사명당을 받들었다고 하였다. 대법당에는 많은 스님들이 수도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고 만덕은 스님들의 생활 모습에서 새로운 인생을 느끼기도 하였다.

고성(高城)에 이르러 삼일포(三日浦) 호수에서 배를 타고 놀았다. 서북 쪽으로는 암석 수봉(秀峯)들이 즐비하고, 남쪽으로는 구름 속에 기암을 구경하고, 동쪽으로는 고성 마을을 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뱃놀이를 하었는데 옛날 신라 때 영랑(永郎), 술랑(述郎), 남석랑(南石郎), 안상랑(安祥郎) 네 선인들이 경치에 취하여 사흘 동안이나 이 호수에서 놀았다 하여

사선정(四仙亭)이 있고, 꿈에 천상을 보았다는 몽천암(夢天庵)이 있다.

끝으로 통천(通川)으로 나가 해금강(海金剛)의 총석정(叢石亭)에 올랐다. 커다란 현무암 돌기둥이 여기저기 바다에 뿌리박아 서 있고 그 위에 정자가 세워져 있다. 여기서 망망한 동해를 바라보고 뒤로는 수려한 금강산을 바라보며 과연 천하 명산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 생각하며 무한한 성은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관동영로 돌아와서 관찰사에게 정중히 사의를 표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장안 화제가 된 만덕

서울로 돌아오자 장안은 온통 만덕의 이야기로 꽃이 피었다.

「제주에도 희한한 여자가 있네요 어떠한 여자인지 한번 얼굴이나 봐야지..」

「만덕의 얼굴을 보니 나이가 60이라 하지만 40 정도로 예쁘게 보이었소. 후리후리한 키에 눈은 쌍꺼풀이고 눈매가 맑아 마치 관음보살 같았소..」

「그가 기생 때는 명기 중에 명기였대요. 또 장사 솜씨는 만인이 당할 재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객주집 수십년에 제주 제일가는 갑부가 되었대요..」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 같이 쓴다는 말이 있는데,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기를 잘 써야 해요. 김만덕 여인은 손에서 땀이 나게 번 돈을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털어 놓았으니 돈 가치가 더욱 세상에 빛난 거지요. 쌀도 배를 전세 내어 만선으로 실어 갔대요..」

「만덕에게 소망이 무엇이나고 하니 서울 구경하고 금강산 1만 2천봉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였대요. 그래서 상감께서 그 소원을 가납하시고 국비로 서울 구경하고 금강산 유람을 시켰대요. 아마도 이러한 일은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일일 게요..」

「상감께서 만덕 여인을 친히 만나보시려고 내의원 의녀반수 벼슬을 내리셨대요. 내의원 의녀가 22명이니 그 우두머린 셈이지.」

「제주에서는 남자 낳기를 바라지 않고 여자 낳기를 원한다는데 과연 만덕 같은 여자가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구료.」

만덕의 숙소에는 매일 공경대부(公卿大夫)와 선비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만덕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줄을 이었다.

만덕은 서울에 돌아와서 며칠 쉰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내의원에 들러서 돌아갈 뜻을 아뢰니 전궁(殿宮)에서는 모두 전과 같이 상을 내렸다. 이어서 출발에 앞서 좌의정 채제공(蔡濟恭)¹⁾에게 작별인사를 고향에서 울먹여 말하기를 「이승에서는 다시 상공(相公)의 얼굴을 우러러 뵈일 수가 없겠습니다.」고 하니 채제공이 위로하는 말로 「진나라 시황제(始皇帝)나 한나라 무제(漢武帝)는 모두 해외에 삼신산(三神山)이 있다 하였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 한라산은 곧 영주(瀛洲)요, 금강산은 봉래(蓬萊)라 하였다. 너는 탐라에서 태어났으니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白鹿潭)의 물을 마셨고, 이제 금강산도 두루 구경하였으니 삼신산 중에도 구경한 것이다. 세상에 많은 남자들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너는 여자의 몸으로 구경하였으니 그 얼마나 장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나, 이제 작별함에 있어서 어린 아이처럼 척척거림은 마땅하지 않구나.」 하면서 그는 만덕의 모든 행적을 적어서 만덕전(萬德傳)이라 이름 짓고 웃으면서 건네주었다.

1) 蔡濟恭 : (숙종 46년 : 1720년~정조 23년 : 1799년) 호는 번암(樊巖), 시호는 문숙(文肅). 영조 19년(1743년) 문과에 급제하여 정조 초에는 형조판서를 지내었다. 정조 4년(1780년) 규장각 제학(提學)이 되어 서명응(徐命膺) 등과 함께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찬수하였다. 그 후 임금이 신임이 두터워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또 많은 선비들은 만덕을 칭송하는 글들을 지어주었는데 그 중 병조판서
이가환(李家煥)²⁾은 만덕을 만나보고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전송하였다.

만덕은 제주의 기특한 여인인데

(萬德瀛洲之妓女)

육십의 얼굴이지만 사십 쯤으로 보이네

(六十顏如四十許)

천금으로 쌀을 사들여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千金糴米救黔首)

한 번 바다 건너 궁궐을 찾아 뵈었구려

(一航浮海朝紫籙)

다만 한 번 금강산을 유람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但願一見金剛山)

산은 동북녘에 연기와 안개로 쌓여 있네

(山在東北煙霧間)

임금님이 끄덕이며 날썬 역마를 내리셨으니

(至尊頷肯賜飛驒)

천리의 광휘가 강관을 떠들썩하게 하네

(千里光輝動江關)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보는 마음과 눈은 장한데

(登高望遠壯心目)

표연히 손을 흔들면서 바다 구비 돌아가네

(漂然揮手還海曲)

2)李家煥 : (영조 18년 : 1742년~순조 1년 : 1801년)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종손(從孫)으로 영조 47년(177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개성유수 형조판서까지 지내었으니 이승훈(李承薰)의 숙부였으므로 천주교에 관여하였다 하여 충주목사로 좌천되었고 그 후 천주교 교리에 감화를 받아 순조 1년(1801년) 신유사옥(辛酉邪獄) 때 이승훈과 함께 순교(殉教)하였다.

탐라는 먼 예로부터 고량부가 살던 곳인데

(耽羅遠自高良夫)

여자로서 이제 비로소 임금 계신 서울을 구경하였네

(女子今始觀上國)

돌아오니 찬양하는 소리가 따옥새 떠나갈 듯하고

(來如雷喧遊鵲舉)

높은 기풍은 오래 머물러 세상을 맑게 하겠지

(長留高風瀟灑宇)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름을 세움이 이와 같으니

(人生立名有如此)

여희청대³⁾로 이름은 어찌 족히 몇이나 있으리

(女懷淸臺安足數)

도민의 사랑 받은 만덕

만덕이 서울을 출발하여 제주에 돌아온 것은 5월 그믐날이었다. 화북 포에는 가족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환영을 나갔다.

배에서 내린 만덕은 가족들의 손을 잡고 분에 넘친 영광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만덕은 유사모(柳師模) 목사와 조정일(趙敬日) 관관에게 귀향 인사를 하고 3일 동안 음식을 만들어 만나러 온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만덕은 돌아온 후에도 장사는 전과 다름없이 계속하면서 검소한 생활로 험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쌀을 주어 자선사

3) 女懷淸臺 : 진나라 시황제 때 淸이라는 과부가 조상의 업을 이어 받아 재산을 모으며 정절을 지켰으므로 이를 정부(貞婦)라 일컫고 그를 위하여 누대(樓臺)를 세우니 이를 여희청대라 하였음.

업(慈善事業)에 주력하였으므로 온 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만덕 할머니」로 통칭되었다.

한편 조정에서는 만덕의 부친 응열(應悅) 공에게는 가의대부(嘉義大夫)를 증자(贈資)하고, 오빠 만석(萬石)에게는 만덕의 구휼사업을 도운 공로가 인정되어 가선대부(嘉善大夫)를 내렸다. 또 조카 성집(聲集)도 만덕의 사업을 도왔으나 건강하지 못하여 정조 9년(1758년) 32세로 병사하였으므로 만덕은 그의 아들 시채(時采)에게 사업을 위탁하였다.

만덕은 순조 12년(1812년) 10월 22일에 74세로 조용히 눈을 감으면서 「내가 죽거든 성안을 한 눈에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였으므로 동문 밖 ㄱ으니ㄴ루(並園旨)에 온 도민의 애도 속에 서향 묘로 안장하였다. 이때 시채(時采)에게는 아들이 종백(鍾百), 종진(鍾晉), 종주(鍾周)가 있었으므로 막내 종주(鍾周)로 하여금 만덕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이국표(李國標) 판관은 만덕의 행적을 오륜(五倫)의 바탕이라 하여 비문을 지어 주었다.

그 후 현종 6년(1840년) 대정에 유배 온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⁴⁾는 만덕의 행적을 듣고 감동하여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번진다는 뜻으로 은광연세(恩光衍世)라 대서(大書)하고 그 옆으로 김종주(金鍾周)의 할머니가 이 섬의 큰 흥년을 구휼하니 임금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 금강산을 구경하였으며 벼슬아치들이 모두 전기와 시가로 이를 노래하였다. 이는 고금에 드문 일이므로 이 편액을 써 보내어 그 집안을 표하는 바이다(金鍾周大母 大施島機被殊異之恩. 至入金剛山 璫紳皆傳 記詠之 古今稀有也 書贈此扁以表其家)라고 하였다.

4) 金正喜(정조 10년 : 1786년~철종 7년 : 1856년) 이조판서 김노경(金魯敬)의 아들. 박제가(朴齊家)에 수학하여 19세에 문과에 급제, 벼슬은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현종 6년 윤상도(尹尙度)의 옥에 관련되어 제주도에 유배와서 현종 14년까지 9년간을 제주도에서 살았다. 특히 추사체(秋史體)를 독창하여 서예가로서 이름이 높았다. 금석학(金石學) 실학자로서도 대가이고, 호는 완당(阮堂) 예당(禮堂) 등이다.

김만덕 전기

김만덕의 자선

양 중 해

1

“영감님! 김만덕을 만나 보셨습니까?”

“김만덕이란 누구요? 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영감님이 김만덕을 모르시다니요. 그 제주에서 올라온 여인 말입니다.”

“아! 들었어. 주린 백성 먹여 살렸다는 그 여걸인가요? 들었어요. 헌데 임금님 배알하러 왔다는데 어찌 내가 만나요?”

“영감님 제주에 계실 때 만나보신 일이 없으신가요? 제주에서 객주업을 하였다니, 영감님 제주에 많이 가지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만난 일이 있는지도 모르지 않아요?”

“내가 제주에 내려갔을 때는 관에서 숙식을 배려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영감님 같은 품류객이 지금 장안의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 김만덕을 모르시다니…”

김만덕은 작년과 재작년, 제주에 흉년이 들어 온 도민이 굶주림으로 사정에 임박하였을 때, 평생 모아두었던 사재를 털어 육지로 나와 대량

의 양곡을 사들여다가,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한 보기 드문 여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새로 부임한 제주목사 유사모(柳思模)가 조정으로 상계하였더니, 임금님께서 제주목사에게 하교하시기를,

“그 여인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의인(義人)이로다. 그 여인의 소원을 물어보고, 그 여인의 소원대로 특별 시행하라.”

고 하셨다.

제주목사는 임금의 하교대로 김만덕을 불러 임금의 뜻을 전달하고 소원을 말하도록 했다.

김만덕은 대답하기를,

“임금님의 은혜에 감ahl 땀입니다. 아녀자의 몸으로 무슨 소원이 있겠사옵니까?”

“그래도 소원이 있을 것이 아니오? 서슴치 말고 말하십시오.”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말씀드리자니 평소의 소원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한양으로 올라가서 성상이 계신 궁궐을 한번만 우러러보고 싶은 일이오며, 또 한가지는 우리 나라의 명산인 금강산을 한번만 구경하고 싶을 땀입니다. 이 목숨 다하기 전에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질 수 시어시민 하는 것을 평소에 소원하여 왔을 뿐입니다.”

김만덕의 이 말을 들은 목사는 감탄하였다. 여자이면서도 그 흥금의 넓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대 이 사회의 아녀자란 그 누구 할 것 없이 ‘안사람’으로 통하는 여인의 몸으로, 어찌 온백성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계신 궁궐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과 우리의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날 수 있었을까?

제주목사 유사모는 김만덕의 이 소원을 듣고, 이를 다시 조정으로 상계하였다.

임금은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제주의 여인 김만덕은 내가 사랑하는 절해고도의 주린 백성들을 나를 대신하여 구휼한 의인이다. 그 행실이 너무도 가륵하다 아니 할 수 없으니,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 하였던즉, 왕경으로 올라와 궁궐을 우리러보고 싶다 하였고 또한 금강산을 유람하고 싶다 하였으니 과인이 이를 시행하고자 하오. 영상은 이 일을 각 소임에게 분부를 내려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시행하도록 하시오.”

하셨다.

드디어 김만덕의 소원인 왕궁에의 입궐과 금강산 유람에 따른 모든 절차가 각 소임에게 전달되었다.

김만덕은 제주목사의 지시에 따라, 정조 20년(1796) 추9월 초 제주목에서 파견하는 관리의 인솔에 따라 별도 포구에서 풍선을 타고 생전 나가보지 못한 육지 땅을 밟은 것이다.

각 역마다에서 제공하는 역마의 편의를 이용하면서 한양에 도착하기는 9월 중순, 김만덕 일행이 한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김만덕은 각 고을마다 화제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한양에 들어가자 김만덕은 먼저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을 찾아 뵙고 왕은을 입고 상경하였음을 아뢰고 아울러 문안을 드렸다.

영의정 채제공은 바로 입궐하여 김만덕이 입경하였음을 왕에게 아뢰었더니, 왕은 선혜청(宣惠廳)에 명하여, 김만덕 일행이 한양에 체류하는 동안의 숙식과 필요한 의상을 갖추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하였다.

의상이라 함은, 김만덕이 평민으로서는 예궐(詣闕)할 수가 없으므로 왕은 김만덕에게 내의원(內醫院)의 의녀반수(醫女班首)의 직함을 제수하였던 것이다. 내의원 의녀반수라 함은 여의사의 수석을 말하는 직함이다. 이는 김만덕에게 예궐할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을 마련하여 주신 것이니 이에 따른 복장이 필요한 것이다.

평민인 김만덕에게 의녀반수의 직함이 내려지자 김만덕은 영상 체제 공의 안내에 따라 편전으로 들어가 임금 앞에 엎드려 문안을 올렸다.

임금은 김만덕을 가까이 인견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개 아녀자로서 사재를 털어 수많은 기민을 구휼하였으니, 진실로 가극하다 아니할 수 없다.”

하시면서 왕은 김만덕이 엎드린 데로 가까이 다가가시고는, 김만덕의 왼손을 덥석 잡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칭찬을 하셨다. (‘왕이 김만덕의 손을 잡았다’는 부분은 속설로 전해 오는 말로서, 김만덕은 왕이 잡았던 손을 평생 명주로 감고 더럽히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내의원 의녀반수로서 임금을 배알할 수 있었던 김만덕에게는 후한 상이 내려졌으며, 이제 그녀의 평생 소원 두 가지 가운데의 그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소원인 금강산을 유람 하는 일은 계절적으로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다.

상경한 이후 그동안 궁궐로 들어가 왕께 배알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 계절은 10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금강산 유람은 다음해의 봄으로 미루고, 추운 겨울 동안은 한양에 머물면서 도성 안에 있는 명승지를 두루 돌아보기로 하였다.

제주에서 김만덕이란 여인이 임금에게 불리어 올라와 임금을 배알하고 상도 후하게 받았을 뿐 아니라 내년 봄에는 금강산을 유람하기 위하여 이 겨울 한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한양의 구석 구석까지 돌고 있었다. 김만덕의 귀에도 이런 말이 가끔 들리곤 했다.

“김만덕이란 여인의 이름 들어봤어?”

“그 제주 여인 말이여? 되게 부자라대.”

“작년, 재작년, 제주에 큰 흉년 들었잖아? 그 여자 혼자 굶주린 백성 다 먹여 살렸대. 얼마나 부자면 그럴꼬?”

“임금님이 불러들이시고 상도 푸짐하게 내리셨다니, 무슨 상 받았을꼬?”

“그랬나봐, 한 번 만나 봤으면 좋겠네.”

“만나기는 어떻게 만나, 높은 벼슬아치면 몰라도, 되게 미인이라대.”

“아무리 미인이면, 지금 50대라는데.”

“50대든 60대든 미인은 미인이여, 김만덕 여인은 지금도 되게 미인이라대.”

일찍이 공적 사적으로 제주에 갔을 때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만덕이 한 때 관기로 있었다가 기적에서 벗어나, 객주업을 시작할 때도 나이는 20대 초였다.

얼굴은 남달리 예뻐고, 손님 대하는 재주가 있어, 인기가 높았다.

그 인기와 명성 때문에 경래관이나 한량배들은 제주에 오기만 하면 김만덕을 찾았던 것인데, 김만덕은 그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했다.

어사나 목사 경래관 가운데는 그 미모와 친절함에 반하여, 또는 다른 욕망으로 접근해 오는 자도 없지 않았으나, 그때마다 적절한 슬기로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오히려 감동을 받으면서 물러서게 만든 경우가 많았다.

그런 손님 가운데는, 한양으로 올라온 다음에도 종종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아직도 김만덕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한양 선비, 김만덕의 인상을 지워버리지 못하는 한양 한량들도 많았다.

정조 20년(1796) 10월달부터 금강산을 유람했던 그 이듬해 봄까지 김만덕은 한양에 머물고 있었으니, 그 긴 겨울 동안, 가끔은 그러한 옛 지면의 인사들이 찾아와 무료함을 달래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김만덕이 관기로 있었을 때가 40년 전, 그 때의 얼굴들은 거의 사라졌다. 이제 김만덕도 지난 날의 기녀인 김만덕, 객주업 주인인 김만덕이 아니고, 왕의 부르심을 받고, 왕을 배알하기 위하여, 내의원 반수의 직함

을 받고 있는 신분이다.

나이로도 금년 58세, 자세히 보면 귀밑 머리에는 벌써 새치가 희끗희끗 섞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날의 그 예쁘기만 했던 모습과는 달리, 많은 풍파와 경륜을 겪은 뒤, 인생을 깊숙이 관조하는 듯한 그 근엄한 눈빛과 음성 앞에, 어지간한 한량배들이라면 압도되어, 응분의 예의를 지키며 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만덕은 한양에 체류하는 동안, 한양의 명소를 두루 구경하였다. 숙식에 따르는 비용 등 모든 절차는 선혜청(宣惠廳)에서 배려하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한양의 겨울은 가고 정조 21년(1797. 정사)의 춘삼월이 되었다.

추위 때문에 미루어오던 김만덕의 금강산 유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조대왕은 관계 관청에 대하여 김만덕의 금강산 유람에 따른 모든 편의를 차질없이 제공하도록 분부하였으므로, 그녀의 일행은 좋은 날씨를 골라 금강산 유람에 나섰다.

금강산은 산은 하나이로되, 그 경치는 계절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데서도 유명하다.

사계절에 따른 금강산의 별칭을 보고도 알 수 있다. 춘금강(春金剛), 하봉래(夏蓬萊), 추풍악(秋楓岳), 동개골(冬皆骨)이라고 하였으니, 금강산의 봄풍경은 금강석처럼 맑고 투명하며, 초록으로 덮인 여름에는 삼신산의 하나인 봉래산인 것이며, 가을에는 타는 듯 붉게 물든 단풍, 겨울에는 낙목한천(落木寒天), 온 산이 골상(骨相)이라는 것이다.

춘금강(春金剛), 이제 바야흐로 봄, 산행(山行)의 계절로는 봄보다 더한 계절이 없을 것이다.

영상 채제공과 선혜청의 배려로 금강산 유람의 길에 능숙한 안내원을 내주었다. 김만덕은 드디어 그림던 금강산의 탐승에 나선 것이다.

어느 산을 보아도 금강산은 제주의 산과는 아주 달랐다.

제주는 고래로 돌이 많다고 해서 다석(多石)의 고장으로 불리워지고 있지만, 산들은 대부분이 처녀의 젓가슴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돌이 없이 목초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현대 금강산이나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산들은 거친 바위 산들이 많다. 제주처럼 다석(多石)의 고장이 아닌데도 산은 거칠고 바위의 산이다. 금강산이 더욱 그랬다.

금강산에 와 보니, 뽕죽뽕죽한 봉우리가 많다. 일만 이천 봉이라니 어떤 봉우리까지 셈하여 일만 이천이라는 것인지, 산이 봉우리의 연속이면서, 다시 봉우리는 모두가 아름답게 빛나는 바위, 바위의 절벽에는 새봄을 맞는 자연의 연초록, 그 사이사이에는 철쭉과 진달래의 연분홍, 아무리 자연의 조화라고는 하지만, 어찌 저 아득한 절벽 위에까지 올라가 연초록이니 연분홍이니 아름답게 피었을까.

끝을 울리는 물 소리 있어 굽어 보니, 바위와 자갈을 씻는 맑은 물, 그대로 주저 앉고 발을 담그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음이 서운했다.

김만덕은 표주박을 빌어다가 물을 떠 마셨다. 물은 얼음처럼 차다.

양 손을 물에 담그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 마시면 힘이 솟을 것 같았지만, 이젠 벌써 양 손을 물에 담글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점입가경(漸入佳境), 걸음은 들어설수록 아름다운 경치가 전개되었다.

아름다운 경치를 대할 때마다, 이 경치를 두고 돌아서야 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수정처럼 맑은 물, 물 속에 거꾸로 잠긴 절벽, 절벽에 핀 아름다운 꽃들, 비단결로 굽이지며 떨어지는 폭포수 앞에서는 지나칠 수가 없어, 한참 서있어야 했다.

아름다운 이 산 속에 초막 하나 엮고, 남은 평생, 산을 바라보고 물소리 들으며 살고 싶었다. 이렇게 살다가 그 맑은 물가 고운 언덕 어디쯤

에, 누울 자리 얻어 묻히고 싶다…… 공상만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었다.

산행길을 따르다가, 여기는 꼭 정자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장소에는 어김없이 정자가 있었다.

묘하게도 사람의 생각에는 공통점이 많은가 보다 생각되었다.

절을 지나칠 때는 법당 앞에 걸음을 멈추고, 합장 배례를 하였다.

제주에는 절다운 절도 없을 뿐 아니라, 제주의 절에서는 불상을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이 금강산의 절에는 황금빛 눈부신 불상이 절마다 있어서, 그 앞에 서면 절로 손을 모으게 하였다.

일행은 만폭동(滿瀑洞)과 중향성(衆香城)의 기슭을 탐방하고, 유점(楡岾)을 거쳐 고성(高城)으로 내려가, 삼일포(三一浦)에 이르러 뱃놀이도 하였다. 그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 사흘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삼일포, 보고만 지나쳐야 하니 애석하기 그지 없었다.

다시 통천(通川)으로 가서 총석정(叢石亭)에도 올라보았다.

아름다운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고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임금님의 은혜가 너무나 벅차도록 고마웠다.

한양으로 돌아온 김만덕은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선혜청으로 들어가 제주로 돌아갈 것을 고하고, 그동안의 배려에 감사를 표하니, 전궁(殿宮)이 모두 전별의 증표로, 전일과 같이 다시 상을 주었다.

김만덕은 한양을 떠남에 앞서 마지막으로 작별인사를 하기 위하여 채상공(蔡相公)을 찾아갔다.

그동안 자기가 궁중으로 들어가 금상전하를 배알할 수 있었던 것이나 금강산을 유람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채상공의 세심한 배려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하니, 김만덕은 채상공이 너무나 고마웠다.

그녀는 채상공에게 떠나는 하직인사를 드리러 갔던 것인데, 채상공을 대하는 순간 갑자기 목이 메어버렸다

한참을 있다가 울먹이며 겨우 말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소녀가 고향인 제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천한 이
아녀자를 위하여 베풀어주신 대감님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터이오
나, 이제 하직하오면, 이 세상에서 다시는 존안을 우러러 볼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체 만강하시옵고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고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그만 울어버렸다.

이에 채상공은 김만덕을 타일러 말하기를,

“진시황이나 한무제가 한결같이 삼신산(三神山)은 먼 바다 밖에 있다
고 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한라산을 이른바
영주(瀛洲)라 하였고, 금강산을 이른바 봉래(蓬萊)라 하였다. 너는 탐라
에 태어났으므로,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의 물을 마실 수 있었고, 이제
다시 금강산을 편답하였으니, 삼신산 중 두 곳을 두루 밟은 것이 아니냐?
천하에 내노라는 그 수많은 사내들이 어찌 다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제 그대가 작별에 임하여 드디어는 어린 아이처럼 눈물을 보이니 마땅
치 않구나.”

하면서, 만덕에 관하여 모든 사실들을 기록해 두었던 것을 「만덕전」
(萬德傳)이라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만덕에게 건네주었다.

김만덕은 채상공이 너무나 고마웠다.

이 때, 김만덕의 나이는 쉰 아홉, 채상공의 나이는 일흔 여덟이었다.

반년 동안이나 한양에 머물렀던 김만덕은 상경할 때의 소원을 모두
이루었으니, 이제는 고향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었다.

유사모 제주목사가 길 안내 겸 보호자로 따라 보내준 관리와 함께
상경할 때의 길을 거꾸로 내려왔다.

연로(沿路) 각지의 역마다에서 제공하는 역마를 이용하였으며, 역마다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었다.

김만덕은 내려오는 길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역정이 고비고비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열두 살에 천애의 고아가 되어 기녀에게 의지하면서 겨우 겨우 목숨을 유지하던 때부터, 이제 흥은을 입고 궁중으로 들어가 임금님을 배알하고 금강산을 유람한 다음 못 남자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고향 제주로 내려 오는 지금까지, 그 많은 곡절을 살아온 쉰 여덟 해의 세월이 꿈만 같았다.

그러한 추억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어린 시절이었고, 가장 아픈 추억도 어린 시절이었다

2

김만덕은 영조 15년(1739. 을미), 제주성(濟州城) 안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은 김응열(金應悅)이었으니, 경주김씨의 집안이다.

오라버니 만석(萬碩)과 오라비 만재(萬才)가 있었으니, 2남1녀 중의 가운데에서 자랐다.

집은 비록 가난하였으나 지체있는 집안이었으며, 만덕은 어렸을 때도 유달리 예쁘고 귀여웠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심부름을 끝잘 하였으며, 오라버니 만석과 동생 만재의 할 일까지도 도맡아 하곤 하였다.

마음씨가 고와 벗이 많았으며, 벗들 사이에서도 착하기로 일컬어졌으니, 벗들도 많이 따랐다.

집은 가난하였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던 만덕의 집안에, 갑자기 불행이 왔다.

만덕의 나이 열두 살이 되던 영조 26년(1751. 경오)의 봄부터 제주성안에 돌림병이 일어나더니, 이 모진 병은 날이 가면서도 조금도 가라앉지 않고 번져 나갔다.

알아도 약을 살 수 없고, 환자가 생긴 집은 문을 닫게 하고, 그 가족들은 밖으로 나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일만이 유일한 대처방안이었다.

어제는 동넙 집, 오늘은 서넙 집 하면서, 이 돌림병은 들불처럼 번져 나가더니, 드디어 만덕의 집까지 밀어닥쳤다.

먼저 아버지가 눕고 이어 어머니가 눕더니, 며칠 사이에 세 남매만 남겨 두고, 그의 부모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꺼번에 돌아가신 것이다.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장사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였다. 가족끼리만 조용히 파묻어야 했다.

만덕의 집에는 어린 자식들만 남겨 놓고 부모가 한꺼번에 돌아갔으니, 장사를 치를 방법도 없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이웃에서 어렵게 이 두 시신을 물어주었으니, 그 장사는 제대로 갖춘 장사가 되었을 리 없었다.

만덕이네 세 남매는 사고무친, 천애의 고아가 되었다.

이 무렵의 돌림병은 제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히 전국적이었으니, 이 해 봄부터 5월 말까지의 전국의 병사자가 12만 4천명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참으로 무서운 돌림병이었으며, 이 해에 제주에는 기근까지 겹쳤던 것이므로, 그 참상은 형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만덕 남매들에게는 가까운 친척도 없었다.

때가 어려운 때라, 입 하나 보태는 일이 그렇게도 무서운 일이었으니, 친척이라 해도 먼 친척은 아는 체 할 수가 없었다.

만덕이네 세 남매는 살 길이 아드막한 가운데, 만석과 만재는 먼저 남의 집 ‘드살이’로 들어 가고, 만덕 혼자만 남게 되었다.

이 무렵, 만덕이네 집 가까이 한 기녀가 살고 있었다. ‘한매’라는 이름의 기녀였다. (‘한매’는 ‘寒梅’라고도 하고 ‘大山’이라고도 하였으니 분명하지 않다.)

한매는 만덕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아 왔다.

갈 때 올 때, 늘 귀엽다고 생각해 온 그 만덕이 이제 양부모를 잃고 혈혈 단신의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다.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것이다.

더구나 두 형제들까지도 남의 집 ‘ㄷ살이’로 나가버린 뒤에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가끔 만덕의 집에 들러 도와주기도 하곤 해왔다.

그러다가 한때는 만덕을 양녀로 삼아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얼마간의 쌀과 반찬감을 싸 가지고 만덕의 집으로 왔다.

“만덕이 시냐.”

만덕이 방실방실 웃으며 나왔다. 방안에서 들은 목소리로 친절한 이웃 아주머니인 것을 알았다. 언제나 친절히 도와 주시는 이웃 아주머니라, 찾아온 것이 무척이나 기뻐다.

얼굴에서는 천애고아로서의 슬픈 그늘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밝은 표정이었다. 쌀과 반찬감을 문지방 안으로 놓았다.

“주신난 반암소다마는 이영 받기만 해도 되카마썸?”

“느 미신 말 해엌디? 그런 말 당추 흐는거 아니여.”

한때는 무슨 할 말이 있는지, 한참을 생각에 잠기다가,

“느 나영 살아볼티야?”

갑작스런 질문에 만덕은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다라기보다 질문하는 그 뜻을 몰랐다. 집에서 일어나 부리는 ‘ㄷ살이’로 살고 싶으냐는 말로 들리기도 했다.

“나 일 잘 해여질지 모르쿠다마는 날 ㄷ랑가쿠과? 잘 흐여보쿠다.”

일을 하는 데는 자신이 있는 만덕이었다. 이 아주머니가 도움을 줄 때마다 이 아주머니 집에 가서 심부름을 하면서 살았으면 하고 생각하던 일도 있었다.

“나 늘 딸로 삼앙 ㄷ랑 살고 싶은디, 느 믑슴은 어떻 돌아감시?”

“너미 고맙수다. 나 시키는 일 잘 흐크라마썸.”

위로 올라버니 아래로 동생이 모두 남의 집 ‘독살이’로 고용되어 나간 뒤, 혼자 남은 만덕으로서는 혼자 살아갈 방법이 없던 차에, 집 가까이 사는 기녀 한매로부터 양녀로 삼겠다는 말을 듣고는, 누구와 의논해 보지도 않고 한매의 집으로 옮겨 살았다.

기녀 한매의 수양딸이 되던 날부터, 만덕의 의식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천성이 어질어 집안의 잔 심부름은 자진하여 부지런히 하였으므로 수양어머니로부터도 친어머니 못지 않는 사랑을 받았다.

기녀의 집에 삶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5·6년이 지나감에 따라, 만덕의 나이는 17·8세가 되어가자, 마치 갓 피어난 함박꽃 같이 얼굴은 요염하고 몸도 풍만해져 가니, 못 남자들의 눈길을 모으는 존재로 되어 갔다.

기녀의 집에서 자라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가운데서, 거문고와 가야금을 다루는 데도 남다른 솜씨를 보였으며, 노래와 춤에도 소질이 있었으니, 만덕의 소문은 성안 구석 구석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못 남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즐겁고 행복했다.

타고난 용모, 맑은 음성, 상냥한 성품, 거문고와 가야금의 솜씨 등, 기녀로서 갖추어야 할 소질은 빠짐 없이 타고난 만덕을 관가에서는 관기로 삼으려고 했다.

관기로 등록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생활이 풍족한 사람들만 주로 상대하게 되므로, 삶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였다.

관기의 신분으로 있다가 기회를 얻어, 크게 팔자를 고친 사람도 있다고 선배 관기가 즐겼다.

관에서의 요청도 집요하였다.

이 무렵, 만덕의 장래에 대하여 진실로 걱정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녀는 아무런 마음의 부담도 없이 관기로서 기적에 오를 것을 승낙하였으니, 17·8세를 넘기면서 만덕은 이미 기억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녀생활에는 만덕은 타고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빼어난 미모, 맑은 음성, 깊은 산 속의 맑은 호수와도 같이 그윽한 마력을 지닌 눈매는 못 사나이를 사로잡는 데 모자람이 없었다.

한양에서 내려 온 벼슬아치나 풍류객들도 만덕을 한 번 본 사람은, “제주에도 이런 절색이 있었구나!”

누구나 탄복을 하는 것이었다.

제주목사를 비롯 삼읍 수령들의 연회에는 반드시 만덕이 끼어주어야 분위기가 고조되고, 술자리의 흥취가 되살아나곤 하는 것이었다.

기적에 오르자마자 만덕의 성가는 제주 성안을 독차지하였던 것이니, 그녀는 20세에 이미 관기의 우두머리인 행수기생이 되고 있었다.

기생이란 길가의 버드나무나 울타리에 핀 장미꽃과도 같이, 오가는 사람 누구나 건드리고 싶은 사람은 건드리고 지나갈 수 있는 신분이라고는 하나, 만덕은 기적에 오르면서, 못사나이의 보편적인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으니, 부딪히는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른 슬기로 스스로의 몸을 잘 보호할 수 있었다.

한양에서 순무어사 홍상성(洪相聖)이 제주 군사를 검열하기 위하여 내려 왔을 때의 일이다.

제주목사는 술자리를 베풀고 만덕을 불렀으나, 만덕은 밖에 일이 있어 외출 중이라고 아뢰었다.

이 때 만덕은 행수기행으로서, 특수한 술자리가 아니고는 나아가지 않을 때였다.

술자리가 거의 과할 무렵이 되어서야 술자리로 나아가 제주목사와 한양 손님에게 인사를 드렸다.

순무어사는 한 눈에 만덕에게 반했다.

“제주에도 저런 미색이 있었던가.”

순무어사로서는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숙소로 들어간 순무어사는 사람을 시켜 만덕을 숙소로 불러들였다.

만덕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자기를 불러들인 순무어사의 내심을 만덕은 모를 리가 없었다. 순무어사의 숙소로 가면서 만덕은 벌써 그 대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만덕은 어사의 거실로 들어서자 어사의 무릎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어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보는 것이었다.

어사는 만덕의 하는 행동이 너무나 뜻밖이라 생각하면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느냐? 무엇을 그리 뚫어지게 보는 것이냐?” 만덕은 이 어사를 어떤 호칭을 부를까 생각하다가, 부드러운 사색임을 보이기 위하여 ‘어르신’으로 부르기로 했다.

“어르신 얼굴이 선친의 얼굴과 그렇게도 닮으실 수가 있습니까? 얼굴의 바탕이랑 콧날 귀바퀴 흘 것 엇이, 특히 입 언저리, 수염의 술까지도 선친님 똑 빼셨습니다.”

만덕은 낮으막한 목소리로 깊이 사색에 잠기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만덕의 이 말을 들은 어사는 일방으로는 깜짝 놀라는 듯, 일방으로는 의아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네가 나의 선친을 어떻게 안단 말이나? 말 같지 않구나. 나의 선친을 어디서 만났다는 말이나...?”

어사의 선친은 벌써 돌아가고 삼년상을 갓 넘기면서 제주로 온 것이므로, 이 기녀가 자기 선친을 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소리인 것이다. 만덕은 다시 말을 이으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기 황송했으나, 어젯밤 꿈에 꼭 어르신 같으신 그 어르신을 만났사옵니다. 그 어르신 말씀이 ‘이 고을에 내 아들이 올 것인데, 내

아들이 일을 잘 처리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를 살펴보기 위함여 왔다’
말씀하시면서 이 소녀에게 찾아 오셨는데, 그만 이 소녀를…….”

하고는 말을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어사는

“어이 말을 이어가지 않느냐? 그래 어떻게 했다는 말이냐?”

어사는 꿇긴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듯이 만덕에게 말을 하도록
독촉하였으나, 만덕은 짐짓 말하기가 어려운 듯이 입을 오물오물 하다가,

“아무리 허망한 꿈이라고는 하나 그 이상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죄송
해서, 이쯤만 하고자 합니다.”

이쯤 되자 어사는 더욱 듣고 싶다는 표정으로, 다 말을 해보라고 다그
치는 것이었다.

“그 때 선친님께서서는 소녀를 희롱하시다가, 소원이 그러시다고 하시
서, 이 소녀는 그만 그 뜻을 받아버렸사옵니다. 잠깐 놀라 깨고 보니,
그게 너무도 허망하고도 망척스러운 꿈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네가 그런 꿈을 꾸었던 말이냐?”

“그 선친님의 꿈을 어젯밤 꾸었는데, 오늘 어르신을 뵈을 게 무엇이겠
습니까? 소녀는 어르신의 선친을 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
본 그 얼굴이 어르신의 얼굴과 다른 데가 전혀 없습니다. 눈이며 코이며
귀이며 음성까지도. 그런 것으로 보면 사람의 영혼이란 꼭 씻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꿈이란 것이 모두 허망한 것만은 아닌 것을 알아지지
않습니까. 어르신…….”

“너의 꿈은 그것으로 끝났단 말이냐?”

“그런데 어르신 선친님께서서는 이 소녀에게 한 가지의 약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무슨 말씀도 어김 없이 지킬 터이오
니 말씀 주십시오’고 하였더니, ‘너는 오늘 나하고 이와 같이 깊은 정을
나누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몸을 함부로 맡기지 마라. 이 약조를 지킬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약조까지
했었사운데, 그게 허망한 꿈이지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더 말을 잊지 못하는 듯 끊어버렸다.

어시는, 처음엔 흐트러진 자세로 손을 만덕의 무릎 위에 놓고 앉아
있었으나, 만덕이 선친의 꿈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만덕의 무릎에서 슬그
머니 손을 떼고 정색을 하는 것이었다.

“허망한 꿈이라고는 하나, 그 꿈을 꾸 다음 날인 오늘 어르신을 뵙게
되었사오니, 앞으로도 어르신 선친님께서는 늘 돌아봐 주실 것 같아
소녀의 언동 각별히 조심하고자 합니다. 그런 인연으로 어르신 심부
름도 성심껏 하여드리고자 합니다.”

밤은 이미 자정이 넘었다. 밤이 깊었는데도 만덕의 눈은 별빛처럼
초롱초롱했다.

어시는 측근의 관리를 불러 만덕을 그의 집까지 인도하도록 하였다.

만덕은 행수기생이 되면서 많은 기녀를 거느리게 되었다.

타고난 용모와 성품과 임기응변의 슬기로 기녀생활에는 아무런 불편
도 없었다. 어찌보면 훌륭한 기녀로서의 재질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기녀생활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만덕은 이
화려한 기녀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나는 양가의 딸이었다. 왜 분 바르고 단장한 얼굴로 남자들의 틈에
끼어 술시중을 들어야 하느냐?”

기녀생활에 대하여 강한 저항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생각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였다.

기녀의 생활을 하다 보니, 목사나 관관을 비롯 크고 작은 관리들을
날마다 대하게 되었다. 터놓고 의논이 될 수 있는 관리를 만났을 때는

자기의 신상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논할 때도 없지 않았다. 기녀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의논에 응해주는 사람, 기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주는 사람은 한없이 고마웠다.

4

만덕은 그동안 생각해 오던 바를 실천에 옮기고자 했다. 그 생각해 오던 바라는 것은 기적(妓籍)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우는 일이다.

어느 날 만덕은 관청으로 나아가, 자기의 이름을 기적에서 지우고 친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보니, 기녀 가운데서도 행수인 김만덕이 아닌가? 그녀가 이제 기안에서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 믿어지지 않았다.

“어찌 한 계집이, 기녀가 되었다 말았다 하겠느냐? 말 같지 않은 말 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관에서는 두 말 붙여보지 못하도록 잡아떼는 것이었다.

한 번 갔다가 거절당하고 두 번 가서 거절당해도, 만덕은 몇 번이고 찾아가 애원했다.

관기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 알고 지내는 관리들도 많았다. 사석에서 의논해본 관리들도 있었다. 사석에서 의논할 때는 동정을 해주던 관리도 이 일에 직접 관계가 없는 관리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다시 말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예전에 술자리에서 조언을 해주던 관리나 아전들도, 막상 수속을 밟아 보려 하니, 돌아오는 말은 한결같이 신통치 않았다.

한 사람의 아녀자가 기적에 올랐다면, 오를 만한 연유가 있어 오른 것이고, 신분의 차이가 있는 기녀와 양녀 사이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이 용납이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만덕은 더 말해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최후의 수단으로 이를 바로 제주목사와 제주관관에게 탄원하기로 마음 먹었다.

당시의 제주목사는 신광익(申光翼)이고, 제주관관은 한유추(韓有樞)였다.

목사는 이 고을로 부임해온 지 오래지 않았으니 만덕에 대해서는 낯설었지만, 부임해오던 다음날, 이 고을 대소 관리들이 만덕의 집에서 환영의 술자리가 있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다.

목사는 그 뒤에도 아랫사람들과 몇 번 들렀으니, 행수기녀인 만덕은 사유가 있어 나오지 못했다고 하였으니, 다시는 만난 일이 없었다.

기적에서 벗어나고자 한 번 마음 먹은 만덕은, 되면 하고 안되어도 별 수 없다는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말이었다. 대담하게 부딪혀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결코 뒤물러서지는 않는다고 다짐을 하고 있었다.

만덕은 목사 앞으로 나아가 벼을 수 있기를 청하고, 면담이 허락되었다.

목사 신광익은 전라수사(全羅水使)로 있다가 이 해에 부임해온 무관 출신 목사이지만, 모든 일에 사려 깊은 처리를 하는 목사였다.

만덕은 목사 앞으로 나아가 눈물로 호소하였다. 기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날 수 없음은 목사의 처리에 달렸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소녀는 비록 가난한 농가이긴 하나 본시 양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난 경오년(1751)의 돌림병으로 양부모를 모두 잃고 살 길이 막연하던 중, 기녀의 도움으로 살 길을 찾아, 기녀의 집에서 자랐던 연고로 기적에 이름을 두게 되어, 지금까지 기역(妓役)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소녀 본시는 양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양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소녀를 양가로 돌려주시면 사또님의 은혜 백골난망합니다. 소

녀의 처지 가엾다 보아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눈물로 호소하였다.

목사는 찾아온 여인을 보니, 제주목사로 부임하던 날 행수기생으로 인사를 받았던 얼굴이었다. 그날 저녁 목사는, 제주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상냥한 기생이 있는가 하고 기억에 남고 있는 그 얼굴이었다. 목사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기녀 따위를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그 동안 관심이 없었을 뿐이었다.

그 뒤 공적 사적으로 그녀의 집에 몇 번 들렸으나, 아름다운 이 얼굴은 다시 보이지 않았던 일도 생각되었다.

이 신목사가 부임할 무렵 이후는, 기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급적 술자리에서 시중드는 일을 삼가왔던 것이기도 하다.

목사는 만덕에게 생가의 가계와 오늘의 상황, 기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연고를 물었더니, 여녀 기생과는 달리, 자기의 가계에 대하여 소상히 말하고, 자기가 이와 같이 기방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은 조상에 대한 불효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 제주에서 한 유력한 집안 경주김씨에 관한 공부를, 한 기녀를 통하여 배우게 되다니…….’ 만덕이 눈물로 호소하는 탄원에 대하여 제주목사 신광익은 저으기 감동하고 있었다.

만덕은 목사를 만나고 나온 다음 날, 이번에는 제주관관을 찾아갔다.

제주관관 한유추(韓有樞)는 목사보다는 앞서 부임해 왔으므로, 관기 만덕을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제주관관을 찾아간 만덕은 제주목사 앞에서 호소한 내용과 꼭 같은 말로 엮드려 호소했다.

한유추 관관은 그 동안 이 만덕을 참으로 유능한 기녀로 생각해왔다.

때로는 매우 풀기 어려운 일을 만나 골몰하다가도, 만덕을 만나 술을 마시다보면 그 해법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곤 하던 것이었다.

이제 그 만덕이 기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즈음 한유추는 제주관관의 임기가 거의 다 될 무렵이었다. 한 관관도 평소 행수기너 만덕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임기를 마치면서, 적선 하나 해놓고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될 일인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관관이 이 일을 목사 앞에 들고 갈 형편도 아니었다.

다만 만덕이 호소하는 내용이 사리에 어긋나는 말은 아니고, 부모나 조상에 대하여 지성껏 효도하겠다는 것이니, 그 어떤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일 뿐, 그 이상의 언질을 줄 수는 없었다.

“내 너의 뜻을 알았으니 돌아가 있어라.”

만덕은 관관에 대하여 미안하고 송구스러웠다. ‘돌아가거라’ 하지 않고 ‘돌아가 있어라.’라는 말에서, 관관의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이름 있는 한 손님이 만덕의 집으로 찾아왔다. 혼자 들어왔던 것이다.

전에 한 번 찾아온 일이 있는 손님이라는 것을 만덕은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은 관에서 떠나 사사로운 일로 제주 땅을 밟았는데, 지난 날 한번 본 만덕을 다시 보고 싶어 찾아 왔노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만덕은 이 오래간만에 온 서울 손님에게, 목사와 관관이 동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는 것이었다.

만덕의 이러한 목사와 관관 동석의 제안은, 자기와 일대일로 대좌하기를 피하려는 만덕의 속셈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러라고 서울 손님도 동의해 버렸다.

귀한 서울 손님에다 이 고을 목사와 관관이 동석하게 되면, 오늘 밤의 회식자리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꼬리를 달았다.

사동을 시켰더니, 때가 초저녁이라, 목사와 관관은 바로 들어왔다.

목사와 농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서울 손님과 목사는 서로 말이 잘 통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 대감께서는 어찌 방백도 모르게 거동을 하시나요?”

“하하, 천하의 명기를 찾아오는데, 방백을 불러들이면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무엇이겠소?”

분위기는 썩 좋았다.

일배 일배 부일배 하다보니, 밤은 해시(亥時. 9~11시)가 넘어갈 무렵이었다. 동기(童妓)를 통하여, 술자리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만덕에게 쪽지가 하나 들어왔다. 손님들은 쪽지를 받은 만덕으로 시선을 모았다.

주고 받는 술잔과, 이 술잔 따라 주고 받는 재담으로, 술자리는 한참 흥취가 돋구어지던 무렵인데, 동기로부터 쪽지를 받은 만덕은, 쪽지를 보더니 눈물을 주루루 흘리는 것이었다.

한참 흥이 고조되던 술자리의 분위기는 삼시간에 가라앉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나? 술 자리에서 눈물을 다 보이고…”

서울 손님이 물었다.

“아무 일도 아니올시다. 소녀가 어른들의 총애해주심에 못 이겨 그만 결례를 저지르고 만 것이옵니다. 너그려이 헤아려 주시고, 계속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애써 눈물을 참으려고 해보지만, 눈물은 연이어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지금 들어온 쪽지를 허리에 차고 있는 주머니로 집어 넣으려는 것이었다.

서울 손님은 눈물의 사연을 알자면서 만덕이 주머니로 집어 넣으려는 쪽지를 가로챘다. 그 쪽지에는

“행제(行祭) 시간에 늦지 않도록 외출서.”

동생 만재의 글씨였다.

서울 손님은 이 쪽지에 적힌 ‘행제’가 무슨 행제냐고 물었다. 만덕은 이를 말하기가 참으로 난처한 듯 주저하다가, 더듬더듬 말을 했다.

“오늘이 이 소녀의 선친의 제사이옵니다. 위로 오라버니가 혼 분 동생이 또한 혼나 있습니다. 함께 살기가 어려워 지금 따로따로 헤어져 있으나, 오늘의 제삿날에는 혼 번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혈육이라곤 셋뿐이라 세 오누이로 삼헌관을 삼아 제를 올려왔습니다. 오늘이 그 제삿날이 온데, 오늘은 이 소녀가 너무도 귀한 손님을 모시고 있는 터이오라, 아이를 시켜 제주만 보내면 되는 것이옵니다. 보잘 것 없는 사사로운 일로 거동을 헐어뜨린 잘못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는 서울 손님, 목사, 관관은 이슬이 맺힌 아름다운 만덕의 눈을 보며, 말문이 막혔다.

그러한 어려운 속에서도 예와 정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이 세 오누이를 칭찬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보니 이 술자리가 너무나 길었다고 생각이 되었다. 모두는 그만 일어서려고 했다.

“어르신들께서 일어나시면 이 소녀의 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녀의 일은 개의치 마시고 좀더 흐뭇한 자리를 이어 주십시오.”

만덕은 사정을 해보았으나 이미 세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서울 손님은 제주(祭酒) 한 병을 보낸다고 했다.

아버지의 제삿날이 지난 뒤, 그러니까 서울 손님, 목사, 관관이 같이 회식하였던 한 열흘 뒤쯤 되었을까. 만덕이 한유추 관관을 찾아갔다. 관관은 만덕을 보더니,

“만덕이 기적을 벗고 양가로 돌아가는 일은 이미 사또님과 의논이 끝났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아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제주관관의 입에서 이 말을 들은 만덕은 새로 태어나는 날처럼 기뻐다.

‘내가 친가로 돌아가면 오라버니 오래비 세 남매가 힘을 모아 부지런히 일하고, 반드시 집을 새로 일으키리라.’

별써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힘이, 마음의 맨 밑바닥에서 힘차게 솟구쳐 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5

기녀로 있던 만덕은 기적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

만덕은 성실한 사업가로 성장하여, 적게는 내 집안을 일으키고, 크게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다. 만덕이 이와 같이 사업가가 되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나게 된 것은 그녀가 태어난 집이 너무나 가난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세 오누이가 뿔뿔이 헤어져서 살고 있는 것도, 조실부모한 불행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위에다 너무도 가난하였기 때문이다.

씨를 뿌릴 밭이 없고 너무나 가난하였기 때문에, 오라버니와 오래비는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해야 했으며, 자기도 기녀에게 양육된 것이 결국은 기적에도 올랐던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겠다. 기녀생활에서 손을 씻고 집으로 돌아온 만덕은, 다짐을 하고도 다시 다짐을 하는 것이었다.

만덕은 기녀생활을 청산하면서, 그동안 모아 가지고 있던 돈 일부를 따로 쪼개어 농토와 우마를 샀다. 이를 오라버니 만석(萬碩)과 오래비 만재(萬才)에게 주어 농사와 목축을 하도록 하고, 만덕 자신은 장사를 하기로 하였다.

관기생활을 하면서 상품에 대한 안목도 생겼고 이는 사람도 많아졌으니, 그것을 밑천으로 장사를 하면 돈을 벌어질 것 같기도 했다.

장사를 하는 데 가장 손쉬운 사업은 주막을 겸한 객주업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때의 객주업이란 손님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여 줌과 아울러, 물건의 매매에 관하여 알선도 하여주고 하는 그러한 집을 경영하는 일이었다.

“기왕이면 만덕이 집에 가보자.”

“천하의 명기 만덕이 객주업을 한다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 하였으니, 만덕이 집에 가서 자고, 그 집에서 먹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한 때 이름이 높았던 미모의 기녀 만덕이 객주업을 한다는 소문은, 제주에서보다도 한양에서 더 알려지고 있었다.

용무가 공무이든 장사이든, 한양을 비롯 육지에서 들어오는 나그네들은 소문을 들으며 만덕이 경영하는 객주집을 찾았다.

제주로 들어오는 육지의 상인들에게는 제주의 모든 정보를, 제주에서 육지로 장사차 나가는 상인들에게는 육지의 모든 정보를, 미리 미리 수집하였다가 알려주었으니, 장사차 들어오고 나가는 상인들에게는, 만덕의 객주집은 없어서는 안될 장사 정보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집이 좁고 방이 모자라서, 자꾸 집과 방의 수요가 늘어만 가야 했다.

만덕은 객주집을 경영하면서 내외의 많은 상인들을 알게 되었고, 상품의 유통경로와 교역에 대한 지식도 많이 얻게 되었으며, 사업가로서의 기초가 날로 확립되어 갔다.

그녀는 기녀 시절의 지면과 경험과 견문을 십분 이용하였다.

기녀들을 비롯한 일반 부녀자들의 일반 용품과 특수 용품, 의복감과 장신구와 화장품들도 잘 알았으며, 이런 상품들을 육상들에게 부탁하여

사다가 팔기도 하였다.

육지 상인들이 구하는 제주상품들도 사들여 두었다가, 육상들에게 건네주는 일 따위, 실로 다양한 상품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시키다보니, 처음엔 초라하게 시작했던 만덕의 상업은 몇 해를 지내는 동안 제주 유일의 객주업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제는 어떤 상품의 유통상황도 만덕이 경영하는 객주집에 오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그녀의 사업은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찍부터 점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자본도 점차 축적되어감에 따라 사업도 날로 확장되어 갔다.

계절에 따라 미역, 말린 생선, 말린 전복, 양태, 탕건, 말총 등 제주특산물을 사들여 두었다가 육지로 실어 내어다 팔았으며, 돌아오는 선편에는 다시 백미, 유기 그릇, 사기 그릇, 기타 일용잡화를 사들여다가 팔았다.

어떤 상품은 창고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시기에 맞추어 팔았다.

육지와는 교통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들어와 흔해졌을 때는 값이 떨어지고, 날씨 관계로 뱃길이 끊기고 물자가 품귀해지면 시세가 오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물건을 사들였다가 시기에 맞추어 방출하는 것은,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다보니 만덕은 육지 본토 어느 지방 지방에 거점을 정하여 직접 교역을 하는 거상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만덕 자신이 직접 육지로 나가는 일은 없었다.

만덕은 사업에 성공하고 큰 재력가가 되면서도, 그 삶은 참으로 검소하였다. 그 옛날 어렸을 때 살던 시절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

“쓰지 아니하는 것처럼 확실한 돈 벌이는 었다.”

이렇게도 말하는가 하면, 다시

“실 때 즙냥해어사주, 어시민 즙냥홀 것도 었나.”

이렇게도 말하곤 하였다.

그러니 만덕의 생활을 보면, 외견상으로는 재산가라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검소하고 소박하였다.

상품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만덕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에게 늘 이런 말을 되뇌이고 있었으니, 만덕은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보다는 잘 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녀에 대한 신망이 더욱 두터웠다.

만덕은 장사를 하는 데도 그녀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었다.

“장시를 흥쟁흥민 상점에 내놓을 상품이 시어사 흥주마는, 그만한 분량의 상품은 늘 창고에 시어사 흥고, 그만흥 물건을 살만흥 행전이 늘 주맹기에 가정 시어사 흥다.”

이러한 말은 그녀의 상업을 지탱하여 온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거니와, 우리는 여기에서 제주가 낳은 훌륭한 사업가 김만덕의 일면을 볼 수 있다 하겠다.

곧, 기적에서 벗어나 양가로 돌아온 김만덕은 그의 타고난 용모와 슬기 원만한 성품과 넓은 도량에다 제주여성 특유의 강인한 의지로, 성실하고 근면하면서 근량하는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으니, 그녀는 50대에 이르러서는 벌써 이 나라의 굴지의 재력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6

제주는 예부터 삼다(三多)의 고장으로 일컬어져 왔다. 그것은 제주의 환경이 그렇게도 가혹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아주 오래 전인 세종 10년(1428. 무신), 조정에서는 온 나라 각 고을마다의 세액을 정하기 위한 어전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차례가 제주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영의정은 아뢰기를

“제주섬의 지세(地勢)는, 산이 높아 바람의 재해가 많고(山高多風災), 골짜기가 깊어 물의 재해가 많고(谷深多水災), 땅이 척박하여 가물음의 재해가 많습니다(土薄多旱災). 이 삼재(三災)가 함께 밀려와 해마다 흉년이 많습니다. 만약 이 백성들에게 남세를 책(責) 하시면 이 곳 백성들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더니, 임금도 이 말을 받아들여 세부 거둬들이는 것을 그만두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 말은 제주삼다(濟州三多)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거니와, 그 때의 제주 삼다는 다풍(多風), 다수(多水), 다녀(多女)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앞 삼다의 다풍(多風)과 다한(多旱)은, 뒤 삼다에서는 다풍(多風)과 다석(多石)인 것으로, 여기만은 앞과 뒤가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앞 삼다의 다수(多水)는 뒤 삼다에 와서는 다녀(多女)로 바뀐 것이다.

삼다라 함은 제주인의 삶의 환경이 그만큼 가혹한 환경임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다녀(多女)만은 제주여성의 근면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긍정적인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다녀(多女)도, 제주인의 가혹한 환경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설이 우세하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이다. 제주인에게는 바다는 생업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백 번 나가면 백 번을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백 번 나갔다가 한 번만이라도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면 그것은 죽음 뿐이다. 그래서 제주에는 과부가 많다는 기록도 보인다.

다녀도 다석·다풍과 함께 제주인의 가혹한 환경을 설명해주는 말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인의 생활환경은 가혹하기만 한 것인데도, 특히 정조 18년(1794) 갑인년(甲寅)을 전후한 제주의 기근과 그 참상은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심한 것이었음은 당시의 사정을 전하는 기록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정조(正祖)대의 제주는 연이은 가뭄음, 그리고 장마와 태풍 등 천재가 심했던 시기이며, 여기에 더하여 부패한 관리들의 가렴주구 또한 심한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조정을 중심으로 한 나라 안 사정도 대체로 안정되지 못한 시기였다는 시대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나라 안 사정을 살펴보려면, 정조대왕 자신의 국정에 대한 의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조대왕은 한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궁중비극의 왕자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둘째 아드님이다. 따라서 한중록(閑中錄)의 저자 혜빈(惠嬪) 홍씨 소생으로,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참화를 당한 뒤 왕세손으로 책봉되었다가 영조(英祖)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임금이다.

왕위에 오른 초기에는 선왕의 뜻을 이어 탕평정치(蕩平政治)를 하고자 의욕을 보였으나, 얼마 안가서 정치는 홍국영(洪國榮)에게 맡기고, 왕 스스로는 학문에만 힘을 기울였다. 따라서 규장각(奎章閣)을 두어 국내의 학자들을 모아 경사(經史)를 토론케 하는 등 많은 업적도 남기긴 하였으나 정치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도처에서 대소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강장령이 목수를 고발호였젠 호명, 강장령은 우리 제주 사름 아니가, 오직호민 춤지 못호영 목수를 고발호느니?”

“목수가 쓸을 흠쳐젼 호난, 어디 믿어질 소리가? 백성이 굶주리는데, 나라로 올라간 쓸을 가져당 굶는 백성 맥여 살리는 것이 목순디, 그 목수가 쓸을 흠쳐시난, 강장령이 고발호건 잘 호겨여.”

강장령(姜掌令)이라 함은 한 스무해 전인 영조 50년(1774. 갑오), 문과 급제한 강봉서(姜鳳瑞)를 가리킴이다. 제주목사 이철운(李喆運)이 기민 구호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나라에서 보내온 구호곡을 흠치고

백성을 확대하였다고 상소한 것이다.

전년(정조 16년. 1792. 임자) 가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목사 이철운은 조정으로 조 일만석을 청하였는데, 왕은 그 쌀을 보내면서 도 어사를 따라 보내면 민폐가 될 것이라고 하여, 이 곳 목사가 차원(差員)을 정하여 운송하라고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 해는 다시 추곡이 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목사가 그 구호미를 흠쳐내어 사사로이 쓴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흘러나왔다.

이를 제주 출신으로 장령(掌令)의 자리에 있던 강봉서(姜鳳瑞)가 상소를 올려 고발한 것이다.

상소를 받은 왕은 백성이 원을 탄핵하는 것은 질서의 유지에 걸림이 된다고 하여 강봉서를 좌천시킴과 동시에, 어사(御史) 심낙수(沈樂洙)를 보내어 바로잡도록 하니, 심낙수는 제주로 들어와 목사 이철운을 귀양보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으로 불안해진 도민들을 위유하기 위하여 과장을 베풀고 열녀 효자를 정표하였으니, 이 때, 변경봉(邊景鵬), 김명헌(金命獻), 부종인(夫宗仁), 고명학(高鳴鶴), 홍달훈(洪達勛), 이태상(李台祥), 정태언(鄭泰彦) 등이 급제하고, 무과에는 홍범익(洪範翼) 등 10인이 급제하였다.

이철운 목사가 귀양가고 비어진 목사의 자리에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내려왔던 어사 심낙수(沈樂洙)가 다시 목사로 제수되었는데, 그 이듬해인 정조 18년(1794. 갑인)의 봄, 성안에는 다시 화재가 일어나 집들이 연소되고 백성들도 많이 타죽었다.

“승시주 백성들이 굶영 죽는디, 또 캐왕 죽일 것이 미싱거라, 이번 불에 사름덜이 하영 카죽었젠 헉명.”

“근논게 그 말이여. 이처록 물리왕 죽이곡, 저처록 캐왕 죽이곡, 백성들 씨 물리젠 헤염싱가?”

사건 처리와 수습차 내려왔다가 목사로 제수된 심낙수는 힘을 다하여 고달픈 백성들을 위유하여 가며 삶의 의욕을 돈구려고 노력하여 왔던 것인데, 이 갑인년 봄의 성안의 화재는 또 하나의 겹친 재앙이었다.

제주 백성들의 시련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 정조 18년(1794. 갑인) 3월 기축(2일)에 올린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에 보면,

“전 목사 이철운의 죄는 대개 삼읍이 굶주려 죽은 자가 6백여 명에 이르렀으니, 얼른 보기에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봄 여름 사이에 한 섬에 염병(染病)이 치열하고 기근까지 겹쳤으니, 병든 자는 굶주려 죽고 굶주린 자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갑인년 9월에 심낙수 목사가 그만 두고 그 뒤를 이어 이우현(李禹鉉) 목사가 부임하여 왔는데, 그 해 9월 신축(17일)에 올렸던 전목사 심낙수가 올린 장계를 보면,

“금년에 삼읍 농사가 그동안 단비를 얻어 대풍이 예상되더니, 뜻하지 않게 8월 27일 동풍이 크게 일어나 기와가 날리고 돌맹이가 날리어, 마치 회오리바람에 나뭇잎이 날리듯 하였으며, 곡식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밖에도, 바다의 짠 물이 날아 올라와서 곡식이나 풀은 김치를 절인 것 같았습니다. 8·90세 되는 노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두번째의 계사년(숙종 39년, 1713)에 이와 같은 재난이 있었는데, 금년에 또 이 재난을 당하였다’ 합니다.

대정과 정의현의 피해가 더욱 심합니다. 한 섬에 결실이 전혀 없는 면리(面里)와, 조금은 결실이 있는 면리를 차례로 등급을 정하였는데, 이와같이 결실이 없음은 고금에도 드문 일입니다. 지금 당장에 백성들의 식량은 여름철 보리가 조금은 남아서 굶주림이 없을 것이나, 10월 이후의 형세는 장차 조정에서 구호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쌀 2만석을 선운(船運)하지 않으면 장차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하는 위급한 장계를 올리고 있으며, 다시 10월 3일의 전 제주목사 심낙수의 장계에서도

“8월 27일의 태풍 뒤에, 온 섬을 비로 쓸어버린 것 같아서, 피차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민정은 시일이 급하며, 그 중에도 노약자와 무의 무탁의 어린이를 골라 공해(公廨) 혹은 토굴에 머물게 하여 봄 동안에 무상으로 지급하고, 남은 곡식 백오십 석과 따로 나누어 놔두었던 백여 석을 각 읍에 나누어 주어 죽을 쑤어 먹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 제주목사로서의 장계의 내용이거니와, 도민의 참상과 구호곡의 시급함을 잘 알려주는 자료가 된다.

전년부터 기근이 심하여 이에 대처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다시 갑인(甲寅)년이 되었으니, 몇 해 동안 겹쳐온 기근의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이 갑인년에 와서는 봄의 큰 화재, 다시 8월 27일의 태풍, 제주 백성은 살 길이 막막하였었음을 알 수 있다.

“에이 망할 놈이 사상, 콧고망이 터지어서 숨을 쉬엄 살주, 콕콕 맥히 난 어떡 살코?”

“춤말이여, 하늘을 보민 뽕만 ㄱ랑ㄱ랑 땅을 보민 구름만 폭삭폭삭하당도, 브름만 불었쎄 호민 집도 뽕라불지 아니 호는가. 냥도 뽕아불지 아니 호는가. 곡식도 다 버리게 호지 아니호는가. 이거 뽕이라, 홀디로 호는거 주. 이건 나라님 잘못이거나, 사또님 잘못이거나, 벌주는 것 아닌가. 이런 사상이 또 싯느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물난리가 터지다가도, 가물기 시작하면 다시 몇 달이고 가물어, 곡식이 다 말라 죽는 것이었다. 정조 18년(1794)인 갑인년에는 염병(染病)까지 겹쳤으니, 그 참상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기는 놈 위에 ㄴ는 놈 shit말은 들어봤주마는, 싸는 놈 뒤에 먹는 놈 shit말 들어 봐신가?”

“그건 또 미신 말이라?”

“똥을 싸면서, 내가 썬 똥은 내가 먹주 생각하면서 똥을 다 싸고, 그걸 먹잔 뒤돌아 앉아 보란, 다른 놈이 트다았었다가, 놈의 똥을 다 먹어부러서랜 ㅎ는말 아닌가?”

갑인년 흉년에 식량이 얼마나 어려웠었는가를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갑인년이 그랬는데, 그 다음 해인 정조 19년(1795) 을묘년은 더하면 했지 덜하지 않았다.

이 무렵에는 육지와 섬의 교통수단이 극히 열악하였으니, 양곡을 운송 해오는 데도 해상사고가 많이 뒤따랐다. 실록을 보면 정조 18년(1794. 갑인)에도 정조대왕은 친히 해신제(海神祭) 재문을 짓고 내려보내어, 별 도(別刀)에 있는 해신사에서 해신제를 지내도록 하고 있다.

제주 흉년의 대명사처럼 되고 있는 그 ‘갑인년’ 다음 해인 정조 19년(1795. 을묘), 백성들은 연4년 간의 흉작으로 쌀 한 톨 구경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상황 아래서, 조정에서 보내오는 쌀만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구호곡을 실어오던 배 다섯 척이 모진 풍파를 이기지 못하여 모두 파선 되고 말았다.

이해, 곧 정조 19년(1795. 을묘) 윤2월 을유(3일)의 실록의 기록을 보면,

“제주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이전곡(移轉穀)을 실은 배 다섯 척이 파선된 것을 치계(馳啓)하였다. 하교하시기를 ‘탐라에 다시 운송할 1만 1천석의 곡물이 또 능히 일제히 그 곳에 도착하여야 도민들의 위급한 굶주림을 위로할 수가 있는데, 밤에 장본(狀本)을 보고,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다섯 척에 실은 몇백포(幾白包)가 침실(沈失)하였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하였으니, 이 때 구호곡을 기다리던 굶주린 백성들의 아픔은 얼마나 하였을까.

7

“구호곡 오기는 다 틀려싱게, 구호곡을 실영 오던 배가 벨도(別刀) 포구에 들어오기도 전에 문밖 바당 속으로 골라앉아부렀겐 햄싱게.”

“글쎄 나도 들었주. 곡식을 날라오던 배가, 그것도 다섯 척이난 썰이 백 포나 될까. 탕든 사름들토 다 죽웅거 아니가. 불쌍헝게.”

“우린 이제 죽는 일 밖에 어서. 죽지 않으키영 흥민 어떻 죽지 아니헝 여 지켜냐? 방법이 었다.”

여기 저기서 절망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소리는 만덕의 귀에도 들려왔다.

그렇지 않아도 만덕은, 그동안도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나 이웃집들에게는 남들이 알게 모르게 도와오던 것인데, 쌀을 실어오던 배가 풍파를 못이겨 물 속에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무지 그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 그 절망의 소리들은 날로 더 심해갈 뿐이었다.

백성들의 그 절망의 소리는, 만덕에게는 결코 남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어렸을 때도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을 구한다고 산과 바다를 돌아 다녔던 일, 산에서 풀을 뜯어 오고 바닷가에서 해초를 뜯어 오고도 곡물이 조금이라도 섞여야 끼니가 된다고, 남의 집에 가서 사정하던 일, 그럴 때 그 어느 누가 조금만 쌀을 나누어주어도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던 일, 그 하나 하나가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이 기민들은 벌써 부황으로 여기 저기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죽기 전에 이 기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나의 재산을 바치자……’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한 순간도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기녀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을 때, 저축했던 재력 일부를 떼내어 형제간에 나누어 주고, 나머지로 장사를 시작할 때, 장사로 돈을 벌면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로 했던 것이 아닌가. 그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싶은 때가 이 때이다.

기녀로 있던 내가 양가로 돌아오고자 할 때도, 목사나 관관 등 관에서도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구호곡을 싣고 오던 배가 파손되어 버린 지금, 절량민들은 절량민들대로 사활의 선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목사·관관·현감 등 관에서도 정말 기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내가 기민 구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난날 나를 도와주었던 관에 대해서도 은혜갚음이 될 것이 아닌가.

만덕은 그동안 근검 절약하면서 이루어놓은 재산을 다 내놓는다고 생각하니 비장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니 만덕은 한량없이 기뻐다.

“이 고장 사람들이 날 도와주난 나도 장시를 헛고 돈도 벌었다. 이 고장 사람들이 몹시 어려운 지금, 내 이 고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내 재산을 돌려주어서 헛키여.”

그동안 만덕은 장사를 하여온 관계로 육지로 나가 쌀을 받아온다고 해도, 그 쌀을 받아올 수 있는 길을 이는 사람들이 만덕의 곁에는 여럿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지금 바로 육지로 나가 쌀을 받았 오도록 헛십서. 그 쌀을 받았 오는 일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되는데로 백르민 좋구다.”

“배가 시어사 홀텐데, 배를 어떻게 꼬미썰?”

“배랑 벨도 김주연 영감네 배 호곡, 산지 이달추란 사름안티 말 흡서. 사름 죽어가는데 빌리키여 안빌리키여 못함네다. 바로 나갑서. 브름 보멍 오늘이라도 바로 떠나도록 흡서.”

보통 때는 여늬 아주머니와 다름이 없던 여인인 만덕도, 위급한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은, 과연 사업가다운 언행이 엿보였다.

목사를 비롯 관관과 현감들은 지난 윤2월 달에 구호곡을 신고 오던 배가 파선된 이래, 다시 구호곡이 내려오기를 총총 기다렸으나, 기다리는 구호곡은 들어오지 않고, 부황난 기민들은 날로 늘어만 가니, 온 제주가 초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만덕이 보낸 배는 별도 포구를 떠난지 열흘도 되기 전에 양곡을 가득 신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배는 두 척이었는데, 나란히 같이 들어왔던 것이다.

양곡을 사러 떠났던 사람들은 만덕이 밑에서 몇 해씩 물건을 사오고 사가고 하던 경험 많은 사람들이어서, 이와같이 위급한 때는, 그 경험과 얼굴이 크게 주효했던 것이다.

만덕은 기뻐다.

만덕은 신고 들어온 양곡의 일부를 따로 떼어내어서 원근 찬족에게 나누어주고, 다음에 목사를 찾아가서, 배 두 척에다 가득 신고 온 그 많은 양곡을 기민 구호에 써달라고 내놓았다.

목사는 기뻐다. 관관과 현감들도 기쁘기는 한가지였다. 관청에서는 정도가 심한 절량자들을 찾아내고, 관청 앞 마당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절량자들에게는, 만덕여인이 주는 구호곡이라 설명하면서 나누어주었다.

가장 곤란한 사람, 나이 많은 노인, 어리거나 병약한 사람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다.

한 쪽에서는 큰 가마솥을 걸고 죽을 쑤어, 비록 한 사발씩이나마 나누어 먹이기도 하였다. 어느 가난한 사람도 만덕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언제나 친절하였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늘 조금씩이라도 보태어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고마운 아주머니로 생각해왔는데, 오늘은 굶주림이 심하여 죽음의 벼랑에까지 이르고 있었는데, 그 고마운 분이 다시 굶주린 사람들을 살려준 것이다.

아사 직전에 구호곡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만덕의 집 앞으로 몰려가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인!”

“우리 목숨을 건져준 만덕 아지망!”

“하늘 곁이 고마우신 만덕 할마님!”

제각각의 표현으로 감사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방에 앉아 이러한 소리를 듣는 만덕은, 내 이세상에 태어나서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생각하니 기뻐다. 이럴 때는 가난에 쪼들리던 어린 시절, 돌림병으로 부모를 잃고 기생의 양녀로 들어가던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 눈물이 나기도 하였다.

저녁에 이우현(李禹鉉) 조경일(趙敬日) 판관이 만덕의 집을 찾아왔다.

목사나 판관이 여인의 집을 찾아오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었다.

관직을 지낸 연로하신 분의 집이라든가 학문이 높아 온 고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선비의 집안 아니고는, 목사가 찾아간다는 일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인데도, 쌀을 나누어주던 날 저녁, 목사와 판관은 만덕의 집을 찾아온 것이다.

만덕은 얼른 나와 목사와 판관을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다.

목사와 판관이 찾아온 뜻을 만덕은 짚어보고 있었다.

“아이고 사또님 어찌 이렇게 누추한 아녀자의 집을 찾아주셨습니까?”

“찾아오는 것이 좀 늦었소. 어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말이요?”

“아이고 사또님도, 소녀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란 그대로 볼 수만은 어서서, 소녀의 힘은 약하우다미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민하고 좀 보태었습니다. 아녀자의 힘이 시민 얼마나 십니까?”

“너무나 고맙고 또 고맙소.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요. 내 어제까지도 이 고을 수재(守宰)로 와서 백성을 굶주림에 허덕이게 한 것을 다시 없는 불행으로 생각하여 왔소. 그러나 오늘 그대의 의로운 삶을 볼 수 있었으니, 오늘 내 제주목에 온 것을 크게 기뻐하는 터이요. 먼 뒷날까지도 그대의 마음 크게 새기고 기억하겠습니다.”

조경일 판관도 목사의 말에 이어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만덕은 목사와 판관이 집으로까지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하는 데는 너무나 송구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한 때는 기녀였던 천한 신분, 이제 양가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퇴기의 신분으로, 오늘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이 고을 큰 어른들이 이렇게 찾아와 치사하여 주실 줄이야. 만덕은 이제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보람있는 일을 하였다는 실감이 나는 것이었다.

8

모진 꿈자리와도 같았던 을묘년(1795)은 저물고 병진년의 새봄이 되었다.

제주의 백성들은 어렵게 어렵게 보릿고개를 맞이하고 있었다.

아직 보리는 채 익지 않았는데도, 보리를 베는 밭도 군데 군데 보인다.

연이은 4년 동안을 제대로 곡식을 수확해보지 못한 밭에서도, 앞으로 큰 바람과 장마만 없다면 보리 수확은 평년작은 될 것 같다는 농민들의 말이다.

몇 해만에 보는 밝은 얼굴들이라.

지금 막 보릿고개를 넘기는 정조 19년(1795) 을묘 4월, 연이은 흉작을 만나 기민구휼에 온 힘을 쏟던 이우현(李禹鉉) 목사는 떠나고, 뒤를 이어 유사모(柳思模) 신목사가 부임하여 왔다.

조정에서는 유 목사를 보내면서, 목면 5백 필, 돈 4천량, 약제용 호초 백 근, 단목(丹木) 3백 근 등을 함께 보내어, 진자(賑資)에 보태어 쓰도록 하였다.

신목사는 부임해오자마자, 조정에서 보낸 목면·돈·호초·단목 등을 이용하여 보릿고개를 넘기는 어려운 집안을 구휼한 뒤, 관내의 근황을 청취하였다.

판관 조정일(趙敬日)은, 지난 해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데, 김만덕이라는 여인이 다량의 구호곡을 사들여다가 사경에 이르렀던 기민들을 구제하였다는 보고를 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지방 유지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들었고, 직접 구제를 입은 사람들도부터도 들었다.

목사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하였다. 이 구민선행을 한 여인을 한 번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사람을 시켜 김만덕을 불렀다.

만덕을 처음 대한 목사는

“어찌 제주에도 이런 여인이 있었던가?”

한 눈에 감탄하였다.

김만덕은 이 해 나이는 58세,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인품과 덕성,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슬기롭고도 그윽한 눈빛, 낮으막하고도 맑은

음성, 과연 이러한 인격의 소유자이기에 큰 일을 하여냈구나 다시 한번 탄복하였다.

“김 여인은 어찌 그리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소? 내노라는 사내들도 하지 못하는 이 엄청나게 큰 일을, 사재를 다 내놓고 할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난 것이요?”

“이 소녀 그렇게 칭찬을 주시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또님께서도 이 소녀가 살아온 내력을 대충 들으셨을 것으로 아옵니다. 소녀 미천하고 가난한 농가에 태어나, 어렵게 살았던 경험을 누구 못지 않게 많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인생의 곡절도 하염 없이 겪었습니다…….”

이 ‘인생의 곡절’이란 대목을 들으면서 유 목사는 ‘이 여인이 양가의 딸이면서도 기적에 올라서야 삶을 지탱할 수 있었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우리 고장 사름덜이 연4년 동안이나 흉년을 당하여 참담하게 살아가는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김만덕의 말의 이 대목에서 유 목사는 ‘오죽하면 인분을 먹는 데도 다툼이 있었다는 말이 생겼겠느냐?’ 그 참담한 광경이 눈에 떠올랐다.

“…그러던 차에 기민 구호를 위하여 배에 싣고 오던 그 구호미가 모진 풍파를 만나 바다 속에 침몰하여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절량민들의 심정이 어떻하였겠습니까? 기민 구호를 위하여 밤낮 걱정하시던 목사님은 어떻하였겠습니까? 이 막다른 마당에서, 참으로 작은 힘이나마, 기민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민, 이 소녀 이 세상에 태어난 다시 없는 보람으로 생각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김만덕의 말을 듣고만 있던 유사모(柳思模) 목사는, 이렇게 착한 사람은 조정으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유사모 제주목사의 장계는 조정으로 진달되었다.

사재를 털어 구호곡을 사들여다가 기민을 구호한 김만덕의 선행을 알게 된 왕은 크게 감동한 나머지, 김만덕의 소원을 묻고 그 소원의 쉽고 어려움을 불문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하라는 왕의 분부가 내려짐에 따라, 만덕은 궁궐로 들어가 금상천하를 배알하고 우리 나라의 명산인 금강산을 유람한 다음 귀향길에 오른 것이다.

9

제주목사 유사모(柳思模)가 조정으로 올린 장계는 만덕의 생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이 장계에 의하여 만덕의 기민 구호의 자선행적이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됨으로써, 만덕은 일찌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오던 왕궁에로의 입궐과 천하명산 금강산에의 유람, 이 두 가지 꿈을 모두 이루어내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뚝배에 몸을 싣고 있는 것이다.

만덕은 일행과 함께 육로를 따라 내려 올 때까지만 해도 별로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일엽편주에 몸을 실으면서 비로소 제주사람의 숙명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다.

망망한 이 바다. 제주섬을 둘러 싸고 있는 이 바다의 저 수평선을 한 번 넘어보지 못하고 한 평생을 살았던 제주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랴.

제주사람과 이 바다. 해촌의 앞바다는 해물을 대어주는 자원의 보고 이면서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다시 다른 면으로는 제주 삼다(濟州三多)에 다녀(多女)를 초래하게 만든 삶과 죽음의 시련장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2년 전인 정조 19년(1795. 을묘) 연이은 흉작으로 사경에 이른 제주도민을 구휼하기 위한 구호곡이 보내졌을 때도, 그 구호곡을 실은

다섯 척의 배가 모진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드디어 모두가 수몰되어 버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 다음이 구호곡을 사들일 때의 두 척의 배는 무사히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오늘 돌아오는 이 뱃길, 만덕에게는 이 바다가 그지 없이 고맙기만 했다.

무서운 바다, 고마운 바다, 바다에 대한 생각도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날씨는 좋았다.

동서남북 둘레의 모든 수평선에는 솜털과 같은 구름 조각이 등실등실 떠 있었고, 넓고 큰 바다에 비하면 타고 있는 배는 너무나 작았으나, 바람을 뒤로 받은 돛배는 비취빛 물살 위를 거침없이 남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었다.

맑은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나아가는 돛배의 뒤에, 하얀 거품으로 요동치던 흔적도 이내 사라져버리는 것을 뒤돌아 보며, 돛배가 향하는 남쪽 수평선에 떠 있는 흰 구름을 보며, 만덕은 그가 살아온 세월이 되풀이 되풀이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열두 살 때 천애의 고아가 되어 기녀의 도움으로 성장하던 일, 그러한 인연으로 기적에 올랐던 일, 행수기녀로 화려한 삶을 살던 일, 양가의 딸로서 기적에 올라 있음을 고민하던 일, 기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일, 기적에서 벗어난 다음 객주업을 할 때의 일, 객주업을 하면서 눈 코 뜰 새 없이 식산을 위하여 노력하던 일, 정조 16년(1792. 임자) 이래 4년 동안 연이은 흉년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 당시의 제주주민들의 참담한 모습, 온 재산을 내놓고 쌀을 받아다가 기민을 구호하던 일, 이 선행이 조정으로 알려지자, 궁궐로 들어가 왕을 배알할 수 있었고, 우리의 명산 금강산을 유람하던 일들, 그 하나 하나가 만덕의 머리 속에서 펼쳐졌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었다.

그 많은 생각 가운데서도, 만덕이 궁중으로 들어가 왕을 배알할 때, 왕이 만덕의 손을 덥석 잡으시며 칭찬해주시던 일과 만사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을 뿐 아니라 「만덕전」(萬德傳)까지 지어 두었다가 떠나오는 날 건네주시던 채제공(蔡濟恭) 대감의 은혜를 만덕은 눈을 감는 날까지 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집으로 향하여 돌아오는 만덕은 행복감에 젖어 있다. 살아온 세월을 회상하면서….

타고난 불행이라면 만덕처럼 불행한 환경도 흔한 일은 아니다.

가난한 농가의 딸, 돌림병으로 하루 아침에 천애의 고아가 되어버린 조실부모, 기적에 올라야 했던 알곳은 운명, 만덕은 이 극한적인 불행을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근량함으로 이겨내고, 오늘의 부, 오늘의 행복을 이룩해낸 것이다.

그것은 타고난 제주삼다의 가혹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주삼무의 이상향을 구현해낸 제주인의 표본적인 삶의 의지이기도 했다.

끝, 만덕의 성실함은 만덕의 이웃을 늘 따스한 이웃으로 만들 수 있었고, 만덕의 부지런함은 만덕에게 그 막대한 재산을 이루게 해주었으며, 만덕의 그 근량하는 삶은 만덕의 재산을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부지런하여 이룩하고 근량하며 지켜낸 이 큰 재산을 참으로 값있게 썼다. 굶주림으로 사정에 이른 제주백성들을, 그녀의 재력으로 구출해낸 것이다.

기민들이 그녀의 덕을 찬양하고, 제주목사가 그녀의 선행에 감동하여 장계를 올렸으며, 왕이 후한 상을 내린 것이니, 만덕의 생애는 극한의 불행에서 일어나, 극상의 행복을 이룩해낸, 강인한 제주 여인의 삶의 한 본보기이기도 했다.

소금기 머금은 바닷바람에 귀밑머리 날리며 푸른 물결 가르고 나아가는 뱃머리에 앉아,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고 있는 만덕의 시야에 고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남쪽 수평선에 가로 비긴 구름 위에 고향 한라산의 거룩한 봉우리가 조용히 솟아오르고 있었다.

한라산에는 아직도 잔설이 남아 있는가? 봄의 햇볕을 받은 앞 이마가 반짝이고 있는 듯이 보였다.

산이 높아 쌓인 눈은
봄이 지났는데도 있고
바다가 넓으니 긴 바람은
날이 다하도록 부는구나.
山高積雪經春在
海闊長風盡日吹

김만덕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김치(金緻) 판관의 시구(詩句)를 읊조리고 있는 것이었다.

김만덕 전기

의녀반수 김만덕의 삶

김 창 집

구좌읍 동복리(東福里), 그녀가 태어난 곳

오늘날 제주 사람들에게 ‘김만덕(金萬德)’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조선시대 지독한 흉년이 들었을 때 사재를 털어 제주 백성들을 배고픔으로부터 구한 여인’으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제주시 사라봉에 자리한 모충사에 그녀의 선행을 기리는 의인 묘탑과 만덕관, 그리고 탐라문화제 때 시상하는 ‘만덕봉사상’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기도 했겠지만, 초·중학교 교실 향토학습관의 ‘내 고향을 빛낸 인물’에 어김없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향토사학자 김찬흡(金燦洽) 선생의 〈제주사인명사전〉에 나오는 그녀의 출생지 구좌읍 동복리(東福里)를 찾은 것은 바람이 몹시 부는 초겨울이었다. 동복리는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22km 떨어진 구좌읍의 첫 마을로 속칭 ‘곶막(邊幕)’이라 불리는 해안부락이다. 이제는 골목길처럼 돼버린 일주도로로 들어서서 휴게소를 지나 마을회관을 찾았다. 노인회관으로 쓰는 1층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사무소로 쓰는 2층으로 올라가 마침 담소를 나누고 있던 이 마을의 두 어른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기록에 나온 대로 “만덕은 본관이 경주로 구좌읍 동북리에서 1739년 (영조 15)에 아버지 김응열(金應悅)과 어머니 고씨 사이에서 2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는 것과 “그녀의 나이 9살 때 부모와 사별하고 외숙댁에 머물렀으나 10살 때 제주성안 무근성의 퇴기(退妓) 월중선(月中仙)에 맡겨졌다.”는 내용을 열거하면서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사실 방문하기 전 ‘구좌읍 동북리’ 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마을 사람들’ 난에 유일하게 김만덕이 올라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대로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비교할 바는 못되지만 전라북도 정읍시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에 가보면, 의기(義妓) 논개(論介)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수물 지역의 생가를 옮겨다 한 장소에 복원해 놓고 주변에 기념관과 비를 세워, 충효열의 산 교육장으로 또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을 본 터라, 혹시나 해서 찾아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 동북리는 4·3때 마을이 전소되다시피 피해를 입었던 곳이어서 다시 복구할 때 원형이 많이 훼손됐을 것을 감안해서 그 터만이라도 확인할 수 없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졌었는데,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올 수 없어 마을을 돌아보았다. 골목을 들어서는 순간 1970년대 초가를 걷어내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바꾼 집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온다. 해풍 때문에 팽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예로부터 농토가 빈약하여 대부분 바다에 의존해 살았던 이곳 사람들, 어린 만덕도 이곳 주민들처럼 아침 먹기 전에 해풍에 밀려온 감태나 모자반 같은 거름용 해조(海藻)를 저 낚았을까? 지금 제주섬 어느 마을이 풍요롭기야 하라미는 양파와 마늘, 콩 같은 농산물과 성게, 톳, 우뚝가사리를 지역 특산물로 삼고 있는 이곳은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마을의 간판처럼 돼버렸다.

김만덕의 출생에 관하여는 두 가지 이견(異見)이 있다, 하나는 본관이 김해김씨냐 경주김씨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생지가 제주 성안이나 구좌읍 동북리냐 하는 것이다. 이는 1971년 김태능(金泰能) 선생이 김만덕기념사업회의 요청에 의해 제주신문에 12회에 걸쳐 연재했던 〈의녀 김만덕전〉에 의해 쉽게 그 의문이 풀린다. 물론 김만덕이 돌아갈 당시 세워져 지금도 남아 있는 묘비문에는 김해 김씨로 되어 있다. 당시에는 수로왕 후손과 경순왕 후손의 일부는 다같이 본관을 김해 김씨로 썼고, 그를 구분하기 위하여 선김(先金)과 후김(後金)으로 부르다가 1846년(헌종 12)에 국왕의 윤허를 받아 후김은 경주 김씨로 썼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김만덕의 후손들을 추적한 결과 구좌읍 동북리에서 출생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고 썼다.

수양어머니 때문에 본의 아니게 기녀(妓女) 노릇

속칭 ‘무근성’은 지금 삼도2동의 일부 지역으로 목관아지 서쪽에 위치한 동네를 일컫는 말이다. 제주시가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652-6호인 이형상(李衡祥) 목사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중 ‘진포배은(巾浦拜恩)’을 보면, 관덕정 서쪽에서 서문에 이르는 부분에 민가가 조금 나타나 있고, 제주관관과 관련된 관청(官廳)과 목관(牧官), 작청(作廳) 건물 서쪽으로 제법 많은 민가가 나타난다. 바로 이 민가 중 어느 곳에 만덕의 몸을 의탁했던 퇴기 월중선(月中仙)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관에 소속된 기녀들이 쉽게 부름에 응하려면 가까운 곳에 기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탐라순력도〉 그림 중 ‘승보시사(陞補詩士)’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관아지 군기고와 과원(果園) 사이에 기생방(妓生房)이 있으며, ‘굴림풍

악(橘林風樂)’에는 잘 익은 귤밭 가운데서 목사와 관리들이 기녀들과 함께 풍악을 즐기는 광경과 과원 옆에 음악을 익히던 교방(敎坊)이 나와 있다. 오갈 데 없던 만덕은 결국 수양어머니인 퇴기 월중선의 인도로 기녀가 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관기(官妓)는 주로 여악(女樂)과 의침(醫針)을 담당하게 했는데, 의녀(醫女)로 행세하는 약방기생, 상방(尙房)에서 바느질을 담당하는 상방기생도 있었으나, 주로 연회나 행사 때 노래와 춤을 맡기 때문에 거문고, 가야금 등의 악기도 능숙하게 다루어야 했다.

김만덕의 기녀 생활에 대하여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그녀의 기민 구휼의 자선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녀 생활 부분을 거의 생략하거나 지조를 지키다 조용히 물러나는 식으로 그려져 있고, 다른 하나는 객주집을 차려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 이상으로 용모가 출중하고 재치가 있는 활달한 성품으로 그리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증명해 줄 아무 근거도 남아 있지 않지만, 조선시대 제주여인으로서 혼자 힘으로 객주집을 차려 성공하고 그 재산을 내어 기민을 구휼한 점과 과감하게 임금을 알현하고 금강산을 유람하겠다는 생각까지 한 것으로 보아 통이 크고 외향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다.

따라서, 관기에서 제적되는 과정을 기록한 부분도 이견(異見)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는 조상에 대한 죄스러움과 친한 기생이 되어 가문을 더럽힌 죄를 씻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탄원해서 결국 기적(妓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식이고, 후자인 경우는 행수기생까지 올라 목사나 판관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물러나게 되면 쓰러지는 친정을 일으키고 돈을 벌어 사회를 위해 쓰겠다.’는 말로 설득하여 뜻을 이룬다는 식이다. 기적에서 벗어난 후 당시 동헌(東軒)에 소속된 제주 출신 통인(通引)이었던 두 딸을 가진 홀아비 고선흠(高善欽)을 만나 부부생활을 했으나 얼마 후 병사해버렸다는 기록도 가끔 보인다.

건입포(健人浦), 그녀의 꿈을 이룬 객주집

객주(客主)는 경향 각지의 상품 집산지에서 상품을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주선하며, 그에 부수되는 창고업·화물수송업·금융업 등 여러 기능을 겸했던 중간상인을 말한다. 좁게는 행상, 넓게는 객지상인에 대한 모든 행위의 주선인이라는 뜻을 가진다. 주된 업무는 위탁자와 그 매입자 사이에서 간접매매를 하여 그 대가로 구전을 받는 위탁매매를 담당하였다. 이 외 부수 업무로서 위탁자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숙박을 제공하는 여숙(旅宿) 업무, 화물 가진 사람이나 살 사람에게 행하는 대금 입체 업무, 자금 제공 등의 금융 편의를 위한 금융 업무, 각종 물화(物貨)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업무, 그리고 화물 운반을 위한 마차나 마방(馬房) 또는 선박을 알선하는 수송 업무까지 맡았다.

조선시대에 와서 성황을 이룬 객주는 주된 업무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었다. 중국 상인만을 상대로 하는 객주가 있는가 하면, 보부상(襍負商)과 더불어 각지의 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방의 객주를 단골로 정하여 거래하는 객주도 있다. 그 밖에도 일반 보행자에 대한 숙박만을 본업으로 하던 보행객주(步行客主), 대금 등 금융의 주선만을 전문으로 하는 환전객주(換錢客主), 가정 일용품만을 취급하는 무시객주(無時客主) 등이 있었다. 김만덕이 건입포(健人浦)에 차렸던 객주집은 본토와 동떨어진 제주도 포구의 특성상 위의 여러 가지가 복합된 형태로 보아진다.

김만덕의 객주집터를 찾기 위해 새로 잘 정돈된 산지포를 따라 가다가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금산 유원지 아래에서 왜가리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언뜻 만덕 할머니의 모습이 연상되어 놀래지 않게 조용히 내려서는데, 발 아래 손바닥만한 거북이 물에 나와 앉아 있다가 침병 물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삼가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자리를 잡고 앉아 물 속을 들여다 보니, 은어 떼가 수로(水路) 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수없이

반복한다. 만덕의 객주집에도 손님이 저런 식으로 들락거렸겠지.

하얀 몸체에 잿빛 날개를 접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의젓하게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왜가리의 모습이 만덕 할머니를 닮았다고 생각하며 발을 옮겼다. 지금은 골목길이 되어버린 옛 산지로에 접어들어 어렵지 않게 제주시에서 세워놓은 ‘김만덕의 객주집터’ 표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객주집터는 마구 파헤쳐 어질러지고 물이 흥건히 고인 채 커다란 덩프 트럭이 들락거리고 있다. 표지판은 2001년 5월에 시작하여 2003년 6월 완공 예정인 한국전력공사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임을 알린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여인숙이 성업 중이던 이 골목에는 아직도 등대여인숙, 희망여인숙, 남양여인숙 용진여인숙, 진도식당, 등대다방 등이 추억처럼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옛 포구 자리는 매립되고 항만은 새롭게 변모되었지만, 옛날 목숨을 걸고 풍파를 이겨내며 긴 바다를 건너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상륙한 사람들에게 여기가 어떤 곳이 되었겠냐는 것은 말을 않아도 짐작이 갈 것이다. 그들을 맞아 따뜻한 물로 씻게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한편, 일하는 사람들을 풀어 짐을 날라다 차곡차곡 정리하는 모습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은 섬에서 나지 않는 물건들일 테고, 그들이 가지고 가는 물건들은 섬에서 나는 특산물인 말총·미역·전복·양태·우황·진주 등일 터였다. 그리고 성안을 출입하기가 수월한 이곳에서 여러 날 묵으며 항해하기에 알맞은 바람이 불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4년간 계속된 흉년과 김만덕의 구휼(救恤)

목 좋은 이곳에 객주집을 경영하면서 장사에 이력이 붙은 만덕에게는 전국적으로 단골이 생기면서 규모가 커져, 재산이 차츰차츰 불어나고 해가 거듭될수록 축적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30여 년 세월이 흘러 그녀의 나이 57세 되던 해인 1795년(정조 19)에는 제주에 흉년이 4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굶어죽는 사람이 늘어났다. 1792년서부터 시작된 흉년은 1794년에 들어서 극에 달하는데 이른바 갑인년 흉년이 그것이다.

‘갑인년 흉년에도 먹당 남은 물’이란 말은 물론 제주에는 그만큼 식수가 풍부하다는 비유일 테지만 먹을 것은 물뿐이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것이 다음 해까지 이어졌으니 그 참상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그것은 조정에 올랐던 장계를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다. 1794년(갑인) 3월 2일에 올린 심낙수(沈樂洙) 목사의 장계에는 “3읍에 굶주린 자가 많아서 6백여 명에 이르렀는데, 봄여름 사이에 온 섬에 염병(染病)이 치열하고 기근(饑饉)까지 겹쳤으니, 병든 자는 굶주려 죽고 굶주린 자는 병으로 죽었습니다.”와 같이 적고 있다.

그 해 9월 17일에 올린 장계에도 “금년에 3읍 농사가 단비를 얻어 대풍이 예상되더니, 뜻하지 않게 8월 27일에 동풍이 크게 일어나 기와가 날리고 돌맹이가 마치 회오리바람에 나뭇잎이 날리듯 하여, 곡식이 큰 상처를 얻었습니다. (중략) 지금 당장에 백성들의 식량은 여름철 보리가 조금은 남아서 굶주림은 없을 것이나, 10월 이후의 형세는 장차 조정에서 구호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쌀 2만 석을 실어오지 않으면 장차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당시의 상황을 급박하게 전하고 있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구휼미를 신고 들어오던 배도 바람을 만나 가라앉아 버린다. 1795년 윤 2월 3일의 실록(實錄)을 보면, “제주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전곡을 실은 배 다섯 척이 파선 된 것을 치계(馳啓)하였다.

하교하시기를 탐라에 다시 운송할 1만 1천 석의 곡물이 일제히 도착하여 야 도민들의 위급한 굶주림을 해소할 수 있는데, 밤에 장본(狀本)을 보고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다섯 척에 실은 몇 백 포가 침실(沈失)하였다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구나.”라고 침통해 하는 부분도 보인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듯 관에서 실의에 빠져 있을 때, 김만덕이 나선 것이다. 근래에 나온 기록에는 1천금을 내놓아 이는 사람들을 통해 10일 만에 육지에서 보리쌀을 500석을 구입하여 그 중 10분의 1은 친족과 친지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모두 관에 보내어 기민(饑民)을 구하게 하였다는 것도 있고, 그것으로 관덕정 앞뜰과 삼성혈 목에서 술 10여 개씩 걸어놓고 날마다 죽을 쑤어 한 그릇씩 먹였다는 기록도 있다.

소설가 정비석이 그의 <명기열전>에 ‘목석원(木石苑)에서 김만덕이 보리를 갈았던 맷돌과 커다란 가마솥을 보았다.’고 하여 달려가 보았더니, 볼 수가 없었다. 다만 이우현(李禹鉉) 목사가 올린 장계에서 “본주 김만덕 여인은 곡식을 사서 진곡으로 450석을 원납하였고,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진곡으로 보충한 것이 3백 석에 이르며, 장교 홍삼필(洪三弼)과 유학 양성범(梁聖範)은 각각 원납곡이 1백 석이 되니 지극히 가상합니다.” 하는 대목이 보일 뿐이다.

정조 임금과의 만남, 그리고 금강산 유람

위의 장계에 접한 임금은 진흙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특별히 하유하기를 “김만덕을 불러 그 소원을 물어보고 난이(難易)를 논하지 말고 시행할 것, 전 현감 고한록은 매번 연재(捐財)하였으므로 해외의 토속에 사랑하

는 마음이 있음을 능히 알 수 있으니 가상하다. 대정현감으로 특별히 임명하여 군수의 이력으로 삼게 하라. 홍삼필과 양성범이 1백 석을 원납한 것은 육지의 1,000포에 필적하므로 모두 병조에 명하여 순장(巡將)으로 승진 임명하라.”고 했다. 새로 부임한 유사모(柳師模) 목사는 만덕을 불러 임금의 유지를 전하고 소원을 물었다. 만덕은 의외로 임금의 알현과 금강산 유람을 원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채제공(蔡濟恭)의 만덕전(萬德傳)을 보면, 그녀의 행적이 드러나 있다. “목사가 그의 소원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께서 그의 소원대로 하라 하시고 역마(驛馬)를 관에서 주고 이어가며 음식을 대접하라 하셨다. 만덕은 배를 타서 만경운해를 건너 병진년(정조 20) 가을에 서울에 들어왔다. 임금님께서서는 선혜청에 명하여 다달이 식량을 주도록 하고 며칠 있다가 내의원 의녀로 삼다 의녀반수(醫女班首)로 있게 하였다. 만덕은 예에 의하여 내합문으로 들어가 문안을 드리니, 전궁(殿宮) 시녀를 통하여 전교하여 말하기를 ‘너는 한낱 여자로서 의기(義氣)를 내어 굶주린 천백여 명을 구호하였으니, 거룩한 일이다.’ 하시고 상을 심히 후하게 내리었다.” 의녀반수는 이 때 내려진 직함인 것이다.

금강산 구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덕은 서울에서 반년을 살게 하고 정사년(다음 해) 3월에 금강산에 들어가 만폭과 명승지를 두루 탐방했고, 금불상을 보면 배례 공양하였다 이 때 불교는 탐라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만덕이 나이 58세에 처음으로 사찰과 불상을 대하게 된 것이다. 그는 안문령(雁門嶺)을 넘고 유점(楡岾)을 거쳐 고성으로 내려가 삼일포에서 뱃놀이하고, 다시 통천의 총석정(叢石亭)에 올라 천하의 경관을 두루 구경한 후에 서울로 돌아왔다. 며칠을 묵고 내원에 들어가 귀향의 뜻을 아뢰자 임금은 전일과 같이 상을 내렸다.”

다음은 채제공이 만덕전을 지어주며 이별하는 대목이다. “이 때 김만덕의 이름이 온 장안에 퍼져 공경대부와 선비들이 모두 만덕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다. 만덕은 출발에 앞서 영의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 몸이 다시는 상공의 얼굴을 우리러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며 울먹였다. 영의정이 타이르기를 ‘진시황과 한무제가 모두 해외에 삼신산이 있다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한라산을 영주산, 금강산을 봉래산이라고 한다. 너는 탐라에서 자라 백록담의 물을 떠 마시고, 이제 금강산도 편답하였으니 이는 천하에 수많은 남자들도 다 못하는 일이다. 이제 작별에 임하여 어린애처럼 척척거리니, 그 몸가짐 이 마땅하지 못하구나.’ 하면서 김만덕의 일을 적어 만덕전이라 이름하고 웃으면서 주었다.”

이름처럼 빛나는 여인, 만덕(萬德)

조선시대 평범한 여인들은 이름을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만덕(萬德)’은 기명(妓名)으로 보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휼하는 덕을 쌓으면서 붙은 이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꼭 필요한 때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만덕(萬德)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빛나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여인들에게는 단힌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홀몸으로 커다란 사업을 벌여 큰 재산을 일구었을 때, 큰 덕을 쌓을 기회인 1794년(갑인년)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손을 써서 양곡을 구해다가 기민(饑民)들을 먹여 살린 덕행은 오래도록 제주민의 귀감이 될 것이다.

갑인년 당시 8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9월에 조정에 보고한 기록이 있는데, 도내 78개 마을 중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폐허된 마을이 38개소, 구호 대상자가

62,698명에 달하였다. 일시적인 배고픔이야 충분히 견딜 수 있지만 풀뿌리 나무껍질도 벗겨다 먹을 수 없는 암담한 시절, 얼마 동안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부지시켜 주었으니, 당시 혜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늘 같은 존재였으리라. 1801년(순조 1) 신유사옥(辛酉邪獄) 때 이승훈과 함께 순교한 당시 병조판서 이가환(李家煥)도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그녀의 공적을 칭송했다.

만덕은 제주의 기특한 여인일세 (萬德瀛州之妓女)
 예순 얼굴이 마흔쯤으로 보이는구려 (六十顏如四十許)
 천금을 내어 쌀 사들이고 백성을 구제하여 (千金糶米救黔首)
 한번 바다 건너 궁궐을 찾아뵈었구려 (一航浮海朝紫籙)
 다만 원하는 건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 (但願一見金剛山)
 산은 동북의 안개와 연기 사이에 있도다 (山在東北煙霧間)
 임금께서는 날랜 역마를 내도록 허락하시니 (至尊願肯賜飛驒)
 천리에 뻗친 광휘는 관동을 떠들썩하게 했네 (千里光輝動江關)
 높이 올라 멀리 굽어보며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는 (登高望遠壯心目)
 표연히 손을 저으며 바다굽이로 돌아가려나 (漂然揮手還海曲)
 탐라는 저 멀리 고량부 신인 때부터인데 (耽羅遠自高良夫)
 여인네가 이제야 나라 임금 뵈 수 있었다네 (女子今始觀上國)
 청찬 소리 우뢰 같으며 고니 노닐 듯 빼어나니 (來如雷喧遊鵠舉)
 높은 기풍 오래 머물러 세상을 맑게 하겠구려 (長留高風濾寰宇)
 사람이 나서 이름을 세움에 이 같음이 더러 있겠지만 (人生立名有如此)
 여회청대로 기림은 어찌 죽히 몇이나 되리요 (女懷淸臺安足數)

ㄱ으니ㄱ르의 만덕할머니 동산

사라봉 오거리에서 사라봉로로 접어들어 오른쪽으로 갈라진 옛길 이름은 새로 ‘ㄱ으니ㄱ르길’로 명명되었다. 이제는 골목길이 되어버렸지만 속칭 ‘ㄱ으니ㄱ르’ 동산 길은 과거 성안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통로였다. 지금은 입구 오른쪽에 안전자동차공업사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 원래 김만덕의 무덤이 있었다. 후한 덕을 지녔던 생전의 모습처럼 잔디가 좋고 넉넉했던 무덤은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었다. 동문 로터리에서부터 오르막길을 오르다 거의 절정에 달한 곳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그 곳에 이를 즈음이면 모두가 지쳤다. 그녀의 유언대로 당시 성안이 한눈에 들어왔던 곳이다.

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곳이 골목길로 변하고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서 주변은 어수선했지기 시작했다. 이를 걱정하는 뜻 있는 인사들이 이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의사 정태무(鄭太茂)가 주동이 되어 ‘김만덕 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이장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다 1976년 도민의 이름으로 총력안보제주도협의회가 사라봉공원에 모충사(慕忠祠)를 건립하면서 그곳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지금 옛 무덤 자리엔 객주집을 했던 분이 묻혔던 곳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와 관련된 안전자동차공업사를 비롯해서 대양해운주식회사, 제일통상, 남국상사 등이 들어서 있다.

한양에서 돌아온 만덕은 객주집을 그대로 운영하며 남은 여생을 자선 사업에 주력하였으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에 이르렀고, 그냥 ‘만덕 할머니’로 통했다. 이러한 그녀의 활동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부친 응열(應悅) 공에게는 가의대부(嘉義大夫)를, 구휼 사업을 도운 오빠 만석(萬碩)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추증(追贈)했다. 그녀의 사업을 도왔던 조카 성집(聲集)이 일찍 병사했기 때문에 만년에는 성집의

아들 시채(時采)에게 사업을 맡겼다 한다. 만덕이 1812년(순조 12) 10월 22일, 74세로 숨을 거두자 이곳에 묻었고, 시채의 아들 3형제 중 막내인 종주(鍾周)가 제사를 받들었다. 당시 관관이었던 이국표(李國標)는 그녀의 행적이 두고두고 만인의 귀감이 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문을 지었다.

“김만덕의 본은 김해 김씨요 곧 탐라 양가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가난과 고생으로 살았다. 그러나 살결이 곱고 아름다워 교방(敎坊)에 의탁하게 되었으나 의복을 줄이고 먹을 것을 아껴서 재산이 대단히 커졌다. 정조 을묘년에는 제주도민이 크게 굶주렸는데 온 재산을 내어 곡식을 육지에서 운반해다가 심히 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렸다. (중략) 70이 된 용모이건만 선녀나 보살을 방불케 하고 쌍꺼풀진 눈은 맑았다. 다만 천도가 무심하여 아이가 없는 것이 애석하다. 그러나, 양손 시채(時采)가 동기간에서 출계하여 유지를 잘 지키고 영구히 향화(香火)하니 섭섭지 않게 보답이 된다.(하략)”

모충사와 만덕관, 영원히 빛나는 이름

사라봉 공원에는 남쪽 양지 바른 곳에 모충사가 자리해 있다. 여러 인사들의 기념식수로 잘 정돈된 경내로 들어서면, 가운데 의병항쟁 기념탑과 왼쪽에 순국지사 조봉호의 기념탑이 솟아있고, 오른쪽으로는 의녀 반수 김만덕 의인탑이 세워져 있다. 만덕관(萬德館) 앞에서 향나무 늘어선 11계단을 오르면 20여 평의 묘역 5층 기단 위에 2m 높이의 세모난 납골실이 있고, 그 위로 세 기둥이 이어져 도합 20m의 장중한 탑이 솟았다. 납골묘와 탑과 비가 어우러진 독특한 구조물이다. 이 세 기둥은 모가 없이 원만하게 당초무늬로 연결, 위로 둥글게 마감되어 생전의

원만한 성품을 나타낸다.

납골실 3면은 송사(頌詞)와 행장(行狀)이 조각되어 있고, 정면에는 상석과 양쪽으로 큰 향로가 놓여 있는 구조다. 뒤에는 병풍처럼 높이 3.5m, 길이 9.3m의 반원형 곡장(曲牆)을 둘렀는데, 양쪽에 양각된 두 개의 그림이 눈에 다가온다. 하나는 만덕이 구호곡을 배로 실어다 목사에게 드리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대궐에 가서 임금을 배알하는 장면이 금강산을 배경으로 나타난다. 이 묘탑은 문정화(文貞化)가 설계했고, 비문 ‘의녀반수(醫女班首) 김만덕(金萬德) 의인묘(義人墓)’ 글씨는 서예가 김순겸(金順謙)이 썼다.

만덕관 옆에는 옛 무덤에서 가져온 석물(石物)들이 모여 있다. 아직도 비문이 뚜렷한 묘비와 그 앞에 동자석 크기의 문인석(文人石) 한 쌍, 또 그 앞에 망주석(望柱石) 한 쌍, 그밖에 산담으로 추정되는 돌이 몇 덩이 놓여 있다. 만덕관 쪽으로는 ‘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글을 새긴 자연석을 세워 놓았는데, 이는 1840년(현종 6) 대정에 유배되었던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가 만덕의 행적을 듣고 감동하여 양손 종주(鍾周)에게 써준 표제 글을 양경호(梁庚浩) 여사가 새겨 기증한 것으로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번진다.’는 뜻이다.

만덕할머니의 재산 형성 과정과 수많은 자선을 상징하듯 자갈돌이 뿔뿔하게 박힌 만덕관으로 들어가자, 곱게 그려진 만덕할머니의 초상이 반겨 맞는다. 언제 그렸는지 모르지만 홍상문(洪祥文) 씨의 작품이다. 벽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만덕의 일생을 그린 커다란 동양화 10장면이 이어져 있다. 제주시가 공모하여 강부언(美富彦) 화백이 그린 이 그림을 보면 만덕의 일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 장면 단란하던 만덕의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상(喪)을 당한 장면, 기녀의 집 풍경, 거문고를 타는 모습, 기적(妓籍)을 벗고자 탄원하는 장면, 다음은 한라산을 가운데 두고 객주집의 모습과 기아에 허덕이는

도민들, 쌀을 나눠주는 세 장면이 이어지고, 임금님을 알현하는 장면과 마지막으로 금강산 유람 모습을 담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1980년부터 해마다 만덕할머니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탐라문화제 행사 때 근검절약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제주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한 여인을 한 사람 선정하여 만덕제를 봉행하면서 만덕봉사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23회째를 맞는 지금까지의 수상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수선, 고혜영, 이창옥, 조금숙, 이옥이, 김서옥, 성귀랑, 고춘옥, 김경생, 오태인, 김순이, 김진현, 홍정형, 박희순, 문초실, 장옥순, 고경자, 메리 스타운튼 수녀, 진춘자, 양화순, 김태화, 김순자, 고길향.

김만덕 전기

김만덕, 굶주린 백성을 살린 사업가

이 순 구

이백년 전에 이 땅에서 사업을 한 여성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서야 바깥 출입하던 시대에 왕에게 벼슬을 받고 왕비를 만난 평민 출신의 여성. 그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사업가 김만덕(金萬德)이다.

정조 때 문신 채제공이 지은 「변암집」에 기록된 선행(善行)의 제주 여인 만덕은 아버지 김응열(金應悅), 어머니 고씨에게서 태어났다. 1750년 전국을 휩쓴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고 기녀의 수양딸로 갔다. 만덕이 일도 잘하고 노래와 춤과 거문고도 잘하자 기녀는 만덕을 역시 기녀로 만들려고 하였다. 만덕은 본래 양인(良人)의 딸로서 기녀가 되기 싫었으나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부모 잃고 기생으로 전락

기생 김만덕. 그러나 그녀는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천성을 버리지 못했다. 특히 어머니가 들려준 김천덕(金天德) 열녀

이야기는 그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김천덕은 본래 하인의 아내였다. 어느 해 남편이 배 침몰로 죽자 3년 동안 머리를 풀고서 제사를 지냈다. 그 후에 부모가 다시 시집 보내려 하자 목을 매어 죽으려 하여 끝내 그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열녀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만큼 만덕은 기녀로서 기예(技藝)를 할 뿐 방만한 생활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미모 때문에 인기가 대단하였다. 관가(官家)의 연회는 물론 부잣집이나 양반집의 잔치에도 만덕의 참석 여부가 그 격(格)을 좌우할 정도였다. 서울에서 어사나 벼슬아치의 환영연과 송별연에는 반드시 만덕이 나갔다. 모두들 제주도에도 이런 명기가 있었는가라고 감탄하였다. 고려 때의 승(僧) 혜일, 어승마(御乘馬)가 된 노정 등과 함께 만덕은 제주도의 삼기(三奇)라 칭송 받았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만덕은 자신으로 인해 집안이 천민으로 대우받는 것이 괴로웠다. 관가에 나가 기녀 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고 목사인 신광익과 판관 한유추를 찾아갔다. 본래 양가 출신으로 부모를 잃고 가난으로 부득이 기녀가 되었으나 위로 조상에게 부끄러우니 다시 양녀(良女)로 환원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만일 양녀로 환원시켜 준다면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특히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목사와 판관은 그 진정을 받아들여 명단에서 제명해 주었다. 그러자 지체 있는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허나 만덕은 일찍이 결심한 바가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동안 모아 두었던 약간의 돈으로 객주집을 차렸다.

객주집 차려 큰 돈 벌어

기생살이를 통하여 세상사를 직접 체험한 만덕은 나이는 비록 젊었지만 장사할 자신이 있었다. 당시 객주집은 상인들이 물건 매매를 소개하고 또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곳이었다. 육지 상인들이 이곳에 상품을 매매를 위탁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입도 많았다. 명기였던 만덕이 객주집을 차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육지 상인들이 즐겨 찾아왔다. 상인뿐 아니라 관원들까지 투숙(投宿)하여 객주집은 날로 번창하였다.

전국 각 지방에서 오는 장삿군들을 상대하다 보니 물건의 유통 경로와 교역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 하지만 만덕은 장사가 돈을 버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님을 알았다. 물자의 유통과 수요자의 편의를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만덕은 제주도 사람들의 물건을 적당한 값으로 사두었다가 육지의 상인들에게 싸게 팔았다. 소문을 들은 상인들이 앞다투어 만덕의 객주집으로 모여들었다.

만덕은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 둘째 적절한 가격 매매, 셋째 정직한 신용본위가 그것이었다. 만덕은 기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반층 부녀자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염가로 공급했다. 나이가서 관가의 물품까지도 조달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육지 상인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다. 자연 만덕의 객주집은 큰 규모의 무역 거래소가 되었다. 몇 년만에 만덕은 제주의 거상(巨商)이 되었다.

이처럼 사업에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었으나 만덕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검소하여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하여 절약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며 어렵게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하여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였다.

1792년(정조 16년)에서 1795년(정조 19년)까지 제주에는 계속 흉년이 들어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특히 1795년에는 국가에서 보낸 구호식량마저 풍랑으로 바다에 빠지자 제주 백성들의 곤궁한 처지는 말이 아니게 되었다. 이 때에 만덕은 ‘바로 지금이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탁하였다.

“보리고개까지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야 하니 육지로 나가서 되는 대로 양곡을 사오세요.”

흉년에 가장 많은 곡식을 헌납

1천금을 갖고 육지로 건너간 상인들은 한 배 가득 곡물을 싣고 돌아왔다. 만덕은 곡물의 10분의 1을 친척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었다. 나머지 450석은 모두 관가에 보내어서 구호곡으로 쓰게 하였다. 당시 관가에서는 한양에서 구호곡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굶어 죽는 사람은 늘어나고 구호곡의 수송은 늦으니 그 초조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때에 마침 만덕의 구호곡이 들어오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목숨은 만덕이 살렸으니 만덕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다.”

사람들은 만덕의 후덕함을 칭송하였다.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鉉)은 한양에 장계를 올렸다.

“제주의 김만덕 여인이 곡식을 사서 450석을 냈고, 고한록(高漢祿)은 300석을, 홍삼필(洪三弼)과 양성범(梁聖範)은 각각 100석을 내었으니 지극히 가상합니다.”

부자 양반도 아닌 일개 양민, 그것도 여자가 가장 많은 곡식을 기부한 것이다. 정조는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명을 내렸다.

“김만덕에게는 불러서 그 소원을 물어보고 어려운 일이라든 특별히 시행하라. 그리고 고한록은 대정현감으로 임명하고, 홍삼필과 양성범은 모두 순장으로 승진 임명하라.”

아마도 김만덕이 남자였다면 높은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목사는 만덕에게 왕의 뜻을 전하고 소원을 물었다.

“다른 소원은 없사오나 오직 한 가지 한양에 가서 임금님 계시는 궁궐을 우리러보고 천하 명산인 금강산 1만2천봉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이루기 어려운 소원이었다. 백성은 육지로 나가는 것이 통제되고 특히 여자의 육지행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제주도가 척박하여 인구 유지가 쉽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만덕의 소원은 그대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은 쾌히 허락하고 말을 하사하였다. 오는 지역의 관사에서는 만덕에게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라고 분부하였다.

왕의 초청으로 상경

만덕은 1796년, 관원의 안내로 제주를 출발하였으니 나이 58세였다. 해남, 강진, 영암, 정읍, 여산, 공주, 수원을 거쳐 한양에 올라왔다. 왕은 먼길의 노고를 위로하고 선혜청의 의녀반수(醫女班首, 내의원에 속한 수석 여의)란 벼슬을 내렸다. 그것은 평민으로서 왕을 직접 알현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너는 한낱 여자의 몸으로 의기심을 발휘하여 천백여 명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호하여 귀중한 인명을 살리었으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다.”

왕은 치하의 말과 함께 상으로 비단 5필을 내렸다. 왕기도 만덕을 만나보고 장신구(裝身具)를 상으로 내렸다. 만덕은 한양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 금강산으로 떠났다. 왕명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관찰사의 배려하에 소원인 금강산을 편히 구경했다. 이와같이 사람들의 칭송과 환대를 받을 만큼 당시 만덕의 업적은 특별하고 의미있는 일이었다.

의지의 자선사업가

제주로 돌아온 후에도 만덕은 전과 다름없이 장사를 계속하였다. 검소한 생활로 자선사업에 주력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조정에서는 만덕의 부친 김응열을 가의대부로 봉하고, 오빠인 만석에게는 만덕의 사업을 도운 공로로 가선대부에 임명하였다. 만덕은 74세로 세상을 떠났다. 유언에 따라 무덤은 동문 밖, 성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했다. 관관 이국표는 만덕의 행적을 오륜(五倫)의 바탕이라며 비문(碑文)을 지어주었다.

여성의 사회활동조차 드문 시대에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했다는 점에서 만덕은 특기할 만한 여성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업의 원리를 잘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 점이다. 그리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떠나 나라를 위해 재산을 헌납했다는 사실이 더욱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김만덕은 요즘도 보기 드문 자선가이며 성공한 사업가로서 당당히 자리매김 되어야 할 인물이다.



2부

김만덕 시대의 사회경제상

김만덕과 조선후기 제주사회 _ 박찬식

18·9세기 제주사회의 진흥과 김만덕의 사회적 공헌 _ 진관훈



김만덕 시대의 사회경제상

김만덕과 조선후기 제주사회

박 찬 식

김만덕과 시대성

김만덕에 관한 공식기록으로는 『承政院日記』¹⁾·『正祖實錄』²⁾과 蔡濟恭의 「金萬德傳」³⁾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록을 근거로 김만덕의 출신과 상업 활동, 진휼, 상경 경위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만덕은 제주의 기생이다. 20세에 관에 호소하여 贖良하였다.
- ② 배를 가지고 육지를 출입하며 상행위를 하여 수십 년만에 큰 재산가가 되었다.
- ③ 갑인·을묘년 대기근 때 千金을 출연해 쌀을 사들여 진휼하였다.
- ④ 출륙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정조 임금을 알현하고 금강산 구경을 다녀왔다.

1) 『承政院日記』, 嘉慶 원년 11월 28일.

2) 『正祖實錄』, 20년 11월 25일.

3) 蔡濟恭, 『樊巖集』, 권55, 김만덕전.

즉, 김만덕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위 네 가지로 정리된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김만덕은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있던 변방 제주섬에 사는 천민 신분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농·공·상 중 末業으로 천시되던 상업을 통해서 巨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재산을 환원함으로써 나라도 하기 힘든 구휼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변방·여성·천민·상업이라는 최말단의 조건에서 국가·남성·양반·관료도 하기 힘든 구휼 활동을 했다는 독특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출륙금지령 하에서 제주 여성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육지 나들이뿐만 아니라 임금 알현, 금강산 구경까지 이루어낸 최고 경지의 인간사를 경험했다.

이 글은 김만덕의 이러한 독특한 인간사를 이해하기 위한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해서 씌어졌다. 그녀가 살았던 18세기 후반은 조선 전체적으로나 제주 지역사회의 측면에서나 조선 후기 사회의 전형적인 시대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대 제주사회를 이해함으로써 김만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기 위한 시도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크게 김만덕으로부터 확인되는 네 가지 주요 대목을 중심으로 당시 제주사회의 시대상을 보고자 한다. 주로 기생제도와 신분제, 제주의 상업, 대기근과 진휼제도, 출륙금지령 등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무릇 한 인물의 생애는 그 시대와 사회의 산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제주사회의 여러 모습 가운데 김만덕의 출신과 활동의 특징적인 면과 관련된 시대상을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생제도와 신분제

妓란 으레 公婢 출신의 技藝人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의 임무는 가무나 기악을 연주하는 것이었다. 지방의 官妓는 京妓와 달리 종종 소속 관아를 방문하는 관인에게 몸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매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신역으로서 하는 행위이므로 공창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⁴⁾

조선초기 제주지역에서는 관기와는 달리 遊女들이 관의 대장에 등재되어 공창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풍기를 문란케 한다 하여 장부를 없애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였다.

제주의 풍속에 공사간의 계집종과 양민 집의 딸을 遊女라고 명칭하여, 장부에 이름을 적어 놓고 官婢와 같이 부리기에 그 이유를 물은즉, 말하기를, ‘이것들이 장사아치를 만나면 음란한 행동으로 財利를 취하여 그 배필을 문란하게 하므로, 노역을 이르게 시키는 것은 징계를 보이어 음란한 풍기를 금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이들이 더러운 이름을 입기 전에는 오히려 남이 알까 두려워서 혹 행실을 고칠 수가 있지마는, 이름이 관청 장부에 실리게 된 바에는 터놓고 행동하여 꺼림이 없게 되며, 또 동무들을 유인하기를 좋아하여 혹 감정을 품거나 혹 소문만을 듣고 아무의 딸이 아무 사람과 간통하였다 하여, 서로 끌어들이고 관에서도 또한 일시키는 것을 달게 여기어 진짜 가짜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유녀로 입적시키니, 이것은 음란한 풍기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권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유녀의 장부를 없애버리고 유녀로 일컫는 것을 금할 것이며, 그들의 범행에 따라 법대로 죄를 주어 징계를 보이도록 할 것.⁵⁾

4) 劉承源, 「양인」, 『한국사』 25, 국사편찬위원회, 1994, 192~193쪽.

5) 『世宗實錄』, 9년 6월 10일.

조선시대 官妓는 慣習都監(掌樂院)의 京妓와 외방 군현의 관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⁶⁾ 관기는 국가에 소속된 기생으로 관비 가운데 용모와 재주가 뛰어난 자들이 선발되었는데, 관기만이 妓案에 기재되었다. 관기는 거주지역에 따라 京妓와 外方妓로 구분되었다.

서울의 女妓, 즉 경기는 조선초기에 관습도감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관습도감은 세조 3년(1457)에 樂學과 통합되어 악학도감으로 되었다. 다시 동왕 12년에 掌樂署에 병합되었으며, 장악서는 뒤에 掌樂院으로 개칭되었다. 『經國大典』에 외방 관비의 選上으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건대, 경기의 신분은 천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관비로서 선상되는 경기의 수는 세종 29년(1447)까지는 125명이었으나, 이 해에 蓮花臺 6명을 포함하여 100명으로 25명을 감액하였으나 『경국대전』에서는 다시 증액되어 여기 150명과 연화대 10명 등 모두 16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에게는 2명의 봉족이 지급되었다.

지방 각 고을의 여기들도 각관창기라 하여 창기로 불리고 있었는데, 이를 줄여서 흔히 官妓라 불리고 있었다. 이들 외방기는 지방관아에 속한 기녀로서 外方妓·外方官妓·外方女妓·鄉妓 등으로 불렸다. 이들은 주로 연회에서 가무를 담당하거나, 사신을 접대하고 지방군관과 수령을 위안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선상되어 경기의 정원을 채우기도 하였다. 선상된 기생들은 選妓·上妓·選上妓·京上妓·選上女妓·選上妓生 등으로 불렸으며, 50세가 되어 악적에서 제적됨으로써 기억을 면제받았다. 이들 외방 각읍의 관기가 언제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미 고려시대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 각 고을 관기의 신분도 관비였다. 즉, 이들은 해당 지방 군현의 관비 가운데서 뽑아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

6) 全炯澤, 「천인」, 『한국사』 25, 국사편찬위원회, 1994, 199~200쪽.

양인과의 交嫁 소생의 신분 귀속도 양인과 공사비와의 교가 소생과 같은 범주에서 결정되어 종친 總麻 이상, 外姓 小功親 이상 및 대소 인원이 거느리고 사는 창기의 소생은 종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⁷⁾

결국 조선시대의 창기는 노비와 구별되는 별개의 천인 신분집단이라기보다는 노비의 변이형으로 “공노비 중에서 직업이 창기인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녀제도는 인조반정(1623)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한다. 원칙적으로 선상기는 50세가 되어 妓役을 면제받아 本邑으로 되돌려질 때까지 장악원에 상주하였다. 그러나 인조 원년(1623) 장악원 소속의 女妓를 혁파한 이후, 연향을 여는 시기에 맞춰 외방관기를 뽑아 올렸다가 연향이 과하면 본읍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 따라서 영조 22년(1746)에 편찬된 『續大典』에는 “進宴할 때 女妓 52명을 選上하는데 특별한 傳旨가 있으면 그 숫자를 加減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는 『大典通編』과 『大典會通』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선상기들은 연향이 과하면 곧바로 본읍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조선후기의 京妓는 장악원을 제외한 중앙관서에 속한 기녀들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仁祖代 이후로는 경기의 정원이 크게 감소한 반면, 혁파된 경기가 귀향하게 되면서 외방기의 수가 급증했다. 또한 선상기가 장악원에 상주하지 않으므로 조선후기에 이르면 외방관기의 비중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⁸⁾

조선은 고려에서 확립된 관기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1909년 일제에 의해 관기제도가 철폐될 때까지 유지하였다. 조선전기에는 選上된 기녀가 장악원에 상주하였던 반면 조선후기에는 연회가 끝나면 本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즉, 인조대에 京妓인 掌樂院 女妓가 혁파되면서 연향

7) 『經國大典』 권5, 刑典, 賤妻妾子女.

8) 이규리, 「『邑譜』로 본 조선 후기 外方官妓의 운용」, 한국사연구회 242차 연구발표회 요지문, 2004.

이 있을 때에만 외방에서 기녀를 선상하였는데, 개편된 선상제도를 바탕으로 官妓制度가 공고히 확립되었다. 관기는 비록 신분상 公賤이었지만, 사신접대와 지방관 및 지방군관의 위무 등 지방 행정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기녀의 존재가 조선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관기제도가 존속되었음은 기녀가 단순한 남성들의 희롱 대상이 아니라 국가운영상 필요한 존재였음을 뜻한다.

조선후기 제주지방 관기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사료는 주목된다. 하나는 숙종 5년(1679) 제주안핵검문수어사로 왔던 李增의 『南槎日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숙종 20년(1694) 제주목사로 부임한 李益泰의 『知羸錄』에 수록된 기록이다. 전자는 제주 관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후자는 이 문제점을 개선한 내용을 적고 있다.

- ① 제주에는 官屬이 매우 적으나 두 관아를 받드는 외에 허다한 軍官들이 있다. 廚籍에도 분류할 수 없어 성 안에서 남편이 없는 자를 淫女라고 불러 房婢로 정하여 나누어 준다. 지금은 그들 친근한 妓女들을 방비로 삼고, 기타 汲水 등 제반 고역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 … 관원이 된 자는 다만 아무 생각 없이 그 더러운 풍속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또한 따라 즐기면서 듣건대 使喚으로 삼을 셈을 하니 참으로 해괴하다.⁹⁾
- ② 본주에는 官奴婢수가 많다.婢들은 모두 妓案에 들어간다. 다만 지치고 용렬한 약간의 婢子는 營牧에 供須의 역으로 나누어 세우는데, 오래도록 番을 하는 것은 偏苦인 것이다. 妓는 목사를 수청드는 것 외에 삼읍 수령 및 教授·衙客·軍官·三學이 각각 하나의 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거느리며 첩으로 허용하여 역을 면제해주니 한가하게 노는데, 이들은 바로 그 중에서는 빼어난 이들이었다. 또 영목에는 針匠妓가 10여 명 있고, 그 나머지는 教坊妓라고 하는데 茶母와 잡역을 돌아가

9) 李增, 『南槎日錄』, 숙종6년 3월 25일.

며 한다. 다 함께 官婢이나 사역이 고르지 않아 공적인 일로
헤아려 보면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다.

데리고 기르는 妓에 이르러서는 총애하는 것을 믿고 스스로
건방져서 세력이 팽창하여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 鄉
所 이하는 연고를 따라 부탁하는 것을 사람들 모두가 보통
일도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간혹 가다 政令에도 폐를 끼치지 않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이
르기를 濟州妓의 권세가 무겁다는 것은 믿어도 거짓말이 아
니다라고 한다. 따끔하게 혁파하고 싶어 妓籍에 들어 있는
가운데 매우 우매한 技藝色과 나쁜 짓을 한 추악한 자 7, 8명
을 강등시켜 供子로 정하였다. 그리고 군관과 삼학의 방에 있
는 기는 茶妓의 역을 돌려가며 하여 사환의 처지에서 할 일
을 均役이 되게 하여 정식으로 시행하였다.¹⁰⁾

관기는 관비 중에서 선발되었는데, ‘妓婢’라는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관비와 기생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생의 교육기관인 教坊
에 관비가 소속되기도 하고, 官婢房에 기생이 함께 거주하기도 하는
사례가 보인다. “藏春院은 新果園 서쪽에 있는데 기생과 악공이 翫樂하
는 教坊이다”¹¹⁾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1895년 당시 제주목에는 장춘원
이란 교방이 설치되어 있었다.

외방의 경우 관비는 넓은 의미에서 관기로 인식되었으며, 관비 중에서
특히 酒湯婢와 茶婢·汲水婢라는 雜役婢는 기생의 직분을 수행하였다.
통계적으로 기생은 監營에 10~180명, 府에 4~64명, 牧에 10~15명, 郡에
6~46명, 縣에 3~13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9세기 중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耽羅營事例』에는 제주목에 妓婢가 32명, 官婢가 17명

10) 李益泰, 『知瀛錄』, 增減十事.

11) “藏春院은 新果園 서쪽에 있는데 기생과 악공이 翫樂하는 教坊이다”(『湖南邑誌』
(1895), 「濟州牧邑誌」, 宮室).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비는 또한 針妓(8명)·茶妓·色掌妓(2명)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 官衙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色治가 큰 곳일수록 많은 수의 기생이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영이 설치된 邑治는 해당 도의 기생 수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감영은 掌樂院 女妓의 혁파 후 選上妓의 주 공급처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외방에서 기생의 주된 역할은 사신 접대와 軍鎮慰安이므로 읍지에 나타난 기생의 분포는 사행로와 일치하며 北邊의 기생수 또한 많다. 따라서 8도 중 평안도·함경도·전라도의 기생 수가 다른 도에 비해 월등한 결과를 보여준다.

妓樂을 교습하던 教坊은客舍와 樓亭의 근처에 설치되어 사신 접대에 기생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가적 능률주의의 일면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妓沓을 두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방의 운영을 도왔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조선시대 기녀는 남성의 성적 소유물이나 여악의 담당자로 인식할 게 아니라 公賤인 관기가 담당한 역할이 국가 행정의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관기가 행한 職役의 대가로 관에서는 일정한 세료 및 일종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의 경제적 처우를 베풀었다.

또한 「김만덕전」에 나온 바와 같이, “탐라의 대부들이 청혼을 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하는데, 전통시대 제주의 기녀 출신 여인이 청혼을 거절하였던 또 다른 사례를 다음 사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문(제주목) 기생 洞庭春이 본현(대정현)으로 귀양와서 縣婢로 강편되었다. 영문 책실에 황서방이란 자가 있었는데 여러 번 같이 살기를 요구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여러 비장들이 강권하고 영문에서도 권하였으나 역시 거절하였기 때문에 형을 가하였다. 그러나 또 듣지 않으므로 황서방으로 하여금 별도포로 내려 가게 하고 동정춘을 食婢로 하여 같은 방에서 거처하게 하였으나, 동정춘은

늙은 어미로 대신 之供하게 하여 몸소 거행하지 않으므로 황서방은 마침내 서울로 돌아가고 동정춘은 본현에 정배되어 온 것이다.¹²⁾

한편 김만덕이 정조 임금을 알현하러 서울에 갔을 때 그녀를 내의원 의녀로 삼아 醫女班首로 삼았는데, 이 의녀의 역할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의녀의 신분적 성격도 창기와 비슷하였다.¹³⁾ 이들은 內醫院과 惠民署에 소속되어 工曹 尙衣院의 針線婢와 함께 京妓에 포함되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이들도 창기와 마찬가지로 지방 각 고을의 관비 중에서 나이 어린 사람을 선상하여 충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들 의녀들이 지방 각 고을의 관비 가운데서 선상되었던 것은 창기와 같지만 이들은 창기와 같이 서울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니라 의녀로서의 재능과 기예를 익히게 되면 출신 고을로 돌아가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다.

의녀는 태종 6년(1406)에 처음 설치되었다. 부녀자들이 질병에 걸려도 수치심 때문에 男醫들에게 환부를 드러내 보이지 않아 치료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일이 많아 부녀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濟生院으로 하여금 나이 어린 倉庫와 宮司의 비 수십 인을 선발하여 맥경과 침구의 기술을 가르치게 하였던 것이다.

의녀는 이것이 처음 설치된 태종 때에는 창고와 궁사의 비나 각사의 비 가운데서 선발되어 충원되었으나, 세종 이후에는 지방 군현의 관비가 선상되어 충원되었다. 지방 군현의 관비를 의녀로 선상시킨 것은 세종 5년에 충청·경상·전라도의 계수관에서 10살 이상 15살 이하인 영리한 관비 2명씩을 제생원에 선상시켜 제생원의 의녀와 함께 의술을 가르치게 한 것이 시초였다. 이들 지방에서 선상된 의녀는 의술을 제대로 익히

12) 『大靜縣衙中日記』, 丁丑(1817) 6월 20일.

13) 全炯澤, 앞의 글.

면 출신 고을로 돌려보냈다 서울에는 의녀가 설치되어 있어 부녀자들이 이에 힘입은 바 컸으나, 지방에는 그렇지 못하여 부녀자들이 질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의녀의 선상은 그 대상 지역이 하삼도에서 경기·강원·황해도에까지 확대되고 대상 군현도 계수관에서 일반 군현으로 점차 확대되어 문종 때에는 의녀들 대부분이 지방 각 고을에서 선상된 관비로 채워지기에 이르렀다.

지방 각 고을의 관비가 의녀로 선상되어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의술을 제대로 익히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 의술을 제대로 익힌 의녀는 아주 적었다. 이들의 어려움은 의서를 읽고 의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문자를 익혀야 했는데 그러하지를 못했던 데에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비가 의녀로 선상되기 전에 문자를 익히도록 하였다.

의녀 소생의 신분 귀속은 창기 소생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종친 시마 이상, 외성 소공친 이상과 대소 인원이 거느리고 사는 의녀의 소생은 종량될 수 있었다. 결국 의녀 역시 노비의 변이형으로 “공노비 중에서 직업이 의녀인 자”를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업의 성행

제주의 자연적 조건은 당시 도민들의 생존과 관련해서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연안 지역은 薄土가 대부분이었고 들판이라 할지라도 草場이 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寸土如金’과 같은 현상이 항상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런 여건하에 있는 제주민은 생존을 위한 극한적 상황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고 한 번 흉황을 만나기만 하면 국가의 적극적인 진흥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영조 시기에는 제주 구휼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의 하나로 羅里浦를 臨陂로 이설하고 이곳 곡물과 제주산 바닷고기·미역 등을 서로 거래하도록¹⁴⁾ 하였다. 그러나 동 3년(1727) 제주의 미역 생산이 이전만 못해서 나리포 이전 곡식에 대하여 제주 산촌민이 미역을 바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그 대체물중에 대한 논의가 조정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左參贊 金興慶이 제의한 양태 등 토산 잡물로 대체가 결정되어¹⁵⁾ 양태는 기존의 해산물과 더불어 제주민의 생계에 주요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미역 채집은 그 잡채 기간이 불과 봄철 뿐¹⁶⁾인데 비하여 양태 제조는 연중 가능했기 때문에 미역보다는 오히려 이에 의뢰하는 바가 더 컸다. 더욱이 양태 제조는 기후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가 종사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만 갔다. 또한 정조 때에는 양태로 이름을 날렸던 전라북도 金場 지역¹⁷⁾이 국가에 의해 防禁 조치를 받음에 따라서 이 부문에는 제주양태만이 유일한 독점적 상품으로 부상하게 되어 제주의 양태 생산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당시 제주 양태가 육지로 반출될 때는 주로 강진과 해남 등지를 거쳐 으므로 이곳은 양태의 집산지가 되었고 이곳에서 중간상인에 의해 서울의 양태전으로 전매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개성상인들이 강진과 해남에 진출하여 제주에서 건너오는 양태를 매점하고 그것을 전국의 각 도시에 직접 전매함으로써 서울의 양태전이 상품을 구하여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¹⁸⁾ 이에 양태전은 本廳의 사람들을 직접

14) 『備邊司謄錄』 78, 영조 원년 11월 15일 ; 동 80, 영조 2년 12월 25일.

15) 『備邊司謄錄』 81, 영조 3년 6월 11일.

16) 『濟州牧關牒』, 道光 29년 1월 4일.

17) 『星湖僊說』 8, 人事門, 生財 조.

18) 박지원의 허생전에 적힌 다음 내용이 이와 비슷한 실상을 전해준다. “허생은 다시 갈·호미·포목 따위를 가지고 濟州島에 건너가서 말총(망건의 재료)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가서 과연 망건 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강진·해남 등지에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온 제주양태를 모두 독점하고 이것을 다시 개성상인과 각처에 전매하겠다고 나섬으로써¹⁹⁾ 제주산 양태와 개성상인은 한동안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양태가 북상하는 길을 따라서 그것이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나 기타 주요도시에서 개성상인들의 都賈 활동이 다시 나타나 개성과 안성 등지에서 보다 왕성한 도고 행위가 자행되어²⁰⁾ 양태전이 극심한 피해를 입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정조 때 경향 각지에서의 자유스런 판매활동이 보장²¹⁾된 제주상인들은 순조대 이후 서울의 笠匠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를 맺는다든가 또는 양태 판매행위에 직접 관여²²⁾함으로써 서울에서의 양태 판매망을 보다 확대시켜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판매 활동은 상인 高尙葉의 경우에서 보듯이²³⁾ 영남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태산업의 번창은 그 후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첫째는 판매행위의 위축으로, 이는 서울 지역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정조 시기 제주상인들은 전국을 상대로 한 판매활동이 허용되어 어디서든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했었는데 헌종대에는 이러한 환경이 바뀌어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게 되었다. 즉,

즉, 허생이 제주에서 말총과 연관되는 양태를 죄다 사들이는 매점 매석 상행위를 통해서 이윤을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이 소설이 씌어지던 18세기 후반의 실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 『備邊司謄錄』 200, 순조 10년 1월 10일.

20) 『備邊司謄錄』 215, 순조 27년 1월 13일.

21) 『濟州牧關牒』, 道光 29년 1월 4일.

22) 출륙금지령은 이 때 와서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록들은 제주상인들의 자유로운 출륙상행위를 보여 준다. 『비변사등록』 218, 순조 30년 1월 11일 ; 동 219, 순조 31년 1월 12일 ; 동 224, 헌종 2년 1월 15일 ; 동 226, 헌종 4년 2월 14일.

23) 『濟州啓錄』, 道光 23년 3월 7일. 이 자료에 나오는 尹京祿은 토산물 전매를 통해서 선박을 구입할 정도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市人輩들이 전에 없는 각종 규제를 만들어서 그들의 판매 행위를 난전이라 칭하거나 혹 도고라고 칭하여 그들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의 양태를 헐값에 매입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그 대금을 갚지 않는 바람에 제주상인들의 차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것이다. 특히 후자 경우에는 판매 대금 회수를 위한 무작정 채류로 말미암아 객지에서의 비용이 허다하게 소요되는 폐단이 야기되었고, 그래도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상경할 때는 만선이었다가 귀향할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하는 매우 비참한 현상이 전개되었다. 이는 결국 제주의 ‘交易無物’과 같은 상황을 유발시켜 도민의 생계를 위협²⁴⁾하게 되었다.

둘째는 양태 제조에 필요한 箭竹(涼竹)이 점차 고갈되어간 사실이다. 이는 개성상인의 箭竹冒禁事와 관련해서 그 일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현종 3년 개성상인들은 무수한 곡물과 무명을 제주민들에게 지급하여 전도의 전죽을 도민들로 하여금 잘라서 가져오게 한 적이 있었다. 이는 도내 양태산업의 폐업을 초래할 정도로 큰 타격을 준 것으로 제주 지방관과의 결탁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마지막 요인으로 統營 양태의 성장을 들 수 있다. 통영산은 순조 27년(1827)까지만 해도 서울에서의 시중매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단지 궁중 소요품으로서 尙方(尙衣院)에 쓰이거나 혹은 御筵 양태로서만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철종대에 이르면 기존 제주 양태가 누린 지위를 통영 양태가 대신하게 됨에 따라서 제주 양태산업은 사양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²⁵⁾ 비록 미역·전복이라는 토산물을 통하여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교역할 수도 있었지만 양태에 의한 그것보다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도민의 궁핍은 날로 심화되어 갔다.

24) 『濟州牧關職』, 道光 29년 1월 4일.

25) 『日省錄』, 철종 계해년 6월 2일.

대기근과 진휼제도

조선후기 제주지방은 잦은 자연재해로 농업 생산이 힘들어지고 도민들은 항상 饑饉에 시달렸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후기 제주도에 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사가 바로 饑饉과 賑恤에 관한 것이다.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죽어 가고 있으니 빨리 식량을 보내 달라는 보고가 줄을 이었다. 진휼정책은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당장 먹을 식량과 향후 생계에 도움이 될 종자를 지급하고 각종 조세에 대해 감면 조치를 취하는 중앙정부의 대책을 말한다.²⁶⁾

조선후기 제주도는 전국에서도 흉년이 들었다 하면 피해가 가장 큰 지역에 속했다. 흉년이 들면 목사는 조정에 진휼곡을 내려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고, 그것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수백 명씩 굶어 죽는 일도 자주 발생하였다. 어떤 때는 목사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는데, 영조 41년(1765)에 목사 유진하가 제때 보고를 하지 않아 굶주려 죽은 제주민이 6,000여 명에 이르렀다.²⁷⁾

제주도는 다른 지방보다도 토지가 척박하고 많은 땅이 목장지대로 묶여 있어 농사 지을 땅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주 기근에 시달리고, 일단 흉년이 들면 중앙정부의 조치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는 곡물을 자급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종 수공업 제품과 해산물, 그리고 말을 팔아 대신 곡물을 사들여 와야 했다.²⁸⁾ 조선 전기에는 흉년이 들면 주민들이 유민이 되어 배를 타고 육지 다른 지방으로 떠나기도 했지만, 조선 후기에는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섬 밖으로

26) 이 장에서 서술하는 조선후기 제주지방 진휼제도의 실상은 다음의 글들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음을 밝혀둔다. 조성윤, 「제주의 기근과 진휼」, 『이야기제주역사』 41회, 제민일보 ; 「진휼정책과 김만덕의 선행」, 『이야기제주역사』 42회, 제민일보.

27) 『英祖實錄』, 41년 7월 갑오.

28) 『顯宗實錄』, 5년 3월 무자 ; 같은 책, 11년 9월 을축.

나가는 것도 불가능했다.²⁹⁾

따라서 중앙정부는 제주목사로 하여금 농사 형편을 수시로 살펴 보고 하도록 했다. 19세기 작성된 『濟州啓錄』을 보면, 일년에도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이주 자세하게 농사 형편을 보고한 기록이 있다. 한편 조선 정부는 초기부터 흉년에 대비하여 곡식을 비축해 두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환자(還上)라 하였다. 흉년이 되면 곡식을 나눠주었다가 이듬해 추수하면 다시 이자를 붙여 갚도록 운영한 것이다.³⁰⁾ 따라서 가뭄이나 홍수가 별로 심하지 않을 때는 이 환곡을 이용해 백성을 진휼하였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환곡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목사가 왕에게 진휼을 위한 곡식을 요청하였다.

목사의 요청이 있으면 중앙 정부는 주로 전라도 연안의 수령들로 하여금 비축하고 있던 곡식을 제주도로 실어다 주도록 명령하였다 이것으로 모자랄 때는 경상도 지역, 심지어는 강화도 창고 곡식까지도 보내주었다.³¹⁾ 적을 때는 수백 석으로도 가능했지만, 많을 때는 20만 석을 넘을 때도 자주 있었다.³²⁾ 진휼곡 중에는 가끔 쌀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콩과 조 등의 잡곡이 대부분이었다. 가끔은 감자와 같은 구황식물도 포함되었다.³³⁾ 그리고 수천, 수만 석의 곡물과 함께 반드시 소금 수백 석이 제공되었다.

29) 『備邊司謄錄』, 숙종 40년 6월 20일.

30) 환곡은 원래 진휼을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이다. 그러나 환곡을 분급할 때 발생하는 耗穀을 중앙관청에서 재정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 지방관청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를 모방하게 되었고, 아울러 지방관청은 경비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환곡을 창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선 후기 제주지방 환곡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 강창룡, 『조선후기 제주 환곡제의 운영실상 - 진휼적 기능과 관련하여 -』,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수취제도와 특징』, 『탐라문화』 24, 2004.

31) 『肅宗實錄』, 39년 10월 정유.

32) 『肅宗實錄』, 45년 6월 무신.

33) 『正祖實錄』, 18년 12월 무인 ; 『備邊司謄錄』, 정조 18년 12월 25일.

그런데 전국적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는 곡식을 모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호남의 연안 고을들이 가뭄과 강풍의 재변으로 피해가 심할 때는, 전라도 관찰사와 수령들도 이를 구제하느라 바빴고, 비축해 두었던 곡식도 분배한 뒤라 제주에 실어 보낼 곡식이 부족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반복되자, 조선후기로 오면 아예 전라도 연안 羅里浦에 창고를 짓고 別將을 배치하여 제주도의 기근에 대비하도록 했다. 평소에 제주목사는 나리포에 물고기와 미역, 그리고 涼臺를 비롯하여 대나무로 만든 각종 수공업품을 제공하면, 이것을 팔아 곡식을 비축하도록 한 것이다.³⁴⁾

진휼곡 수송을 위해서는 전라도와 경상도 연안의 統制營·水營에서 관할하는 官船이 주로 동원되었지만, 부족할 때는 商船도 자주 이용되었다. 제주에 보낼 진휼곡 수송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다 못한 왕이 직접 수송을 전담할 어사를 특별히 파견하기도 했다.

제주도에 기근이 들면 하층민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흉년이 심할 때에는 다음에 종자로 사용할 곡물까지도 모두 먹어 치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과 소를 잡아먹는 경우가 많았다.³⁵⁾ 물론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었다. 관의 입장에서는 묵인할 수 없는 일이라 강력히 단속하였다 조선전기에도 자주 발생한 牛馬賊 가운데 상당수는 이렇게 생겨났다.

또 식량이 떨어지면 농사짓던 이들도 바다로 나가 먹을 것을 찾거나 산 속을 헤매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거두어 들여 식량으로 삼았다. 특히 竹實과 상수리 열매는 자주 이용되었다. “漢拏山에는 전부

34) 『備邊司謄錄』, 영조 3년 6월 11일 ; 『英祖實錄』, 39년 8월 임진. 나리포창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정형지, 「조선후기 交濟倉의 설치와 운영 - 18세기 羅里浦倉 사례를 중심으로 -」, 『이대사원』 28, 1995.

35) 『顯宗實錄』, 12년 1월 임오.

터 紛竹이 숲을 이루었는데, 앞은 크고 줄기는 뽕죽하여 蘆竹이라 이름 하였다. 예로부터 씨를 맺지 않았었는데, 4월 이후로 온 산의 대나무가 갑자기 다 열매를 맺었다. 이때 제주도의 세 고을이 몹시 가물어 보리농사가 흉작이었으므로 백성들이 바야흐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때 이것을 따서 죽을 만들어 먹고 살아난 자가 많았다.”³⁶⁾는 보고와 제주 사람에게 영조가 흉년의 실정을 묻자 제주 백성들이 나뭇잎을 따먹는다고 대답했던 것³⁷⁾은 흉년 때의 제주민의 실정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곡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목사는 收場 屯馬에게烙印을 찍고 점검하는 일과 軍兵의 훈련, 노비의 推刷 등의 일은 모두 정지하고, 進上馬와 別御乘馬 점검을 중지시키고, 이를 위해 비축해 두었던 말 먹이들을 모두 진휼곡으로 돌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³⁸⁾ 궁중에 바치는 물건과 각종 약재도 특별히 면제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무사히 도착한 진휼곡을 제주도민들에게 분배할 때, 목사는 제주도민들의 굶주린 정도를 조사하여 등급을 나누어 곡식을 분배하는 한편, 부족할 때는 다시 조정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일부 목사들은 스스로 자신의 봉급을 털어 넣어 곡식을 마련하는가 하면, 상인들을 동원하여 제주에서 내다 팔 물건들을 갖고 육지로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하기도 하였다. 물론 모든 목사들이 적극적으로 굶주린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었다. 흉년이 들어도 백성들의 굶주림을 보살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더욱 제멋대로 매를 때리며 재물을 빼앗는 데 혈안이 되었던 목사들도 많았다. 때로는 기민이 수를 부풀려 보고한 다음, 진휼곡을

36) 『景宗實錄』, 3년 7월 신사.

37) 『英祖實錄』, 13년 11월 경신.

38) 『景宗實錄』, 2년 11월 병술.

제대로 나누어주지 않고 목사가 착복한 경우도 있었다.

진휼이 무사히 진행되어 백성들의 배고픔이 진정되면, 제단을 설치하고 조정에서 보내 온 香祝으로 굶어 죽은 혼령들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제주의 지배세력을 위로하기 위하여 과거를 실시하고, 試射를 베풀어 문무과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또 가끔은 80세 이상 된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베풀기도 하였다.³⁹⁾ 진휼이 끝나고 나면 이에 감사하는 뜻으로 백성 중 일부가 전복 등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임금에게 바치려 한 경우도 있었다.

정조 16년(1792) 시작된 흉년은 정조 19년(1795)까지 계속되었는데, 특히 1794년 갑인년에 절정에 달했다. 이때는 조정에서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계속해서 진휼곡을 실어 날랐으며, 특별히 어사를 파견해 감독하기도 하였다. 1796년 전라도 관찰사는 3년 동안 각종 곡물 5만 3,500석을 수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밖에도 왕실에서 직접 물자를 내주고 돈 1만 냥을 보내 곡물로 바꾸어 사들이는 것 등을 합치면 훨씬 많은 양의 곡물이 필요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곡물 운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1794년 윤2월에는 1만1,000석을 싣고 오던 배들 중에 5척이 침몰하여 1,928석이 물에 잠기고, 監官 1명도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자 토착 지배층이 곡식을 진휼곡으로 내놓는 경우가 나타났다. 흉년 첫해인 1792년에 明月 萬戶 高漢祿은 쌀 60섬과 벼 60섬을 바쳤고, 그 공로로 정의현감에 임명되었는데, 1794년에는 고한록이 다시 300석을 바쳤으며, 將校 洪三弼과 幼學 梁聖範도 각각 100석씩을 자진해서 바쳤다. 이 때문에 나중에 고한록은 대정현감으로 임명되었고, 둘도 벼슬을 주도록 왕명이 내려졌다.

39) 『顯宗實錄』, 12년 9월 갑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만덕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 500석을 마련하여 50석은 굶주리는 친족들에게 나누어주고, 450석을 관에 바쳤다.⁴⁰⁾ 이 소식을 들은 굶어 부은 백성들이 관가로 모여들었다. 목사가 곧바로 이것을 분배하여 주자, 주민들이 모두 “만덕의 은혜를 입었으며, 만덕이 나를 살렸다.”고 노래하였다. 목사는 조정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미혼 여성이 상업계의 전면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도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고, 여성이 상업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재산을 털어 기민을 구제하는 데 앞장선다는 것은 전에 볼 수 없었던 善行이었다.

일반적으로 진휼을 마치면 수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다. 상을 주는 제도는 10등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왕이 직접 글을 써서 내려주는 것부터 말·활 등 각종 상품을 하사하는 것, 그리고 벼슬이나 품계를 올려주는 것까지 다양하였다. 그러나 만덕은 다른 양반 관료들이나 부자들과는 달리 여성이었고, 空名帖을 줄 수도 없었다. 때문에 왕은 목사를 통해 그녀에게 어떤 상을 바라는지 물어 보았다. 그때 그녀는 바다를 건너 서울과 금강산을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그녀의 소원은 사실 다른 상을 받거나 벼슬을 받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출륙금지령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주인들이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더구나 여자의 출륙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40) 『日省錄』에는 正租 300석을 바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日省錄』 정조 병진년 6월 6일).

출륙금지령

제주도는 원래 화산섬이기 때문에 토질이 척박하여 땅으로부터 나는 생산물에만 의존하여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도민들은 일찍부터 전복·미역 등의 수산물, 유자·귤 등의 과실류, 말을 비롯한 목축물, 가내수공업품을 가지고 육지에 나아가 쌀·배·소금 등으로 맞바꿔 오곤 하였다.

이와 같은 제주도민의 어려운 생활은 조선왕조의 집권적 지배체제가 확립됨에 따라서 더욱 악화되었다. 즉, 조선왕조의 행정력이 제주도에까지 미쳐 옴에 따라서 공물 진상과 그에 따른 노역 징발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갔다. 선조 34년(1631) 제주에 어사로 왔던 金尙憲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16세기 말엽에 도민의 생산물이 거의 공물이나 관청의 수요에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령과 토호에 의한 수탈까지 겹쳐서 도민들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⁴¹⁾ 더욱이 조선초기 이래 빈번해진 왜구의 침범에 따라 제주도 해안 방어가 엄중해지면서 제주의 남정들에게 과다한 군역도 부과되었다.

고역에 시달리던 제주민들은 역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제주섬을 떠나갔다. 이미 15세기 후반부터 군역을 담당해야 할 良人 및 正兵, 진상역을 담당해야 할 公賤 등이 역을 피해 제주를 떠나 전라도 연변의 여러 고을로 옮겨 살고 있었다.⁴²⁾ 흉년이 들거나 진상역이 심해지면 유랑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41) 『南槎錄』 권1, 선조 35년 9월 22일.

42) 성종 4년(1473) 전라도 관찰사가 전라도 연변 고을에 옮겨 사는 출륙 제주도민을 推刷한 것을 보면, 良人 91명, 正兵 3명, 船軍 12명, 公賤 29명, 私賤 17명이었다. 이들 중 추쇄 대상은 정병·선군·공천으로서, 모두 군역과 진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成宗實錄』, 4년 3월 28일).

바다를 건넌 이들은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전라도·경상도 해안에 정착하였다. 특히 성종대로부터 이주 현상이 늘어나면서 이들 출륙 도민들이 여러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였다. 『성종실록』에는 “제주 사람들이 2백여 명이 泗川에 와서 사는데, 제주의 ‘豆禿也’ 라고만 이름을 칭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2, 3척의 배를 가지고 드나들더니, 이제는 32척으로 늘어났으며, 강기슭에 의지하여 蘆幕을 짓고 산다고 한다.”고 기록되기도 하였다.⁴³⁾

조선 정부는 이들 제주피역자들을 주로 ‘鮑作’·‘浦作’·‘鮑作人’·‘鮑作干’ 등으로 불렀다.⁴⁴⁾ 한편 출륙 제주민들이 거주한 남해안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들을 ‘頭無岳’이라고 불렀다. 왕조실록에는 “연해에 頭無岳이 매우 많은데, 제주의 한라산을 혹 두무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세속에서 제주 사람을 두무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頭禿이라고 쓰기도 한다.”고 적혀 있다.⁴⁵⁾ 이 명칭은 그 외에 ‘頭無惡’·‘豆毛惡’·‘豆毛岳’·‘頭毛惡’·‘豆禿也只’ 등으로도 쓰였다.⁴⁶⁾

이들은 언어와 습속 등 생활양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곳 주민들로부터 기피되었고, 정부로부터도 왜구와 내통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 때문에 이들 이주민들은 그곳에서도 진상용 해산

43) 『成宗實錄』, 8년 8월 5일.

44) 『成宗實錄』, 14년 12월 6일 ; 같은 책, 16년 4월 11 일 ; 같은 책, 16년 4월 12일 ; 같은 책, 16년 4월 19일 ; 20년 4월 21일 ; 21년 10월 24일 ; 『中宗實錄』, 17년 5월 28일 ; 같은 책, 17년 6월 26일 ; 같은 책, 33년 2월 11일 ; 같은 책, 35년 1월 10일. 국어학계에서는 조선시대 ‘鮑作’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전복·조개·미역 등 해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보자기’의 한자 차용 표기라고 한다. 제주도 방언으로는 ‘보재기’라고 하고, 다른 자료에서는 ‘浦作’이라고도 표기된다(김찬흠·고창석 등 옮김,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155쪽).

45) 『成宗實錄』, 23년 2월 8일.

46) 『成宗實錄』, 8년 8월 5일 ; 같은 책, 8년 11월 21일 ; 같은 책, 17년 11월 22일 ; 같은 책, 20년 12월 10일.

물을 채취하여 바치는 역을 전담하면서 육지인과는 격리된 가운데 그들만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천시되었지만 점차 동족촌락을 이루기 시작하여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여 17세기 후반 이후로는 육지의 양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⁴⁷⁾

출륙도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잔류하여 있는 도민들은 더욱 많은 부담에 시달리게 되어 피역 출륙이 그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에서는 제주도의 유망민들에 대한 행정적 개선을 외면한 채 남해안의 각 군현에서 관내의 출륙 제주도민을 낱알이 조사 등록하고 이들에게 역을 부과함으로써 그 주거와 생활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로는 제주도민의 출륙을 근본적으로 억제하지 못하였다. 제주도민에 대한 근본적 생계유지책을 마련하거나 해적·왜구를 그치게 하는 데에는 하등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성종 21년(1490) 10월 제주의 진상물을 실은 선박이 해적에게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출륙 제주도민의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출입을 허가제로 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조사 등록되지 않은 새로 육지로 도망쳐 온 제주도민을 모두 원주지로 돌려 보낼 것을 검토하게 되었다.⁴⁸⁾ 이후 정부는 수시로 이들 새로운 출륙 제주도민을 돌려보내는 한편, 도민의 불법 출륙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의 항구를 朝天과 別刀로 한정시켰다.⁴⁹⁾ 당시 이러한 상황을 효종대 제주목사 李元鎮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이 섬 백성들의 생활은 어렵고 男丁에게 지워진 역이 지나쳐 삼읍 사람들이 육지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자가 매우 많다. 혹 바다를 건너 도망간 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고 하나 그 얼마인지 모른

47) 韓榮國, 「豆毛岳」考, 『韓祐勳博士停年紀念私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48) 『成宗實錄』, 21년 10월 24일.

49) 『南槎錄』 권3, 선조 35년 10월 12일.

다. 혹 무리 지어 한 곳에 모여 살아 한 촌락을 이루어 자손을 낳고 자라서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노비를 쇠환하는 법이 비록 엄하다고 하여도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제 李慶億이 장계하길, 먼저 10년 이내에 도망한 자들을 刷還하였는데, 흉년이 들어 또 쇠환하는 기간을 없앤다 하니 탄식할 일이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륙도민의 발생은 줄어들지 않았다. 15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피역 출륙 현상은 장기적으로 이어졌다. 16세기 중반 정부에서는 “제주도는 인물이 떠돌아 날이 갈수록 공허하여진다.”⁵¹⁾ “제주의 세 고을은 주민들이 날로 流亡하여 고을이 거의 빌 지경에 이르렀다.”⁵²⁾고 우려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미 16세기 말엽에 도민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이들의 출륙은 격렬하게 전개되어 갔던 것이다. 세종대 民戶가 9,935호, 인구가 6만 3,093명이었는데,⁵³⁾ 숙종 5년(1679)에는 인구 수 3만4,980명으로⁵⁴⁾ 인구가 절반 가까이 격감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종 5년(1664) 충청감사 李翊漢의 “제주의各司奴婢로서 육지로 나와서 살고 있는 자의 숫자가 1만 명에 가까웠다.”는 기록은 실상에 가까운 보고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역과 진상역을 담당하는 男丁의 인구 유출은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졌다. 16세기 후반에 이르자 ‘男少女多’의 인구 불균형 현상이 만연하였다.⁵⁵⁾

50) 李元鎮, 『耽羅志』, 濟州牧, 奴婢조.

51) 『中宗實錄』, 33년 2월 11일.

52) 『中宗實錄』, 35년 1월 10일.

53) 『世宗實錄』, 17년 12월 12일.

54) 李增, 『南槎日錄』, 숙종 5년 12월 초8일. 인구 3만4,980명 가운데 남정은 1만 5,140명, 여정은 1만9,840명이었다.

55) “제주 남자는 배가 침몰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한 해에 100여 인이나 된다. 그 때문에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어 시골 거리에 사는 여자들이 남편있는 사람이 적다.”(『南溪小乘』, 선조 11년 2월 16일).

조정에서는 이제 제주도민의 출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도를 강구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인조 7년(1629) 8월 “제주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流離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의 軍額이 감소되자, 備局(비변사)이 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함”에 따라, 제주도민의 출륙을 엄금한다는 명이 떨어졌다.⁵⁶⁾ 또한 제주의 여인과 육지 인과의 혼인을 금할 것을 국법으로 정하고 여인의 출륙은 특별히 더 엄금하였다. 그러나 과거응시자와 공물진상물의 운반책임자와 기타 공적인 업무수행자에 대해서는 출륙이 허용되었으며, 금지령이 내린 가운 데에도 유망자에 대한 刷還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있던 인조-순조 년간의 200여 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제주도민은 섬 안에 갇혀 있으면서 왜적을 방위하는 역할, 공물·진상물을 조달하는 부역을 강요당하였다. 이 진상 공물은 말을 비롯한 목축물, 미역·전복 등 해산물, 표고·약재 등 임산물, 동정굴·청굴 등 과실이었다. 이 특산물을 조달하고 운반하기 위해 말을 지키는 牧子, 바다에 들어가 전복·미역을 따오는 鮑作·潛女, 과원을 지키는 果園直, 배를 몰아 공물을 바다 건너 육지로 옮기는 船格을 정해 놓았다. 이들에다가 官畜을 경작하는 畚漢을 합쳐서 六苦役이라 불렀다.

이들 고역담당자 외에도, 그 노비공으로 서울의 각 아문에 보내는 공물을 마련하는各司奴婢가 존재하였다. 효종 4년 당시 제주목 14,334명, 정의현 1,565명, 대정현 277명 등 16,176명의 각사노비가 있었다.⁵⁷⁾ 18세기 초 숙종대에는 제주의 총 인구 43,515명 가운데 寺奴婢(각사노비를 말함)가 23,948명으로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⁵⁸⁾ 또한 숙종 20년

56) 『仁祖實錄』, 7년 8월 13일.

57) 이원진, 『탐라지』.

58) 이형상, 『탐라순력도』; 『남환박물』. 숙종 5년(1679)에는 각사노비가 도민의 과반수이며, 삼읍 합계가 15,079명이라고 하였다(李增, 『南槎日錄』, 숙종 5년 12월 10일).

(1694) 기록에는 각사노비가 도민 중 2/3를 차지한다고 적혀 있다.⁵⁹⁾ 주로 노비공에 의해 마련하는 공물은 제주목·정의현·대정현 삼읍이 각각 책임을 졌고, 그 외 대부분의 공물은 목사가 직접 관장하여 삼읍에 배정하였다.

이 시기에 제주도민이 바쳐야 했던 조세는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에 바치는 진상·공물 외에도 제주도 내의 관아 재정에 충당되는 토지세·대동세·환곡미·평역미 등 번잡하고 과중하기 그지없었다. 또한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공물 상납을 제외하고는 행정과 재정 운영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방관인 목사나 관관·현감이 향리층 및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중앙의 지휘를 거의 받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통치구조로 인하여 제주도민에 대한 수탈은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더욱 심하여져 갔다.

도민들에 대한 근원적인 생계유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륙 금지령이 내려져 있다 하여도 위험을 무릅쓰고 제주도를 벗어나려는 이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다. 불법출륙인들 가운데에는 각사노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종대에 제주에 어사로 왔던 윤심이 왕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건대, 제주도 내의 각사노비 가운데 출륙한 노비들의 貢米를 수납하기 어렵다 하여 쇠환시키기 어려운 노비들의 공미는 소재지의 관리가 거두게끔 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영조대에는 이들의 출륙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도 삼읍인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자는 벌을 준 다음 곧 원적지로 돌려보낸다 이들은 거둔 자도 곤장 1백대를 쳐서 3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낸다.”라는 법령을 『續大典』에 명시하기도 하였다.

59) 이익태, 『지영록』, 중감십사.

그러나 한편 출륙금지령을 내린 정부의 의도와 어긋나는 현상이 영조대 이후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름 아닌 육지 중간상인들의 제주도 출입과 제주상인들의 육지 출입이 그것이었다. 영조대 이후로부터 도내에서 부쩍 생산이 늘기 시작한 갯양태 등의 가내수공업품, 미역·어류 등의 해산물과 육지부의 미곡을 교역하려는 움직임이 개성상인·안성상인과 같은 육지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육지인들의 제주도 출입이 잦아지게 되었다.

조정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 정조 2년(1778)에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상철은 왕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아뢰면서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조 후년에 가서는 육지상인뿐만 아니라 제주 상인까지도 경향 각지에서의 자유로운 판매 활동을 보장받게 되어 도내에서 생산된 갯양태·해산물 등을 가지고 가서 교역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게 되었다.

이제 출륙금지령은 그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게 되어 버렸다. 결국 순조 23년(1823)에 와서는 제주에 어사로 왔던 조정화가 왕에게 제주도민의 육지 왕래와 육지인과의 결혼을 허락할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고, 제주도에 내려진 출륙금지령은 이때에 완전히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이 제주도에 내려졌던 출륙금지령은 제주도민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굴레로 씌워졌던 것으로서, 결국은 제주도민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자연 해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김만덕 시대의 사회경제상

18·9세기 제주사회의 진흥과 김만덕의 사회적 공헌

진 관 훈

머리말

이 글은 18·9세기 제주사회의 진흥과 김만덕의 사회적 공헌에 관한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5년 필자는 김만덕에 관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 학술 세미나에서 필자는 다소 생소한 경험을 하였다. 김만덕에 관한 학제적 주제발표가 끝나고 토론이 진행될 무렵 플로어에서 어느 한 분이 한 주제발표의 논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말씀인 즉, 어느 한 발표자의 논지가 김만덕을 폄하한다는 것이었다. 이의 제기를 받았던 발표자는 김만덕에 관한 다양한 사료들을 소개하던 중 김만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자료도 소개하였고 현재 김만덕기념비의 주체와 김만덕 기념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소개한 터였다. 주제발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분의 논지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했다. 여자의 몸으로 열심히 벌어서 바르게 쓰면 되는 것이지,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史實)들을 가지고 김만덕의 역사적 의의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순간 장내에 동조하는 박수소리가 넘쳐났고 발표자는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한 채 난처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전적으로 공감이가 가는 말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김만덕의 상업 활동에 있었을 수도 있는 허물이 김만덕의 사회공헌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만덕의 사회공헌은 그 당시 뿐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김만덕에 관한 우리 후손들의 기념과 학문적 활동이 위인화 작업을 넘어 우상화 차원으로 비약되어 버린다면 오히려 김만덕의 역사적 의의를 왜곡시키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김만덕은 충분히 존경받고 역사의 귀감으로 삼을 만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글은 이러한 필자의 염려에서 시도되었다. 즉, 18·9세기 제주 사회의 진흥 과정에서 김만덕의 사회적 공헌을 미약한 역량으로나마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것이다.

18·9세기 제주사회의 진흥

조선시대의 진흥은 전적으로 王道主義에 입각하고 있다. 만일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굶주리고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곧 국왕의 책임, 혹은 국왕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즉, 천재지변으로 인한 災害, 凶年, 외적의 침략, 전염병 등 개인의 능력을 벗어난 빈곤과 그로 인한 飢民의 구제는 국왕의 책임이며 전적으

로 국가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는 봉건사회의 기본적 社會安定網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9세기 제주사회에서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흉년 및 기근, 이로 인한 진휼·구휼이 있었는데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수록하고 있는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기사를 중심으로 당시의 진휼·구휼 상황을 살펴보려 한다.

18·9세기 제주사회의 진휼에 관한 記事

「朝鮮王朝實錄」 記事¹⁾

영조 01/11/19 京倉米 4천 석을 운반하여 제주도를 진휼하다

영조 030 07/12/07 나리포 곡물 2천 곡 제주 구휼 위해 이송

영조 031 08/01/16 제주의 공마를 정지하도록 명하여 진휼을 베푼다

영조 031 08/05/29 진곡을 제주에 운송하게 하다

영조 031 08/06/16 호남의 곡식을 홍수가 난 제주로 운송하게 하다

영조 032 08/12/12 제주를 구획하기 위해 호남의 곡식을 보내고 심성회를 어사로 파견하다

영조 033 09/01/04 제주 어사 심성회의 요청에 따라 제주에 추가로 진휼하게 하다

영조 059 20/01/04 흉년이 든 제주도에 나리포의 곡식 5천 곡을 이급하게 하다

영조 061 21/01/01 제주 목사 윤식의 장청으로 곡식의 획급과 응납미의 견감을 명하다

1) 이 글은 서울시스템(1995)에서 제작한 「조선왕조실록」 CD롬을 검색·작성한 것이다.

영조 062 21/07/04 제주도의 흉황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하다
 영조 063 22/01/13 제주의 기근 때문에 어사로 한역증을 보내고 전일
 목사가 정한 곡물의 숫자를 채워주다
 영조 063 22/01/25 제주의 흉년으로 본도의 공마와 진상하는 삭선을
 가을까지 반감하도록 명하다
 영조 063 22/03/29 제주의 진곡 운송을 지체한 고부 군수 김우철을
 파직하다
 영조 063 22/03/27 전 목사 유정귀의 장청으로 호남 연해 고을 저치미
 2백 석을 제주에 割給
 영조 063 22/06/03 감진어사 한역증 청으로 제주에 보리 씨 2천 석의
 지급과 노비 신공의 반을 감하다
 영조 070 25/12/30 목사 정언유의 요청에 따라 진곡 3천 석을 바다에
 띄워 제주백성을 구제
 영조 086 31/12/28 常賑穀을 제주에 보내어 주린 백성을 구제하도록
 명하다
 영조 090 33/09/24 제주도의 3읍에 상진곡 6천 석을 획급토록 명하다
 영조 090 33/10/02 제주에 진곡 6천 석을 획급하다
 영조 090 33/10/23 제주에 진곡 4천 석을 가획토록 하다
 영조 091 34/01/01 제주 목사에게 정성을 다해 백성을 진휼토록 하라
 고 하교
 영조 094 35/11/13 제주에 나리포의 저치미를 획급하고 세공미 징수
 를 정지토록 하다
 영조 099 38/06/28 제주의 공마를 금년에 한하여 받지 말라고 명하다
 영조 100 38/11/07 제주의 기근에 진곡을 내리다
 영조 101 39/05/29 기근이 든 제주에 호남의 곡식을 운반해 진휼하라
 고 명하다

영조 102 39/06/05 호남의 모맥을 운반해 제주의 기민을 구제하라고
명하다

영조 102 39/12/02 제주의 삼명일 진상은 내년 가을까지 봉진을 정지
시키라고 명하다

영조 104 40/11/09 제주에 흉년이 들어 진상하는 물품을 감하게 하다

영조 105 41/05/29 제주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진곡 3천 석을 주라고
명하다

영조 106 41/07/21 전 교리 윤시동을 제주 목사로 삼아 제주 도민을
선유하게 하다

영조 106 41/12/16 제주목사 윤시동이 육지의 관곡을 얻어 굶주린
백성을 살리도록 청하다

영조 109 43/12/07 제주 목사 남익상의 장계에 따라 삭선과 공마의
정지를 명하다

영조 110 44/05/19 제주의 흉년으로 삼명일 방물과 물선을 올해까지
받지 말고 감굴 이외의 삭선도 반으로 줄이라고 명하다

영조 112 45/05/28 제주 목사 남익상이 밀·보리에 대해 진곡을 청함
이 지나치다 하여 파직

영조 113 45/11/10 제주에 기근이 들어 1만 석을 주다

영조 114 46/02/09 제주 목사 안중규의 장계를 보고 이미 윤택한
진곡의 구획을 명하다

영조 115 46/11/04 제주 목사의 진휼을 청하는 장계를 윤택하다

영조 125 51/10/26 제주에 진자고을 보내도록 명하고 제주백성을 위
유하는 윤음을 내리다

정조 018 08/11/27 제주의 기근을 진휼하도록 8천 석의 정조 모곡을
내리다

정조 018 08/11/29 제주목의 기근을 위로하는 윤음을 내리다

- 정조 020 09/05/12 제주의 기근을 구호한 제주 관리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정조 023 11/06/08 호남의 연해 곡식 3천 석을 제주도로 보내어 진자에 보태게 하다
- 정조 026 12/09/30 제주도에 전염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자 구휼과 세금 면제를 명하다
- 정조 030 14/05/09 제주목사 이철모 백성들에게 쌀을 골고루 분배하여 구제한 내용을 보고
- 정조 036 16/12/01 기근이 든 제주에 진휼미를 보내고 각종 공물을 정지 견감시키고 환자의 기한을 물려주다
- 정조 037 17/02/14 제주 곡식 운반을 완수한 흥덕 현감 조화석을 가자하다
- 정조 037 17/05/22 제주의 진휼 정사가 끝나자 목사 이철운·판관 이위조·정의 현감 허식 등을 가자하다
- 정조 038 17/07/26 장령 변경우가 제주도 백성의 고충과 환자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 정조 038 17/11/11 장령 강봉서의 상소에 따라 제주도의 기민 구제책을 아뢰다
- 정조 038 17/11/24 어사 차송에 임하여 제주 백성들에게 윤음을 내리다
- 정조 041 18/10/23 제주의 태풍으로 진휼곡식을 더 보내달라고 제주 목사 심낙수 장계
- 정조 042 19/05/11 제주에서의 진휼을 끝마치다
- 정조 044 20/01/03 내탕전 1만 緡을 제주에 내려 진자로 삼고 곡식을 내려보내다
- 정조 044 20/01/03 제주 목사 이우현이 섬 안에서 분진한 내용을 비변사에 아뢰다

정조 044 20/01/15 1만 명 이상 호구 감축된 제주목사 이우현에게
행건의 법 시행토록 하다

정조 044 20/02/16 돈과 목면 등을 제주목에 보내어 진자에 보태도록
하다

정조 044 20/04/03 서정수가 탐라의 기근으로 곡식을 운반하고 나눠
주는 문제 아뢰다

정조 044 20/06/06 제주에 기민 진휼을 마친 판관·현감 등을 논상하다

정조 045 20/11/25 제주의 기생 만덕이 굶주리는 백성을 구했다는
보고를 받다

정조 054 24/04/26 전 지평 강성익이 제주도의 민폐 두 가지를 선처해
줄 것을 상소(곡식 저장의 어려움)

순조 017 14/03/05 제주 찰리사 이재수가 노인에 베푼 잔치에 대해
올린 장계

순조 017 14/04/08 제주 찰리사 이재수가 폐해를 이정한 환곡·선세
등 10조의 별단

순조 020 17/10/28 제주 목사의 소청에 따라 호남의 보리와 절미
1천 석을 제주의 진휼 밀천으로 주다

순조 027 24/12/16 제주목의 수해를 입은 자에게 홀전을 베푼다

「備邊司謄錄」記事²⁾

1725.11.15.(영조 1) 賑恤穀의 신속한 발송 요청

1725.11.19.(영조 1) 賑資米의 확보와 운송 등을 논의함

2) 「비변사등록」은 조선 후기 국정 전반의 중요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1차 자료이다. 필사본으로 총 273책의 분량이다. 현존하는 비변사등록은 1617년(광해군 9년)부터 1892년(고종 29년)까지 276년간의 273책만이 전해지고 있다. 이 글은 제주사 정립추진협의회가 발간한 「비변사등록제주기사」(1999)를 참고했다.

- 1725.12.19.(영조 1) 호남 곡물을 계로로急送함
- 1726.12.25.(영조 2) 凶荒克復을 위한 여러 시책을 제시함
- 1727.윤3.28.(영조 3) 대정현에 청인 漂迫, 賑資米의 추가를 요청
- 1731.12.8.(영조 7) 제주 賑資에 필요한 羅里浦 곡물 入送에 대한 논의
- 1731.12.8.(영조 7) 진상선으로 나리포 곡물을 빨리 수송토록 함
- 1732.윤5.29.(영조 8) 보리 흉작으로 賑穀이 절실함을 아뢰
- 1732.6.18.(영조 8) 진자곡의 다량 入送을 청함
- 1732.12.15.(영조 8) 제주에서 청한 진곡을 빨리 입송토록 함
- 1732.12.16.(영조 8) 제주민을 慰諭하고 賑政에 힘쓰도록 함
- 1732.12.25.(영조 8) 제주 진곡 운송과 제주민 외유에 대한 어사로서 의 견해를 피력함
- 1732.12.26.(영조 8) 필요한 진휼곡 수량과 각종 비용의 마련을 청함
- 1733.1.2.(영조 9) 진휼할 수 있는 곡물 충당을 다시 청함
- 1733.1.11.(영조 9) 진휼곡과 운송비용 마련 등을 상세하게 아뢰
- 1733.1.14.(영조 9) 진휼곡과 선박 마련 등을 상세하게 아뢰
- 1733.3.3.(영조 9) 제주목사, 판관을 賑濟가 끝날 때까지 유임토록 청함
- 1735.12.9.(영조 11) 흉작에 따르는 제반조치의 필요와 내용을 상술함
- 1736.12.8.(영조 12) 흉작에 대비코자 牟의 다량 확보를 보고
- 1737.11.7.(영조 13) 제주 흉년 대책을 논의함
- 1738.3.30.(영조 14) 還穀 부족으로 나리포 곡물입송을 청함
- 1741.1.7.(영조 17) 흉재로 환곡징수가 어려움을 보고함
- 1741.2.15.(영조 17) 麥凶에 따른 나리포 곡물입송을 청함
- 1743.2.15.(영조 19) 흉작 극복을 상세하게 보고
- 1745.7.5.(영조 21) 麥凶으로 호남 牟麥을 청함

1746.6.22.(영조 22) 제주 구휼책을 마련하여 청함
 1755.12.28.(영조 31) 흉년이 들어 賑穀을 청함
 1757.10.12.(영조 33) 제주에 賑資穀 劃給
 1758.3.15.(영조 34) 제주 移轉穀 漂失
 1761.5.3.(영조 37) 三色の 秋農被災로 賑恤을 요청함
 1761.6.1.(영조 37) 제주 목사 李昌運의 賑恤 요청
 1761.6.27.(영조 37) 보리 흉년으로 인한 이전미 요청
 1762.3.3.(영조 38) 제주목사의 진곡 요청
 1763.6.5.(영조 39) 湖南牟麥을 제주에 수송하여 飢民救恤
 1763.6.14(영조 39) 진휼을 마쳤다는 제주 전 목사 신광익의 보고
 1763.7.8.(영조 39) 耽羅의 備置穀
 1763.8.4.(영조 39) 羅里浦 運穀, 제주에 추가로 들여보냄
 1764.4.21.(영조 40) 제주 救荒麥의 운송
 1765.7.21.(영조 41) 보리 흉작으로 島民 구휼
 1765.7.27.(영조 41) 제주 飢民 구휼
 1765.9.20.(영조 41) 제주 전 목사의 耽羅救恤 보고
 1765.12.17.(영조 41) 관곡 6천 석을 하사하여 飢民 救濟
 1766.10.15.(영조 42) 島民救恤 강조
 1767.12.4.(영조 43) 제주 還穀의 蕩減
 1770.2.10.(영조 46) 제주 賑資穀 排巡에 부족
 1771.12.11.(영조 47) 제주 賑穀 요청
 1775.윤19.27(영조 51) 耽羅 賑恤穀 移轉
 1778.11.21.(정조 2) 제주 風炎 보고
 1787.7.9.(정조 11) 보리농사가 흉년임을 보고함
 1787.10.18.(정조 11)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진휼을 마쳤다는 보고
 1793.5.22.(정조 17) 제주 삼읍에 진휼을 마침

- 1794.10.21.(정조 18) 제주 移轉穀 發運時의 海神祭
- 1794.12.8.(정조 18) 제주 飢民 救恤
- 1796.1.3.(정조 20) 濟州 賑恤穀 마련
- 1796.1.16.(정조 20) 제주에 社倉에 설치
- 1796.3.15.(정조 20) 제주 운반선의 燒失
- 1798.7.20.(정조 22) 제주에 곡식을 비축했다가 不虞에 대비
- 1800.윤4.29.(정조 23) 흉년 때문에 읍민들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구휼을 위한 적고미는 부패하여 먹기 어려워 새로운 식량지원을
요청
- 1814.11.17.(순조 14) 삼읍이 흉년이어서 가장 심한 지역 身役米를
1/4 蕩코자 이에 允許
- 1814.12.27.(순조 14) 恤典외 별도의 지원과 還布와 身布 蕩減
- 1817.10.5.(순조 17) 도민의 救荒에 대비한 別儲穀의 弊害가 크다.
호남에서 차용하여 삼년 분할 반환
- 1817.10.28.(순조 17) 농사가 참상이어서 호남에 빌려준 별저곡을 들
여와 진휼하고 올 농사형편과 근래 흉년으로 군병 조련 중단과 舊還
乃停코자 이에 允許
- 1822.10.19.(순조22) 천 명 이상 사망하여 濟州牧에 慰安祭設行토록
분부
- 1834.1.13.(순조 34) 삼읍의 농사현황과 창고에 환곡으로 어려운 마을
의 貧戶에 따라 分給코자 이에 允허

「承政院日記」記事³⁾

- 1726.12.22.(영조 2) 제주 賑資
1727.4.24.(영조 3) 제주·대정현 染病
1732.윤5.29.(영조 8) 보리 흉작으로 賑穀의 절실함을 보고
1732.6.16. 賑恤穀 入送 요청 狀啓
1732.10.21. 제주에 餓死者가 많음을 보고하는 제주방어사 장계
1732.10.21. 民多 穀少로 생활의 어려움을 보고하는 방어사 장계
1732.12.16. 沈聖希를 濟州別遣督運慰諭御史로 파견하여 구휼
1732.12.29. 어사 沈聖希 引見時 진휼곡 충당을 다시 요청
1733.1.4.(영조 9) 어사 沈聖希가 요청한 賑資穀을 加給함. 진휼곡과
선박 마련 등을 보고
1733.2.6. 賑恤穀 제주 移轉
1736.11.23.(영조 12) 紀綱解弛와 賑資 작난
1733.11.25. 탐라 변방 백성이 불쌍하다
1733.12.2. 제주민의 衣食이 형편없이 困難
1733.12.22. 조정이 제주를 각별히 賑恤함
1737.1.5.(영조 13) 羅里浦 賑廳備蓄穀 매년 제주 入送
1733.11.7. 제주 농사 전년보다 흉작
1733.11.10. 殿下의 濟州民事 걱정
1738.2.23.(영조 14) 제주에 나리포 賑廳米 一千五百石 보냄
1741.1.6.(영조 17) 농사형편이 나빠 舊還穀徵捧이 곤란
1744.1.4.(영조 20) 본도 농사 흉년 구휼장계

3)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에서 날마다 취급한 문서와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다. 현존하는 것은 인조 원년(1623)에서부터 隆熙 4년(1910)까지의 288년간 총 3,245책이 있다. 이 글은 제주사정립추진협의회에서 발간한 「승정원일기 제주기사」(2001)를 참고했다.

1755.12.28.(영조 31) 흉년이 들어 賑穀을 청함
 1756.윤9.29.(영조 32) 移轉穀을 실은 배가 일본국에 표도
 1757.9.25.(영조 33) 제주전목사 李潤成의 耽羅 3읍 凶年에 따른 移轉
 穀 요청
 1757.9.25.(영조 33) 제주에 육천 석의 賑資穀 요청, 劃給
 1757.10.3. 賑資穀 지급
 1760.6.9.(영조 36) 제주 삼읍 牟麥 災害
 1761.5.1.(영조 37) 삼읍의 秋農被害로 賑恤을 요청
 1761.6.25. 보리 흉년으로 인한 移轉米 要請
 1761.9.21. 제주 기근으로 移轉米 지급
 1763.3.5.(영조 39) 탐라 구휼
 1763.6.5. 湖南牟麥을 제주에 먼저 수송하여 飢民 救恤
 1763.6.13. 진휼을 마쳤다는 제주 전 목사 신광익의 狀啓
 1763.8.4. 羅里浦 運穀, 제주에 추가로 들여보냄
 1764.1.25.(영조 40) 被災로 나리포穀의 劃送
 1764.4.20. 제주 救荒麥의 운송
 1765.5.29.(영조 41) 제주에 나리포곡 요청, 제주백성에게 지급하여
 賑恤
 1765.7.21. 흉작으로 島民 구휼
 1765.7.27. 제주 飢民 구휼
 1765.9.20. 제주의 農形과 제주 전 목사의 耽羅救恤 보고
 1768.6.18.(영조 44) 제주장계(흉년 구휼), 보리농사 작황
 1768.7.3. 호남 移轉米 入送
 1769.6.9.(영조 45) 제주 賑恤
 1769.11.13. 제주 진휼 요청
 1770.2.2.(영조 46) 제주목사 安宗奎 장계(흉년으로 인한 官供米 부족)

1770.2.9. 제주목사 安宗奎 장계(賑資 劃給)
 1770.2.10. 제주 賑穀
 1770.5.27. 제주목사 장계(진휼)
 1772.4.12.(영조 48) 제주 移轉 賑穀, 호남 곡물 제주에 도착
 1778.11.20.(정조 2) 제주목사 黃最彦 장계(제주 風災를 당함)
 1784.11.27.(정조 8) 제주 목사가 진휼을 요청하는 장계를 올림
 1787.7.9.(정조 11) 탐라 보리농사가 흉년임을 보고
 1787.10.18. 굶주리는 사람들에 게 진휼을 마쳤다는 보고
 1794.12.9.(정조 18) 제주목 구휼건
 1795.10.5.(정조 19) 제주 賑濟策 論議
 1795.10.14. 제주 삼읍 災荒 狀啓
 1796.3.6.(정조 20) 탐라 賑事 件
 1796.1.16.(정조 20) 제주에 社倉 설치
 1796.11.25. 제주 기생 萬德에 糧資米錢 題給
 1819.7.25.(순조 19) 제주 餓荒時 賑恤
 1819.10.6. 제주 餓民 憂恤
 1822.10.19.(순조 22) 전염병 만연으로 인명 수천 손상, 慰諭御史 파견을 지시
 1834.1.14.(순조 34) 흉년에 따른 진휼책으로 還穀, 供皮錢, 除番米 등을 거론

18·9세기 제주사회 진휼의 특징4)

진휼의 종류와 대상

대표적인 진휼의 대상은 자연재해, 흉년으로 인한 기민이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전통사회에서의 절대빈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의 빈곤은 현대와는 달리 절대적 빈곤이었으며 광범위하고 생존과 직결된 음식물, 식량의 부족으로 표출되었다. 당시 사회에서의 飢餓의 범위를 나타내주는 기사에서 보면 기민수 62,698口 중 1년 사이에 17,963口가 굶어 죽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전체 인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아는 전반적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삼읍(三邑)은 재작년 겨울에 초록(抄錄)한 굶주린 인구가 6만 2천 6백 98구(口)이었는데, 작년 겨울에 초록한 굶주린 인구는 4만 7천 7백 35구였으니, 1년 사이에 1만 7천 9백 63구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굶주렸거나 병든 것을 막론하고 이는 다 죽은 숫자입니다. 조정에서 도민(島民)들을 염려한 것이 전후로 어떠하였습니까. 심지어 ‘한 지아비가 살길을 잃으면 하루 동안 음식을 정지하겠습니다.’는 하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수령들이 잘 대양(對揚)하지 못하여 호구의 감축이 이처럼 많게 되었으니 해당 목사 이우현(李禹鉉)에게 속히 행진(行遣)의 법을 시행하소서.”하니 따랐다.

- 정조 20/01/15 【원전】 46집 626면

진휼의 공급주체

조선시대 진휼의 이념은 王道主義이다. 군주는 만 백성의 어버이이므로 백성들의 안위가 최대 국정 현안이 되었다. 따라서 중앙은 물론 지방

4) 이 장에서의 記事는 서울시스템(1995)이 제작한 「조선왕조실록」 CD롬을 검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용기사에 각주를 따로 달지 않고 본문 인용기사 뒤에 출전을 소개하였다.

관리들의 최대 치정 목표 역시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당시 백성의 존재는 노동력, 납세, 군역, 나아가서 국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國富尊位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왕은 백성의 어버이이며 흉년과 질병으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은 당연히 국왕의 책임이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국왕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관리에게 진휼에 필요한 물자와 의약품을 준비하여 즉시 내려 보내며 이 조치과정을 矜恤히 지켜보는 것이다.

조선시대 진휼에 있어 공급의 주체는 대부분 국가이다. 국가에 명을 받은 지방관, 지방관청이 대신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만덕과 같은 민간에서의 진휼 사례도 있었다. 다음 기사에 소개되는 바와 같이 김만덕을 비롯한 전직 관리, 지역도호들에 의한 것이 그것이다.

본주(本州) 사람으로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곡식을 무역해 진휼에 보탠 것이 무려 3백 석이나 되고, 장교(將校) 홍삼필(洪三弼)과 유학(幼學) 양성범(梁聖範)은 자원해서 납부한 곡물이 각각 1백 석이나 되니, 가상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 현감 고한록이 매번 사재(私財)를 내놓곤 하는데 바다 밖의 풍속으로 볼 때 백성들을 사랑할 줄을 알고 있으니 정말 가상한 일이다. 특별히 대정 현감(大靜縣監)으로 임명했다가 이어 군수(郡守)의 경력을 쌓게 하라. 홍삼필과 양성범이 1백 석을 자원해서 납부한 것은 육지에서의 1천 포(包)와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모두를 병조로 하여금 순장(巡將)으로 승진시켜 임명토록 하라.

- 정조 19【원전】 46집 574면

제주(濟州)의 기생 만덕(萬德)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

- 정조 20/11/25 【원전】 46집 682면

급여의 형태

진휼 시행시 급여는 주로 쌀, 콩, 잡곡, 소금, 무명, 종자 등을 전달받았고 이와 동시에 아래 記事에서처럼 부역, 진상품, 각종 세금 등을 감면받는 경우도 있었다.

함흥(咸興)·영흥(永興) 두 본궁(本宮)에 준 노비에게는 올해의 신공(身貢)을 감해주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본도는 삼명일(三名日)의 물선(物膳)을 올해까지 받지 말고 삭선(朔膳)도 올해까지 반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제주는 삼명일 방물과 물선을 올해까지 받지 말고 감곡 이외의 삭선도 올해까지 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는데, 북로와 제주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 영조 44/05/19 【원전】 44집 286면

진휼의 재원

조선시대 진휼의 재원은 중앙의 비축곡, 지방의 비축곡이다. 기근이 발생하면 일단 제주지역에 비축된 곡식을 풀고 다음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중앙은 신속한 식량지원을 위해 나리포 등지의 호남, 양남(兩南) 등의 호조 비축미를 수송의 안정을 위해 병선을 수송한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제주지역에 보관된 금, 은, 무명 등을 곡식과 바꾸어 조달했었다. 이 경우가 나타난 시기는 아직 중앙결속력이 그 이후 시대에 비해 약했기 때문으로, 다시 말하면 제주가 독자적 통치활동의 영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공명첩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공명첩이란 정부에서 명목적인 벼슬을 돈 받고 일반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공명첩의 가격은 벼슬의 품계에 따라 다르고,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심지어 공명첩의 가격을 내려 주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진휼의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진휼의 규모

18·9세기 제주사회에서의 진휼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표 1>을 통해 당시 제주사회에서의 진휼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표 1〉 진휼의 규모

시기	정조 16.12~17.5	정조 19.1~5	정조 19.10~20.4
대상	61,453명	65,329명	51,303명
곡식량	22,182석	25,905석	35,123석
1인당/월	0.061석	0.099석	0.114

자료 : [정조 037 17/05/22(계축), 원전 46집 390면], [정조 042 19/05/11(신유) 원전 46집 574면], [정조 044 20/06/06(경진), 원선 46집 653면]

이 표와 함께 정조 18년 10월 제주목사의 장계를 살펴보면,

남은 곡식 200석과 다른 데서 떼어온 1백여 석을 가지고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죽을 먹이게 하고... 환자를 주어야 할 자는 장정 3만7천 9백18명이고, 노약자는 2만4천7백80명입니다... 10월부터 내년 보리가 익을 때까지 우선 빌어먹고 있는 가호부터 차차로 더 주어 한 달에 세 번씩 배정할 경우에 들여와야 할 쌀이 2만2천2백여 석...
- 정조 041 18/10/23(정축), 【원문】 46집 515면

이 경우에, 62,698명에게 6개월간 구호에 필요한 곡식이 22,200여 석이라고 한다면 1인당 월 0.059석 정도가 필요하다. <표 1>과 비교하면

정조 17년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정도의 양이면 가장 기본적인 양, 즉 하루에 한 번 죽을 쑤 먹을 경우에 적합했던 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양은 비축된 곡식의 양과 기근이나 흉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평년작인 경우 반년간 0.25석에서 0.3석 수준의 곡물 소비를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김만덕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공헌의 역사적 의의

18·9세기 제주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징⁵⁾

제주도는 예전부터 ‘三災의 섬’이라고 한다. 삼재란 水災, 旱災, 風災를 의미하는데⁶⁾ ‘水災’는 지형적인 특성상 경사와 굴곡이 심하고 계곡이 많아 여름철 집중 호우나 지역성 폭우가 내릴 경우 갑자기 불어난 물과 빠른 유속으로 인한 물 피해를 말한다.⁷⁾ 그리고 旱災란, 원래 제주도내 토양은 현무암질 토양이 많고 토지의 수분 보존율이 모자라다. 또한 하천 대부분이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이어서 농업 용수는 물론 생활 용수까지 모자라 농사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됨으로 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재난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風災는, 연중 주기적으로 불어오는 열대성 저기압, 즉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주도는 매년 여름과 초가을에 연평균

5) 윤치부(2005), “만덕이야기의 전승과 연구의 사적 전개”, 김만덕기념사업회 학술 세미나.

6) 山高深谷水災, 石多薄土旱災, 四面大海風災.

7) 1904년~1995년간 한반도를 내습했던 태풍들을 대상으로 태풍 통과시 1시간 최다 강수량 순위를 매긴 결과, 1위는 1927년 9월 11일 제주 지역에 시간당 105mm가 내린 집중호우였다. 기상청(1996), 『태풍백서』, p.30.

5~6차례의 태풍이 내습하였으며, 그 중 3~4차례 정도의 태풍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성장 혹은 수확 시기에 있는 농작물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세 가지 자연 재해로 인하여 제주도의 농업은 수확량이 격감되었고 농가는 곧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 흉년과 기근의 상태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한편 제주의 자연적 조건은 당시 도민들의 경제활동에 매우 불리한 조건만을 가지고 있었다.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연안 지역은 薄土가 대부분이었고 들판이라 할지라도 草場이 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상황이었다. 즉, 낮은 토지생산성과 빈약한 생산 자원만을 가진 저생산 자급자족의 봉건사회였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런 여건하에 있는 제주민은 생존을 위한 극한적 상황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고 한 번 흉황을 만나기만 하면 국가의 적극적인 진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영조 시기에는 제주 구휼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의 하나로 羅里浦를 臨肢로 이설하고 이곳 곡물과 제주산 바닷고기·미역 등을 서로 거래하도록⁸⁾ 하였다.

또한 제주도는 원래 화산섬이기 때문에 토질이 척박하여 땅으로부터 나는 생산물에만 의존하여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도민들은 일찍부터 전복·미역 등의 수산물, 유자·귤 등의 과실류, 말을 비롯한 목축물, 가내수공업품을 가지고 육지에 나아가 쌀·배·소금 등으로 맞바꾸어 오곤 하였다.

이와 같은 제주도민의 어려운 생활은 조선왕조의 집권적 지배체제가 확립됨에 따라서 더욱 악화되었다. 즉, 조선왕조의 행정력이 제주도에까지 미처오에 따라서 공물 진상과 그에 따른 노역 징발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갔다. 선조 34년(1601) 제주에 어사로 왔던 金尙憲이 남긴 기록

8) 『備邊司謄錄』 78, 영조 원년 11월 15일 ; 동 80, 영조 2년 12월 25일.

에 따르면, 16세기 말엽에 도민의 생산물이 거의 공물이나 관청의 수요에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령과 토호에 의한 수탈까지 겹쳐서 도민들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⁹⁾ 더욱이 조선초기 이래 빈번해진 왜구의 침범에 따라 제주도 해안 방어가 엄중해지면서 제주의 남정들에게 과다한 군역도 부과되었다.

출륙금지령¹⁰⁾

조선초기 이래 빈번해진 왜구의 침범에 따라 제주도 해안 방어가 엄중해지면서 제주의 남정들에게 과다한 군역도 부과되었다. 고역에 시달리던 제주민들은 역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제주섬을 떠나갔다. 이미 15세기 후반부터 군역을 담당해야 할 良人 및 正兵, 진상역을 담당해야 할 公賤 등이 역을 피해 제주를 떠나 전라도 연변의 여러 고을로 옮겨 살고 있었다.¹¹⁾ 흉년이 들거나 진상역이 심해지면 유랑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출륙도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잔류하여 있는 도민들은 더욱 많은 부담에 시달리게 되어 피역 출륙이 그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에서는 제주도의 유망민들에 대한 행정적 개선을 외면한 채 남해안의 각 군현에서 관내의 출륙 제주도민을 낱낱이 조사 등록하고 이들에게 역을 부과함으로써 그 주거와 생활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로는 제주도민의 출륙을 근본적으로 억제

9) 『南槎錄』 권1, 선조 35년 9월 22일.

10) 박찬식(2004), “김만덕과 조선후기 제주사회”,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

11) 성종 4년(1473) 전라도 관찰사가 전라도 연변 고을에 옮겨 사는 출륙 제주도민을 추刷한 것을 보면, 良人 91명, 正兵 3명, 船軍 12명, 公賤 29명, 私賤 17명이었다. 이들 중 추쇄 대상은 정병·선군·공천으로서, 모두 군역과 진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成宗實錄』, 4년 3월 28일).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성종 21년(1490) 10월 제주의 진상물을 실은 선박이 해적에게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출륙 제주도민의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출입을 허가제로 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조사 등록되지 않은 채로 육지로 도망쳐 온 제주도민을 모두 원주지로 돌려보낼 것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미 16세기 말엽에 도민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 정도로 이들의 출륙은 격렬하게 전개되어 갔던 것이다.

조정에서는 이제 제주도민의 출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도를 강구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인조 7년(1629) 8월 “제주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流離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의 軍額이 감소되자, 備局(비변사)이 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함”에 따라, 제주도민의 출륙을 엄금한다는 명이 떨어졌다.¹²⁾ 또한 제주의 여인과 육지인과의 혼인을 금할 것을 국법으로 정하고 여인의 출륙은 특별히 더 엄금하였다. 그러나 과거응시자와 공물진상물의 운반책임자와 기타 공적인 업무수행자에 대해서는 출륙이 허용되었으며, 금지령이 내린 가운데 유망자에 대한 刷還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있던 인조·순조 년간의 200여 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제주도민은 섬 안에 갇혀 있으면서 왜적을 방위하는 역할, 공물·진상물을 조달하는 부역을 강요당하였다. 정조 후년에 가서는 육지상인 뿐만 아니라 제주상인까지도 경향 각지에서의 자유로운 판매 활동을 보장받게 되어 도내에서 생산된 갯양태·해산물 등을 가지고 가서 교역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게 되었다.

이제 출륙금지령은 그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게 되어 버렸다. 결국 순조 23년(1823)에 와서는 제주에 어사로 왔던 조정화가 왕에게 제주도

12) 『仁祖實錄』, 7년 8월 13일.

민의 육지 왕래와 육지인과의 결혼을 허락할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고, 제주도에 내려진 출륙금지령은 이 때에 완전히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이 제주도에 내려졌던 출륙금지령은 제주도민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굴레로 씌워졌던 것으로서, 결국은 제주도민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자연 해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김만덕의 상업활동¹³⁾

김만덕(1739~1812)은 조선 영조 때의 제주 최초 여상(女商)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저생산 자급자족 경제구조를 가진 제주사회에서 산지(山地)에 객주집을 차리고 제주의 특산물인 말총·미역·전복·양태·우황·진주 등을 서울 등지에 팔거나 양반층 부녀자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염가로 공급하는 장사 수완을 발휘하여 축재하였다고 한다.

1790년(정조 14년)부터 1794년(정조 18년)까지 5년간 제주 지방에 흉년이 들어 제주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이며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하게 되자 그녀는 1천금을 내놓아 배를 마련하고 육지로 건너가 연해에서 곡물을 사들여 10분의 1은 내외 친척과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일보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나머지 450석은 모두 관가로 보내어서 구호곡으로 쓰게 하였다.

김만덕이 이러한 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제주사회의 상업적 장애요인을 최대한 극복하고 상업적 재치와 수완을 발휘한 유통업에 대한 상당 수준의 결실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영·정조시대 조선사회는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이에 따른 상업의 발달로 인해 조선 후기 양반 사회는 물론 서민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상업이 크게 발달하였

13) 변종현(2005), “김만덕 삶의 현대적 조명”, 김만덕기념사업회 학술세미나.

다. 그 가운데 상품을 매점하거나 독점함으로써 이윤을 취하는 도매상인 도고(都賈)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는 서민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김만덕은 운송 체계에 기초한 유통망이 상업 발전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였다. 그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한 분야가 바로 유통업이다. 18세기 중엽은 전국적 유통망이 갖추어지던 시기였다. 당시 유통망은 육상과 해상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육상 교통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해상 교통의 중심은 포구(浦口)였다.

해상 교통은 육상 교통에 비해 시간적·경제적으로 유리하였고, 물길을 통한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해상이나 강상 교통의 요지에 포구가 설치되었다. 내륙 각지에는 5일장인 장시(場市)가 컸고, 해안과 강가의 포구도 흥청거렸다. 장시와 포구가 상품 유통의 거점이 되면서,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장시와 장시, 장시와 포구, 포구와 포구가 서로 연결되어 전국이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되어 갔다. 내륙에서는 마필(馬匹)에 의한 육운(陸運)이, 연해안 또는 수로에서는 선박에 의한 수운(水運)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만덕이 주목한 것은 바로 포구가 지닌 유통망으로서의 가치였으며, 이를 위해 포구에 객주(客主)를 차리게 되었다. 객주는 여관의 구실도 했지만 외지 상인들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거나 거간하는 중간상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김만덕은 객주를 중심으로 제주의 양반층 부녀자에게 육지의 옷감과 장신구, 화장품 등을 팔고, 제주 특산물인 미역, 전복, 표고, 양태, 말총, 녹용과 굴 등을 육지에 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다. 그녀는 관가의 물품도 조달하게 되었고, 포구의 상품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포구 주인권(浦口主人權)을 획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만덕은 자신의 포구에 적극적으로 선상을 유치했고 그 자신의 선박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김만덕은 상업활동을 하면서 세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한다. 첫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 둘째 적절한 가격 매매, 셋째 정직한 신용 본위가 그것이었다. 만덕은 철저히 신용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했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직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꾸려 나갔다. 즉, 김만덕은 젊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반층 부녀자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염가로 공급했던 것이다. 점차 상업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관가의 물품까지도 조달하게 되었는데, 이후 김만덕의 객주(客主)는 큰 규모의 무역 거래소가 되었고, 단시일 내에 김만덕은 제주의 거상(巨商)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만덕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검소했다. 소유 자체가 유흥일 수 있었으나 그녀의 생활은 검소하고 소박했던 것이다.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김만덕의 생활 철학이었다.

김만덕은 당시 풍랑 때문에 육지와와의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나갔다고 여겨진다. 평소에도 풍년이 들면 흉년들 때를 대비하여 절약하고 비상 물품을 비축하였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는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그 은덕에 감사하고, 아래로는 어렵게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하여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당부를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이다.

진흙사업에 대한 보상으로 금강산 구경을 마치고 돌아온 김만덕은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검소한 생활을 잊지 않았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쌀을 주는 등 구휼에 주력하였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는 김만덕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헌에 대한 실천적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김만덕의 사회적 공헌¹⁴⁾

제주는 정조 16년(1792)부터 흉년이 계속되었고, 1794년 8월 27일부터 이튿날까지 태풍이 불어닥쳤다. 당시 제주에 와 있던 심낙수 어사가 보고하기를 ‘온 섬을 빗자루로 싹 쓸어버린 것 같아 어디가 어디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제주의 78리 중에서 32리가 가장 심합니다. 정의현과 대정현도 다 같이 심합니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795년 봄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자 한 해에 제주 도민의 30%가 굶어 죽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다. 같은 해 윤 2월 이우현 목사는 급히 진휼곡식을 요청하였다. 정조 19년(1795) 윤2월 제주 도민을 구휼하기 위해 조정에서 보낸 곡물 1만 1천 석을 싣고 떠난 두 번째 수송 선박 중 다섯 척이 침몰하자 상황은 극에 달했다. 이 소식을 접한 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구호 사업에 회사하기로 결심하였다. 전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들여온 곡식 500여 석 가운데 10분의 1은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450여 석을 진휼미로 내놓았다.¹⁵⁾

이러한 김만덕 외에도 당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제주 도민들도 구휼에 동참하였다.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300석을, 장교(將校) 홍삼필(洪三弼)과 유학(幼學) 양성범(梁聖範)이 각각 1백 석을 내놓아 구휼하였다. 고한록의 기부에 대해 제주 목사 이우현이 ‘무려 300석’이라고 말한 것이나 이 소식에 접한 정조가 “이들이 1백 석을 자원 납부한 것은 육지의 1천 포(包)와 맞 먹는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김만덕의 기부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14) 변종현(2005), “김만덕 삶의 현대적 조명”, 김만덕기념사업회 학술세미나.

15) 김봉옥(2000), 『증보 제주통사』, 세림, p.186.

맺음말

앞서 서술하였던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진휼은 賑恤, 救恤, 救荒 등과 같은 형태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18·9세기 제주사회에서의 진휼은 국가 행정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정책적·제도적이었고, 당시 제주민들의 진휼에 대한 의존도는 생존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이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18·19세기 제주사회의 기근으로 인한 생계, 의료, 경로 등과 같은 진휼은 재원이나 정책 모든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절대적 비중이 확대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만덕은 그가 가진 부를 적절히 이용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진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여겨진다.

김만덕이 행한 구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우선 김만덕이 구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부의 축적 과정이다. 당시는 출륙금지 200년 시대로 김만덕이 상업활동을 위해 육지부로 이동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저생산 자급자족의 제주사회에서의 구매력, 상품 수요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매우 협소한 상품시장만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김만덕은 여자다. 사농공상과 남존여비가 극단적으로 존재했던 당시 제주사회에서 여자의 신분으로 상업활동을 성공적으로 영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악조건 하에서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했다는 것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고 추앙받을 만하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의 구휼이라는 것이다. 즉, 조선사회 진휼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공급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구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시 제주사회에 잠재하고 있었던 자발성과 역동성을 김만덕이 대변하였다는 것이다. 생존에 급급하여 타의 여지가 없어보였던 조선시대 제주사회에 면면히 내재되어 있던 제주인의 이념과 삶의 기상이 표출된 것이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김만덕에 관한 연구와 기념사업이 김만덕을 지나치게 우상화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양극단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만덕에 관한 연구가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 학제적이며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3부

김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해석

〈萬德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_ 김준형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_ 김경애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연구의 사적 전개 _ 윤치부

실존인물 김만덕의 문학화 과정 _ 현승환

김만덕의 삶을 통해 본 정신적 가치의 탐색 _ 변종헌



김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해석

〈萬德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김 준 형

들어가는 말

萬德(1739~1812)은 18세기 제주에 살았던 인물로, 제주 도민에게는 ‘만덕 할망’이란 별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제주 도민에게 만덕은 단순히 ‘義人’ 중의 한 사람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도민의 정신적 버팀목 역할까지 하고 있다.

만덕이 처음 묻혔던 ㄱ으니ㄱ루(並園旨) 근처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여 그의 묘를 慕忠祠에 옮겨 모시는가 하면, 1980년에는 ‘만덕상’을 제정하여 매년 한라문화제 때 ‘근검 절약으로 역경을 이겨내어 성가한 후에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여인 한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¹⁾ 제주 도민에게 만덕의 의미는 특별하다.

만덕이 제주 도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된 까닭은 그의 행적에서 비롯된다. 1795년 봄 大饑饉 때, 官에서도 구휼하지 못한 제주 도민을 만덕이 직접 千金을 내어 구호했던 행적이 그것이다.²⁾ 기아에 허덕이던 제주

1) 제주도 편, 『久遠의 女像 金萬德』, 제주도, 1989 ; 제주문화원,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도민은 만덕을 生佛처럼 여겼을 것이고, 宦路에 있던 관료들 역시 만덕을 의인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도민이 만덕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료들이 만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제주 도민에게 만덕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었으나, 관료들에게 만덕은 단순히 기특한 인물로 보였던 것이다. 도민에게 만덕은 자신의 삶을 존속하게 한 존재였다면, 관료들에게 만덕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담론을 가능케 한 인물이었던 셈이다. 때문에 조정에서는 학사들로 하여금 만덕의 傳을 짓게 하였고, 많은 관료들은 만덕을 위한 글을 지었다.

이 글은 그 동안 우리 학계에 알려진 만덕과 관련된 자료들을 토대로 〈만덕 이야기〉가³⁾ 어떻게 전승되었고, 그 전승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둔다. 그 동안 〈만덕 이야기〉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다.⁴⁾ 그러나 대부분은 자료 해제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고, 작품의 해제 역시 蔡濟恭(1720~1799)의 〈만덕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만덕 이야기〉가 지니는 의미를 적실하게 설명하지는 못한 듯하다. 그런데 〈만덕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것은 김영진이 孝田 沈魯崇(1762~1837)의 산문

-
- 2)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90(2판). 169~172쪽. 제주도 편, 앞의 책, 1989. 참고로 李義發(1768~1849)이 지은 〈萬德傳〉(『雲谷先生文集』 卷之八)이나 金熙洛이 지은 〈奉教御進萬德傳〉을 보면, 만덕은 六百斛을 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이희발이나 김희락은 정조의 명령에 의해 만덕의 전을 지은 것이라 하겠다. 이 점에서 보면 만덕이 지출한 돈은 600곡이 맞다고 할 수 있다.
 - 3) 본고에서 쓰는 〈만덕 이야기〉는 만덕과 관련되어 유전되어 온 모든 자료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傳과 구전설화를 포함함은 물론이고, 넓게는 한시까지 포함한다.
 - 4) 이동근, 『조선 후기 전문학 연구』, 태학사, 1991. 정미숙, 「채제공과 이옥의 여성 전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이승복, 「변암 채제공의 전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최준하, 「채제공의 전문학 연구」, 『어문연구』 24, 어문연구회, 1993. 이신복,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 『한문학논집』 12, 단국한문학회, 1994.

문학을 다루는 자리에서 기존의 〈만덕 이야기〉와는 색다른 〈만덕 이야기〉를 소개해 놓은 데서 비롯된다.⁵⁾ 심노승의 부친 沈樂洙(1739~1799)는 만덕이 제주 도민을 진휼하기 몇달 전까지 제주목사로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심노승의 기록은 주목을 요한다. 심노승의 기록은 채제공의 〈만덕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덕을 그리고 있다. 이 점에서 당시 만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만덕 이야기〉가 향유되어온 양상까지 읽어낼 계기가 마련된다. 이제 만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통해 〈만덕 이야기〉가 어떻게 변모되어 왔고, 그 변모가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만덕의 생애

만덕의 생애는 김봉옥과 제주도에서 편찬한 책자에서 이미 상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만덕의 생애는 기본적으로 이들 자료에 기대어 살펴보고, 그 외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 그리고 별도의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은 다른 자료를 통해 보완하기로 한다.

만덕(1739~1812)의 본관은 김해로, 부친 金應悅과 모친 고씨 사이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만덕의 몸은 富大하고 키는 長大하였고 겹눈 重瞳을 가지고 있었다.⁶⁾ 만덕의 나이 12세 되던 해인 1750년에 부모가 俱沒하자, 만덕은 형제들과 이별하고 妓房에 얹혀 살게 되었다. 18세 되던 1756년에 妓籍에 이름을 올려, 23세 되던 1762년에 관가에 호소하여 妓案에서 이름을 삭제할 때까지 5년 동안 妓役에 종사하였

5)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6.

6) 淡水契, 『증보 탐라지』, 프린트관, 1954.

다.⁷⁾ 19세 때에는 巡撫御史 李度遠과 반 년 동안 인연을 맺고 그가 준 돈으로 경제적 기반을 잡았다고도 하지만,⁸⁾ 이도원(1684~?)의 생몰년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이 아닌 듯하다.

만덕이 妓案에서 이름을 삭제한 1762년부터 1795년 대흥년 때 재산을 내놓아 제주 도민을 구휼할 때까지의 행적은 묘연하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어떤 방식이든지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이 사실인 듯하다. 재산 축적 방법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채제공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물가의 높고 낮음을 때에 맞춰 내어놓기도 하고 독점하기도 하기를 몇 십년 동안 하였’던⁹⁾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노송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만덕은 기생으로 있는 동안 제주에 온 상인을 이용하여 致富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¹⁰⁾ 그 당시 제주에서 치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이 매점매석과 객주업이었는데,¹¹⁾ 만덕 역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치부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

만덕은 결혼도 않고 축적한 재산을 1795년 대기근 때 내놓아 그 중 10%는 자신의 친족을 구하는 데 쓰고 나머지 재산으로 제주 도민을 구휼한다.¹²⁾ 당시 제주목사 李禹鉉은 그 사실을 기록한 장계를 올렸고, 조정에서는 만덕의 소원을 물어 당시 제주 여성은 육지로 나올 수 없다는 규정을 깨고 1796년 만덕을 서울로 불러들인다. 그리고 평민 신분으로는 임금을 직접 뵈 수 없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만덕을 內醫院 醫女의 行首로 삼아 임금을 알현케 한다. 임금을 알현한 만덕은 그 이듬해인

7) 제주도 편, 앞의 책, 1989. 김봉옥, 앞의 책, 1990.

8) 박용옥, 「만덕」, 『아성』 176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81. 6. 50쪽.

9) 채제공, 〈만덕전〉, “其才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 至數十年, 頗以積著名.”

10) 심노송의 기록은 뒤에 전편을 소개한다.

11) 朴趾源의 『許生傳』과 이와 유사한 『此山筆談』의 〈허생 이야기〉에서 매점매석의 양상을 볼 수 있으며, 『靑邱野談』에서 보이는 감과 무역을 하던 상인의 구술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2) 채제공, 〈만덕전〉. “萬德取十之一 以活親族 其餘盡輸之官”

1797년에 금강산을 두루 구경한 후 다시 제주로 돌아온다.

제주로 돌아오고 12~13년이 지난 1812년 10월 22일 만덕은 7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제주로 돌아와서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만덕의 유언이 “내가 죽거든 성안이 한 눈에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고¹³⁾ 했다는 것만이 확인된다.

正祖는 만덕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제주 도민을 진휼한 사실을 蔡濟恭·李義發·金熙洛 등에게 명하여 전을 짓게 하였고, 朴齊家(1750~1806) 등은 만덕의 일을 한시로 지었고, 丁若鏞(1762~1836)은 만덕의 행위가 세 가지 면에서 기이하고 네 가지 희귀한 일이라는 題를 남기기도 하는 등 만덕의 행위는 여러 문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그 후 1840년 秋史 金正喜는 大靜縣에 유배되어 왔으면서 만덕의 행적을 듣고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번진다[恩光衍世]’는 글을 써 주기도 한다.

만덕의 진휼 배경과 입전 배경

만덕이 어떻게 치부를 했든 간에, 제주에 큰 흉년이 들었던 1795년(정조 19년), 만덕이 그의 재산을 털어 제주 도민을 진휼한 일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만덕이 제주 도민을 진휼한 사실에 주목하기에 앞서 당시 제주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만덕이 어떠한 이유에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 도민을 구제해야 했단가를 살피는 배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제주도의 흉년이 1795년에만 한정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주도의 흉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13) 제주도 편, 앞의 책, 1989, 81쪽. 그러나 그 근거는 밝히고 있지 않아 명확치는 않다.

예컨대 1793년 『정조실록』에서, 姜鳳瑞가 정조께 상소를 올리고 정조가 이에 비답하는 대목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장령 강봉서가 상소하기를,

“제주도는 여러 차례 흉년이 들었지만 지난해처럼 추수할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겨울부터 여름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몇 천 명이나 되는지 모르는데, 올해 8월에 또 큰바람이 연일 불어서 旌義縣과 大靜縣은 赤地나 다름없고, 제주 左面과 右面은 흑심한 재해를 입어 내년 봄이면 틀림없이 금년보다 배나 더 굶주림을 호소할 것입니다. …(중략)…”

하니, 비답하기를,

“…(중략)… 작년에 굶어 죽은 백성의 수가 내가 말하였는데, 이를 보니 참으로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중략)… 더구나 섬 안에서 굶어 죽은 자가 몇 천 명이나 되는지 모른다고 하니 전대에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후대에도 들어 보지 못할 일이라 하겠다. …(하략)”¹⁴⁾

1793년의 기록이다. 위 사실만을 통해 보더라도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1792]부터 심각할 정도의 흉년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기록을 그대로 신봉하면, 1792년에는 추수할 것이 전혀 없어 그 해 겨울에서부터 그 다음해인 1793년 여름까지 굶어 죽은 사람만도 수천 명이었다. 1793년 8월에는 큰 태풍까지 있어 제주도 전역이 심각한 재해를 입었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년[1794]해는 그 해[1793]보다도 더 심각한

14) 『증보판 CD-ROM 조선왕조실록』 3집, 『정조실록』 17년 11월 11일조, 서울시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1997.

『정조실록』 19, 민족문화추진회, 1993. 97쪽. “掌令姜鳳瑞上疏曰 耽羅一島 屢值凶荒 去年秋事之大無 前所未有 自冬至夏 民人饑死 不知幾數千名 今年八月 又連日大風 旌義大靜 殆同赤地 濟州左右面 被災亦酷 來春呼飢 必倍於今年 …(중략)… 批曰 …(중략)… 昨年饑民之填壑 爾既言其數 看來良欲無言 …(중략)… 況島中填壑之不知爲幾千 名云者 可謂前未聞後未聞 …(하략)” 19쪽 上.

재난이 있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조가 직접 말한 바 “전대에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후대에도 듣지 못할” 최악의 자연 재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제주도에 파견된 관리들은 제주 도민에게 가혹한 세금을 징수한다. 특히 친족들에게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徵族이 더욱 심했다. 따라서 백성들은 삶의 질곡과 함께 세금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결국 조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12년 만에 어사를 파견한다. 그가 바로 심낙수였던 것이다.¹⁵⁾

그러나 “전대에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후대에도 듣지 못할” 최악의 상황은 해마다 계속되었다. 그 극점은 1794년 겨울부터 1795년에 늦봄까지로 보인다. 1794년 겨울 제주의 인구는 62,698구였으나, 1795년 겨울에는 47,735구로 줄었으니 불과 일 년 사이에 17,963구가 굶주려 죽었다는 통계가 나온다.¹⁶⁾ 한 해 동안 제주 도민의 30% 정도가 굶어 죽은 셈이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海神祭까지 드려¹⁷⁾ 1795년 10월부터 1796년 4월까지 총 35,123석의¹⁸⁾ 賑恤穀을 실은 배를 제주로 보낸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11,000석의 진휼곡을 실은 배는 중간에 바람으로 인해 파선되어¹⁹⁾ ‘날알 하나가 천금과 맞먹던’ 당시 제주 도민의 큰 상처가 되었다.

제주 도민의 30%가 굶어 죽는 상황에서 도민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조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제주 도민 중에서도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하던 곡식이나 돈을 내어 도민을 구휼했다.

15) 『정조실록』 17년 11월 24일조.

16) 『정조실록』 20년 1월 15일조.

17) 『정조실록』 18년 10월 23일조.

18) 『정조실록』 20년 6월 6일조.

19) 『정조실록』 19년 2월 3일조.

목사 李禹鉉이 장계를 올리기를,
 “...(중략)... 본주 사람으로 전 현감 高漢祿은 곡식을 무역해 진흥
 에 보탠 것이 무려 3백 석이나 되고, 將校 洪三弼과 幼學 梁聖範은
 자원해서 남부한 곡물이 각각 1백 석이나 되니 가상하기 그지 없습니
 다. ...(중략)...”

하니 하교하시기를,
 “...(중략)... 전 현감 高漢祿이 매번 私財를 내놓곤 하는데 바다
 밖의 풍속으로 볼 때 백성들을 사랑할 줄을 알고 있으니 정말 가상한
 일이다. ...(하략)...”²⁰⁾

위의 기록을 보면 高漢祿·홍삼필·양성범 등과 같은 인물은 자신의 재산을 내놓으면서 제주 도민을 구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高漢祿은 ‘매번’ 私財를 내놓으면서까지 제주 도민을 구휼했다. 만덕 역시 이들 처럼 사재를 털어 제주 도민을 구휼했던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다만 만덕이 그들과 다른 것은 기생 출신이라는 점에 있다. 기생이면서 굶어죽는 도민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덕이 제주 도민을 구휼한 사실은 『정조실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제주의 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 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²¹⁾

20) 『정조실록』 19년 5월 11일조, “濟州牧使李禹鉉 狀啓日 …(중략)… 本主人前縣監 高漢祿 質穀補販 至於三百石 將校洪三弼 幼學梁聖範 願納穀物 各爲一百石 極爲可尙 …(중략)… 教日 …(중략)… 前縣監高漢祿 每每損財 海外土俗之能知存愛 萬萬可尙 …(하략)” 34쪽 下.

21) 『정조실록』 20년 11월 25일조, “濟州妓萬德 散施貨財 賑活饑民 收使啓聞 將施賞 萬德辭 願涉海上京 轉見金剛山許之 使沿邑給糧” 60쪽 上.

어떠한 일을 처리하고 나면 포폄이 있기 마련이다. 조정에서는 제주 도민의 목숨을 구한 여러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다. 高漢祿은 陞品하여 敍用하고, 洪相五는 兒馬를 하사하고, 洪三弼은 대정현이나 정의현 중 한 곳에 借送하라 한 것이 그 예이다.²²⁾ 조정에서는 만덕에게도 이들처럼 일정한 상을 내리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만덕은 상을 거부하고, 그 대신 다른 요구를 한다. 만덕의 요구는 상경하여 금강산을 유람하는 것이었다. 만덕의 요구는 당시 제주 여성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제주에 거주하는 여성이 바다를 건너 육지로 올 수 없는 것이 당시의 국법이었기 때문이다.²³⁾ 만덕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요구하였고, 정조는 만덕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이는 만덕의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지만, 그보다는 만덕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만덕의 행위는 지배층의 이념과 부합되었던 것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만덕의 행위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일로 여겨졌다. 게다가 만덕의 행위에 대한 보상은 더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만덕은 장안에 화제의 인물로 부각되어 회자되었고, 또한 여러 문인들에 의해 만덕의 행위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정에서도 지배층의 이념과 부합되기 때문에 여러 학사들에게 만덕의 행위를 칭송하는 글을 남기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만덕의 행위가 어떻게 여러 문인들에 의해 씌어지고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정조실록』 20년 6월 6일조.

23) 체제공, 〈만덕전〉, “蓋耽羅女人之禁 不得越海而陸 國法也.”

〈만덕 이야기〉의 존재 양상

만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작품은 비교적 많다. 蔡濟恭(1720~1799)의 〈만덕전〉, 李義發(1768~1849)의 〈萬德傳〉, 金熙洛의 〈奉敎御進萬德傳〉, 李家煥(1742~1801)이 만덕을 만나고 지은 시[送萬德歸耽羅], 박제가가 만덕의 일을 읊은 한시[送萬德歸濟州詩], 沈老崇(1762~1837)의 〈桂織傳〉 말미에 붙은 〈만덕 이야기〉, 金正喜(1786~1856)가 만덕의 행위를 듣고 ‘恩光衍世’라고 쓰고서 간략하게 부친 글, 劉在建(1793~1880)의 『이향견문록』에 수록한 〈만덕〉과 『凡谷記聞』의 시, 그리고 趙秀三(1762~1849)의 『秋齋紀異』 속의 〈만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만덕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작품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 양상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 ① 만덕이 (금강산에서) 돌아옴에 공경대부들이 모두 글을 주기도 하고 입전하기도 하였다.²⁴⁾
- ② 조정의 학사들로 하여금 만덕의 전을 짓도록 하였다.²⁵⁾
- ③ 벼슬아치들이 모두 (만덕의) 전기를 짓고 그를 노래하였으니 고금에 드문 일이다.²⁶⁾

위의 인용문만을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소개되지 않은 〈만덕 이야기〉가 더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자료가 더 있을 것이라는 추정 때문에 굳이 논의를 위축시킬 이유는 없다. 이후 발견되는 자료는 차후 보완하기로 하고, 현존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만

24) 『舊墓碑文』, “及其還 卿大夫 皆驢章立傳” 제주도편, 앞의 책, 1989. 88쪽.

25) 심노승, 〈계섬전〉, “命題敍傳 試閣中諸學士” 김영진, 앞의 논문, 1996. 44쪽.

26) 김정희, “縉紳皆傳記詠之 古今稀有也” 제주도편, 앞의 책, 1989. 82쪽.

덕 이야기》가 어떻게 창작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전승되었고 그 의미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²⁷⁾

蔡濟恭의 〈萬德傳〉: 지배 이데올로기의 강화

한 텍스트 안에 들어 있는 인물은 한편으로는 사회에 의해 조건지워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희생물이 된다.²⁸⁾ 작품 속의 인물은 언제나 작가나 독자에 의하여 사회의 어떠한 단면을 매개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단면이 역사적인 사건이든, 혹은 이념적인 양상이든 상관이 없다. 또한 작가는 자신, 혹은 자신이 처한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학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학 형식로의 발전은 이데올로기 상의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²⁹⁾

조선 후기의 전에는 새로운 유형의 인물도 많이 등장하며, 또한 그 형식도 소설로의 경사를 보이는 경향이 많다.³⁰⁾ 그러나 그 갈래의 유동성 안에서도 새로운 양식으로 변전하지 않는 문학 양식을 고집하였다는 점은 곧 그 작가의 내면에는 이미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기보다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더 침잠하여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다. 채제공의 〈만덕전〉 역시 조선 후기에 다양하게 움직임을 보이던 전의 변모 양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양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7) 진재교는 「한국 한문서시양식의 층위와 변모」(『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2001 동아시아학 국제학술대회, 성균관대, 2001. 10. 26)에서 만덕과 관련한 자료를 더 소개하였는데, 李義發과 金熙洛 등의 〈만덕전〉도 그러하다. 이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쓴 것으로, 채제공의 만덕전과 그 지향이 비슷하다. 이 글에서는 이들 자료들을 포괄하여 다루되, 이들을 정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이들 자료를 포괄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28) 미셸 제라파, 『소설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1987(7쇄). 26쪽.

29) 테리 이글튼(이경덕 옮김), 『문학비평:반영이론과 생산이론』, 까치, 1986. 38쪽.

30) 대표적인 논의로 박희병의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를 참조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새로운 이데올로기보다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안주하고 있었던 채제공의 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먼저 채제공의 〈만덕전〉의 경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만덕의 성은 김이고 제주 양가집 딸임
- ② 어려서 부모를 잃고 기생이 됨
- ③ 20여 세에 관청에 하소연하여 양민으로 되돌림
- ④ 결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늘려 몇 십 년만에 부자로 이름이 남
- ⑤ 을묘(1795)년에 제주에 흉년이 들자 천금을 내어 그 중 10%는 자기 친족을 살리고 나머지는 관청에 보내 도민을 구휼함
- ⑥ 제주도민 구제가 끝나자 임금이 만덕의 소원을 묻게 하니, 만덕이 임금이 계신 곳을 보고,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함
- ⑦ 병진(1796)년 가을에 서울에 가니 임금이 內醫院 醫女의 행수로 삼게 함
- ⑧ 임금을 뵈니 임금이 칭찬하고 상을 내림
- ⑨ 정사(1797)년 금강산을 구경하고 58년의 생애 동안 처음으로 절과 부처를 봄
- ⑩ 만덕의 이름이 장안에 퍼지고 모든 사람이 만덕의 얼굴을 보기를 원함
- ⑪ 만덕이 떠날 때 채제공을 만나며 이별의 눈물을 흘리니, 채제공이 남자도 못할 일을 했는데 지금 아녀자의 가련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며 〈만덕전〉을 그 앞에서 적어 건네줌

주지하다시피 채제공은 十年獨相이라 불리울 만큼 正祖代에 최고의 지위에 있던 인물이다. 그런 최고의 인물이 여성의 전, 그것도 기생의 전을 짓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이는 채제공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것은 곧 지배층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지배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행동을 한 인물에 대해 널리 표창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고하게 전달코자 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만덕전〉을 읽으면서 만덕의 기이한 행적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채제공이 언어를 통해 담아놓은 이데올로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채제공이 굳이 ‘傳’이라는 당시 지배층의 문학 양식을 빌린 것도 이와 같은 궤에서 설명된다.

채제공은 〈만덕전〉 외에도 13편의 전을 더 쓰고 있다. 이 중 여성을 입전한 작품도 세 편이 있는데, 〈만덕전〉 외에 〈淸風義婦傳〉과 〈七分傳〉이 그것이다.³¹⁾ 〈청풍의부전〉은 친정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적을 만났는데, 기지를 써서 도적을 죽인 이야기이다. 〈칠분전〉은 주인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다가 죽은 계집종 칠분의 행적을 입전한 것이다. 두 이야기 모두 하나는 義婦라는 점에서, 하나는 忠婢라는 점에서 지배층의 이념과 적실하게 맞아떨어진다. 이처럼 채제공은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 전을 지었던 것이다. 즉, 채제공은 지배자로서 피지배자에게 봉건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이념을 주입하기 위해 여러 편의 전을 지은 것이라 하겠다.

문학 작품은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일부, 즉 한 사회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당연하게’ 보이거나 완전히 은폐되어 있음을 보증하는 복잡한 사회적 인식 구조의 한 요소이다.³²⁾ 채제공의 〈만덕전〉 역시 지배 계층이 하층민들에게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고, 그 이데올로기에 충실히 따라오게끔 하기 위한 의도에서 지어진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만덕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만덕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

31) 김균태 편, 『문집 소재 전 자료집』 5, 태학사, 1997.

32) 테리 이글튼(이경덕 옮김), 『문학비평: 반영이론과 생산이론』, 까치, 1986. 15쪽.

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채제공은 만덕이 제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致富를 하였고, 만덕은 왜 보다 이른 시기에 제주 도민을 진휼하지 못하고 진휼이 거의 끝날 무렵인 1795년에 재산을 홀었는가에 대한 의문이며, 제주에서 만덕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가 없다. 채제공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단순히 만덕이 여성으로서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홀어 제주 도민을 구휼했다는 결과에 있다. 동기보다 결과에만 초점을 두어 채제공은 만덕의 전을 지은 것이다. 제주에 절과 불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 밖이다.³³⁾ 단순히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에 따르는 대우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채제공은 어떠한 배경에서 〈만덕전〉을 지었는가? 왜 조정에서는 학사들로 하여금 만덕의 전을 짓게 하였는가?

당시 조정은 문란해진 사회의 기강으로 인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한 예로 만덕이 서울을 구경하고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게끔 허락이 난 정조 20년(1796년) 11월 25일을 전후한 『실록』의 기록에서도 그 양상은 보인다. 만덕에게 상경이 허락되기 불과 며칠 전인 11월 19일에 대사간 金翰東은 아주 긴 상소문을 올린다.

김한동은 먼저 임금이 몸소 검약을 실천하며 세상을 교화하고자 하나 세상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세태를 간헐적으로 드러내어 비판하고 있다. 그 양상은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사대

33) 채제공의 〈만덕전〉에는 “丁巳(필자:1797) 暮春 入金剛山 歷探萬瀑衆香奇勝 遇金佛輒 頂禮 供養盡其誠 蓋佛法不入耽羅國 萬德時年五十八 始見有梵宇佛像也”라고 쓰고 있다. 이는 곧 1797년까지 제주에는 불교가 들어오지 않아 만덕은 금강산에 가서야 비로소 불상을 보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太宗 때에 宦官 黃儼이 제주에서 불상을 가져와서 절을 하였다는 기록(『東野類輯』, 아세아문화사, 1985, 118쪽. 원 출전은 『東閣雜記』) 외에도 제주에 불교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은 여러 문헌에서도 보인다.

부들은 기강이 서지 않아 심지어 ‘하룻밤만 숙직을 하게 되면 마치 죽으러 가거나 하는 듯이 여기’는 등 습속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여염의 부녀자들도 낭비가 심하고 사치가 심하여 근검 절약하는 습성이 없어졌음을 꼬집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기강이 서지 않음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지적들은 어느 한 순간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의 기강이 점점 문란해지고 있었고, 그것이 심각하였기에 김한동도 상소를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감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약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타개책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행동을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표창하여 상을 주었던 것이다. 이에 만덕 역시 지배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행위를 하였기에 ‘제주에 거주하는 여성이 바다를 건너 육지로 올 수 없는 것이 당시의 국법’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반대로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만덕의 행위를 칭찬해 주어야 할 만큼 조정에서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채제공이 쓴 〈만덕전〉 역시 이러한 위기 의식에 대한 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채제공은 14편의 전 작품을 쓰고 있다. 이 중에는 전대 문헌에서 발췌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바꾼 〈李節度傳〉과 같은 작품도 있다. 이 작품은 車天輅의 『五山說林』에서 발췌하여 수록한 것이다.³⁵⁾ 채제공은 자신의 이념에 맞는 인물이라면 전대 문헌에서 발췌하여 자신의 이념에 적합한 문학 형식인 전 작품으로 만들어 전달해야 했던 것도 이야기 문학에 대한 기호로 이해하기보다는 역으로 이와 같은 위기 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李家煥(1742~1801)을 비

34) 『정조실록』 20년 11월 19일조.

35) 차천로, 『오산설림초고』 85~88화. 『국역 대동야승』 II, 민족문화추진회, 1985(2쇄). 512~513쪽.

못한 당시 다수의 문인들이 만덕을 입전하거나 혹은 한시를 써 준 것 역시 이와 동등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배 이데올로기와 다소 거리가 있었던 인물이라면, 만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 양상은 심노승에게서 찾을 수 있다.

沈老崇의 〈桂織傳〉 收載 〈만덕 이야기〉 : 지배층에 대한 풍자

〈계섬전〉은 심노승이 老歌妓 계섬의 불우한 인생 유전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쓴 작품이다.³⁶⁾ 심노승의 〈만덕 이야기〉는 〈계섬전〉 후미에 붙어 있는데, 계섬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난 후, 그와 상반되는 인물로 만덕을 거론한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심노승의 〈만덕 이야기〉 전편을 수록하자.

지난해(1796) 제주 기녀 만덕이 곡식을 내어 진흙하니 조정에서는 그녀를 隸局의 婢首로 삼고 금강산 유람까지 시켜주고는 조정의 학사들로 하여금 그의 전까지 짓도록 명하였다. 지난날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는데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다하면 떠나는데 문득 그 입은 바지 저고리까지 빼앗으니 가지고 있는 남자의 바지 저고리가 수백 벌이 되어 매번 쑥 늘어놓고 햇볕에 말리니 군의 기녀들조차도 침을 뱉고 욕하였다. 육지에서 온 상인이 만덕으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이가 잇달았더니 이리하여 만덕은 제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걸하는 이가 있었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하더니 도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는 서울과 금강산 구경을 원한 것인데 그녀의 말이 낙낙기관타 여겨 여러 학사들이 전을 지어다 칭찬하였다. 내가 계섬전을 짓고나서 다시 만덕의 일을 이와 같이 덧붙이고는 세상의 명과 실이 어긋나는 것이 이러한 것이 많음을 혼자 슬퍼하니 계섬의 이른바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 하는 것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³⁷⁾

36) 김영진, 앞의 논문, 1996. 37쪽.

37) 심노승, 『계섬전』, 前年耽羅妓萬德 出粟助賑 朝廷驛召隸局婢首 遊金剛往來 乘

심노승의 〈계섬전〉 收載 〈만덕 이야기〉는 채제공의 〈만덕전〉이 씌어진 시기와 같은 1797년에 쓰여졌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이질적이다. 채제공은 만덕을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는 반면, 심노승은 만덕을 보잘 것 없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심노승은 만덕이 제주 도민을 구출하기 前年인 1794년까지 제주 목사로 있었던 심낙수의 아들이며, 심노승 역시 1794년 5월에 제주에 가서 4개월 남짓 머물렀다.³⁸⁾ 따라서 심노승의 기록이 터무니 없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심노승의 기록이 사실일 개연성이 더 높다. 특히 심노승이 직접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는데”라고 언술을 하고 있다든지, “만덕의 일을 이와 같이 덧붙이고는 세상의 명과 실이 어긋나는 것이 이러한 것이 많음을 혼자 슬퍼하나니”라고 평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심노승의 기술이 허위는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⁹⁾ 물론 심노승은 소론이었기 때문에 남인인 채제공이 쓴 〈만덕전〉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더 신랄하게 만덕을 비판했을 가능성도 있다.⁴⁰⁾ 하지만 심노승의 〈계섬전〉을 그대로 따른다면, 만덕은 자신의 욕심, 즉 서울과 금강산을 구경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재산을 내어 도민을 구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만덕이 치부를 하게 된 것도

驛官饋 命題敘傳 試閣中諸學士 嚮余在島中 聞德事頗詳 性凶悋 視金從之 金盡而去 輒奪其衣袴 所藏男子衣袴累百數 每纏纏出點晒 郡妓唾罵之 北商以德敗者相續 德富甲一島 兄弟有丐食者不顧 至是 島飢納穀 願至京遊金剛 謂其言落可觀 諸學士敘傳多稱之 余既爲桂織傳 又附見萬德事如此 竊悲夫世之名實相舛者多此類 若織所謂遇不遇又何足道也. 번역은 김영진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

38) 김영진, 앞의 논문, 1996. 연보 참조.

39)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심노승의 〈만덕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拔齒설화와 『배비장전』의 초반부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말치설화나 『배비장전』의 무대 배경이 제주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곧 만덕의 행위가 해설 소설의 배경을 제주로 삼게 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40) 김영진, 앞의 논문, 1996. 45쪽.

무역업이나 매점매석이 아닌 기생으로 있으면서 돈이 많은 상인을 쫓아 돈을 빼앗고, 돈이 떨어지면 버리는 행태로 치부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만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금과 정승,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두 속인 사기꾼인 셈이다.

만덕의 행위가 사실이든 아니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만덕을 바라보는 심노숭의 시각에 있다. 체제공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위해 만덕의 행위 결과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심노숭은 만덕의 행위 결과를 서두로 잡고 있으나, 행위 결과보다는 오히려 만덕의 치부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체제공은 제주에서의 만덕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체제공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부합되게 행동한 만덕의 행위 결과이다. 그러나 심노숭은 결과에 대한 관심보다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에 오히려 관심을 둔 것이다. 따라서 만덕은 비굴하게 재산을 모았고, 그러한 만덕의 행위에 대해 동료들까지 손가락질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체제공의 〈만덕전〉에는 10%의 재산을 친족을 구제하기 위해 썼다는 기록도 있으나, 심노숭의 〈만덕 이야기〉에는 그러한 기록은커녕 오히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걸하는 이가 있었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하였다”고 기술하여 만덕은 치부를 위해 형제도 돌아보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만덕의 치부가 정당하지 못함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심노숭은 만덕을 비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자 한 대상은 만덕이 아니었다. 심노숭은 궁극적으로 추악하게 재산을 모은 만덕을 위해 전을 짓고 추켜올리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관직에 아직 오르지 못하고 늘 병마와 씨우고 있던 심노숭은 조정의 학사들이 자신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기 위해 ‘타당치도 않은 인물’의 전을 짓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덕이 제주 도민을 구휼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의로운 행위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명과 실이 어긋나는” 세태를 마음껏 비웃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심노승은 〈만덕 이야기〉를 통해 지배층의 한심한 태도를 마음껏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계섬전〉 말미에 다시 그와 상반되는 〈만덕 이야기〉를 첨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劉在建의 〈萬德〉과 趙秀三의 〈萬德〉 : 이야기의 기호로써 수용
유재건(1793~1880)의 『이향견문록』에 수록되어 있는 〈만덕 이야기〉는 출전을 『樊巖集』으로 밝히고 있듯이, 한두 글자의 출입은 있으나, 채제공의 〈만덕전〉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이향견문록』에 전제된 〈만덕〉이 비록 채제공의 〈만덕전〉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채제공의 〈만덕전〉과 동일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채제공이 〈만덕전〉을 쓸 때와 유재건이 채제공의 〈만덕전〉에서 〈만덕〉을 ‘베껴 쓸’ 때의 시간적인 거리가 이미 65년이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유재건이 〈만덕〉을 수록할 때의 동기가 채제공과는 전혀 다를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채제공은 〈만덕전〉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지만, 유재건은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다. 양반층을 제외한 ‘里鄕의 다양한 인물들’ 중에 특기할 만한 이야기를 추려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유재건에게 채제공의 〈만덕전〉은 ‘여성들’의 이야기 30편 중에 한 편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유재건이 비록 채제공의 〈만덕전〉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유재건 일개인의 이야기 문학에 대한 기호일 뿐이지, 결코 다른 외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은 아니다. 유재건이 채제공의 〈만덕전〉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유재건이 만덕의 행위를 이야기로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 다른 이념이나 지배층에 대한 비판 같은 것은 들어 있을

수가 없다. 단순히 흥미로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만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⁴¹⁾ 이 점은 유재건이 〈만덕〉을 전사하고 난 후, 이어 출전을 『凡谷記聞』으로⁴²⁾ 밝히고 있는 한 편의 시를 더 소개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만덕이 서울에 왔을 때 기생 홍도(紅桃)가 시를 지었는데,
 女醫行首耽羅妓
 (여의 행수 탐라 기생이)
 萬里層溟不畏風
 (만리 바닷길 풍파도 두려움 없이 건너와서)
 又向金剛山裡去
 (이제 또 금강산으로 향하니)
 香名留在却坊中
 (향기로운 그 이름 교방에 남아 있네)⁴³⁾

위의 시는 채제공의 〈만덕전〉에서 보이는 교술적인 성격은 보이지 않는다. 만덕이 백성을 진휼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제주 ‘기생’ 만덕이 바다를 건너오고, 금강산을 구경한 일에 탄복할 뿐이다. 같은 기생으로서 일종의 감탄과 부러움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유재건은 채제공의 〈만덕전〉을 수용하여 移寫한 후에 이 시를 넣고 있다는 점에서, 유재건이 〈만덕 이야기〉를 수록한 것은 다른 의도가 없이, 단순히 한 여성의 기이한 일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41) 당시는 전대 문헌을 수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전대 문헌을 단순 전제하는 것이었다. 유재건도 이야기 문학에 대한 기호를 이처럼 전대 문헌을 단순 전제하는 방식으로 『이향견문록』을 편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2) 『범곡기문』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작품집 중의 하나이다. 각종 『고서목록』에도 이 이름은 보이지 않아 일실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3) 유재건, 『이향견문록』, 『里鄉見聞錄·壺山外記 合本』, 아세아문화사, 1974. 247쪽.

조수삼의 『추재기이』 수재의 〈만덕〉 역시 유재건의 경우와 비슷하다. 조수삼은 시를 짓기에 앞서 짚막하게 그 시를 짓는 데 따른 并序라 할만한 부대 설화를 기록하고 있다. 〈만덕〉 역시 그러한 짧은 이야기 71편 중의 한 편인 셈이다.

만덕은 제주 기생이다. 집안에 재산이 많았으며 한 쪽 눈에 눈동자가 둘이었다. 정조 임자년(역자: 1792년)에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만덕은 수 천 석의 곡식과 수 천 껌미의 돈을 내어 일읍의 백성을 진휼하여 살려내었다. 임금께서 그것을 매우 가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소원을 묻게 하였다. 대답하기를, “만덕은 여자이며 천인이 읍니다. 다른 소원은 없사옵고 단지 한 번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을 보고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침내 역참에 명하여 말을 내어 상경케 하고는 약원 내의녀의 행수로 귀속시켰다. 인하여 노자를 주어 금강산에 가서 구경케 하였다.

懷淸臺築乙那鄉

(회청대를⁴⁴⁾ 을나의 고향인 제주도에 지어 놓고)

積粟山高馬谷量

(곡식을 쌓아 둔 것이 산처럼 높아 마곡 고을에 쌓았구나)

賦汝重瞳眞不負

(네게 겹눈동자를 내어 주신 것에 진실로 저버리지 않아)

朝瞻玉階暮金剛

(아침에는 궁궐을 보고, 저녁에는 금강산도 구경하였구나)⁴⁵⁾

44) 회청대는 바에 살던 과부 淸이 있었는데, 재산이 요부하고 정절을 지켜 진시황이 그녀를 손님으로 대우하고 그녀를 위해 지어준 臺이다. 때문에 (女)懷淸臺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명성이 천하에 드날린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다. 『史記』貨殖列傳을 참조할 것.

45) 조수삼, 『추재집』, 보진재, 1940. 578쪽. “萬德 濟州妓也 家貲鉅萬 一隻眼重瞳 正宗壬子 州大歉 萬德出數千斛穀數千緡錢 賑活一邑之民 上大嘉之 使問其所願 曰 萬德 女子賤人也 無他願 惟願一瞻天陛 一見金剛 遂命騎駟 上京 屬之藥院內醫

위의 인용문을 보면 그 기본적인 서사 골격은 채제공의 〈만덕전〉과 유사하다. 조수삼 역시 채제공의 〈만덕전〉을 읽었거나 들었던 기억에서 그 주요 골자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채제공의 〈만덕전〉과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만덕이 금강산을 구경한 일을 기술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조수삼이 만덕의 행위에만 관심을 보였고, 만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에 감동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덕이 제주 도민을 구휼한 시기도 1795년 이든 1792년이든 상관이 없다. 만덕이 자신의 재산을 홀어 제주 도민을 구휼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다. 조수삼에게 만덕은 지배 이데올로기와 무관하며, 또한 지배층에 대한 풍자 역시 의미가 없다. 만덕은 기특한 탐라의 한 여인일 뿐이다. 그리고 〈만덕〉 역시 조수삼에게는 기특한 여인에 대해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⁴⁶⁾

유재건이나 조수삼은 〈만덕 이야기〉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단순히 흥년에 제주 도민을 위해 구휼한 기특한 한 여성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재건이나 조수삼은 〈만덕〉을 제시하면서도 시대상이나 이념 등을 담지 않고, 단순히 야담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이 처음 지어졌을 당시에는 시대적인 목적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은 사라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존재하고 있음을 유재건과 조수삼의 〈만덕〉에서 적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女行首 仍令廚傳 往遊金剛 懷淸臺築乙那鄉, 積栗山高馬谷量, 賦汝重瞳眞不負,
朝瞻玉階暮金岡”

46) 윤재민, 『조선후기 중인층의 한문학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9. 211쪽.

구비문학 : 매너리즘

제주 도민 중에 만덕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구전되는 만덕 이야기가 채록된 것은, 필자가 알고 있는 한, 다음의 기록이 전부이다.⁴⁷⁾

만덕의 본은 김해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고생하다가, 장성하여서는 교방(敎坊)에 몸 붙이고 살았는데 본래 자비심이 두터웠고 근면 절약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래서 갑인년 흉년에는 아사지경에 이른 수많은 제주 빈민을 구제하기도 하였고, 또 미리 곡식을 사들였다가 영세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이런 일로 해서, 당시의 제주 목사 이우현은 만덕 할망의 마음씨를 높이 칭송하고, 이 사실을 임금님께 여쭙었다. 임금님이 들으시고 지극히 아리따게 여겨, 목사로 하여금 할망의 소원을 묻게 하였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몸이라, 별 소원은 없습니다. 다만 조선의 명승인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임금님은 할망의 겸손에 더욱 감탄하였다. 임금님은 여러 가지 편의와 안내자를 정하여 주어 할머니로 하여금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게 하였다.

만덕 할망이 유람에서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은 별장을 지어 주었고, 영의정 채제공이 만덕 할망의 전을 지어 지금까지 전해 온다.⁴⁸⁾

위 자료는 진성기가 1958년에 용담동에서 채록한 이야기다. 그 내용이나 형식은 완전히 채제공의 전을 축약한 듯한 느낌을 준다. 만덕이 도민을 구휼한 시기가 사실과는 달리 갑인년(1794)으로 되어 있다는 차

47) 필자는 『구비문학대계』, 『제주설화집성』, 『제주도전설』, 『남국의 민담』 등을 포함한 단행본과 제주대 국문과와 국어교육과에서 발행되는 『국문학보』와 『백록여문』의 학술조사편을 살펴보았지만 만덕과 관련된 이야기는 찾을 수 없었다.

48) 진성기 편저,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74(4판). 236쪽. 1958년 7월 제주시 용담동 교부길 談.

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골격은 채제공의 〈만덕전〉과 동일하다. 이는 구술자가 채제공의 전을 토대로 구술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사자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채록되지 않은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제주 도민에게 만덕은 단순히 이야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금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설화 조사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만덕 이야기〉에 관한 한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양중해가 개작하여 쓴 〈김만덕의 자전〉⁴⁹⁾ 보면 정조가 만덕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만덕은 그 손을 명주로 감아 평생 더럽히지 않았다는 속설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곧 〈만덕 이야기〉가 충분히 구비 설화로 전승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만덕 이야기〉는 구비 설화로 전승되지 못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는 구비문학으로서 〈만덕 이야기〉는 채제공의 〈만덕전〉에서 보이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곧 〈만덕 이야기〉는 화석화되어 버렸음을 의미한다. 제주 도민에게 신화적인 인물로까지 부상된 만덕은 또 하나의 이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이념은 만덕상의 제정, 만덕관의 건립 등으로 더욱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비문학은 민중들에 의해 언제나 살아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 제도에 의해 묶여 버렸을 때, 그 이야기는 생동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한 이야기가 구비 문학으로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그 이야기는 민중들의 것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 즉,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민중을 구속하는 하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49) 양중해, 〈김만덕의 자전〉,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108~161쪽.

만덕은 제주 도민에게 아직도 영원한 ‘久遠의 女像’이다. 채제공의 기술에서처럼 백성들이 만덕으로부터 구휼을 받았을 때 모두가 “나를 살려준 사람은 만덕일세(活我者萬德)”라 칭송할 만큼 만덕은 그 때부터 제주 도민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만덕을 生佛처럼 여기며 만덕을 노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만덕을 민중의 편에서가 아닌 관의 입장에서, 지배 이데올로기가 개입됨으로써 민중들은 더이상 구비 문학으로 〈만덕 이야기〉의 전승은 끊기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만덕 이야기〉의 전승 의미

실존 인물이 문학 작품의 정면에 대두되었을 때에는 이미 그 인물은 사회에 의해 해석이 되게 된다. 작가는 被傳者를 자신의 필요에 의해 회생을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피전자는 사회의 희생물이 된다. 〈만덕 이야기〉는 이러한 전제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만덕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치부를 하여 대기근 때에 자신의 재산을 흠어 제주 도민을 구휼한 의인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 당시에 지배층인 채제공과 그와 상반되는 위치에 있었던 심노승의 견해는 다르다. 이는 피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적으로 작가의 눈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채제공은 당시의 지배층으로서 만덕을 본 적도 없었지만, 만덕의 행위가 자신들의 이념에 부합되기 때문에 굳이 만덕의 행위 결과만으로 작품을 만들어 후세까지 유전시켰다. 채제공에게 만덕은 단순히 자신의 이념의 잣대에 잘 들어맞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반면 심노승에게 만덕은 또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만덕의 행위 결과보다는 행위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중시하여 자신과 상반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을 풍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었다. 심노승에

게 만덕은 지배층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셈이다. 이처럼 어떠한 목적으로 실존 인물을 이야기화하는가에 따라 그 인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으로 창작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이야기는 사회에 침윤하게 된다. 상반된 이야기 중에는 설령 그 내용이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지배층의 작품이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배층이 지은 작품은 사회 속에 무르익게 된다. 그러나 이 때 그 작품은 애초의 이데올로기나 비판은 사라지고, 다만 하나의 이야기로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야기의 끝자만으로 하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유재건과 조수삼의 〈만덕〉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 유재건과 조수삼에게 만덕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의 하나일 뿐이다. 여성으로서, 기생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홀어 제주 도민을 구휼한 만덕에 대해 유재건이나 조수삼은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만덕을 무슨 이유로 작품화시켰는가에 대한 의미는 이미 사라졌다.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로 조수삼과 유재건은 만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내용은 문헌에 기록된 것과는 다르다. 한 인물이 사람들에게 회자될 때는 그 인물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감 산삭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만덕에 관한 한 구비 설화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제주 도민들은 “나를 살려준 사람은 만덕일세.”라고 칭송을 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민중들의 곁에 있던 인물이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로 침윤되어 버렸을 때, 민중들은 더이상 자신들의 주변 인물로 만덕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집단에 의해 숭앙되는 인물로 만덕은 부상되었던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도 만덕은 신화적인 인물로 숭앙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만덕은 ‘내 할머니’, ‘우리 할머니’로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맺는 말

이상으로 〈만덕 이야기〉가 어떻게 전승되어 왔으며 그 의미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앞의 논지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기로 한다.

만덕은 18세기 제주에 살았던 인물로 1795년 제주도의 대흥년 때 재산을 내놓아 제주 도민들을 구휼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과 금강산을 구경하게 된다. 그러나 만덕이 도민을 진휼하기 이전부터 제주도는 심한 기근에 놓여 있었고, 高漢祿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자신의 사재를 내놓아 구휼하고 있었다. 만덕은 이 중 여성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어 당시 제주 여성은 바다를 건너 육지로 갈 수 없는 것이 국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갈 수 있었다. 만덕이 이러한 행위는 장안에 회자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만덕과 관련한 글을 남겼다.

채제공은 〈만덕전〉을 썼는데, 이는 지배층의 입장에서 만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같은 시기에 씌어진 심노승의 만덕은 지배층이 아닌 입장에서 만덕을 보고 있다. 전자가 만덕을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다면, 후자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이는 그 인물에 대한 포품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각기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들의 의도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정반대의 내용이 나온 것이다. 채제공은 당시 지배층으로 있었기에 기강의 확립을 위해 지배 이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런 까닭에 만덕의 행위는 채제공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나가는 데에 적절하였기 때문에 만덕이 어떻게 치부를 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그 결과에 관심을 두었다. 반면 심노승은 당시 환로에 나아가지 못한 선비였던 까닭에 자신이 제주에 있으면서 들었던 만덕의 추악한 치부 과정을 밝히고 그런 만덕의 행위를 앞을 다투어 칭찬하고 있는 당시 지배층에 대한 풍자를 위해 〈만덕 이야기〉를 썼던 것이다.

따라서 심노승에게 만덕은 단순히 당시 지배층을 풍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던 것이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만덕의 행위는 사대부들이나 여항간에서 단순히 기이한 행위를 한 여인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 유재건은 체제공의 〈만덕전〉을 그대로 베껴쓰고 있으나, 그 수록의 동기는 체제공처럼 지배 이데올로기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한 여성으로 제주 도민을 구휼한 기특한 사건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 점은 조수삼도 동일하다. 유재건이나 조수삼은 〈만덕 이야기〉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다만 〈만덕〉을 제시하면서도 시대상이나 이념 등을 담지 않고, 단순히 야담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이 처음 지어졌을 당시에는 시대적인 목적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은 사라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존재하고 있음을 유재건과 조수삼의 〈만덕〉에서 적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만덕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비문학으로 채록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만덕이 이야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제도로 만덕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구비문학으로서 생명력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덕은 더이상 ‘내 할머니’나 ‘우리 할머니’로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만덕은 살아 있다. 어디를 가든 제주 도민들은 만덕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도 아무도 만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만덕을 이야기하더라도 모두가 체제공이 〈만덕전〉에서 이야기한 것과 차이가 없다. 과연 그 모습이 진정한 만덕의 모습인가? 당시 제주 도민들이 “나를 살려준 사람은 만덕일세.”라고 칭송을 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되었던 만덕의 참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당시 춤을 추며 ‘내 할머니’, ‘우리 할머니’로 가장

가까이 있던 만덕은 이제 저 높은 위치에서 자리하고 있다. 지배층의 이데올로기, 혹은 被傳者를 통해 지배층에 반항하는 논의를 벗어나 만덕은 제주 도민들 마음에 살아 있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살아 숨쉬던 만덕이 어쩌면 스스로 읊아맨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물음을 던져본다.

김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해석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김 경 애

서론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해 현대를 사는 우리가 떠올리고 평가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또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문화에 젖어 있으면서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한 평가는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역사 속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의 업적은 무시되었다.

그 동안 잘 알려지고 드러난 여성으로는 유관순과 신사임당을 들 수 있다. 유관순은 어린 소녀로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것과 그 처절한 죽음으로 인해 반일의 구심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신사임당의 경우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여성의 모델로 제시되면서, 여성은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전면적으로 활용되었다.

최근 역사 속의 여성인물을 새로 발굴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업적을 남기거나 사회에 공헌한 여성들을 발굴하고 새롭게 평가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여성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18세기에 제주도에서 태어나 한때 기생이었으나 부를 이루고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였던 김만덕(이하 만덕)의 삶을 오늘날 다시금 조명하고 되새기는 작업은 만덕의 공헌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데 그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만덕의 삶과 그녀의 공헌이 오늘을 사는 현대 여성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기본적인 윤리로 채택하고 있다. 새로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만덕을 평가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만덕의 삶이 현대 여성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가름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주 여성들은 우리 나라에서 여성주의가 받아들여지기 이전에 이미 부분적으로 여성주의를 실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제주 여성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화에 등장하는 페미니스트인 여신인 자청비와 가문장아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덕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첫째, 만덕과 가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차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가족이 만덕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만덕은 가족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했는지 살펴본다. 둘째, 만덕의 직업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주도 여성들은 가외노동을 일상적으로 행하지만(최재석, 1979),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누구나 직업을 갖는 것은 아닌 것이어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만덕의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의의를 밝힌다. 또한 전통사회가 부여한 여성의 역할을 뛰어넘어 새로운 직업 영역을

개척하고 이를 통해 부를 쌓은 만덕의 삶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셋째, 막대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이를 통해 전통사회가 제주도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금기를 극복하고 결국, 유교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인정을 받게된 점을 평가하고자 한다.

만덕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존의 기록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덕에 대한 기존의 기록은 조금씩 다르고 또한 만덕의 삶의 전모를 이해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만덕의 삶의 궤적은 앞으로도 더 밝혀져야 하고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제주도가 1998년 발간한 <구원의 여상, 김만덕>의 기록이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를 기본 자료로 삼아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만덕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그런데 <구원의 여상, 김만덕>도 실지 만덕을 얼마나 잘 나타내주는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 기록은 그 책에 같이 수록된 채제공이 쓴 <만덕전>과 이가환이 쓴 시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채제공은 정조 때 우의정 등 오랜 동안 벼슬을 지냈고 이가환도 당시 병조판서로 있어 이들은 사대부로서 당시 유교가 여성에게 부과한 정절 이데올로기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체로 이들이 만덕을 평가할 때 유교적 규범의 틀 내에서 평가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을 쓴 저자도 채제공의 <만덕전>과 이가환의 시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면서 만덕을 유교의 규범에 충실한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은 남성의 시각에서 쓰여진 전기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만덕의 삶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실을 토대로 여성의 시각에서 전기를 다시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여성과 여성주의

신화 속에서 나타난 여성의 모습을 살펴보자. 제주도의 신화는 여신이 많고 여성중심적인 신앙인데(김정숙, 2002:42), 신화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모습은 다양하다. 자청비, 가문장아기, 강림의 큰부인 신화 등에서 다양한 제주도 여성의 원형이 드러난다. 제주도 신화를 연구한 김정숙은 사랑하는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청비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하고, 또한 거침없고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제주도 여성의 원형이라고 보고 있다. 페미니스트 자청비 신화는 내외법 등 유교적 질서가 제주도에서는 훨씬 덜하였기(김정숙, 2002:88) 때문에 출현할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가문장아기의 경우에도 김정숙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우리는 제주도의 많은 여성들에게서 가문장아기를 만날 수 있다. 이 여성들은 남성(남편)이 없어도 스스로 완전하다. 그녀는 남성의 동의나 협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이해에 따라 일한다. 남성들보다 더 용감하게 쟁기로 밭을 갈고, 마치 저승과도 같이 까마득한 바다로 자맥질하면서 바당발을 개척해 내었던 도전적인 제주의 잠수들… (김정숙, 2002:116)

자청비와 가문장아기 등의 신화 속에서도 여성의 모습은 활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나가며 또한 독립적이다.

그러나 자청비와 가문장아기 신화에서 이들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는 가부장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자청비의 경우 ‘시주가 모자라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나게 된’ 존재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드러내어 제주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비껴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녀의 아버지는 여성의 전형적인 일을 하도록 가르쳤으며 (김정숙, 2002:71), 공부하는 여성에게는 금지되어 있어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던 것에서 신화가 배경으로 하는 사회가 성역할 구별이 확인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청비는 길을 떠날 때 스스로 남장을 하는 등 ‘여성적 경험과 이미지도 부정하는 소외와 왜곡의 어려움을 맛보아야 했으며…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이중 의식에 시달려야 하는’ 여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정숙, 2002:77).

가문장아기의 경우 부모에 대해 감사하는지를 확인하다가 자신의 삶의 유지에 자신의 공로도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는 가부장적 질서를 강요하는 기성세대와 이를 거부하는 여성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생존하는 것은 하늘과 땅, 부모의 덕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선그릇(음부) 덕으로 먹고산다고 대답한 것은 자신이 독립적인 개체임을 주장하는 것이며 또 한편에서는 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성적 대상이며 자손을 낳는 존재로서 가치를 갖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 가문장아기가 홀로 삶을 개척하기보다는 스스로 남편을 선택하여 함께 살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여 부를 이룬 것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인정받으면서 사회에서 지위를 획득해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주도적인 삶을 살지만 겉으로는 가부장적 규범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와 타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문장아기 자신은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 쫓겨났으나,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막내아들을 남편으로 선택함으로써 효 문화를 존중하고 이에 대해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이 신화는 가문장아기가 불효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버림받게 되나 스스로 남편을 선택하고 부를 일구어 결국 거지가 된 부모를 찾아 효를 실천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가문장아기가 자신이 일구어낸 성공을 토대로 효를 실현한다는 것은

유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그녀의 성공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결국 유교의 가치 실현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와 타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신화에는 강림의 큰부인처럼 조강지처로 남편에 대해 헌신하는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여성상도 나타난다. 이러한 신화를 통해서 볼 때도 제주도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유교 문화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강오륜의 유교 윤리에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부부유별의 규범에 기반하여 남편과의 관계를 통하여 온전하게 유교 사회에서 존재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에 의하여 여성은 유교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었다. 결혼 밖에 있는 과녀, 독신녀는 유교 사회에서 주변적인 존재로 천대시되었다.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도 이들의 출산을 통해 가족 관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가문을 이어가고 빛낼 아들이 남편의 자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여성에게 엄격한 정절 이데올로기가 부과되었고 남편의 사망 이후에도 정절 이데올로기는 지켜져야 했다. 불강이부의 윤리가 강요되었으며 여성의 정절은 가문의 번영에도 직접적인 관련을 맺어, 열녀를 탄생시킨 집안은 천민일 경우 상민으로 승격되었고 나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관심사였다. 부부유별의 윤리는 현실에서는 엄격한 내외법으로 실행되어 여성을 규정하였는데 공간적으로 여성은 집안에 머무르면서 가정 내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온전한 여성은 집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당했고,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결코 높이 평가되지 못했다.

여성주의(Feminism)는 기본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정이나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여성주의는 왜 여성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차별받고 억압받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차별을 없애고 억압에서 해방될 것인가에 대해서 각기 여러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여성주의 이론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분명한 것은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여성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여아에 대한 가정 내의 차별은 부당하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을 가사 노동이나 자녀양육의 전담자로 규정하는 것 또한 타파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정 내의 차별과 성 역할 고정관념이 사회로 연장되는 현실을 비판한다. 따라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역할을 한정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여성은 사회에서 남성들과 함께 전 분야에서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 관계에서 여성에게는 엄격한 정절을 요구하면서 남성은 자유로운 성을 구가하는 이중적 성 윤리는 타파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주의는 유교의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윤리를 맹렬히 비판한다.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요하는 이중적 성 윤리를 비판하면서 결혼 밖에 있는 독신녀나 이혼여성, 과녀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을 비판한다. 또한 여성에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여성도 개인으로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또한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에 묶어두는 것을 거부하고 여성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유교의 엄격한 규범이 정착하기 시작한 18세기에 제주도에 살았던 만덕의 삶에 있어서 차별적이고 엄격한 유교 윤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제주도에서는 유교 윤리에 기반한 가부장적 문화가 육지에 비해 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재석, 1979). 제주도는 척박한 토양과 소규모의 토지에 발농

사를 지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지극히 낮았고 따라서 험한 바다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구나 생산에 참여하여 제몫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반과 상민, 적자와 서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란 것이 사실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평등과 공정의 분위기는 제주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었다’(김정숙, 2002:35). 여성은 농사에서 아주 힘든 일을 제외하고는 남성과 공동으로 또는 주로 담당하였으며 농사일에 있어서 여성의 참가율은 육지에 비해 높아(최재석, 1979:91) 내외법도 엄격하지 않았으며, 바다에서도 해녀로서 일하면서 여성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권리 또한 상대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는 제주의 고유성을 만들어내었던 것이다(김정숙, 2002:37).

제주도는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육지와는 매우 다르다. 최재석에 따르면 토지가 척박하여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자립정신이 전통이 되어(최재석, 1979:82) 장남도 부모와 분가하여 핵가족의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서로 독립적으로 산다. 그러나 가사 일은 대체로 여자가 담당하며 핵가족이기 때문에 다만 여자가 물질이나 김매기에 종사할 때는 남자가 일이 없으면 아이를 돌보았다(최재석, 1979:72~73).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심이 강한 제주 여성들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아 이혼율이 높았고 재혼이 육지에서처럼 금지되지 않고 첩살이도 육지와 다른 형태를 띠면서 드물지 않았다. 제주도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음은 분명하나 유교 윤리가 육지와 같이 엄격하게 여성에게 적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화를 통해서도 제주 여성들이 결코 가부장적 사회에 순응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청비와 가문장아기는 가부장적 질서를 거부하고 활달하고 개방적이며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이들은 제주도 여성들의 특징의 한 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은 현대사회의 여성주의가 추구하는 여성상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버림받음/독립과 구원

가족은 유교 전통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삶의 중심이었다. 오륜 중에서 부부유별, 부자유친, 장유유서 등 세 가지가 가족 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가족은 인간관계의 중심이었고 가장 중시되었다. 특히 ‘안사람’인 여성은 평생에 걸쳐 가족 내의 위치가 삶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도 분가하는 문화 속에서 가족 관계가 상당히 독립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만덕의 삶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일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음/독립

만덕의 삶의 어려움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이어 사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큰오빠 김만석(당시 23세)은 부모의 사망 이후 결혼하였고 작은오빠는 백부 집에 의탁을 하였으나 만덕은 먼 친척 집에서 지내다 열두 살의 나이에 기생의 수발을 드는 하녀로 얹혀 살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주도, 1989: 25~27).

부모님의 사망 이후 삼 남매가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것은 부모님 생전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음을 말해준다. 오빠들이 당시 20세 전후로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덕이 오빠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 것은 오빠들도 경제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작은오빠가 백부 집에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공동체가 복지 기구로서의 성격을 띠면서 보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만덕은 가족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생의 하녀로 일해야 했다. 경제적 자원이 한정된 가운데 아들 중심의 문화 속에서 딸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소홀하게 취급되었고, 결국 만덕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청비처럼 ‘시주가 모자라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나게 된 완전하지 못한 존재, 결핍된 존재’(김정숙, 2002:71)인 딸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로 인해 만덕이 친척으로부터도 외면당했고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신화 속에 가문장아기처럼 만덕도 어린 나이지만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진취적인 여성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지만 가문장아기에게서 가련한 여성으로서의 모습은 없다. 가문장아기처럼 만덕도 부모를 여윈 것은 슬픈 일이지만 오빠나 친척의 도움이 없었다고 해서 가련한 처지로 자신을 한탄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을 시기한 두 언니에 대해 가차없이 복수를 행하고 집을 나서는 가문장아기에게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떠나는 독기 품은 당당한 여성을 볼 수 있다. 가문장아기는 하룻밤 지도록 허락받은 집에서 밥상을 차려 밥을 대접하는 것으로부터 막내아들과 관계를 튼다. 가문장아기가 삶을 개척하기 위해 처음 했던 일이 남의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만덕도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처음 일이 남의 집 살이로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었다. 가문장아기처럼 만덕도 남의 집에서 밥 차리는 일을 슬픈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가는 데 있어 처음 하는 일로 당당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가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성공과 포기

기생의 집에 보내진 만덕은 처음에는 살림을 돌보았으나, ‘영리하고 부지런’하여(제주도, 1989:27) 기생은 만덕을 수양딸로 삼았다. 이어 노래와 춤, 거문고 등의 기예에 재능이 있는 것을 본 기생은 그를 기적에 편입시켰고, 그 이후 만덕은 노래, 춤, 악기들을 본격적으로 배워 기생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만덕은 타고난 미모와 상냥한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고 정결한 몸가짐과 뛰어난 기예는 널리 알려져 관가에서 베푸는 연회에는 물론 민가에서 벌이는 놀이마당에도 초청받았다. 만덕은 자색과 풍류로 기예에 종사한 지 5년 만에 명기로 명성을 날렸다(제주도, 1989:30). 만덕은 ‘앞이마엔 해님이요, 뒷이마엔 달님이요, 두 어깨엔 금새별이 송송히 박힌 듯한’(김정숙, 2002:63) 자청비와 같이 아름다운 자태와 재주로 남성들의 연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만덕이 명기로 명성이 드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로부터는 ‘싸늘한 원성’을 받았고(제주도, 1989:30), 친척들이 모이면 만덕으로 인해 천민의 대접을 받는다는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 만덕이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집안에는 타격이 컸다(제주도, 1989:31)는 것이다. 기생을 명기로 칭송하는 것과는 별개로 유교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주도에서도 못 남성들의 앞에서 기예를 내보이는 기생은 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그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도 관련되었던 그 시대에 만덕이 기생으로 명성을 날리는 것은 양민이었던 본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었다. 따라서 그녀의 성공은 가족들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집안이 부유해진 것을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가문장아가나, 계집년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오히려 위협시켜 집에서 내쫓김을 당한 자청비(김정숙, 2002:67)와 같이 만덕이 기예에 능한 것은 가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능력이었을 뿐이었다.

만덕의 가족은 만덕이 생존의 과정에서 기생이 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했으나 다시 가족이 천대를 받고 피해를 받는다고 만덕을 비난하게 되었고 만덕은 자신으로 인해 오빠들을 비롯한 친척이 천민 대접을 받고 조상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라 생각하여 기생을 그만 두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만덕은 집요하게 관가에 탄원하여 기적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기생의 일을 접게 된다. 만덕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생존을 위해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기생으로 성공하였지만 자신을 버린 가족의 명예를 위해 부와 명예와 일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자신의 성공을 버리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기적에서 빠져나온 만덕은 유교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지는 못했다. 형제와 친척들은 만덕이 기생을 그만둠으로써 양민으로 천시에서 벗어났지만 유교 사회에서 만덕 스스로는 양민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자청비나 강림의 큰부인 등은 남성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었고 가문장아기의 경우에도 남성과의 결혼을 거부하지는 못했다. 이는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이 결혼을 거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주변적인 인간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덕이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미 기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치보다는 첩으로서 남성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여성이 생활력이 강하여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혼을 제기하여 이혼한 여성이 많았고 또 재혼도 육지만큼 금기가 아니어서 이혼하거나 사별녀는 대부분 재혼을 하는데, 인구 분포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아 재혼이 여의치 않은 경우 첩이 되었다(최재석, 1979). 첩의 경우 대체로 남자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기도 하였으나 집이나 토지를 얻어 스스로 경작하여 살아 전통적인 양반가의 첩과는 판이하게 달랐다(최재석, 1979:200;217).

명기로서 경제적으로 기반을 갖춘 만덕은 남성에게 자신을 의탁하여 의존적으로 살기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는 가문장 아기가 ‘남성에 대해 헌신적인 것들을 암암리에 거부하고… 자아정진에 주력하는 강한 모습’(김정숙, 2002:119)을 보인 것과 상통하고 있다.

만덕은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객주를 시작하였다. 객주 경영은 당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직업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객주를 경영하는 일도 주로 남성을 상대하는 일이어서 결코 조선조 유교 사회에서 귀한 일이 아니었지만 양민으로 인정받은 가족이 객주를 경영하는 것을 천한 일을 한다고 또다시 만덕을 제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구원자

만덕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도 했으나 결코 가족과는 별개로 존재할 수 없어 양민으로서의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부와 명성을 안겨주는 기생이라는 직업을 버렸다. 가족은 만덕의 고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더 나아가 만덕을 비난하고 옥죄는 존재였다. 그러나 만덕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옥죄었던 가족을 원망하지 않았다.

1792년(정조 16년)부터 1795년(정조 19년) 제주도예 기근이 계속되자 기아에 허덕이는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해 만덕은 객주 경영과 유통으로 이룬 전 재산을 털어 산 쌀 5백 석 중 10분의 1인 50석을 친척과 은혜를 입은 사람과 자신이 거느린 직원들의 가족을 돌보는 데 쾌척하여(제주도, 1989:48), 오히려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는 구원자가 되었다.

만덕의 구휼사업은 제주도민을 비롯한 백성의 칭송을 받았고 특별히 임금으로부터 치하와 포상을 받게 되어 가문 전체의 명예를 드높였다.

당시 제주도에 귀양온 추사 김정희가 손자인 김충주에게 만덕에 대한 찬사글을 남김으로써 만덕의 명성은 후대에까지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오빠 만석은 만덕의 구휼사업을 도운 공로가 인정되어 가선대부(嘉善大夫)라는 칭호가 조정으로부터 내려졌다. 한때 만덕은 당시 천대받는 기생의 신분으로 오빠에게 신분상의 누를 끼치는 것을 번민하여 기적에서 빠져 나오게 되었으나 만덕은 오빠와 구휼 사업의 공로를 함께 나눔으로써 오히려 가족에게 명예를 안겨주게 되었다.

만덕은 경제적으로도 가족을 이끌었다. 만덕은 오빠 만석과 사업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이며 오빠의 아들 또한 사업을 돕게 하였다가 그가 죽자 오빠의 손자에게 사업을 의탁함(제주도, 1989:81)으로써 자신의 사업에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편 이를 통해 가족의 번영을 이루게 한다. 가족은 만덕의 기생 일이 천한 일이라고 배척하였으나 당시 사농공상의 서열에 따라 가장 지위가 낮았던 직업이지만 많은 부를 안겨다주는 상업에 함께 참여하여 만덕의 사업은 가족 사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만덕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홀로 성공하였고 가족의 명예를 위하여 기생으로서의 신분을 버리기도 했으나, 오히려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는 구원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높였고 가족에게 부를 안겨주는 존재가 되었다. 가문장이기처럼 만덕도 자신을 버린 가족을 구원하는 존재로 가족의 인정을 받게 된다.

직업과 기업인으로서의 성공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부모의 슬하에서 지내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었다. 여성이 가정에서 벗어나 직업을 갖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만덕의 경우 부모님을 일찍이 여의고 자신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이를 위해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성의 전통적인 일인 가사노동의 연장적인 직업과 새로운 직업을 개척하여 열심히 종사하였고 결국 성공하였다.

가사노동의 연장적인 직업

전통사회나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가사노동 종사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여성은 가정 밖에서 직업을 가질 때도 가사노동과 관련되는 직업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직업이 되어 왔다. 만덕의 첫 번째 직업은 기생의 하녀가 되어 기생의 수발을 드는 일이었는데, 임금 없이 생계만 의탁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게 개방된 직업이 극히 한정된 사회에서 가사노동 조력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시대로서는 최선이었을 것이다.

만덕이 가진 두 번째 직업은 기생이었다. 생계를 위해 기생의 하녀로 일하다가 양녀가 된 만덕에게는 어찌면 피할 수 없었던 직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생에는 1패(牌), 2패, 3패 등의 3종류가 있었는데, 만덕은 1패에 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1패는 주로 악기를 연주하고 춤과 노래를 하는 기예인으로 현대적으로 보면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생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의 연회를 위해서 요청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생은 집 안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시중 드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보다 전문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으로는 천시되는 직업이었다.

기적에서 빠져 나온 만덕은 결혼을 거부하였는데, 기생이었던 자신의 과거는 전통사회에서 계속 지울 수 없는 멍에이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였다. 가족을 위해 기생을 그만 두었으나 한때 기생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전통 사회가 바라는 여성상과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유교 전통사회에서 주변부에 머무르는 독신자로서의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의 삶을 독자적으로 개척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택한 세 번째 직업은 객주 운영으로, 이것 또한 가사노동의 연장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술과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객주를 운영한 것은 전통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만덕이 초기에 가졌던 3종류의 직업은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하는 가사 노동의 연장적인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이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덕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기반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성은 가정 내에 머무르면서 시부모 봉양, 남편 시중 들기, 가사일과 자녀양육 등 전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사회에서 만덕이 직업을 갖는다는 자체가 일탈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가정 내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이 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것과 같이 가정 밖에서 행해지는 가사 노동의 연장적인 일도 결코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는 직업이 아니었다.

그러나 만덕이 가사노동의 연장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은 가문장아가 밥짓기의 가사노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 대비된다. 가문장아기는 마침내 막내아들이 자신이 지은 밥을 맛있게 먹음으로써 존재를 인정받았고, 막내아들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갓과 망건을 씌어 놓음으로써 막내아들이 형들로부터도 ‘질을 꾸벅’ 받음으로써 존경을 받게 한다. 가문장아기의 가사노동은 자신이 의탁하는 집 안에서 위치를 확보하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까지 지위를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만덕의 가사노동은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되는 터전을 닦게 해준 것이었다.

새로운 직업에의 도전과 성공

만덕은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직업이나 가부장제 사회가 필요로 했던 여성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객주

를 운영하면서 객주를 드나들던 상인들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개척해나 가게 되었다.

당시 이양법의 발달로 농업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곡물이 상품화되어 유통되었고 곡물 이외에도 면화, 모시, 인삼, 과일 등의 상업 작물이 적극 재배되었는데 이는 상업의 발달을 수반했다. 조선 후기에는 항해술과 조선술의 발달로 해상교통이 크게 발달하였다(이덕일, 2003). 해상교통을 통해 상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포구는 해상교통의 중심으로서 포구를 중심으로 유통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으며 만덕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주목하였다.

만덕의 객주는 여관 구실도 했지만 외지 상인들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거나 거간하는 중간상의 역할도 했다. 만덕은 객주를 중심으로 삼배, 모시, 청포, 비단과 지물, 잡화, 쌀 등을 사들여 팔았으며 제주의 양반층 부녀자에게 육지의 옷감이나 장신구, 화장품 등을 팔고, 제주 특산물인 미역, 전복, 표고, 양태, 말총, 약초 등을 수집하였다가 육지 상인들에게 공급하였다. 만덕은 박리다매, 정직 매매, 신용본위의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육지인과 제주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하였다(제주도, 1989:34~36). 만덕의 객주는 곧 번성했다.

만덕은 관가의 물품도 조달하게 되었는데, 선상들의 물품을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여객 주인권이나 포구의 상품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포구 주인권을 획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만덕은 자신의 포구에 적극적으로 선상을 유치했고 그 자신의 창고와 선박까지 소유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이덕일, 2003; 제주도, 1989:35).

그 시대에 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로서 만덕은 여성에게 주어진 한정된 역할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 변화를 읽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유통업을 개척하였던 것이다. 또한 강한 추진력으로

만덕은 유통업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부를 축적함에 있어 상(商)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데 어긋남이 없었다. ‘만덕의 객주를 통해 제주도민은 육지의 물건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또 제주물건도 적당한 시세로 팔 수 있’(제주도, 1989:36)어서 제주도민의 이익 증진에도 부합하였다.

만덕은 가부장적 유교 사회에서의 여성, 특히 기생 출신인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지고 강한 생활력을 가진 제주 여성의 특징을 살려 부를 이룩하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갔다. 가문장아기는 자신이 의탁한 가족이 생계 유지의 터전이었던 마 파던 들판에 나가 자갈을 일구어내고 그 속에서 금을 파내어 거부가 되었다. 먹기 위해 늘 마를 파던 들판에서 자갈을 일구는 일로 전환함으로써 거부가 되었다. 만덕은 가문장아기처럼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객주 경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 거부가 될 수 있었다.

부의 환원과 명예 획득

만덕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었는데 더 나아가 막대한 부를 가졌지만 만덕 자신은 늘 검소하게 생활하였으며,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활 철학이었고 또한 이를 실천하였다(제주도, 1989:36). 결코 만덕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정조 17년(1793) 무렵 제주도에 흉년이 계속되었다. 정조 19년 제주도민을 구휼하기 위해 조정에서 보낸 곡물 1만 1천 석을 싣고 떠난 두 번째 수송선박 중 다섯 척이 침몰하면서, 보릿고개가 다가오는 제주도에서 아사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쌀을 사오게 했다. 이렇게 사온 곡식이 모두 500여 석, 만덕은 이 중 10분의 1을 친척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450여 석을 모두 진흙미로 내놓았다. 객주 운영과 유통업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굶고 있는 제주도의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놓은 것이다. 자청비가 마음씨 좋은 노인들에게 대풍년을 들게 해주었듯이 만덕은 제주도민을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곡식 500여 석은 당시로서는 막대한 양으로 제주도 남성 부호들이 내놓은 양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제주도의 현감이었던 고한록이 300석을 내놓자 이를 당시 ‘무려 300석이나’로 표현하여 그 양이 엄청난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만덕은 그보다 더 많은 쌀을 내놓음으로써 남성을 능가하는 능력을 보이면서 주위를 놀라게 하고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였다.

왕실의 치하와 포상

임금과 중전 치하와 포상

만덕이 제주도민을 아사로부터 구한 공로는 뒤늦게나마 조정에도 알려졌다. 정조는 만덕의 공헌을 치하하고 제주 목사를 시켜 ‘만덕을 불러서 그 소원을 물어보고 난이를 논하지 말고 특별히 시행할 것’을 명하였다.

만덕은 이에 대해 ‘다른 소원은 없사오나 오직 소원이 있다면 한번 서울에 가서 임금님 계시는 궁궐을 우리러보고 천하명산인 금강산 1만2천봉을 구경할 수 있다면 한이 없겠습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임금은 이를 쾌히 허락하고 역마를 하사하여 서울로 가는 길의 관에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라는 분부를 내렸다(제주도, 1989:52).

만덕이 임금을 알현할 때 임금은 ‘너는 한낱 여자의 몸으로 의기십

을 발휘하여 천백여 명의 굶주린 백성을 구호하여 귀중한 인명을 살리었으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다.'라고 치하하고 상으로 중국 비단 다섯 필을 내렸다. 임금의 치사에서 '한낱 여자의 몸으로'라는 말은 당시 여성의 지위가 하찮았고 여성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낮았음을 시사한다. 만덕은 그러한 전통적인 여성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하고 치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내전에서 중전을 알현했을 때에도 중전은 만덕에게 치하와 위로의 말을 하였고 장신구를 상으로 내려 공로를 치하하였다(제주도, 1989:58).

겨울이 닥쳐와 금강산 구경은 봄으로 연기되었고 내의원에서 머무르면서 서울 구경을 하였다. 다음해 3월 임금은 강원관찰사에게 명하여 만덕이 금강산을 구경하는 데 모든 준비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제주도, 1989:60).

최고의 벼슬에 오르기

사회적 공헌이 큰 경우 남성에게는 벼슬을 내리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유례가 없어 정조는 만덕에게는 소원을 묻고 그것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당시 평민이 그 신분으로는 직접 임금을 알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덕에게 여성의 벼슬 중 가장 높은 내의녀 중에 최고인 의녀반수에 명한다. 비록 실질적인 벼슬은 아니었고 명예직이었으나 만덕은 당시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벼슬에 오른 셈이었다.

만덕은 제주도민을 아사에서 구한 공로로 소원대로 서울로 가서 임금과 중전을 알현하였고 여성 최고의 벼슬과 하시품을 받았으며, 임금의 배려로 궁전 내에서 머물면서 서울 구경은 물론 금강산 구경을 하였다. 만덕은 자신의 공로로 임금과 중전 등 조정으로부터 당시 전통적인 여성상을 뛰어넘는 여성으로 인정을 받았다.

사회의 인정

제주도민의 감사와 존경

전통적인 유교 윤리에 따라 여성은 시부모 공양이나, 남편 시중, 가사 노동, 자녀 양육과 출세시키기를 통해서나 정절을 지킴으로써 열녀가 되어 사회의 인정을 받았으나 만덕은 이러한 것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될 수 없는 여성이었다. 만덕이 명기로 명성을 날릴 때 가족에게는 불명예가 되었고, 남의 집 살이, 기생, 객주 경영은 당시 사회로부터 결코 존경 받는 직업이 아니었으며 만덕은 유교 사회 주변부에서 머무르는 존재였다.

그러나 만덕이 기아에서 허덕이는 제주도민을 위해서 쌀 450여 석을 내놓자, 만덕이 내놓은 쌀로 기아에서 벗어난 기민들은 ‘우리의 목숨을 만덕이 살렸으니 만덕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다.’라면서 감사해했다. 만덕이 서울과 금강산을 다녀 제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포구에 가족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환영을 나갔으며 ‘3일 동안 음식을 만들어 만나러 온 사람들을 대접하였다.’(제주도, 1989:80).

만덕은 서울에서 돌아온 후에도 장사는 전과 다름없이 계속하면서 검소한 생활로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쌀을 주어 자선사업에 주력하였으므로 온 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만덕 할머니〉로 통칭되었다. 주변부 여성으로 살아온 만덕이 제주도민으로부터 모두의 〈할머니〉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만덕이 1812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온 도민의 애도 속에서 안장되었는데 당시 판관이 만덕의 행적을 비문으로 지었다.

일반 백성들의 칭송

만덕이 제주도민으로부터만 존경과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만덕이 임금을 알현한 후 금강산 구경을 하기 위해 지나는 길목에서나 만덕이 머무는 동안의 서울에서도 만덕의 업적은 회자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칭송하였다. 만덕이 서울을 가기 위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만덕의 얼굴을 보고자 하였고 때로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어 인심이 후함을 느꼈다’(제주도, 1989:54). 금강산 유람을 할 때에는 관동영은 어명에 의한 금강산 유람이라 하여 상하가 떠들썩(제주도, 1989:60)하도록 만덕을 잘 모셨다.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자 장안에서는 만덕의 업적이 화제가 되어 있었다. 나이가 육십에 가까이 다달았음에도 여전한 미모와 명기로서의 명성, 장사 솜씨와 이를 토대로 쌓은 부, 무엇보다도 굶주린 백성을 위해 재산을 쾌척한 것은 장안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임금의 어명에 따라 금강산 유람을 하게 된 것과 벼슬을 내린 것 또한 화젯거리가 되었다 이와 함께 많은 사람이 만덕을 칭송하고 만나보기를 원할 정도로 명성을 얻었는데, 병조판서 이가환이 만덕에게 헌정한 시에서 ‘돌아오니 찬양하는 소리가 따옥새 떠나갈 듯하고/ 높은 기풍은 오래 머물러 세상을 맑게 하겠지’라고 써서 만덕에 대한 칭송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유교 선비들의 헌사

당시 유교 선비들도 앞다투어 만덕을 칭송하였다. 서울에서 벼슬을 하는 선비들은 조선조 통치 윤리인 유교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이들도 만덕을 칭송하는 헌사를 앞다투어 지어주었다. 좌의정 채제공은 만덕전(萬德傳)이라는 전기를 써주었고, 병조판서 이가환은 그의 업적을 기리는 시를 지어주기도 하였다. 유교의 윤리를 실천

하는 데 앞장서는 선비들이 만덕을 칭송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남의 집 살이 하는 가난한 고아였고, 기생이었던 전력은 이미 극복되었고, 만덕은 성공한 기업가이자 일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남을 위해 쾌척한 자선 사업가임을 인정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가환이 쓴 시에서 ‘여회청대(女懷淸臺)로 이름은 어찌 족히 몇이나 있으니.’라고 마지막을 장식했는데, 여회청대는 진나라 시황제 때 청이라는 과부가 조상의 업을 이어받아 재산을 모으며 정절을 지켰으므로 이를 정부(貞婦)라 일컫고 그를 위해 세운 누대(제주도, 1989:79)로, 만덕이 기생을 그만둔 이후 홀로 살면서 정절을 지켜 유교 윤리에 합당한 여성으로 거듭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열녀가 최고의 칭송이었던 시대에 만덕은 절개가 곧았고 부를 이루었던 청이라는 여성에 비유함으로써 유교 선비로서 정절이데올로기에 비추어 만덕에게 최고의 찬사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종 6년(1840년) 제주도에 유배 온 추사 김정희는 만덕의 행적을 듣고 감동하여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번진다’는 뜻으로 은광연세(恩光衍世)라고 쓰고 그 옆에 ‘김종주의 할머니가 이 섬의 큰 흥년을 구휼하니 임금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 금강산을 구경하였으며 벼슬아치들이 모두 전기와 시가로 이를 노래하였다. 이는 고금에 드문 일이므로 이 편액을 써 보내어 그 집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당대의 최고의 서예가요 대학자였던 김정희가 감동하여 글을 써준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더 나아가 벼슬아치들이 전기와 시로 칭송한 것이 얼마나 이례적인가를 증언하고 있다. 이로서 만덕이 살아 생전에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의 업적은 더욱 인정받았고 명성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만덕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그의 능력과 업적은 크게 인정을 받았다. 특히 남자 정승들(예: 영의정 채제공)이 만덕을 찬양하는 시와 전기를 썼는데,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만연

하던 그 시대에 여성을 찬양하는 글을 쓰고 시를 짓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만덕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특히 유교 선비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아 만덕은 주변부 여성에서부터 유교사회의 중심부에서도 인정받는 여성으로 거듭 태어난 것이다. 가문 장아가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 부를 쌓음으로써 부모로부터 결국 인정받았던 것과 같이 만덕은 자신이 쌓은 부를 통해 이미 돌아가신 부모 대신 당시 백성의 어버이인 왕과 왕비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경계 뛰어 넘기

만덕의 선행을 안 정조가 만덕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서울에 가서 임금님 계시는 궁궐을 우러러보고 천하명산인 금강산 1만2천봉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원이 성취되어, 만덕은 한라산이 있는 제주에서 태어나 금강산 구경을 하였다. 채제공이 만덕에게 이는 남자들도 다하기 어려운 것을 했다고 하면서 치하하였다. 이는 만덕이 보통 남성들을 능가하는 구경을 한 여성이었던 사실을 지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에게 그어진 경계를 뛰어넘었음을 치하하는 것이었다. 부를 이루고 이를 사회에 되돌린 행위는 만덕이 당시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규범과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었음을 말한다.

실제로 당시 제주도 백성들은 육지에 나가는 것이 통제되고 있었고, 특히 여성은 육지에 올라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만덕 또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금강산 1만2천봉을 구경하고 싶다고 한 것은 이러한 금기를 깨고 새로운 것을 행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덕은 사업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과 같이 당시 제주도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금기를 깨었다. 임금의 교지에 난이를 논하지 말고 시행하라고 하여 만덕은 육지로 나가는 최초의 여성으로 기록되면

서 법을 깨고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내면서 경계를 뛰어 넘었다. 당시 유사모 목사가 만덕의 소망을 의외라고 생각하였다(제주도, 1989:51)는 점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추진하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힘찬 만덕의 풍모를 느끼게 한다.

로맨스

만덕 자신도 당시 여성에게 요구되던 정절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가 들려주었다는 열녀 김천덕이 그녀의 귀감(제주도, 1989:30)이었다는 것은 자신의 기생 일을 그만두는 데 윤리적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독신으로 살고 객주를 운영하면서도 남성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 전통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정절이데올로기에 순응하면서 유교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더욱 존경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제공이 〈만덕전〉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만덕은 채제공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만덕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당시 좌의정이던 채제공에게 제일 먼저 도착했음을 알렸던 것에서 만덕이 서울에 머물 동안 채제공이 보살피주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만덕전〉에 의하면 만덕이 제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자 채제공에게 이제 다시는 이승에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였고 채제공이 만덕을 달랬다고 한다.

만덕이 출발에 임하여 채상국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목이 메어 말하기를 ‘이승에서는 다시 상공의 얼굴 모습을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는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상국이 말하기를… ‘이제 작별함에

있어서 도리어 어린 여아처럼 척척거리는 태도가 무엇이나.’ (제주도, 1898:85)

고 말했다고 채제공은 기록했다.

만덕은 채제공에게 적극적이고 거리낌없는 애정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채제공이 이를 만류하는 모습이다. 만덕은 정절이데올로기에 주눅들어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개방적인 여성의 풍모가 드러난다. 자신이 먼저 반한 문도령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이었던 자청비와 같이, 만덕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자청비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헤매이는 동안 하인 ‘정수남이 야수처럼 할딱거리며 달려들려 할 때마다 부드러운 소리로 달랬다… 또 덤벼리고 하자 움막을 짓게 했는데 움막을 짓고 나서 담 구멍을 막게 했는데 다섯 구멍을 막으면 자청비는 안에서 두 구멍을 막게 했’(김정숙, 2002:65)던 지혜를 발휘하여 이를 피했다. 만덕도 명기로 명성 날릴 때 한량들의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민가명사들이 벌이는 놀이 마당에서도 만덕이 나가고 아니 나가는 것으로 격이 좌우되었다. 그러나 때로는 호색한 자들이 집요하게 유혹하며 치근거리기도 했다. 그 때마다… 가무와 거문고로 응수하여 고비를 넘’(제주도, 1989:30)기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만덕은 자청비와 같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여성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나이 58세의 만덕과 78세의 채제공의 아름다운 로맨스를 통해서 나타난 만덕의 모습에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현대 여성들의 모습이 투영된다.

결론

만덕은 전통사회에서 가난한 가정의 딸로 태어나 일찍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홀로 어린 나이 때부터 전통사회가 규정한 천대받는 여성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존하고 또 성공하였다. 그러나 유교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반했던 자신의 성공이 주는 명성과 안일한 행복에 대한 집착을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버리는 결단을 내렸다. 그 이후 만덕은 유교 전통사회가 요구하는 정절이데올로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다른 한편 여성의 역할을 뛰어넘음으로써 유교 전통사회의 중심으로 편입되었다.

만덕은 세상의 흐름을 꿰뚫는 안목을 가지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사업을 구상하였고 육지 상인과 제주도민과 더불어 이익을 나누는 철학으로 사업에 성공하였다. 만덕 자신은 검소하게 생활했으나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넉넉한 마음을 지녀 자신이 아껴 모은 재산을 기꺼이 사회에 환원하여 제주도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일반 백성과 왕실로부터도 칭송을 들었고 조정의 유교 선비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음으로써 변방이었던 제주도의 주변적인 여성이었던 만덕은 여성 최고의 벼슬에 오르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경계를 뛰어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또한 로맨스로 여성으로서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게 한다. 만덕은 여성인 자신을 옥죄었던 가족과 시대와 불화하거나 등 돌리지 않고 현명하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승리자로서의 여성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만덕은 억척스러운 제주도 여성의 전형인 신화의 가문장아기와 같이 시대를 뛰어넘으나 시대와 불화하지 않으면서도, 당차고 창의적이며 강한 의지력과 탁월한 능력으로 여성에게 부과된 경계를 뛰어넘은 여성

이였으며 자청비처럼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추구하는 개방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기도 하였다. 만덕은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제주도 여성의 원형인 가문장아기와 자청비가 혼합된 아름다운 여성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성의 특징으로 보는 부드러움과 아름다움,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나눔의 미덕과 전통적으로 남성성의 특징으로 보는 시대를 꿰뚫어보는 이지적 능력, 강한 의지력을 함께 가진 양성적 인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만덕은 여성주의를 신봉하는 현대 여성에게 삶의 사표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 만덕을 조상으로 둔 것은 제주민들에게 큰 자랑이고 우리 나라 여성들에게도 귀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가환이 만덕에게 헌정한 시에서 ‘돌아오니 찬양하는 소리가 따옥새 떠나갈 듯하고/ 높은 기풍은 오래 머물러 세상을 맑게 하겠지.’라고 썼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만덕의 명성은 당시 드높았고 세상의 귀감으로 오래 기억될 것으로 예견했고, 고려 때 스님 혜일과 어승마 노정과 함께 제주에서 태어난 세 가지 특이한 존재로 탐라 삼기로 기록되고 있으나 만덕의 삶이 오늘날에 전국적으로는 물론이고 제주도에서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김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해석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연구의 사적 전개

윤 치 부

머리말

김만덕(1739~1812)은 조선 영조 때의 제주 출신 여류 자선가이다. 본관은 김해(金海)로¹⁾ 아버지 김응렬(金應悅)과 어머니 고씨(高氏) 사이에서 2남 1녀의 고명딸로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에서 태어났다.²⁾ 위로는 만석(萬碩), 만재(萬才) 두 오빠가 있었고, 증조부는 성순(性淳)이며 조부는 영세(永世)로 응선(應先), 응남(應南), 응신(應信), 응열(應悅)의 4형제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남달리 근실한 성품이었으며 장사에도 수완이 있어서 전라도 나주를 오고 가면서 제주에서 나는 미역·전복·굴 같은 물건들을 내다 팔고 그곳에서 쌀을 사다가 제주에 파는 상인이었다.

1) 일부 문헌에는 본관이 경주로 되어 있기도 하다.(김태능,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1981, p.23. ; 김태능, “의녀 김만덕전”,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p.431. ; 김찬흠 편저,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p.96.) 그러나 김만덕의 <구묘비문>에는 본관이 김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김해가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부 문헌에는 제주성내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었다.(김봉옥, 《구원의 여인 김만덕》, 제주도, 1989. p.25 ;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9, p.89.)

만덕이 11세 되던 가을에 나주에서 돌아오던 만덕의 아버지는 그만 큰 풍랑을 만나 세상을 떠나고 만다. 아버지의 죽음은 어머니에게도 큰 충격이 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반 만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난다.³⁾ 그녀는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에 부모를 사별하고 외삼촌집에 기탁되었으나 여의치 않아 무근성에 사는 퇴기 월중선(月中仙)에 의지하게 된다. 이로써 11살의 어린 나이에 기적에 오르게 되나 특히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준 김천덕(金天德) 열녀 이야기는 그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자신으로 집안이 천민으로 대우 받는 것이 괴로웠다.

관가에 나가 기녀 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호소하나 거절당하자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목사인 신광익(申光翼)과 관관 한유추(韓有樞)를 찾아가 본래 양가 출신으로 부모를 잃고 가난으로 부득이 기녀가 되었으나 위로 조상에게 부끄러우니 다시 양녀(良女)로 환원시켜 준다면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특히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기녀 명단에서 제명받는다.

이렇게 해서 20여 세에 관기 생활을 청산하고 봉옥, 복심 두 딸이 있는 30대의 고선흙(高善欽)과 부부 사이가 된다. 그러나 얼마 후에 돌림병으로 남편마저 병사한다. 이후 그녀는 돈을 벌어 세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일념 하에 산지(山地)에 객주집을 차리고 제주의 특산물인 말총·미역·전복·양태·우황·진주 등을 서울 등지에 팔거나 기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반층 부녀자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염가로 공급하고 천냥부자가 된다. 1790년(정조 14년)부터 1794년(정조 18년)까지 5년간 제주 지방에 흉년이 들어 제주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자 그녀는 1천금을 내놓아 배를 마련하고 육지로 건너가 연해에서 곡물을 사들여 10분의 1은 내외 친척과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일 보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3) 박용옥, “만덕”, 《여성》 17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81, p.50.

나머지 450석은 모두 관가로 보내어서 구호곡으로 쓰게 하였다. 이로써 1796년 만덕은 58세 때 정조 임금의 은혜를 입고 관원의 안내로 제주를 출발하여 해남, 강진, 영암, 정읍, 공주, 수원을 거쳐 한양에 이르고⁴⁾ 그녀의 소원인 금강산 유람을 실현하게 된다.

이와 같은 김만덕에 대한 관심은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흐름에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첫째가 《정조실록》의 기사처럼 만덕에 대한 사실적 차원의 기록이고, 둘째가 채제공의 〈만덕전〉처럼 만덕 이야기를 작품화하는 것이며, 셋째가 앞의 두 가지 사항을 기초로 하여 만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만덕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덕 이야기의 기사화

김만덕에 대한 기사는 처음으로 1796년(정조 20년)의 사실적 기록인 《정조실록》에 나타나나 그 내용은 매우 간결하다.⁵⁾

제주 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들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를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⁶⁾

4) 이순구, “김만덕, 굶주린 백성을 살린 사업가”, 《한국 역사 속의 여성인물 1》, 한국여성개발원, 1998, p.137.

5) 민족문화추진회, 《정조실록》 22, 민족문화추진회, 1993, p.296.

6) 丙寅 濟州妓萬德散貨財賑活饑民 特使啓問將施賞 萬德辭 願涉海上京 轉見金剛山許之 使沿邑給糧(《정조실록》 정조 20년 11월 25일조).

김만덕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단지 세 가지 화소로만 되어 있다. 만덕의 제주 백성 구휼, 금강산 유람의 소망, 금강산 유람시 인근 마을에서 양식 지급 등의 이야기다. 이로 보면 김만덕에 대한 《정조실록》의 기록은 간략하기는 하지만 만덕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수록하고 있는 셈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김만덕이 왜 《정조실록》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원인이 되는 이야기이다. 제주에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자 그녀의 전재산을 내어놓아 양곡을 사들이고 이로써 제주 백성들을 구휼한 이야기를 압축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에 따라 제주목사 유사모(柳師模)가 만덕을 불러서 정조 임금의 유지(論旨)를 전하고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음에 따라 만덕이 금강산 유람을 원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정조께서 이를 허락하고 연도의 고을로 하여금 만덕의 금강산 유람에 따른 양식들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만덕의 신분을 기생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조실록》의 기록은 조금씩 상세화되면서 《승정원일기》나 《일성록》 등에 기록되고 있는 셈이다.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24일조에도 김만덕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들 내용은 체제공과 정조 임금의 대화로써 만덕에게 식량과 노자를 주어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도록 비변사가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25일조에는 《일성록》에 기록된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기도 하였으며, 28일조에는 김만덕에 대한 이야기를 진신대부(摺紳大夫)들이 기록했다든지 남자도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24일조의 내용 전문이다.

체제공이 이르기를 탐라의 기녀가 재산을 바쳐 백성을 진휼하였으나 상 받기도 면천(免賤)하기도 원치 않고 왕성과 금강산 보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따르도록 하는 명함이 있어 비로소 상경하였으나
 흑한을 당함에 작은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바 신에게 찾아
 와 울며 말합니다. 그녀는 비록 미천한 시광이나 그 뜻이 가히 고상하
 고 그 정이 가히 가련하니 유사에 분부하여 특별히 가없이 보살피
 줌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께서 아뢰시기를 탐라인의 조정 진홀을
 다른 도에 본받게 하고 또 별도로 그녀는 한 사람의 미천한 기생으로
 서 의로움을 발하여 재물을 내어놓고 곤궁한 백성들을 구휼하니 매
 우 가상한 일이며, 그 소원이 또한 평범하지 않고 이미 상경한 후니
 어찌 길에서 굶주리게 하랴. 비변사로 그녀에게 물어 머물도록 하여
 봄이 된 후에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도록 양식과 노자를 주고 고향에
 보내되 이로써 이들이 없음을 알려라. 병모가 말하기를 신은 비변사
 에 이 일을 고함이 황송하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작게 여기지 말고 전후를 대신과 재상들에게 고하라. 그렇게 하여
 안심하는 것이 가하다. 이로써 명하고 물러나시니라.⁷⁾

또한 《일성록》의 정조 20년 11월 25일조에도 만덕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은 만덕이 상 받기도 면천 받기도 원치 않고 바다를 건너와
 서 왕성과 금강산을 보고 싶어하는 일, 만덕을 내의 원행수로 삼은 일,
 금강산 유람할 때 양식과 노자를 지급토록 한 일 등의 내용이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재물을 모아 굶주리는 백성을 구휼함이 조정에 알려져 그녀의 소
 원을 물은 바 상 받기도 면천 받기도 원치 않고 단지 바다를 건너

7) 濟恭日 耽羅妓 捐財賑民 不願受賞 不願免賤 願一觀王城 仍入金剛山 有從願之命
 纔上 來而適值極寒 彷徨狹邸 來見臣泣訴 渠雖賤類 其義可尙 其情可憫 分付有司
 另加顧恤 似好矣 上曰 耽羅人之朝家軫恤 視他道 尤別 渠以一賤妓 出義捐財 助賑
 窮民 已極可駕 而其所願 亦不碌碌 祭已上來之後 何可使呼飢道路 自備局更問于渠
 如欲留 開春後下送 金剛山 使得觀玩後給糧資 津送本鄉 以示無物不遽之意可也 乘
 模曰 臣於備堂現告事 不勝惶悚矣 上曰 本事不過微細 大臣之以卿宰時事八現告 勿
 論前後何限 卽其安心可也 仍 命退(《승정원일기》 嘉慶元年丙辰 11월 24일조).

서울에 와 금강산을 보는 것이라 하니 몹시 추워서 부득이 출발하지 못했다. 비록 천민이나 옛날 열협(烈俠)에 부끄러움이 없으니 봄이 될 동안 양식을 지급하고 내의원 행수로 삼고 각별히 볼 수 있도록 했다. 금강산을 보고 돌아갈 때 연도의 도신(道臣)들이 양식과 노자를 지급토록 했다.⁸⁾

다음으로는 1812년(순조 12년) 10월 22일 만덕이 죽고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인 11월 21일에 세워진 <구묘비문(舊墓碑文)>에서 사실적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김만덕의 본은 김해김씨요 곧 탐라의 좋은 집안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독하게 가난과 고생으로 자랐다. 그러나 살결이 곱고 아름다우므로 교방(敎坊)에 의탁한 바 되었으나 의복을 줄이고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여 재산이 대단히 커졌다. 정조 을미년에는 제주도민이 크게 굶주렸는데 능히 재산을 기우려 곡식을 육지에서 운반하여다가 심히 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렸다. 목사가 이 착한 사실을 아뢰니 임금께서 무엇이 소원이냐고 물으셨는데 대답하기를 「화려한 서울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였으므로 특명으로 고을과 고을을 이어가며 돌아보게 하고, 내의원 의녀로 삼아 여러 차례 은총을 내리시고 역마를 내려주어 일만이천봉을 두루 유람하고 급기야 서울로 돌아오니 이로 인하여 공경 대부 모두가 글과 전기를 써주었으니 비록 옛적에 착하고 아리따운 여자라 하더라도 무릇 방불케 하였고 눈은 쌍겹 눈으로 환하고 밝았다. 다만 천도가 무섭하여 아이가 없는 게 애석하다. 그러나 양손 시채(時采)가 동기간에서 출제하여 유지를 잘 지키고 영구히 향화하니 또한 섭섭하지 않게 보답하고 있다. 원능(元陵 : 영조의 능으로 영조를

8) 糶累 賑活飢口 事聞朝廷 問渠所望 則不願受賞 亦不願免賤 所願只在於涉海上京 轉見金剛云 而仍值極寒 不得發向 渠雖賤物 義氣不愧古之烈俠 開春間給糧料 直充 內醫院差備 待令行首醫女 屬之首醫 各別願見 見金剛還送時 分付沿路道臣 優給糧 資(《일성록》 정조 20년 11월 25일조).

말함) 기미년(영조 15년)에 낳고 지금 임금(순조 12년) 10월 22일에 죽었으므로 다음달에 ㄱ으니ㄱ루(竝園旨)에 장사하니 갑좌(甲坐 :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진 서쪽)의 무덤이다. 임금이 즉위하신 지 12년 11월 21일에 비를 세우다.⁹⁾

〈구묘비문〉의 기록은 〈정조실록〉의 기록보다 좀더 자세한 기록이 덧붙여져 있다. 만덕의 본관이 김해김씨이고, 탐라의 좋은 집안의 딸이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교방에 의탁되었고, 공경대부들이 글과 전기를 써주었고, 70의 나이에도 용모가 몹시 아름다웠고, 양손 시체가 출제하였고, 1812년(순조 12년) 10월 22일 세상을 떠나 ㄱ으니ㄱ루에 장사지냈고, 1812년(순조 12년) 11월 21일에 비를 세웠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정약용의 《다산시문집》¹⁰⁾에도 '탐라의 기생 만덕이 얻은 진신대부(摺紳大夫)의 증별시권(贈別詩卷)에 제함'이라는 제목으로 '을묘년(1795)에 탐라에 흥년이 들었는데, 만덕이 의연금(義捐金)을 내어 구원하여 줬었다. 그의 소원이 금강산을 구경하고자 함이었는데, 임금의 분부로 소원을 들어주게 하였다.'라고 김만덕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에 그 인용문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 金萬德 本金海 卽耽羅良家女也 幼而失恃 零丁貧苦長 而靡曼托跡教坊 縮衣損食 貲產滋大 歲在 正統朝乙卯 島人 大飢 能傾財運穀 活命甚衆 牧伯賢之以聞 上問何所欲 對曰 願見京華金剛之勝 而賜特命續食 充內醫女寵頒便蕃 因鋪馬便覽萬二千峯 及其還 卿大夫 皆臚章立傳 雖古賢媛 盖未嘗 七旬顏髮 彷彿仙釋 重瞳炯澈 但天道無心 惜乎無兒 然養孫時采 出自同氣 克遵遺志 永香火亦復奚憾 生于元陵已未 終于當宁壬申 十月 二二日 以翌月窆于竝園旨 甲坐之原 上之卽位十二年 十一月 二十一日立(김봉옥,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 1989, pp.87~88. ;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9, pp.141~142.).

10) “兵辰秋 耽羅妓萬德 驛至京越 明年春 萬德回自金剛 將還其鄉 左丞相蔡公 爲立小傳 敘述頗祥 余不贅 余論萬德有三奇四稀 妓籍守寡一奇夜 高贊樂施二奇也 海居樂山三奇也 女而重瞳 子婢而被驛召 妓而令僧肩輿 絕島而受內殿寵錫四稀也 嗟以一眇小女 負此三奇四稀 又一大奇也”(정약용, “題耽羅妓萬德所得摺紳大夫贈別詩卷”, 《정다산전서 시문집》 14권, 題).

병진년(정조 20, 1796) 가을에 탐라의 기생 만덕이 역마(驛馬)로 서울에 불러왔고, 이듬해 봄에 만덕이 금강산에서 돌아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적에 좌승상 채공(蔡公, 蔡濟恭)이 그를 위해 소전(小傳)을 지어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므로 나는 덧붙이지 않는다. 나는 만덕에게는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기적(妓籍)에 실린 몸으로서 과부로 수절한 것이 한 가지 기특함이고,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이 두 가지 기특함이고, 바다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함이 세 가지 기특함이다. 그리고 여자로서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이고 종의 신분으로서 역마의 부름을 받았고, 기생으로서 중(寵)을 시켜 가마를 메게 하였고, 외진 섬사람으로 내전(內殿)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이 네 가지 희귀함이다. 아. 보잘 것 없는 일개 여자로서 이러한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을 지녔으니, 이 또한 하나의 대단히 기특한 일이다.¹¹⁾

특히 다산은 만덕의 기사에 대해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평하고 있다. 즉, 기적에 실린 몸으로서 과부로 수절한 것,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 탐라에 살면서 금강산을 좋아한 것이 세 가지 기특함이고, 여자로서 중동인 것, 종의 신분으로서 역마의 부름을 받은 것, 기생으로서 중을 시켜 가마를 메게 한 것, 탐라 사람으로서 내전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 등이 네 가지 희귀함이라고 하고 있다.

남만리의 《탐라지》 권1 ‘인물’조에도 ‘의기만덕(義妓萬德)’이라는 이름으로 김만덕을 소개하고 있다. 〈정조실록〉의 기록보다는 자세하게 기록되었으나 〈구묘비문〉의 기록보다는 축약되어 있다. 그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기 만덕은) 양가의 딸로서 기적에 올랐는데, 몸을 잘 다스려 수천금을 이루었다. 갑인에 크게 흉년이 들매 재산을 내어놓아 기아

11) 정약용, 《국역다산시문집》, 민족문화추진회, 1997.

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하였다. 정조 임금께서 들으시고 기특하게 여겨, 목사에게 소원을 묻도록 하였는데, 소원이 왕이 사는 곳과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식량과 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가 하면, 서울에 도착하자 내의녀로 삼았다. 임금께서 친히 보시고 상을 내리시어 후사하였다. 금강산을 구경하고 서울에 돌아와 떠나려 하자 채제공이 전을 지어주고 보내었다.¹²⁾

김석익의 《탐라기년》에도 김만덕에 대한 사실적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이 기록은 우락기의 《제주도》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¹³⁾ 다음은 기록된 내용의 전문이다.

행수(行首) 김만덕은 본주(本州) 양가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독하게 가난과 고생으로 자랐는데 살결이 곱고 아름다우므로 교방에 의탁한 바 있었는데 근검하여 큰 재산을 이루었다. 이 해 봄, 도내에 큰 기근이 일매, 만덕은 재산을 내놓아 곡식을 운반하여다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으므로, 목사는 이 어진 일을 아뢰니, 왕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음에 대답하여 가로되 변화한 서울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할 따름이다 하므로 특명으로 고을과 고을을 이어가며 돌보게 하고 내의녀(內醫女)로 삼아 편전(便殿)에 불러 은총을 베풀었고, 역마를 주어 금강산을 편람하게 하고, 또 그가 돌아올 때는 경대부들 모두가 신장(驢章)을 지어 행차를 빛내어 주었다. 만덕은 칠순이나 용모가 보살을 방불케 하였으며, 눈은 쌍검눈으로 환히 밝았다. 채제공 정승이 만덕을 위하여 전기를 썼다.¹⁴⁾

12) 以良家女 托名妓籍 善治生身 致累千金 當甲寅大饑 盡散其財賑飢民 正廟聞而嘉之 命守臣問所願 願一見王都及金剛山 命給馬上送 入京即付內醫女 招見差蒲門外 賞賜甚厚 乘駟傳食 往遊金剛還到京 歸本土蔡相濟恭作傳而遺之(남만리 편, 《탐라지》권지일, 인물조).

13) 우락기, 《제주도》, 한국지리연구소, 1980, p.827.

14) 行首金萬德 本州良家女也 幼而失恃 零丁貧苦長 而靡曼托跡教坊 縮衣損食 貨產致大 是年春 島內大飢 萬德傾財 運穀濟活甚衆 牧使賢之以聞 王問何所欲 對曰 願見京華金剛之勝而已 特命縣次續食充 內醫女龍頰便蕃 因給舖馬 便覽金剛山

김두봉의 《제주도실기》에도 ‘제27장 열녀’ 편에 ‘여자 중 특이한 인물’이라는 소제목으로 ‘자선심(慈善心)이 풍부하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생(救生)한 행수(行首) 내의녀(內醫女) 김만덕의 사실’이라 하여 김만덕을 소개하고 있다.

김만덕의 본관은 김해이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고생하고 자랐으나 장성한 뒤에 더욱 의탁할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몸을 교방(敎坊)에 의지하고 생활하였다. 그러나 근검 절약으로 재산을 점점 늘렸다. 제주에는 연이어 갑인년 같은 흉년이 들어 개국 404년 정조 19년(1795) 봄에는 제주도민이 모두 굶주려 죽게 되었다. 이 때에 김만덕은 큰 술 돌을 걸어놓고 콩죽을 쑤어 한 사람에게 한 그릇씩 나누어 주며 많은 재물을 풀어서 사방의 곡식을 사들여 정월부터 4월까지 한결같이 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제하였다. 그 때문에 섬 안은 큰 기근을 면하고 살았으므로 당시 목사와 대중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이 사실을 나라에 주달(奏達)하자 성상께서 들으시고 아름답게 여겨 목사로 하여금 그의 소원을 묻게 하였더니 “첩은 여자라 별 소원이 없고 성상이 계신 서울과 조선의 명승지인 금강산 구경이 소원입니다.” 하였다. 목사가 이 대답을 주달하니 특명을 내려 각현(各縣)으로 하여금 그를 접대하게 하고 서울에 도착한 뒤에 내의녀(內醫女)에 임명하였다.

임금께서 친히 만덕의 손을 잡으시고 칭찬하기를 네가 백성을 많이 구황(救荒)하였다 하니 참으로 자선(慈善)한 사람이라 하고 서울을 구경시킨 뒤 역말을 주어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금강산 1만 2천 봉을 낚날이 구경시켰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향대부(鄕大夫)들이 별장(別章)을 지어주고 영의정 채제공이 전기를 지었다. 이러한 출신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 이는 옛날의 어진 부인들 중에도 보지 못한 일이었다.

及其還朝之 卿大夫皆瞻章修行 七旬顏髮 彷彿仙釋 重瞳瑩澈 蔡相濟恭 爲之立傳 (김석익, 《탐라기년》;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422.).

사람됨은 몸이 비대하고 키가 크며 말씨가 유순하고 후덕한 분위기가 나타났고 눈은 쌍꺼풀이었다. 칠순이 되도록 성상이 잡으셨던 원 손목을 비단으로 감싸서 살빛을 감추었고 흰머리와 얼굴 빛은 희어서 부처라 불렀다.¹⁵⁾

앞서의 기록에 비해서 특이한 것은 김만덕의 외모와 말씨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몸이 비대하고, 키가 크고, 말씨가 유순하고, 후덕하고, 눈이 쌍꺼풀이었고, 흰머리였고, 얼굴빛이 희었고, 그래서 부처라고 불리었다는 내용이다.

담수계의 《증보탐라지》 ‘16. 인물’ 편의 ‘11. 의녀’ 조에도 앞서의 내용들과 함께 특히 만덕의 몸은 부대(富大)하고 키는 장대하였고 겹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⁶⁾ 다음에 그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本州良家女로서 幼년에 失恃하여 貧困이 莫甚하더니 及長에 教坊에 托籍하여 縮衣損食하여 資産이 大致라. 正廟 19年 乙卯春에 道內가 大飢어늘 萬德을 盡散하고 糧穀을 質運하여 貧民을 救濟함이 甚多라. 牧使 奇히 하여 以聞하니, 王이 牧使에게 命하여 그 所願을 聞케 하였는데, 萬德이 對曰 王都와 金剛山을 求京함이 所願이라 하니 王이 特命을 下하사 縣次로 續食케하고 京城에 之한 後에는 內醫女에 充하다. 王이 萬德의 左手를 執하고 稱讚한 後 京華를 다 求景케 하고 舖馬를 給하여 道伯으로 하여금 金剛山을 遍覽케 하니라. 旅行을 마치고 還朝하니 卿大夫가 다 別章을 주고 領議政 蔡濟恭이 立傳하다. 爲人이 居이 富大하고 키가 長大하여 言語가 溫順하며 外形에 厚德한 맛이 나타나고 그 눈은 重瞳이 瑩澈하여 老年 七旬에 顔髮이 仙釋에 彷彿하다.

15) 김두봉, 《제주도실기》, 제주시우당도서관, 2003, p.85. ; 김두봉, 《제주도실기》, 제주도실적연구사, 1932, pp.88~89.

16) 담수계, 《증보탐라지》(프린트판), 1954. ; 담수계,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p.358.

석주명의 《제주도수필》에도 ‘Ⅲ. 인문’의 ‘5. 관계인물’ 편에 김만덕에 대해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 앞서의 〈정조실록〉이나 〈구묘비문〉과 다른 내용은 채제공이 〈만덕전〉을 지었다는 내용이다.¹⁷⁾

한치문의 《탐라실록》에도 김만덕에 대한 사실적 기록이 보인다.¹⁸⁾ 제주의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면서 ‘만고기인 김만덕 여인’이라는 제명으로 소개하고 있는 바 앞서의 김두봉의 《제주도실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다만 추사 김정희가 ‘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목판을 그녀의 후손에게 주었다는 사실 등이 더 첨가되었을 뿐이다.

《제주도지》에서는 ‘제1편 역사, 제3장 근세사, 4. 이재와 구호’라는 장절에서 양가의 딸, 조실부모함, 교방에 의탁함, 기적에서 벗어나 독신으로 근검절약하여 육지와 무역을 통한 거상이 됨, 천금을 내어놓아 구호곡을 사들여 구휼함, 목사가 이 사실을 조정에 알림, 정조가 만덕의 소원을 물음, 한양과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다고 아뢰, 만덕이 지나고을마다 행로를 돌보게 함, 하경 후 여의반장직을 주어 임금을 알현하게 함, 좌의정 채제공이 〈만덕전〉을 지어 위로한 일 등이 차례로 기술되었다.¹⁹⁾

《제주시 30년사》에서는 ‘제2편 향토사, 제3장 근세사, 제24절 김만덕의 진휼’이라는 장절로 김만덕의 가계, 기방에 의탁하였다가 양녀로 복귀된 일, 식산에 전념한 일, 흥년이 들자 천금을 내어 제주 백성을 구휼한 일, 만덕이 임금께 소원을 구한 일, 상경하여 내의원 의녀반수를 제수받고 임금을 알현한 일, 금강산을 구경한 일, 채제공이 전을 지어준 일, 이가환이 시를 써준 일, 만덕이 74세로 운명한 일, 김정희가 후손에게 편액을 써준 일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²⁰⁾

17) 석주명, 《제주도수필》, 보진재, 1968, p.85.

18) 한치문, 《탐라실록》, 1973, p.94.

19) 제주도, 《제주도지》상, 제주도, 1982, p.251.

부영성의 《구좌읍지》에도 동북리 마을편에 정비석의 《명기열전》을 참고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김만덕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의 내용과 달리 새롭게 기록된 사실은 동북리에서 김응렬의 2남1녀 중 고명 딸로 태어났고, 부모를 사별하고 외삼촌댁에 기탁되었고, 무근성의 퇴기 월중선(月中仙)에 의해 10살에 기적에 오르게 되었고, 봉옥·복심 두 딸이 있는 30대의 고선흠(高善欽)과 가정을 꾸리나 사별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명기 물산객주로 1년 만에 천냥부자’와 ‘경술 계축 갑인년의 잇따른 흉년’이라는 소제목 밑에 김만덕과 관련된 사실들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모충사로 묘를 옮긴 사실과 김만덕 기념답을 건립하여 김만덕을 기리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하고 있다.²¹⁾

《북제주군지》에서는 ‘제2편 향토사, 제4장 근세사, 제29절 김만덕의 진휼’의 장절에 김만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주시 30년사》의 내용과 비슷하다.²²⁾

강용삼·김봉옥·김종업·홍순만의 《제주선현지》에서는 ‘제3장 향토 인물, 제2절 애국위향인’의 장절에 ‘김만덕’ 항을 설정하고 채제공의 〈만덕전〉, 김석익의 《탐라기년》, 《제주통사》 등을 참고하여 김만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앞서의 내용들과 비슷한 것들이다.²³⁾

김찬흠의 《제주사인명사전》에서는 《왕조실록》, 《이향건문록》, 《탐라인물고》, 《탐라기년》, 《제주여인상》, 《제주도사논고》, 《명기열전》, 《구좌읍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김만덕에 대한 비교적 총체적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앞서의 내용들과 달리 특이한 것은 금강산의 사찰들을 보고 불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일,

20) 제주시, 《제주시 30년사》, 제주시, 1985, pp.197~198.

21) 부영성,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1986, pp.119~121.

22) 북제주군, 《북제주군지》, 북제주군, 1987, pp.193~196.

23) 강용삼·김봉옥·김종업·홍순만, 《제주선현지》, 제주도, 1988, pp.260~261.

이가환이 김만덕을 송별할 때 〈만덕 제주의 기녀〉라는 한시를 지어 준 일, 영의정 채제공이 옥지환과 〈만덕전〉을 선사한 일, 한라예술제에서 만덕봉사상 제도를 마련한 일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²⁴⁾

만덕 이야기의 작품화

김만덕 이야기의 작품화는 크게 인물전류와 한시류, 그리고 목판 서예 글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주된 것은 인물전류로서, 채제공의 《변암집》이나 이재채의 《오원집》이나 심노승의 《계섬전》에 수록되어 있는 〈만덕전〉, 정비석의 《명기열전》의 〈제주기만덕〉, 이진문의 〈제주의 첫 여상인·만덕〉,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선〉 등이 있으며, 한시류 작품으로는 이가환의 《금대시문초》에 수록된 〈송만덕귀탐라(送萬德歸耽羅)〉, 박제가의 〈증만덕(贈萬德)〉, 유재건의 《이향건문록》에 수록되어 있는 기생 홍도(紅桃)의 시, 조수삼의 《추재기이》의 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김만덕과 관련된 전설이나 드라마, 목판 편액, 영정·노래·기념탑 등이 있다.

인물전류

채제공의 《변암집》에 수록되어 있는 〈만덕전〉은 김만덕이 1797년 (정조 21년) 정조의 배려로 금강산을 구경하고 나서 서울에 돌아와 제주로 돌아오기 직전 채제공에게 작별인사를 고할 때 건넨 인물전이다.

24) 김찬흡, 앞의 책, pp.96~97.

채제공은 이 자리에서 “진나라 시황제나 한나라 무제는 모두 해외에 삼신산(三神山)이 있다 하였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한라산은 곧 영주요, 금강산은 봉래라 하였다. 너는 탐라에서 태어났으니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 물을 마셨고, 이제 금강산도 두루 구경하였으니 삼신산 중에 둘을 구경한 것이다. 세상에 많은 남자들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너는 여자의 몸으로 구경하였으니 그 얼마나 장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나. 이제 작별함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가련한 태도는 마땅하지 않구나.” 하면서 만덕의 모든 행적을 〈만덕전〉이라 이름짓고 웃으면서 건네주었다.

이러한 채제공의 〈만덕전〉은 그 이후 유재건의 《이향견문록》, 김태능의 《김만덕전》과 《제주도사논고》, 이가원 교주의 《이조한문소설선》, 김봉옥의 《구원의 여상 김만덕》과 《모충사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건우 편역의 《나는 당당하게 살았다》 등 여러 책에 인용하게 된다.²⁵⁾

다음은 이가원 교주의 《이조한문소설선》에 수록된 채제공의 〈만덕전〉이다.

만덕의 성은 김이니, 탐라에 살고 있는 양가의 딸이었다. 그는 어릴 때에 어머니를 여의고는 의탁할 곳이 없어서 스스로 기생 노릇을 했다. 조금 자라 나자 관가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안(妓案)에 올렸다. 만덕은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생 노릇을 할망정 그는 여느 기생으로 자처하지 않았다.

25) 유재건, 《이향견문록》, 실시학사고전문화연구회 역주, 민음사, 1997, pp.238~241. ; 김태능,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1971, pp.25~29. ;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pp.433~437. ; 이가원 교주, 《이조한문소설선》, 교문사, 1984, pp.137~142. ; 김봉옥,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 1989, pp.82~87. ;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7, pp.136~14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612. ; 김건우 편역, 《나는 당당하게 살았다》, 문자향, 2003, pp.32~35.

그는 나이가 스무남은 살이 되자 울며 그의 정지(情地)를 관가에 하소연했다. 관가에서 가궁히 여겨서 기안에서 그의 이름을 뽑아서 다시금 양가로 돌렸다. 만덕은 비록 살림살이를 차려서 탐라의 사내들을 머슴으로 거느리기는 했으나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그는 재산 늘이는 데에 가장 재능이 있어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들이를 했다. 그런지 몇 십년 우리 임금 삼구년 을묘에 탐라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의 죽은 시신이 더미로 쌓였다. 임금이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구제하기를 명령했다. 바닷길 팔백리에 바람편에 오가는 짐대가 북처럼 재빨랐으나 오히려 미치지 못했다.

이에 만덕이 천금을 희사하여 쌀을 물에서 사들였다. 모든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면 만덕은 그 중 십분의 일을 빌어다가 그의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렸다. 그리하여 부황(浮黃)난 자가 그 소문을 듣고 관가 뜰에 모여들기를 마치 구름 같았다. 관가에서는 그 완급을 조정하여 나누어 주었다. 그들 남녀는 모두 만덕의 은혜를 찬송하여,

“우리들을 살려 준 이는 만덕이여.”

했다. 구제가 끝난 뒤에 목사가 그 일을 조정에 올렸다. 임금이 기이하게 여겨서,

“만덕이 만일 소원이 있다면 쉽고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돌보아 주겠다.”

하고 회유했다. 목사는 그제야 만덕을 불러서 임금의 말씀대로, “넌 무슨 소원이 있느냐.”

하고 물었다. 만덕은,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 번 서울에 가서 상감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이내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이천봉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했다. 대체 탐라의 여인은 바다를 건너서 물에 닿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곧 국법이었다. 목사가 또 그의 소원을 상주하였더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그의 소원대로 쫓아서 관가에서 노수(路需)와 역마를 주고, 음식을 번갈아서 제공케 했다.

만덕은 드디어 배를 타고 만경의 푸른 바다를 건너서 병진년 가을

에 서울에 들어와서 채상국을 한두 번 만났다. 상국은 그 사실을 임금께 여쭙어서 선혜청에 명령하여 달마다 식량을 대주었다. 그런 지 며칠 만에 그로써 내의원(內醫院) 의녀를 삼아서 모든 의녀의 반수(班首)에 두었다. 만덕은 전례(前例)에 의하여 내궐(內闕)문 안에 들어가 문안을 드렸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여시(女侍)로 하여금 말씀을 내렸다.

‘네, 한 개의 여자로서 의기(義氣)를 내어서 주린 백성 천 여 명을 구제했으니 가룩한 일이로다.’

그리고 상시(賞賜)한 것이 많았다. 그런지 반년 만인 정사년 삼월에 금강산에 들어가 만폭동(萬瀑洞)·중향성(衆香城)의 기이한 경치를 다 구경할 제, 금불(金佛)을 만나서는 반드시 절하고 공양 드려 그 정성을 극진히 했다. 이는 대체로 불법이 탐라국에는 들어오지 않은 까닭에 만덕이 나이가 쉰 여덟이었으나 이제 처음 절과 부처를 구경했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안문재(雁門嶺)를 넘어서 유점사(楡岾寺)를 거쳐 고성(高城)으로 내려가 삼일포(三日浦)에서 배를 타고 통천(通川) 총석정(叢石亭)에 올라 천하의 기이한 구경을 극진히 한 뒤로 서울로 다시금 돌아와서 며칠을 머무르고 장차 고국으로 돌아갈 제, 내궐에 들어가서 물러감을 고했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앞서와 같이 상을 내렸다.

이때엔 만덕의 이름이 서울 안에 가득하여 궁·경·대부·사의 계층을 헤이지 않고 한 번 만덕의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 없었다.

만덕이 떠날 때에 채상국을 보고 목메인 소리로,

“이승에선 다시금 대감의 얼굴을 뵈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이내 산연(潸然)히 눈물을 내렸다.

채상국은,

“옛날 진시황과 한무제는 모두들 ‘해외에 삼신산이 있다.’ 하였고, 또 세상에서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한라산은 곧 그들이 이른바 영주산이요, 금강산은 곧 그들이 이른바 봉래산이 아닌가. 넌 이미 탐라에 자라나서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의 물을 먹고, 이제 또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였으니, 이는 삼신산 중에서 그 둘은 벌써 너에게 점령되

있지 않은가. 온 천하 수많은 사내 중에서 이런 복을 누린 자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직을 당해서 도리어 아녀자의 가련한 태도를 짓는 것은 무슨 까닭이나.”

하고 위안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일을 서술하여 만덕전을 써서 한번 웃으며 그에게 주었다. 이때는 우리 임금 이십일년 정사 하직였다. 변암 채상국의 나이가 일흔 여덟에 이 글을 충간 의담헌(忠肝義膽軒)에서 쓰다.²⁶⁾

이재채의 <오원집>에 수록된 <만덕전>은 채제공의 <만덕전>과는 또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테면 만덕이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윤상국(尹相國)의 첩이 사는 처소에 머물렀었는데 한 달쯤 지나 만덕

26) 萬德者 姓金 耽羅良家女也 幼失母 無所歸依 托妓女爲生 稍長 官府籍萬德名妓案 萬德雖屈首妓於役 其自待不以妓也 年二十餘 以其情泣訴於官 官矜之 除妓案 復歸之良 萬德雖家居乎 庸奴耽羅丈夫 不迎夫 其才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 至數十年 頗以積著名 聖上十九年乙卯 耽羅大饑 民相枕死 上命般粟往哺 鯨海八百里 風檣來往如梭 猶有未及時者 於是萬德 捐千金 貿米隆地 諸郡縣棹夫以時至 萬德取十之一 以活親族 其餘盡輸之官 浮黃者聞之 集官庭如雲 官劑其緩急 分與之有差 南若女 出而頌萬德之恩 咸以爲活我者萬德 販訖 牧臣上其事于朝 上大奇之 回諭曰 萬德如有所願 無問難與易 特施之 牧臣招萬德 以上諭諭之日 若有所願 萬德對曰 無所願 願一入京都 瞻望聖 人在處 仍入金剛山 萬二千峯 死無恨矣 蓋耽羅女人之禁 不得越海而陸 國法也 牧臣又以其願上 上命如其願 官給蹕馬 遞供饋 萬德一帆鋪雲海萬頃 以丙辰秋 入京師 一再見蔡相國 相國以其狀白上 命宣惠廳 月給糧 居數日 命爲內醫院醫女 俾居諸醫女班首 萬德依例 詣內閣門問安 殿宮各以女侍傳教曰 爾以一女子 出義氣 救饑餓千百名 奇哉 賞賜甚厚 居半載 用丁巳暮春 入金剛山 歷探萬瀑衆香奇勝 遇金佛輒頂禮 供養盡其省 蓋佛法不入耽羅國 萬德時年五十八 始見有梵宇佛像也 卒乃踰雁門嶺 由楡岾下高城 泛舟三日浦 登通川之叢石亭 以盡天下瑰觀 然後還入京 留若干日 將歸故國 詣內院 告以歸殿宮皆賞賜如前 當是時 萬德名滿王城 公卿大夫士 無不願一見萬德面 萬德臨行 辭蔡相國 哽咽曰 此生不可復瞻相公顏貌 仍潸然泣下 相國曰 秦皇漢武 皆稱 海外有三神山世言 我國之漢擊 卽所謂瀛洲 金剛卽所謂蓬萊 若生長耽羅 登漢擊 白鹿潭水 今又踏 遍金剛 三神之中 其二皆爲若所勾攬 天下之億兆男子 有能是者否 今臨別 乃反有兒女 子刺刺態 何也 於是 叙其事爲萬德傳 笑而與之 聖上二十一年丁巳夏至日 樊巖蔡相國 七十八 書于忠肝義膽軒(채제공, <변암집> 권55, 傳).

이 돈 천오백을 싸들고 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나 사양했다거나 이에 따라 윤상국 첩의 노복들이 불평을 했다는 이야기는 채제공의 〈만덕전〉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재채의 〈만덕전〉은 이후 김건우 편역의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에도 수록되고 있다.²⁷⁾

만덕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의 과부이다. 떠나면 남해에 있는 제주는 옛날의 탐라국이다. 정조 갑인년(1794)과 을묘년(1795)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제주도에도 거둑 기근이 들어 조정에서 배로 곡식을 실어다가 구휼하였지만, 굶어 죽는 시체가 이어졌다. 만덕은 수백 섬의 곡식을 저축하였는데, 이때 곡식을 풀어서 구휼하여 목숨을 구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 일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조정에서 탐라 목사에게 만덕의 소원을 묻게 하였다. 만덕은 ‘다른 소원은 없지만, 한 번 궁궐에 가서 임금님의 용안을 우러러 뵈고, 금강산에 들어가 비로봉(毗盧峯, 금강산의 최고봉) 정상에 올라 일만이천 봉을 모두 구경한 뒤에 돌아오는 것이라.’ 하자, 정조는 이를 기특하게 여겼다.

병진년(1796) 가을, 만덕에게 역마를 타고 올라오게 하여 대궐에 와서 내의원에서 하교를 기다리게 하였는데, 소관(小官)으로 대접하였다. 이듬해 정사년(1797) 봄에 음식과 역마를 제공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고 몇 달 후에 서울로 돌아왔다. 이로 인해 만덕의 이름이 사방에 알려지게 되었다. 만덕이 이윽고 제주로 돌아가겠다고 청하니, 또 역마를 타고 내려가 제주로 돌아가게 하였다.

처음 만덕이 서울에 왔을 적에 윤상국(尹相國)의 소부(小婦)가 사는 처소에서 묵었다. 한 달쯤 지나 만덕이 돈 천오백을 싸들고 가서 소부에게 감사의 마음이나마 전하려고 하였다.

“이제 거처를 정했습니다. 댁에서 고맙게도 오랫동안 편안히 머물렀기에 성의나마 표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답을 바래서 대접했잖나?”

소부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니, 만덕이 그냥 돈을 싸 가지고 갔다.

27) 김건우 편역, 앞의 책, pp.35~36.

며칠 뒤에 만덕이 길을 지나다가 소부에게 들러 문안인사를 하자, 소부가 조용히 만덕에게 말하였다.

“우리집 노복들이 ‘만덕이 돈을 싸들고 왔는데 아씨께서 사양하였다고 하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과 온종일 즐기며 돈을 다 써버려야 하잖아. 누가 만덕을 여자 의협이라 하는가?’ 하였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지요. 더구나 돈 천여 폐미가 밥 한 그릇에 비길 바이겠습니까.”

서울의 악소배 중에 만덕이 재물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접근하려는 자가 있었다. 만덕은 단호히 거절하였다.

“내 나이 쉰 살이다. 저들은 내 얼굴을 이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물이 탐나서 그런 것이다. 굶주린 사람들을 구출하기에도 부족한데, 어느 거름에 탕자를 살찌우겠는가.”²⁸⁾

심노승의 《계섭전》 후미에도 〈만덕전〉이 붙어 있는데, 만덕을 부정적 인물로 그리고 있다. 이는 심노승이 늙은 기생 계섭의 불우한 인생 유전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지으면서 그녀와 상반된 인물로 만덕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여기에는 노론이었던 심노승이 남인의 영수로 정조의 지우를 입었

28) 万德 全羅道濟州牧寡女也 州在極南海中 古毛羅國也 今上甲寅乙卯 歲大侵 州民荐饑饉 朝家雖船粟就哺 餓殍相枕 万德預居積數百斛 至是出而賑之 所全活甚多 事聞于朝 命下毛羅守臣 問万德所欲願 万德對 無所願 願一登天陛 仰觀聖人 因入金剛 登毗盧絕頂 周覽万二千峰而歸 上奇之 丙辰秋 命乘傳詣闕 待教內醫院 視斗食 翌年丁巳春 給廚傳遊金剛 凡數易月 還到京師 於是 万德名聞四方矣 已而乞歸 又乘傳還毛羅 初万德入京師 客尹相國小婦所 月餘 以錢千五百往謝曰 今則定館他所 願受惠宅上 久矣 敢布鄙誠 小婦笑曰 吾豈食女望報邪 万德因齋去 後值過候小婦 小婦從容言曰 聞門下僕使輩謂 女既齋錢入門 小君固不受 獨不可與吾曹一日 虞飲罷也 誰謂万德女義俠 万德謝曰 善用財者 簞食亦能濟饑人命 否則糞土也 錢千餘 豈特簞食也哉 京師惡少 聞万德財雄 欲褻狎之 万德曰 吾年五十餘矣 彼非艷我貌也 艷我財也 吾方且顛連之 周恤不贍 奚暇肥 蕩子乎 拒絕之(오재채, 《오원집》〈만덕전〉).

던 인물인 채제공의 〈만덕전〉을 겨냥해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은 일정 정도 당파적 입장이 개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왕과 정승을 속인 김만덕의 행적을 적으면서 그런 위선도 가리지 못하고 실(實)에 맞지 않는 명(名)까지 주는 이 세상에 강개한 비판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²⁹⁾ 심노승의 〈만덕전〉은 다음과 같다.³⁰⁾

지난해(1776년) 제주 기녀 만덕이 곡식을 내어 진휼하니 조정에서는 그녀를 예국(隸局)의 우두머리 종으로 삼고 금강산 유람까지 시켜 주면서 말과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조정의 학사들로 하여금 그의 전까지 짓도록 명하여 규장각의 여러 학사들을 시험하였다. 지난날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다. 만덕은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다하면 떠나는데, 그 남자가 입은 바지저고리까지 빼앗으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남자의 바지 저고리가 수백 벌이 되었다. 매번 쑥 늘어 놓고 햇볕에 말릴 때면, 군(郡)의 기녀들조차도 침을 뱉고 욕하였다. 육지에서 온 상인이 만덕으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이가 잇달았더니 이리하여 그녀는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하는 이가 있었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하다가 도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는 서울과 금강산 구경을 원한 것인데, 그녀의 말이 웅대하여 불만하다고 여겨 여러 학사들은 전을 지어 많이 칭송하였다.

내가 「계섬전」을 짓고 나서 다시 만덕의 일을 이와 같이 덧붙인다. 무릇 세상의 명(名)과 실(實)이 어긋나는 것이 이러한 것이 많음을 혼자 슬퍼하니 계섬의 이른바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 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³¹⁾

29) 심노승, 《눈물이란 무엇인가》, 김영진 옮김, 태학사, 2001, p.91. ;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 산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96, pp.44~46.

30) 심노승, 앞의 책, pp.88-89.

31) 前年耽羅妓萬德出粟助賑 朝廷驛召隸局婢首 遊金剛往來 乘驛官饋 命題敘傳 試閣中諸學士 嚮余在島中 聞德事頗祥 性凶悋 視金從之 金盡而去 輒奪其衣袴 所贓男子衣袴累百數 每纒纒出點晒 郡妓唾罵之 北商以德敗者相續 德富甲一島 兄弟

조수삼의 <추재기이>의 <만덕>도 유제건의 《이향견문록》의 <만덕>처럼 시를 짓기에 앞서 짚막하게 그 시를 짓는데 따른 인물전으로서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채제공의 <만덕전>의 축소판이다.³²⁾

만덕은 제주 기생이다. 집안에 재산이 많았으며 한 쪽 눈에 눈동자가 둘이었다. 정조 임자년(1792)에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만덕은 수천 석의 곡식과 수천 껌미의 돈을 내어 일읍의 백성을 진휼하여 살려내었다. 임금께서 그것을 매우 가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소원을 묻게 하였다. 대답하기를,

“저는 여자이며 천인이옵니다. 다른 소원은 없사옵고 단지 한 번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을 보고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말했다. 마침내 역참에 명하여 말을 내어 상경케 하고는 약원 내의녀의 행수로 귀속시켰다. 인하여 노자를 주어 금강산에 가서 구경케 하였다.

정비석의 《명기열전》에는 ‘제21화 제주기 만덕’이라는 제목으로 채제공의 <만덕전>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으며, ‘만덕의 사적을 찾아서’에서 정비석이 만덕기념사업회와 무덤을 직접 찾았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소녀 만덕, 한량들과의 사냥, 자기 손으로 엮은 머리, 마음에 드는 남자 고선흙, 명기 물산객주, 극심한 흉년, 전재산을 내어놓다. 만덕의 소원, 행수내의녀 만덕, 만덕 할머니와 채제공, 만덕 할머니의 여생’ 등의 소제목으로 만덕의 이야기를 작품화하고 있다.³³⁾

有丐食者不顧 至是 島飢納穀 願至京遊金剛 謂其言落落可觀 諸學士敍傳多稱之余既爲桂鐵傳 又附見 萬德事如此 竊悲夫世之名實相舛者多此類 若鐵所謂遇不遇又何足道也(심노승, 《효전산고》 권7, <계심전>).

- 32) 萬德 濟州妓也 家貲鉅萬 一雙眼重瞳 正宗壬子 州大歉 萬德出數千斛穀 數千緡錢 販活一邑之民 上大嘉之 使問其所願 曰 萬德 女子賤人也 無他願 惟願一瞻天陞 一見金剛 遂命騎馳 上京 屬之藥院內醫女行首 仍令廚傳 往遊金剛(조수삼, 《추재집》, 보진재, 1940, p.577.).

김태능은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김만덕전〉을 간행하였는데, 머리말에 이어 ‘불우한 소녀 시절, 기생시절, 양녀로 복귀, 식산에 전력, 정조 시대의 흥년 상황, 구호곡을 기증, 왕의 수이지은(殊異之恩)을 입음, 만도(滿都)의 칭송과 만덕전 저술’ 등의 소재목으로 김만덕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³⁴⁾ 이는 이후 간행된 김태능의 《제주도사논고》에도 채수록된다.³⁵⁾

이전문의 《조선의 상공인 열전 부자되는 이야기》에도 ‘제주의 첫 여상인·만덕’이라는 제목하에 만덕에 대한 인물전이 수록되었다. 대화체를 가미한 이 인물전은 ‘퇴기의 수양딸로 들어가, 내들이에 뛰어난 재능 발휘, 이문 남기면서도 섬사람 도와, 신임 사또 만덕과 백성과 살릴 의논, 탐라의 여인 욕지 못오는 국법 깨고, 제주에 돌아온 후 장삿길 끊어’ 등의 소재목 밑에 만덕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내들이에 뛰어난 재능 발휘’ 대목에서는 김만덕의 상술을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의 허생과 비유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끝부분에서는 체제공의 〈만덕전〉이 지어진 뒤로 만덕이 몇 해를 더 살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³⁶⁾

양중해는 《제주여인상》에서 ‘김만덕의 자선’이라는 제목으로 김만덕의 일대기를 작품화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체제공의 〈만덕전〉과 이가환의 〈만덕에게 주다〉를 번역문과 함께 원문까지 수록하고 있다.³⁷⁾

한시류

이가환의 《금대시문초》상에는 만덕을 전승하는 시인 〈송만덕귀탐라〉가 수록되었다. 이 한시는 이후 김두봉의 《제주도실기》, 담수계의

33) 정비석, 《명기열전》 6, 신정사, 1981, pp.239~335.

34) 김태능,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1971.

35)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pp.406~430.

36) 이전문, 《조선의 상공인 열전 부자되는 이야기》, 조선일보사, 1989, pp.119~126.

37) 제주문화원,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pp.108~161.

《증보탐라지》, 김봉옥의 《구원의 여상 김만덕》과 《모충사기》, 김건우 편역의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이덕일의 《여인열전》 등에도 수록되었다.³⁸⁾ 다음은 김건우 편역의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에 수록된 시이다.³⁹⁾

만덕은 제주의 훌륭한 여인
 예순 나이 마흔쯤으로 보이는구료.
 평생 모은 돈으로 쌀 팔아 백성을 구제하고
 한 번 바다를 건너 궁궐에 조회하였네.
 평생 소원 금강산 유람
 안개 낀 동북 사이에 있도다.
 임금님께서 빠른 역마를 하사하시니
 천 리에 뻗힌 영광이 관동을 진동시키네.
 높이 올라 멀리 장관을 만끽하고
 손을 흔들며 제주로 돌아가네.
 탐라는 아득한 고부랑부터 있었지만
 제주 여인으로 처음 서울을 관광하였지.
 우레 같이 왔다가 고니처럼 날아가니
 높은 풍채 오래 머물러 세상을 밝게 하지.
 인생살이 이처럼 이름을 드날리니
 옛날 여희청대를 어찌 부러워하리.

38) 김두봉, 《제주도실기》, 제주시우당도서관, 2003, p.86. ; 담수계,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4, p.358. ; 김봉옥,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 pp.78~79. ;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9, pp.132~133. ; 이덕일, 《여인열전》, 김영사, 2003. p.464.

39) 萬德瀛洲之奇女 六十顏如四十許 千金糴米救黔首 一航浮海朝紫禦 但願一見金剛山 山在東北烟霧間 至尊卿肯賜飛驒 千里光輝動江關 登高望遠壯心目 飄然揮手還海曲 耽羅遠自 高夫良 女子今始觀上國 來如雷喧逝鵠舉 長留古風灑寰宇 人生立名有如此 女懷清 臺安足數(김건우 편역, 앞의 책, p.37.).

문명이 중국에까지 떨쳤던 조정 박제가도 만덕의 숙소에 찾아와 즉석에서 너 수의 한시를 적어주었다. 이는 정비석의 《명기열전》에도 인용 수록되었다.⁴⁰⁾

넓은 천지 바다 밖에는 못나가니
넓다 한들 뒤라서 시집 장가 끝내랴.
제주라 섬나라 이웃은 일본
사또는 천 년 세월에 굴만 바쳐 왔네.

굴밭 깊은 숲속에 태어난 여자의 몸
의기는 드높아 주린 백성 없었네.
벼슬은 줄 수 없어 소원을 물으니
만이천 봉 금강산 보고 싶다네.

의젓이 다듬은 모습에 돛대도 높이
남쪽별은 빛나 임금님도 기쁨을
바빠 말에 올라 금강산으로 향하니
햇빛도 바람결에 노리개에 찬란타.

정녕 깨달았으리 신라와 마음은 하나
생김도 달라 여자몸 눈동자가 곱이라.
이제사 알겠노라 바다 건너 온 뜻은
잣다란 세상일에 있지 아니했음을.

그런가 하면 유재건의 《이향건문록》에는 만덕이 서울에 갔을 때

40) 大寰海外頭不出 五嶽誰能昏嫁畢 毛羅爲島界扶桑 星主千年僅貢橘 橘林深處女人身
意氣南極無饑民 箭之不可問所願 願得萬二千峰看 翠袖雲髮一帆峭 孤南所照
回天笑 催乘駟騎向煙霞 佛日仙風環佩耀 眞覺新羅一念通 異相巾幘 符重瞳 從知
破浪乘風志 不是 桑弧蓬矢中(정비석, 앞의 책, pp.330~331.).

기생 홍도가 지은 한시가 있다. 원래 출전은 《범곡기문(凡谷記聞)》이며, 김건우 편 역의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에 수록된 시이다.⁴¹⁾

여의(女醫) 행수(行首)인 탐라 기녀가
만 리 물결에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네.
또 금강산 깊은 곳을 향해 가니
향기로운 이름 교방(敎坊)에 남으리.

조수삼의 〈추재기이〉에도 만덕에 대한 한시가 수록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앞서의 한시들과는 달리 짙막한 〈만덕〉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⁴²⁾

회청대를 을나의 고향인 제주도에 지어 놓고
곡식을 쌓은 것이 산처럼 높아 마곡 고을에 쌓았네.
네게 겹눈동자를 내어주신 것이 진실로 저버리지 않아
아침에는 궁궐을 보고 저녁에는 금강산도 구경하였네.

전설류

진성기의 《남국의 전설》과 《제주도전설》에서는 ‘제5부 역사적 설화’로 ‘7. 만덕할망[김만덕 할머니]’이라는 제목의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1958년 7월 제주시 용담동에서 제보자 고부길로부터 채록된 것으로 만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⁴³⁾

41) 女醫行首耽羅妓 萬里層溟不畏風 又向金剛山裡去 香名留在敎坊中(유재건, “이향견문록”,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주, 민음사, 1997, p.241. ; 김건우 편역, 앞의 책, pp.37~38.).

42) 懷淸臺築乙那鄉 積粟山高馬谷量 賦汝重瞳眞不負 朝瞻玉階暮金剛(조수삼, 《추재집》, 보진재, 1940, p.578.).

43) 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74, p.236. ; 진성기, 《제주도전설》, 도서출판 백록, 1992, p.265.

만덕의 본은 김해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고생하다가 장성하여서는 교방(敎坊)에 몸 붙이고 살았는데, 본래 자비심이 두터웠고 근면 절약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래서 갑인년(조선 정조 18년) 흉년에는 아사 지경에 이른 수많은 제주 빈민을 구제하기도 하였고 또 미리 곡식을 사들였다가 영세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이런 일로 해서 당시의 제주 목사 이우현은 만덕 할망의 마음씨를 높이 칭송하고 이 사실을 임금님께 여쭙었다. 임금님이 들으시고 지극히 아리따게 여겨 목사로 하여금 할망의 소원을 묻게 하였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몸이라 별소원은 없습니다. 다만 조선의 명승인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임금님은 할망의 께손에 더욱 감탄하였다. 임금님은 여러 편지와 안내자를 정하여 주어 할머니로 하여금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게 하였다.

만덕 할망이 유람에서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은 별장을 지어 주었고,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만덕 할망의 전을 지어 지금까지 전해 온다.

드라마류

MBC에서는 지난 1976년 김만덕의 생애를 다룬 고두심 주연의 흑백 드라마 〈정화〉가 방영되었고, 2003년에는 EBS 역사극장 1부와 2부를 통해 김만덕의 삶이 비쳐지기도 했다.

특히 EBS 역사극장의 〈의녀 김만덕〉은 안금림 극본, 김유열 연출로 김만덕 역에는 탤런트 임경옥이 맡고 있다. 2003년 3월 21일 방영된 1부 ‘여자가 아닌 인간의 길’에서는 만덕의 기녀로서의 삶과 객주집 주인으로서 녹용 상거래 및 순무어사 이도원과의 사랑 등을 그리고 있으며, 2003년 3월 28일 방영된 2부 ‘진정한 부자의 길’에서는 제주상권을 둘러싼 갈등, 제주 백성 구휼, 정조 임금의 알현, 영의정 채제공과의 만남 등을 묘사하고 있다. 전현직 제주문화원장 양중해와 홍순만의 자문으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에서는 김만덕을 조선 여성 사업가 내지는 거상 중의 거상으로 결론짓고 있다.

목판 편액류

1840년(현종 6년) 대정에 유배왔던 추사 김정희는 만덕의 행적을 듣고 감동하여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번진다는 뜻으로 ‘恩光衍世’라 대서(大書)하고 그 옆으로 ‘김종주(金鍾周)의 할머니가 제주의 큰 흉년을 구휼하니 임금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 금강산을 구경하였으며 벼슬아치들이 모두 전기와 시가로 이를 노래하였다. 이는 고금에 드문 일이므로 이 편액을 써 보내어 그 집안을 표하는 바이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⁴⁾

영정류

김만덕의 영정은 김만덕의 얼굴을 이는 사람이 없으므로 다년간 제주 여성의 얼굴형에 대하여 연구해왔다는 고 홍정표(洪貞杓) 선생의 자문을 받고 의상은 고 석주선(石宙善) 선생의 고증을 받으며 상문(祥文) 화백에 의뢰하여 영정을 제작하여 만덕관에 모셨다.⁴⁵⁾

노래류

〈김만덕 노래〉는 양중해 전 제주대 교수가 작사하고, 고봉식 전 제주도 교육감이 작곡하였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⁴⁶⁾

44) 한치문, 앞의 책, p.94. ; 부영성, 앞의 책, p.121. ; 김봉옥,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 1989, pp.81~82. ;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9, pp.135~136. ; 김찬흠 편저, 앞의 책, p.96.

45) 제주문화원,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p.640.

46) 위의 책, pp.641~642.

1. 바람 부는 벼랑의 바위 틈에서
외로이 싹터나온 한 떨기 꽃은
우거진 잡초 속에 묻혀 있어도
향기는 온누리에 가득하여라
아 그 이름 만덕 아가씨
착하고 아름다운 만덕 아가씨
2. 누리가 가물어서 목이 마르고
사람마다 굶주려 허덕일 때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해주신 분
만세에 그 은덕은 길이 빛나리
아 그 이름 만덕 할머니
의롭고 자애로운 만덕 할머니

기념탑류

김만덕의 무덤은 1977년 1월 도민의 이름으로 그으니크루에서 제주시 건입동 시라봉 기슭의 묘충사로 이묘되었다. 묘충사 경내에는 세 개의 탑이 있는데 두 개의 탑은 항일열사 조봉호 등을 기리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김만덕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김만덕의 기념탑에는 ‘의녀 반수 김만덕 의인의 묘’라고 적혀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만덕상을 제정, 해마다 한라문화제 때 모범여인을 선정해 수상함으로써 은덕을 기리고 있다.

만덕 이야기의 고찰

김만덕에 대한 고찰은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책 속에서 김만덕의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본격적인 논문 속에서 언급하는 경우이다. 이 중 전자의 경우는 보통 제주의 통사를 정리하면서 이루어졌으며, 후자의 경우는 제주의 여성을 새롭게 조명

하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책 속에서의 고찰

김태능은 《김만덕전》에서 자신이 직접 기록한 〈김만덕전〉 외에도 채제공의 〈만덕전〉을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김만덕의 가계와 추사 김정희가 표창 편액을 기증한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⁴⁷⁾

김종업은 《탐라문화사》의 ‘역사적 측면에서 본 탐라정신’에서 ‘제주도민의 삼재에 대한 극복’ 항에서 의녀 김만덕은 사재를 털어 구호미를 도입하여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휼한 것이 너무나 유명하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⁸⁾

이규태는 《역사에 소문나지 않은 여인》에서 ‘제주기생 만덕’이라는 제목하에 ‘양반 출신인 기생 만덕, 돈을 많이 벌어서 제주 양민들을 살리다, 만덕의 후덕한 마음에 임금도 감탄’ 등의 소제목으로 만덕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여성 가운데서도 가장 천민층에 드는 기적에 올랐던 신분으로서 이토록 인간적 승리를 거둔 이면에 부각되는 신선하고 활달한 휴머니즘과 레지스탕티즘이 손이 시리게 와 닿는다고 피력하고 있다.⁴⁹⁾

김봉옥은 《제주통사》, 《증보제주통사》, 《구원의 여상 김만덕》, 《모충사기》에서 김만덕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다. ‘조선 때의 제주’ 항에서 ‘김만덕 진휼’이라는 제목으로 김만덕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는 차원의 연구로서 만덕이 자라난 환경, 기생이 됨, 양녀로의 복귀, 제주의 흉년, 기민 구휼에 나섬, 임금님의 특별한 은혜, 장안 화제가 된 만덕, 이가환의 송별시, 김정희의 써준

47) 김태능,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1971. :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pp.406~437.

48) 김종업, 《탐라문화사》, 조약돌, 1986, p.225.

49) 이규태, 《역사에 소문나지 않은 여인》, 기린원, 1987, pp.104~109.

편역, 모충사로 묘를 옮긴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로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⁵⁰⁾

이순구는 《한국 역사 속의 여성인물1》에서 김만덕을 ‘의지의 자선 사업가’로 결론짓고 여성의 사회활동조차 드문 시대에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한 특기할 만한 여성이며, 상업의 원리를 잘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였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떠나 나라를 위해 재산을 헌납한 요즘도 보기 드문 자선사업가이며 성공한 사업가로서 당연히 자리매김되어야 할 인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⁵¹⁾

이덕일은 《여인열전》에서 김만덕을 ‘전재산을 사회사업에 바친 조선말 의녀’로 정의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몸을 던져 유통에 뛰어들어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사회에 회사한 인물로 금강산을 유람하고 재제 공은 〈만덕전〉을 지어주었는가 하면 이가환은 송시로 그녀를 위로했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조실록》의 기록에 비추어 만덕이 실제 기적에서 삭제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⁵²⁾

조혜란은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에서 ‘제주에서 금강산을 꿈꾼 여인’으로 김만덕을 조명하고 있다. ‘우국지사와 나란히, 자기 운명의 개척자, 크게 벌어 크게 쓴 진정한 큰 손, 대궐 구경과 금강산 구경을 한 제주 여성, 살아서 공적 명예를 누린 조선 여성, 자기 삶의 경영자’로 김만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김만덕을 조선 시대의 성공한 여성 CEO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조선 시대 여성으로 대단한 사업 수완을 발휘한 만덕은 오늘날 여성에게 요구되는 전통적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한

50)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pp.166~170 ; 김봉옥,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 1989. ;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9 ; 김봉옥, 《증보제주통사》, 도서 출판 세림, 2000, pp.186~189.

51) 이순구, 앞의 글, p.137.

52) 이덕일, 앞의 책, pp.453~469.

다. 그러면서 김만덕의 성공은 자신이 애써 모은 물질을 다른 이들을 위해 대가 없이 나누어 주었다는 데서 비롯되며, 더 나아가 그녀의 성공은 제도와 질서에 순응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녀의 성공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무형의 자산을 위해 멋있게 투자할 수 있었다는 데서 얻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⁵³⁾

논문 속에서의 고찰

김만덕에 관한 연구 논문은 크게 두 가지 흐름에서 전개되어 왔다. 하나는 만덕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연구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만덕을 다른 인물이나 작품과 비교하면서 부분적으로 거론한 경우이다. 전자의 연구로는 이신복, 김준형, 김경애, 현승환의 연구가 해당되며, 후자의 연구로는 정미숙, 이승복, 최준하, 김영진, 소재영, 윤치부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이신복은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에서 작품 내용의 순차구조와 새로운 여인상의 제시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내용의 순차구조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첫째 단락과 재물을 홀어 굶어죽는 백성을 구휼한 두 번째 단락과 두 가지 소원이 제시되어 이를 이루는 셋째 단락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여인상의 제시에서는 운명의 개척과 혼인의 거부와 빈민 구제와 대궐과 금강산 구경의 두 가지 소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⁵⁴⁾

김준형은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에서 만덕의 생애와 〈만덕

53) 조혜란, “제주에서 금강산을 꿈꾼 여인”,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pp.193~209.

54) 이신복,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 《한문학논집》 12, 단국한문학회, 1994, pp.633~639.

전)의 입전 배경과 〈만덕 이야기〉의 존재 양상을 살피고 있다. 특히 생애에서 박용익이 “만덕”에서⁵⁵⁾ 언급한 만덕이 19세 때 순무어사(巡撫御使) 이도원(李度遠)과의 반 년 동안의 인연은 김만덕(1739~1812)과 이도원(1684~?)의 생물 연대를 고려할 때 사실이 아닌 듯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지배 이데올로기 강화로서의 채제공의 〈만덕전〉, 지배층에 대한 풍자로서의 심노송의 《계섭전》 소재 〈만덕 이야기〉, 이야기의 기호로써 수용되는 유재건의 《이향견문록》의 〈만덕 이야기〉와 조수삼의 〈추재기이〉의 〈만덕 이야기〉, 구비문학으로서의 〈만덕 이야기〉 등의 존재양상과 전승의미를 밝히고 있다.⁵⁶⁾

김경애는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에서 만덕을 전통사회에서 가난한 가정의 딸로 태어나 일찍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홀로 어린 나이 때부터 전통사회가 규정한 천대받는 여성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존하고 또 성공하여 유교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반했던 자신의 성공이 주는 명성과 단일한 행복에 대한 집착을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버리는 결단을 내렸으며, 유교 전통사회가 요구하는 정절이데올로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다른 한편 여성의 역할을 뛰어넘음으로써 유교 전통사회의 중심으로 편입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만덕을 여성인 자신이 옥죄었던 가족과 시대와 불화하거나 등 돌리지 않고 현명하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았기에 여성주의를 신봉하는 현대 여성에게 삶의 사표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⁷⁾

현승환은 “21세기에서 다시 보는 김만덕”에서 1단계로 최초 기록인

55) 박용익, 앞의 글, p.50.

56) 김준형,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17, 제주학회, 2000, pp.1~26.

57) 김경애,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2004, pp.82~102.

채제공의 〈만덕전〉을 유재건이 《이향견문록》에 수록하고, 김석익이 《탐라기년》에 요약 수록하였으며, 2단계로 채제공의 〈만덕전〉에 해석을 더하면서 김태능과 한치문의 〈김만덕전〉이 탄생했으며, 3단계로 소설화한 정비석의 《명기열전》의 〈제주기 만덕〉이 지어졌는 바, 이는 부영성, 김봉옥, 양중해, 김찬흠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즉, 김태능의 〈김만덕전〉이 한치문에 영향을 미쳤고, 한치문은 설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김만덕전〉을 완성했으며, 정비석은 《명기 열전》에서 소설로 완성시켰고 이를 토대로 김봉옥, 양중해의 〈김만덕전〉이 나오게 되었다고 고찰하고 있다.⁵⁸⁾

다음으로 정미숙은 “채제공과 이옥의 여성전 연구”에서 〈만덕전〉은 부모를 잃은 상황, 백성에 대한 관의 구휼이 제때에 아유 있게 실시되지 않는 상황, 탐라의 여인이 육지에 가지 못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만덕은 자신의 위기 극복, 신분의 회복과 자유로운 행동의 지향, 자신의 능력 인정과 발휘, 자신의 목표 달성의 순으로 동기를 실현하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동기의 실현은 비록 여성일지라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현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지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덕전〉을 주인공의 동기 실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여성이 입장에서 불리한 현실인식과 이에 대처하는 여성 현실 참여와 그 의지의 실현을 보여준다고 하였다.⁵⁹⁾

이승복은 “변암 채제공의 「전」 연구”에서 직접 체험한 내용으로서의 〈만덕전〉을 고찰하고 있다. 직접 체험한 인물을 입전하였기에 행적 내

58) 현승환, “21세기에서 다시 보는 김만덕”, 《21세기와 제주사회의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2004, pp.61~81.

59) 정미숙, “채제공과 이옥의 여성전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2, pp.13~16.

용을 인과적으로 배열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제재를 취한 경위나 논란은 생략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여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의협(義俠)인 만덕을 통해 당시 도탄에 빠진 민생과 각박한 세정에 대한 권계의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으며, 흥미 있는 소재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많이 내재해 있다고 말하고 있다.⁶⁰⁾

최준하는 “변암 채제공의 「전」 문학 연구”에서 〈만덕전〉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면보다 특히 변해기는 여성상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하던 여성계 영웅소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 여성의 능력과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천에 의해서 가능해졌던 것이라고 하였다.⁶¹⁾

김영진은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산문을 중심으로”에서 〈계섬전〉을 거론하면서 〈계섬전〉 후미에 있는 만덕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다. 심노승이 〈계섬전〉의 끝에 이 얘기를 부친 것은 채제공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활한 한 기녀의 가식에 임금과 재상이 속고 있는 세태, ‘명과 실조차 어그러지고 있는 현실에 무슨 우(遇)를 바라겠냐.’는 강개한 비판을 던진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계섬전〉은 창강 김택영이 심노승을 두고 말한 ‘문학이 강개했다.’는 평에 가장 부합되는 작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⁶²⁾

소재영은 “제주의 여인상”에서 어릴 적 기녀로 입적되어 자라난 그녀의 성장과정과 훗날 자신이 모은 재화로 수많은 기민들을 구제한 공적을 견주어 보면 참으로 입지전적인 삶을 우러르게 되며, 오늘날 근면하면서

60) 이승복, “변암 채제공의 「전」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pp.28~30.

61) 최준하, “변암 채제공의 「전」 문학 연구”, 《어문연구》 24, 어문연구회, 1993, pp.309~311.

62) 김영진, 앞의 논문, p.45.

도 이웃사랑을 생활화하고 있는 제주 여성들의 바람직한 상이 된다고 말한다.⁶³⁾

윤치부는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에서 지순한 여성의 〈천덕전〉과 진취적 여성의 〈만덕전〉과 효성과 절애의 여성으로서의 〈열녀문 씨전〉을 비교하고 있다.⁶⁴⁾

맺음말

지금까지 김만덕 이야기의 사실적 기록의 기사화, 인물전·한시·전설·드라마·목판 편액·영정·노래·기념탑 등의 작품화 등과 관련한 전승 양상과 책과 논문을 통한 김만덕 고찰의 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하여 보았다.

김만덕 이야기의 사실적 기록인 기사화는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구묘비문〉, 《다산시문집》, 남만리의 《탐라지》, 김석익의 《탐라기년》, 김두봉의 《제주도실기》, 담수계의 《탐라지》, 석주명의 《제주도 수필》, 한치문의 《탐라실록》 《제주도지》, 《제주시30년사》, 부영성의 《구좌읍지》, 《북제주군지》, 《제주선현지》, 김찬흡의 《제주사인명사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만덕 이야기의 작품화는 인물전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채제공의 〈만덕전〉, 이재체의 〈만덕전〉, 심노송의 〈만덕전〉, 유재건의 〈만덕〉, 조수삼의 〈만덕〉, 정비석의 〈제주기 만덕〉, 김태능의 〈김만덕전〉, 이전문의 〈제주의 첫 여상인·만덕〉,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선〉 등이

63) 소재영, “제주의여인상”, 《국문학 편답기》, 아에아문화사, 1999, pp.330~336.

64) 윤치부,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 《깨어나는 제주 여성의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 pp.57~69.

있다.

이 가운데 채제공의 〈만덕전〉과 유재건의 〈만덕〉은 동일하며, 심노승의 〈만덕전〉은 유일하게 만덕을 부정적 인물로 그리고 있다. 또한 한시 작품으로써 이가환의 〈송만덕환담라〉, 박제가의 한시, 기생 홍도의 한시, 조수삼의 한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전설로 진성기의 〈만덕할망〉, 드라마로 MBC의 〈정화〉와 EBS의 역사극장, 추사 김정희 ‘은광연세’의 목판 판액, 상문 화백의 김만덕 영정, 양중해 작시와 고봉식 작곡의 〈김만덕 노래〉, 기념탑 등이 있다.

김만덕에 대한 고찰은 크게 책 속에서의 연구와 논문 속에서의 연구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김태능의 《김만덕전》, 김종업의 《탐라문화사》, 이규태의 《역사에 소문나지 않은 여인》, 김봉옥의 《제주통사》·《증보 제주통사》·《구원의 여상 김만덕》·《모충사기》, 이순구의 《한국 역사 속의 여성인물1》, 이덕일의 《여인열전》, 조혜란의 《조선의 여성들, 부자 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등에서 해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논문 속에서의 연구는 김만덕 자체만을 연구하는 경우와 제주의 다른 여성과의 비교 속에서의 김만덕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앞서의 경우는 이신복, 김준형, 김경애, 현승환의 연구가 해당되며, 뒤의 경우는 정미숙, 이승복, 최준하, 김영진, 소재영, 윤치부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김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해석

실존인물 김만덕의 문학화 과정

현 승 환

들어가며

김만덕은 1739년 출생하여 1812년에 사망하였고,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털어 식량을 사다 빈민을 구휼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글은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 1천 1백여 명을 살렸다는 의로운 일을 한 김만덕의 문학화 과정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김만덕에 관한 기록은 정조실록(정조 19), 채제공의 김만덕전(번암집 1823년 간행)이 가장 오랜 자료이고 그 이후, 유재건(이향견문록, 1862), 김석익(탐라기년¹⁾, 1918, 행수 김만덕이라 함.) 등에 의해 잊혀지지 않고 문헌에 기록되었다.

지금까지 김만덕에 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²⁾ 역사적 사실과 그것의 문학화가 중점이다. 이야기의 사실적 기록인 기사화는

1) 심재 김석익(1885~1956)이 망국의 슬픔을 안고, 후진들에게 애국의 길을 일깨우기 위하여 편술한 것이다. 편년체로 수록함.

2) 윤치부가 정리한 바 있다. “의녀 김만덕 활약상자료조사 연구보고서”, 제주도, 2004.12.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구묘비문〉, 『다산시문집』, 남만리의 『탐라지』, 김석익의 『탐라기년』, 김두봉의 『제주도실기』, 담수계의 『탐라지』, 석주명의 『제주도수필』, 한치문의 『탐라실록』, 『제주도지』, 『제주시 30년사』, 부영성의 『구좌읍지』, 『북제주군지』, 『제주선현지』, 김찬흡의 『제주사인명사전』 등이 있다. 또한 그것의 문학화는 인물전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채제공의 〈만덕전〉, 이재체의 〈만덕전〉, 심노승의 〈만덕전〉, 유재건의 〈만덕〉, 조수삼의 〈만덕〉, 정비석의 〈제주기 만덕〉, 김태능의 〈김만덕전〉, 이전문의 〈제주의 첫 여상인·만덕〉,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선〉 등이 있다.

이들의 선후와 영향관계를 살핀 결과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그 이후는 전승되는 구비자료와 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보완하는 정도이다. 문학작품으로는 채제공의 〈만덕전〉이 가장 앞서며 그 이후 나온 유재건의 〈만덕〉은 그 내용이 동일하다.

그 중에서도 심노승의 〈만덕전〉은 유일하게 만덕을 부정적 인물로 그리고 있다. 상당히 관심이 가는 기록이지만 노론인 심노승과 남인의 영수인 채제공과의 관계를 고려하면³⁾ 개인적 감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여 이 글에서는 소개에 그친다.

그 이후 여러 한시 작품 속에서 만덕이 언급되지만⁴⁾ 실록과 채제공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후대 연구자들은 그 자료의 선별에 따라 나름대로의 만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속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채제공의 만덕전이 탄생한

3) 심노승, 『눈물이란 무엇인가』 김영진 옮김, 태학사, 2001, p.91. ;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 산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96, pp.44~46.

4) 윤치부의 연구(“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 제주도, 2004.12.)에 따르면 이가환의 송만덕환탐라, 박제가의 한시, 기생 흥도의 한시, 조수삼의 한시 등이 있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많은 만덕전이 나타나며 많은 논자들이 자료의 선별에 따라 논의의 폭이 달라져 왔다. 따라서 이 글은 실존 인물 만덕의 문학화 과정을 추적하여 그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거리를 밝혀보려 한다.

김만덕 인물전의 역사성과 문학성

역사적 사실과 전문학

만덕이 1739년에 태어나서 1812년에 사망하기까지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녀가 베푼 사회사업에 관한 공적을 인정한 공식적인 기록은 정조실록 20년 병진 12월조 기록, 승정원일기 기록, 채제공의 만덕전, 이가환의 시, 추사 김정희의 글(恩光衍世), 만덕의 비문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이가환의 시는 그가 행한 업적을 시로 표현한 것이기에 구체적 사실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김정희의 글 역시 찬사일 뿐이며, 구체적 내용은 채제공의 만덕전과 정조실록 내용이다.

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丙寅 濟州妓萬德 散施貨財賑活饑民 特使啓問將施賞 萬德辭 願涉海上京 轉見金剛山 許之 使治邑給糧”이라는 42자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이 간단하다. 왕조실록은 궁정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므로 제주도에 사는 미천한 객주집 주모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남겼느냐고 할 수 있지만 언급 대상의 신분제에 따라 구체화 정도가 달랐던 것이다. 같은 정조실록에 실렸어도 기녀가 아닌 양가녀를 다룬 銀愛기사⁵⁾는 자세한 것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5) 은애는 전라도 강진현에 살고 있는 양가의 여자로서 자신의 정조를 포함하는 같은 마을의 노파를 살해하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게 되었다. 때마침 정조 14년(정

정조실록에 수록된 내용 중 양인에 관한 기록으로는 ‘은애’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은애는 자신의 정조를 모함하는 노파를 살해했으나 정조대왕은 윤리와 절개를 중히 여겨 오히려 은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당시 규장각 검서관인 이덕무에게 명하여 은애전을 짓게 하였다. 정조가 직접 이덕무에게 은애전을 짓게 한 것으로 보아, 이 당시는 모범이 되는 인물에게는 그 전을 지어 칭찬했음을 알게 된다.

채제공 역시 만덕의 공을 칭찬하고자 전을 지어 만덕과 헤어질 때 주었다. 전의 특성상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했는데, 실록에 실린 양가녀 은애의 전은 자세하고, 만덕의 전은 왜 간략할까. 게다가 꼭 같은 여인에 대한 기록인데 한 사람은 양인이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기녀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을까? 이를 해명하기 위해, 먼저 기술된 채제공의 만덕전 내용을 검토하여 단락별로 나누고 실록의 기록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 1) 만덕은 애초 탐라 양가의 딸이다.
- 2) 조실부모로 기생이 되었으나, 20세에 진정하여 다시 양민이 되다.
- 3) 殖財에 재능이 있어 부자가 되다.
- 4) 탐라에 흉년이 들자 육지에서 쌀을 실어와 기민을 구제하다.
- 5) 목사의 장계를 접한 왕은 소원을 들어줄 것을 하교하다.
- 6) 한양과 금강산 구경을 원하자, 노수, 역사, 음식을 제공토록

술년) 여름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 임금의 친히 사형수를 심리하고 사면하는 기회가 있었다. 이때 양가의 여자로서 모함을 입고 상대를 죽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살해사건이 보고되자, 治者의 입장에서 오히려 倫常을 숭상하고 氣節을 중히 여긴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조는 그녀를 석방케 하고 그 내용을 호남에 널리 전파하도록 하교하였다. 또한 당시 규장각 검서관이었던 이덕무에게 명하여 은애전을 지어 내각의 日曆, 곧 규장각 일기에 신도록 하였다. 이동근, 『조선후기 「전」 문학연구』, 태학사, 1991. 참조.

하교하다.

7) 入京하여 내의원 의녀가 되다.

8) 금강산 유람하다.

9) 채상국에게 작별 인사하니, 채상국이 傳을 지어주며 위로하다.

이 내용은 채제공이 기술한 것이므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면서도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정조실록의 기록과 비교할 수 있게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⁶⁾

구성	만덕전	정조실록
서두부	1) 만덕은 애초 탐라 양가의 딸임.	1) 만덕은 제주도 기생임.
전개부	2) 조실부모로 기생이 되었으나, 20세에 진정하여 다시 양민이 됨.	
	3) 殖財에 재능이 있어 부자가 됨.	
	4) 탐라에 흉년이 들자 육지에서 쌀을 실어와 기민을 구제함.	2) 재화 풀어 기민 구제.
	5) 목사의 장계를 접한 왕은 소원을 들어줄 것을 하교.	3) 목사의 장계를 접하고 왕이 포상을 하교.
	6) 한양과 금강산 구경을 원하자, 노수, 역사, 음식을 제공토록 하교.	4) 포상 사양, 금강산유람 희망하자 연도고을에서 식량 제공토록 하교.
	7) 入京하여 내의원 의녀가 됨.	
	8) 금강산 유람 후 채상국에게 작별인사.	
논찬부	9) 채상국이 傳을 지어주며 위로.	

6) 이동근, 『조선후기 「전」 문학연구』, 태학사, 1991, pp.98~102.

만덕전과 실록의 내용을 참고로 공통되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면, <제주도 기생 만덕이 재화를 풀어 기민을 구제했다는 목사의 장계를 접하고 금강산 유람을 희망한다는 그녀의 뜻대로 포상을 하교했다.>라는 것 뿐이다. 거기서 제외된 내용인,

- 20여 세에 다시 양민이 되었다.
- 식재에 재능이 있어 부자가 되었다.
- 입경하여 내의원 의녀가 되었다.

라는 것은 만덕을 살피는 데 주목을 요하는 요소이다.

실록의 사실을 근거로만 정리하면, 만덕은 기생인데, 자신의 재화를 풀어 기민구제를 했기에 포상으로 금강산 유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 고작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내재해 있다. 만덕의 신분 이 기생 여부에 있다. 기생이지만 기민 구제를 했다면 양인이 기민 구제를 한 것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만덕은 기생일까, 양인일까? 정조실록의 김만덕 기록으로 보면 기생이 틀림없다. 그런데 채제공의 만덕전의 내용에 따르면 양인으로 보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만덕전과 정조실록의 기술 방식의 비교를 통하여 위 표에서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채제공이 지은 만덕전은 객관적 사적의 주관적 기술이다. 더구나 그는 변암집 39권을 남기고 14편의 전을 지을 정도의 뛰어난 문장력을 갖춘 인물이다. 이조참판, 우의정, 영의정 등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직간접으로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전을 창작했기에 그의 전은 구체화되고, 전의 주인공의 특성에 맞게 흥미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채제공의 만덕전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전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학에 대한 논의는 소설문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

하는 사항이다. 김균태⁷⁾는 조선후기 전문학을 연구하는 자리에서 인물이 서술 중심의 대상이 되어 서술의 성격이 완성된 전의 출현은 漢의 시대에 들어와 기술된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라고 보았다. 기전체 역사에서는 모두 열전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 전은 문인들이 사사로이 인물의 행적과 거기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펴는 일반적인 서사문의 한 형식이 되었다.

유협은 문심조룡에서 ‘紀와 傳의 양식은 編年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문장은 멋대로의 논술이 아닌 사실에 밀착해서 씌어진다.’⁸⁾고 했다. 이렇게 기전체에서 시작된 전은 개인의 전을 기록하면서는 인물에 대한 생의 단면을 그리거나 아니면, 작가의 인물에 관한 주관적 관념을 드러내는, 필요한 에피소드만을 선택하여 테마적 구성을 하거나 시간적 구성과 함께 대위법적 구성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료의 취사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기는 구성면에서 자연히 ‘허구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엔 작가가 대상 인물의 일관된 생애와 성격을 그려내기 위해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사실까지도 주저 없이 사용하여 허구의 진실은 더욱 확대된다.⁹⁾ 이러한 요소는 훗날 전설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을 기술하는 작가의 판단에 따라 허구의 진실을 개입하게 된다면 이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문학화되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만덕전도 이러한 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전의 일반적 구성을 보면¹⁰⁾, 도입부에서 대상 인물에 대한 성명, 출생, 가계 족보, 성격을 제시한 뒤, 신화처럼 탄생 과정 같은 것은 없이 바로 사건 행적이 나온다. 그러나 주인공의 가계와 신분 및 성격 등의 사항을

7) 김균태, “전문학”, 『한국고전소설론』, 한국고전소설편찬위원회, p.94.

8) 유협저, 최신희 역주, 『문심조룡』, 사전, 제16, p.259.

9) Alan Shelston 저, 이경식 역, 『전기문학』, 문학비평총서 16, 서울대출판부, 1979, “사실의 진실과 허구의 진실” 참조.

10) 김균태, “전문학”, 『한국고전소설론』, 한국고전소설편찬위원회, pp.102~103.

모를 때에는 출생 지역을 밝히는 정도이거나 이것마저 밝히기 어려울 때에는 대개 “某某人是 不知何許人也”라고 시작한다.

그 다음, 후반부에는 인물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되는데, 기록이 없을 땐 그에 대해 알려진 삶의 결과를 두고 의론의 형식으로 기사화하게 된다. 이를 史傳의 變體라 한다. 이것은 사건의 서술이 없어서 서사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변체가 아닌 정체는 대개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종적으로 서술한다. 시간적 순서에 의한 서술의 경우도 사건의 과정을 서술한 것이 있는가 하면 행적의 결과를 보고하는 기술로 그친 것도 있다.

사건 과정을 서술한 기사는 대개 생애의 단면을 서술할 때, 대화도 삽입하면서 장면을 서술하거나 제시된 삽화들이 필연적 관계에 따라 전개되어 하나의 구조물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의 진실을 서술하여 서술자의 의식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상상적 충동에 의한 허구의 진실까지 끌어들인다.

그러면 실록은 어떤가? 전문학이 허구적 사실까지 넣으면서 기술하는 반면, 실록은 객관적 사적의 객관적 기술이 생명이다. 허구적 사실이 아닌 진실을 지배계급적 질서의식 속에서 간략하게 기술한다. ‘당시 한 사람이 어떤 연유로 공이 있어 실록에 기록한다.’라는 사실 뿐이다. 따라서 결과만 제시된다. 이는 감동과 흥미성을 지향하는 문학과 달리 사실의 전달과 교훈성이 중시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실록의 만덕에 관한 기술과 만덕전의 기록 사이에 사실과 허구라는 요소의 개입을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채제공의 만덕전에서는 기생이었던 신분이 양인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게 제시되지만 실록에서는 임금이 그의 공덕을 보고받고 적절한 포상을 한 점이 강조되어 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양인이 기민을 구휼하든 기녀가 구휼하든 상관없이 기민구휼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표현이다. 양인이든 기녀이든 임금의 백성이기에 이는 지배층의 치국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실록 편찬자의 주관이 철저히 배제된 실록과 달리 만덕전은 주관이 개입되어 있어 역사기록의 속성보다는 문학적 속성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문학적 속성이라 함은 채제공의 만덕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만덕의 신분과 문학화

채제공의 만덕전에 따르면 만덕은 탐라의 양가집 딸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의지할 데 없어 기녀에게 몸을 의탁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관의 기적에 이름을 올리고 기녀일을 했으나 본인 스스로는 기녀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20여 세가 되자 관에 읍소하여 관기에서 삭제하고 양가의 딸로 돌아왔다고 한다.

왜 만덕이 기녀에서 양인으로 돌아오고자 했는지를 당시 조선조 신분체계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선조의 신분체제는 양친, 사서(士庶), 사농공상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신분제도는 치자계층과 피치자계층의 2분법으로 나뉜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양반이 치자계층에, 중인, 상민, 천민이 피치자계층에 해당한다.¹¹⁾ 천민은 노비, 광대, 무당, 창기, 백정 등이 속했으나 만덕이 기녀였다면 천민 계급에 속하는 셈이고, 기적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었다면 상민이 되었다는 뜻이다.

기녀는 조선 초기부터 있던 제도인데, 그 종류는 여악(女樂), 의녀(醫女), 창기(娼妓) 등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관기(官妓)를 뜻한다. 이들의

11) 한우근,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1969, pp.166~177. 5편 2장 신분제도 참조.

신분은 천인으로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같은 존재였다. 기녀는 노비와 마찬가지로 한번 기적(妓籍)에 올리지면 천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가령 양반과 혼인하더라도 그 자식은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에 따라 아들은 노비, 딸은 기녀가 되었다. 기녀의 신분은 관아에 예속된 채 세습되었다. 늙거나 병이 들어 기녀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딸이나 조카 혹은 여자아이를 대신 들여보내야 했을 정도로 그 지위가 세습되었다. 이를 벗어나려면 돈을 바치고 속량되는 경우가 아니면 평생 벗어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녀는 모녀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를 잇는 기녀 외에도 일반 백성이나 양반의 자식이 기녀가 되기도 하였다.

홍년이 들어 가족이 흩어질 때 흔히 여자아이는 기녀로 팔려갔으며, 역적 집안의 여자들이 강제로 기녀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은 대부분이 굶어죽게 되었으니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는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난에 굶주렸던 만덕은 기녀가 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양어미를 기녀로 두는 바람에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에 따라 기녀가 된다. 한번 기녀가 되면 평생 벗어날 수 없었으며, 천민의 굴레를 지고 살아야 했으므로 철이 든 후, 그녀는 양인으로 신분을 회복한 셈이다.

그러면 정조실록의 ‘제주기 만덕’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조선조 기녀에 대해 설명하면, 기녀의 활동기간은 15~50세인데 어린 기녀를 동기(童妓), 나이 든 기녀를 노기(老妓), 노기보다 나이가 많아 퇴역한 기녀를 퇴기라고 불렀다. 기녀 중에는 관기 외에도 양방(雨房) 기생이라고 하는 내의원 해민서 소속 의녀인 약방(藥房) 기생과 상의원(尙衣院)의 침선비(針繕婢)인 상방(尙房)기생이 있다.

같은 기녀라도 창기는 천민이지만 내의원 의녀는 중인 신분이다. 내의원 의녀는 실제로 임금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하기에 임금을 만날 수 있다. 만덕이 기민을 구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금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신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임금을 치료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도록 채제공은 편법을 써서 의녀 반수직을 내리고 임금을 배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만덕은 어렸을 적에는 양인이었다가 기녀를 수양모로 맞으면서 기생이 되었고, 다시 양인 신분을 획득했는데 임금을 배알하기 위해 기녀반수직을 받은 셈이다.

따라서 채제공이 양인이라고 하는 만덕을 사관들이 기녀로 기술한 것은 그녀를 폄하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으로 대접한 것이라 여겨진다. 신분적으로는 천민보다 양인이 우월하지만 궁에서 의술을 펴는 내의원 의녀가 되는 것은 나라에서 신분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기록인 실록에는 내의원 반수의녀라는 뜻으로 『제주기』라 표현한 것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만덕이란 그녀의 이름에 관심을 가져보자.

오늘날 가문을 중시하고 부계혈족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은 과거, 한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순수 토박이 말로 지었던 이름이 한자의 유입과 성의 보급에 따라 한자식 이름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신라 경덕왕(지증왕시) 때 지명을 한자로 바꾼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심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혁거세를 불거워라 하거나, 고양부를 높은이, 어진이, 밝은이로 푸는 것 등이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이다.

그 토박이 이름들은 출산 장소에 따른 것(마당쇠, 부엌손, 축항둥이 등), 간지 나달 이름에 따른 것(갭돌이, 정월이, 을생이 등), 성격에 따른 것(억척이, 낱작이 등), 기원을 곁들인 것(딸고만이, 불드리 등), 순서에 따른 것(삼돌이, 막내 등), 복을 비는 천한 것(개똥이, 돼지 등), 그 외로 동식물 어류

이름에서 딴 것들이 있다.

일제 강점기 때 호적을 정리하면서 여성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호적에 올린 이름의 흔적을 흔히 찾을 수 있다. 옛 어른들의 진술에 따르면 아이들은 이름을 갖지 않았고, 특히 여자아이는 큰년, 셋년, 죽은년, 말젖년 등으로 불렸다. 해녀 일을 하다가 출산을 하면 그에 맞춰 이름을 지었다고 하니 오늘날의 이름처럼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덕이 어릴 때부터 천덕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는 천덕 역시 다른 의미의 이름이었다가 한자를 취하여 정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만덕이 1739년 태생이므로 이름이 없었으리라 추정되는 바, 만덕이라 칭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정비석은 기녀열전에서 김만덕의 부친이 선견지명이 있어 만덕이라 이름을 지었다 한다. 그 근거로 삼국사기 권제32 잡지(雜志) 제1, 祭祀樂條에서 신라 음악을 설명하면서¹²⁾ 우륵이 신라인 3명 중 1인인 ‘대사 만덕’에게 음악의 업을 전했다는 기록이다. 이를 정비석은 계고는 가야금에 출중하고, 대나마법지는 노래, 만덕은 춤에 출중하였다고 풀고 있다. 따라서 관기인 만덕이 뛰어난 춤을 설명하려니 춤을 잘 추는 만덕으로 바꾸고,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김만덕이 기녀가 될 재질을 타고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¹³⁾

12) 삼국사기 권 제32 잡지(雜志) 제1, 祭祀樂條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신라고기에 말하기를 가야국의 가실왕은 당의 악기를 보고 이를 만들었는데 왕은 제국방언과 각각 성음이 다르므로 어찌 같을 것이냐 하고 곧 악사성에 있는 열현사람 우륵에게 명하여 12곡을 지었는데 뒤에 우륵은 그 나라에 난리가 일어났으므로 악기를 가지고 신라 진흥왕에게 투입하니 왕은 이를 받아들여 국원에 안치하고, 곧 대나마주지, 계고와 대사 〈만덕〉을 파견하여 그 업을 전수케 하니, 이들 3명은 그의 11곡을 전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는 번거롭고 또한 음난하여 아정하지 못하다 하고 드디어는 이를 5곡으로 약제하니 우륵은 처음에는 이를 듣고 노하였으나...”

이렇게 볼 때, 만덕은 어렸을 적에는 이름이 없었다고 보여지며, 기적에 올릴 때 만덕이라는 기생명으로 이름이 올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록에서 ‘濟州妓萬德’은 바로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하고, 채제공의 만덕전에서도 官府籍萬德名妓案이라 하여 만덕이란 이름으로 기적에 올렸음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김석익은 탐라기년 정조 19년조에서 行首金萬德이라 하여 기녀라는 말을 뺀을 뿐 기녀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의 설명으로 보아 만덕은 가난 때문에 기녀의 딸이 되었다가 기적에 만덕이란 이름을 올렸고, 어떤 계기로 양인이 되어 기민을 구휼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녀라는 직책으로 임금을 배알한 셈이 된다.

여기서 신분이 낮은 인물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 빈민을 구휼했다는 사실은 당시 지배층의 사고로는 납득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 평가되었기에 그녀는 충분히 문학화할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

-
- 13) 〈본디 아버지 김웅열이가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만덕이라고 지은 데는 깊은 유래가 있었다. 그 옛날 가야국이 망하자 가야금의 창조자인 명악사 우륵은 신라로 투항해 왔었다. 신라의 진흥왕은 음악을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에 그는 우륵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길러서 가야국의 음악을 길이 계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륵은 많은 제자들을 길러 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제자 세 명이 있었으니, 계고(階古)는 가야금에 출중하였고, 대나마 범지(大奈麻 法知)는 노래에 출중하였고, 태사 만덕(太舍萬德)은 춤에 출중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 만덕하면 누구나 춤을 연상했던 것이다. 시골 선비 김웅열은 그러한 고사들을 알고 있는지라, 고명탈의 이름을 굳이 만덕이라고 지어주었는데, 우연치 않게도 만덕은 모든 기예에 능한 중에도 특히 춤에는 재주가 비상했던 것이다.〉

갑인년 흉년과 만덕의 구휼

갑인년 흉년

그녀가 거상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점은 그의 경제적 안목과 사업수완을 엿볼 수 있는 점이나, 무엇보다 그녀를 이롭게 한 것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점이다.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만덕에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인심이 사나워 물조차 먹을 수 없을 지경이 되면 ‘갑인년 흉년에도 물은 먹을 수 있었다.’고 어려움의 대표격으로 갑인년 흉년을 든다. 이처럼 1794년 갑인년은 제주도 어려움의 대표격으로 거론된다.

제주인에게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이를 3災라 하여¹⁴⁾ 수재, 한재, 풍재를 말한다. 5월 장마철에는 홍수의 피해를 입고, 여름에 한 달쯤 비가 아니 오면 한발로 농작물이 말라 죽고, 가을철에는 태풍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게 된다고 하여 지칭한 말이다. 농사를 지어 살아야 하는 제주민에게 이 3재는 곧 죽음과 다름없었다. 3재가 닥치면 제주는 흉년이므로 제주의 목민관은 매년 기근에 시달리는 제주 백성들을 위해 조정에 알려 구호식량을 요구했다.

만덕의 생존 시절 갑인년 흉년의 참상이 어땠는지 목사 심낙수(沈樂洙)의 장계 내용 중 중요한 것을 뽑아보면 알 수 있다.

- 8월 27일에 동풍이 불었다.
- 대정과 정의현 피해가 더욱 심하다.
- 고금에 드물게 결실이 없다.
- 10월 이후에는 조정의 구호를 바랄 뿐이다. 백성들이 죽는 것을 서서 볼 수 없다.

14) 山高深谷水災, 石多薄土旱災, 四面大海風災.

심낙수는 이러한 어려움을 들어 제주민을 살리려면 2만 석의 구휼미를 요청하지만 조정에서는 흉년의 어려움은 제주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름이 없다며 난색을 표한다. 이에 대한 채제공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전라도 연해읍도 제주와 다를 바 없다.
- 육지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들의 것을 뺏어 제주로 보낼 수가 없다.
- 2만 석 구호는 전례가 없다.
- 겨울과 봄으로 나누어 구호시키자.

8월 27일 동풍은 태풍으로 추정되는데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었던 듯하다. 채제공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라도 연해읍도 피해를 입었으니 고통은 마찬가지로 그들의 식량을 뺏어 보낼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목사 심낙수가 제주민의 피해를 눈뜨고 그냥 볼 수 없어 거듭된 고변에¹⁵⁾ 정조는 “육지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 사는 길이라도 있는데, 제주 백성은 그렇지 못하니 구하는 것이 급하다.”고 하여 전라감사 이서구를 시켜 구호곡을 보내도록 한다.

만덕의 기민 구휼

심낙수 목사의 장계에 임금의 지시로 구호곡을 신고 제주로 운송 중이던 5척의 운반선이 침몰하고 만다. 제주민은 운명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척박한 제주도의 토질에서 농사를 지어 풍년이 들어도 제주민이 겨우 살아갈 수 있는데, 정조 16년(1792)부터 무려 4년간 흉년이 들었으니 도내 식량 사정의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외부에서 구호

15) 태풍으로 집이 날아가버린 것 같다.

곡이 없으면 죽음뿐이다.

이러한 상황이면 돈을 많이 벌어 호의호식하는 만덕도 상황이 안 좋아졌을 것이고, 주위에서 굶주려 죽었다는 소문은 끊임없이 들렸을 것이다. 김통정 전설의 예를 보더라도 흉년으로 인한 기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김통정 장군이 백성을 시켜 토성을 쌓을 때는 몹시 흉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허기를 달래려고 역군들이 배가 고파 인분을 먹었는데 자기가 꾸주려 앉아 똥을 싸고 돌아앉아 그것을 먹으려고 보면, 이미 옆에 있던 역군이 그것을 주워 먹어버려 제 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고 한다.¹⁶⁾

얼마나 굶주렸으면 인분까지 먹었다고 할까. 김만덕 자신이 기생이 된 이유도 굶주림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생사를 판가름짓는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다. 만덕이 500석의 곡식을 사오도록 하여 1/10은 친족들에게 주고, 나머지 450석은 구호곡으로 내놓았다. 여기서 제주도민 전체를 위한 것이면서도 친족을 살리려는 그녀의 가문 중심 사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이우현 목사와 조정일 판관은 “본주 김만덕 여인은 곡식을 사서 진곡으로 450석을 원납하였고, 전현감 고한록은 진곡으로 보충한 것이 300석에 이르며, 장교 홍삼필과 유학 양성범은 각각 원납곡이 100석이 되니 지극히 가상합니다.”라 임금께 장계를 올렸다.

그런데 여기서 전 현감, 장교, 유학 등과 객주집 주모인 김만덕과의 신분의 차이로 볼 때, 김만덕의 450석 구휼미는 굉장하다. 임금은 “홍삼필과 양성범이 원납한 100석은 육지에서 1,000포에 필적한다.” 하고 순장(巡將)으로 승진 임명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렇게 볼 때 김만덕은 홍삼필과 양성범의 4배가 넘는 것이니 더 많은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16) 현용준, “김통정 장군”,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7.

하지만 그녀에게는 벼슬을 줄 수 없었다. 아마도 이것은 만덕이 여성이었기 때문이지 신분상 천민계급인 기녀였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출륙금지령과 만덕의 금강산 유람

새로 부임한 유사모 목사가 상을 내리겠다는 임금의 유지를 전하자, “다른 소원은 없사오나 오직 소원이 있다면 한번 서울에 가서 임금님 계시는 궁궐을 우러러 보고, 천하명산인 금강산 1만 2천봉을 구경할 수 있다면 한이 없겠습니다.”고 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 1천 1백여 명을 기아에서 살려낸 공적에 비하면 금강산 유람을 하겠다는 그녀의 소원은 너무 작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제주도를 떠나는 것이었다. 제주민이 마음대로 제주도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출륙금지령이라 하는데 이는 인조 7년부터 순조 말 1834년까지 있었다. 출륙금지령의 역사적 배경은 조선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말의 혼란 이후에 많은 유민들이 유입되어 제주도는 인구가 급증하였다. 토지가 척박하고 협소했기에 제주도는 이러한 인구의 증가로 자급 자족이 곤란하게 되자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점점 육지로 떠나는 경향이 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제주도에는 사람이 부족하니 그에 따라 왜적의 침입 등에 따른 자체 방어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다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군역의 의무를 지게 되고, 굶주림 뿐만아니라 왜구의 침입에 대한 위협까지 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삶을 위해 육지로 도망치게 되고, 인구의 격감은 당연한 결과였다. 1629년 조정에서는 제주도 자체방어에 어려움이 많게 되자 제주도민의 출륙을 못하게 하였고 특히 여성들은 육지인과의 혼인 관계까지도 금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순조 말(1834)까지 약 2백년 동안 지속되었다.

흉년이 들어 먹고 살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 살려는 도민을 법으로 가두어두고 어떻게든 살아가라는 법이다. 이 법 덕택에 제주도의 인구수는 증가한다. 하지만 출륙금지령 때문에 제주도민이 본토 구경을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꼭 막혀 살았던 만덕이 나름대로 부자가 되어 누릴 것은 다 누린 셈이지만 법으로 금지한 출륙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임금의 제안에 법을 어기는 금강산 구경이라는 소망을 피력한다. 지금도 이름답다고 가고 싶어 하듯이 그 당시도 금강산 유람이 부자들에게는 꿈이었던 것 같다.

육지에서 장사하러 오는 상인들을 통해서도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들었을 것이고, 벼슬아치들에게서도 들었을 터이니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은 생기게 마련이다. 다른 나라도 아닌 같은 조선에서 가장 이름답다고 하는 곳이니 금강산을 보고자 하는 것은 조선 전 백성의 소원이었을 것이다. 조선 제일이라는 명기 황진이도 금강산을 보고 싶어했다는 것을 보아도¹⁷⁾ 그 아름다움은 만덕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만덕이 채제공과 헤어질 때 진시황과 한무제가 해외에 삼신산¹⁸⁾이

17) 유몽인, 진이(황진이), 『한국고전문학전집』 7, 書榮出版社, 1980 재판 발행, p.201.

진이는 천성이 놀기를 좋아하는 여자이다. 그 강산이 천하 제일의 명산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러나 어울려 짝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때마침 장안에 이생(李生)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재상의 아들로서 사람이 호탕하여 명예나 재산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자라 함께 멀리 놀이를 가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았다. 진이는 조용히 이생을 구슬렸다. “제가 들으니, 중국인은 고려국에 태어나서 친히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라 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 태어나서, 그것도 신선이 산다는 금강산을 지척에 두고도 구경을 못한데서야 어디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제 이 몸이 우연히 선랑(仙郎)을 만나게 되었으니 함께 신선처럼 노닐기에는 적격입니다. 산과 들을 거닐 간편한 옷차림으로 그 그윽하고 빼어난 경치를 구경하고 돌아온다면 그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18) 신선이 살고 있다는 전설적인 산으로 영주(한라산), 봉래(금강산), 방장(지리산)

있다 했는데, 만덕이 금강산과 한라산을 보았으니 역조나 되는 사내들보다 만덕이 낫다고 칭찬하는 것으로 보아도 만덕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중국인까지 가고 싶어 하는 천하명산이기에 금강산 구경을 원했다는 점은 만덕의 도전적 사고라 하겠다.

현대적 조명

정조실록에는 ‘제주기만덕’이라 하였고 체제공은 관기였었는데 20세 후에 양인 신분을 획득했다고 한다. 그러면 20세기 연구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김석익은 탐라기년¹⁹⁾에서 ‘행수김만덕’이라 하였는데, 김태능은 ‘義人 김만덕’이라 하여 신분을 벗어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치문은 ‘萬古奇人 김만덕여인’이라 하고, 제주도에서는 ‘구원의 여상 김만덕’이라 하여 경제인으로 평가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義女, 醫女’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3단계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1단계 해석

체제공의 만덕전

정조실록

2단계 해석

김태능, 의녀김만덕, 제주도사론고(1971, 김만덕기념사업회 요청으로 저술), 세기문화사, 1982.

한치문, 萬古奇人 김만덕여인, 탐라실록, 1973, 한진문화사.

을 뜻한다.

19) 심재 김석익(1885~1956)이 망국의 슬픔을 안고, 후진들에게 애국의 길을 일깨우기 위하여 1918년 편술한 것이다. 편년체로 수록함.

3단계 해석

정비석, “濟州妓萬德”, 『명기열전』, 1981, 신정사.

부영성, “김만덕”,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1986.

제주도, 『구원의 여상 김만덕』, 1989.

김봉옥, 『김만덕전』,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양중해, “김만덕의 자선”,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등이고, 21세기 들어서는 그에 대한 연구논문이 윤치부(2001, “인물 전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에 의해서 제기되고, 제주도(2002,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대영인쇄사)에서는 제주여성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만덕의 위상을 조명하고, 김찬흠(2002,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사)은 사전에 이름을 올리면서 김만덕의 존재를 영원히 기릴 수 있게 하였다.

이 중, 정조실록과 채제공의 기록이 오랜 것이고, 다음은 김석익의 것이나 이것은 채제공의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과 다름없으니 김태능과 한치문의 것이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여, 근래에 출판된 것은 3단계에 해당한다. 즉, 원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 1차적 변용은 2단계, 2차적 변용은 3단계의 순서로 이루어진 셈이다.

최초 기록인 채제공의 김만덕전을 유재건이 이향견문록에 수록하고, 김석익이 탐라기년에 요약하여 수록하였으니 그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2단계 변용은 김태능과 한치문에 의해 이루어진다. 김태능은 채제공의 원문과 그에 따른 해석을 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13개 항목으로 나눠 집필했다.

1. 머리말 2. 불우한 소녀시절 3. 기생시절 4. 양녀로 복귀 5. 식산에 전력 6. 정조시대의 흥년 상황 7. 구호곡을 기증 8. 왕의 殊異之恩을 입음 9. 滿都의 칭송과 만덕전 저술 10. 김만덕 가게의 대략 11. 만덕의 유덕을 추모하자 12. 채제공 저 만덕전 13. 추사의 김씨가 표창 편액

〈1971년 10월 김만덕기념사업회 요청으로 저술〉

한치문은 탐라실록에서 역사적인 인물을 들면서, 만고기인 김만덕 여인의 기민구휼 내용을 실감나게 덧붙였다. 게다가 만덕의 신체 모습을 설명하고, 임금이 잡아주셨던 손을 주단으로 감싸 살빛을 감추었다는 등 그 해석이 체제공과는 다르다.

3단계 변용부터는 소설로서의 체계를 갖춰간다.²⁰⁾

정비석은 진성기에게 부탁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명기 열전을 지었으니 이것이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영성은 이를 토대로 만덕이 동북리 사람이라는 근거로 삼이 구좌읍지에 싣고, 김봉옥, 양중해 역시 정비석의 소설적 해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김찬흡도 이를 토대로 기술하고 있다.

그래도 20세기 들어 김만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1971년 정태무가 주동이 되어 김만덕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모충사로 그녀의 묘를 이장하면서 만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앞의 ‘역사적 사실과 전문학’을 논의하면서 정조실록의 기록에서 제외된 부분으로 기녀에서 양민으로의 회복,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 입경하여 의녀반수직을 받은 사실을 들었다.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는 작가들이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재조명해 보려 한다.

20) 김만덕의 행적에 대한 평자로서 최초는 체제공이겠다. 두 번째로 김태능의 “義女金萬德傳”, 『濟州島史論考』, 406~437면, 1971, 만덕기념사업회 요청으로 집필. 그 다음은 김봉옥의 『김만덕전』,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37~96면. 다음으로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선”,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108~151면. 정비석, “濟州妓萬德”, 『명기 열전』, 1981, 239~335면. 유재건, 『이향건문록』, 가정을 일으키고 지킨 여인들 중 28. “임금이 소원을 들어주도록 명하다-만덕”, 1862.(조선 후기 중인 문화가 유재건(劉在建:1793~1880)이 1862년(철종 13)에 편찬한 책. ※ 위의 발표문은 〈의녀 김만덕 활약상자료조사 연구보고서〉(제주도, 2004년 11월)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일찍 사망하고 형제가 이별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대목이다. 부모 사망 단락을 보면 조실부모하여 어려서 고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전국에 유행병이 돌았기에 이로 인해 만덕의 부모에게 불상사가 닥쳤다는 것으로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하고 있다.

형제가 이별한 것도 목동이나 사동으로 고용되어 나갔을 것이라는 추측의 단계에서 결혼하는 오빠의 이야기까지 있다.

기녀 입적

제주성내에 살던 한 기녀가 수양딸로 삼아 기적에 오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고향이 동북리이며, 퇴기인 월중선, 또는 한매가 데리고 산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구좌읍지에 만덕 이야기가 실리는 계기가 된다.

기녀시절

기생이 된 것으로 가문을 더럽혔다고 생각한 만덕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화류계를 벗어나 자신이 나아갈 좌표를 정하여야겠다고 한다.

정비석은 여기에 갑부의 유혹 모티브를 넣어서 극복했다고 하고, 김봉옥은 기억에 종사함으로써 가문을 더럽혔다는 형제들의 원성을 제시하여 심리적 갈등이 있었음을 보인다. 어쨌든 만덕은 제주 제일의 기생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위기 극복

이는 만덕전에 없는 내용이다. 굳이 관계를 짓는다면 지위가 낮은 탐라 벼슬아치들의 구혼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를 김태능, 정비석, 양중해는 설화모티브를 취하여 흥미롭게 구성했으나 김봉옥은 전기의 특성상 불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이 모티브를 제외시켰다.

양인회복

관에 읍소하여 기안에서 이름을 삭제한다. 이 과정에서 김태능은 만덕 자신이 반성을 하여 기적에서 삭제하게 되지만, 정비석은 고선흙과의 사랑을 제시하여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봉옥과 양중해는 조상제사를 철저히 지키고 있어 양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으로 식산

만덕이 어떻게 해서 재산을 모으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논자들의 공통되는 점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것과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체제공에 따르면 축재의 소질이 있고, 물건의 귀천관계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근거에 맞추면, 기생 일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정보, 당시 사회의 흐름, 투자와 자금운용 등이 만덕의 특징인 셈이다. 그 결과 정비석은 객주집을 시작한 지 1년 후부터 천냥 부자가 되었다고 하고, 김봉옥과 양중해는 제주의 조낭정신을 가미시켜 만덕이 표본적 인물임을 강조한다.

빈민구휼

전래 없는 흉년으로 제주민들이 다 굶어죽을 상황이 되자 만덕은 재산을 내놓아 곡식을 사오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굶으며 고생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살려내자고 의지를 굳힌다. 그러면 서로 미래를 위해 아끼지 않은 사람보다 부지런히 애쓴 사람을 먼저 도와준다.

김태능, 정비석, 양중해는 상상력을 가미하여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김봉옥은 역사적 사실을 들며 빈민구휼의 타당성을 보인다. 역사학

자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게다가 큰 술 두 개를 걸어 콩죽을 쑤어 빈민을 먹였다고 하거나, 정비석은 관덕정 광장과 삼성혈 길목에 가마솥을 십여 개씩 걸어놓고 굶주린 자들을 먹였다고 한다.

현재 지명으로 동문, 서문, 남문이 있는 곳은 성이 둘러친 곳이었으며, 삼성혈은 남문 밖일 뿐만 아니라, 시장이 활발하게 서던 곳이 동문시장과 서문시장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남문 밖으로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삼성혈 길목에서 굶주린 자들을 먹였다는 것도 상상력의 발현일 것이다.

내의녀 반수직

다른 사람은 임금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내의녀 반수직을 받게 되었다고만 하지만 정비석은 재미있게 그 연유를 제시한다.

〈제주의 명의를었던 황을 여사는 저의 집 이웃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분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소인이 그분을 가끔 찾아 뵙고 의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생업이 따로 있는 까닭에 의술에 대해 깊은 관심은 없었사옵니다.

... 중략 ... 그대와 같이 총명한 여인이 명의에게서 의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면, 비록 명의는 못됐을 망정 돌팔이 의원은 될 게 아니냐. 하하하... 그러면 성상을 배알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그대에게 행수내의녀의 직함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만덕은 행수내의녀라는 벼락 감투를 쓰고, 다음날은 대궐에 들어가 황궁하계도 대왕을 배알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명기열전, 319~320)〉

만덕이 어떻게 하여 내의녀 반수직을 하사받게 되었는지 그 역시 해명할 길이 없었기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치문은 임금이 만덕의 원손을 잡고 칭찬해 주자 만덕은 58세부터 7순까지 주단으로 감아 살빛을 감추었다고 하고 정비석도 이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설화적 요소의 수용으로 볼 만하다.

이상의 내용은 김만덕전 작가들의 비교표를 참조한 결과이다. 비교표의 내용으로 보아 1단계는 김태능의 글이 한치문에 영향을 미쳤고, 한치문은 설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김만덕전을 완성했다. 2단계는 정비석이 명기열전에서 소설로 완성시켰고, 이를 토대로 김봉옥, 양중해의 글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무리

18세기 말 제주 여성으로 1,100여 명이나 굶주림에서 구출해 낸 만덕의 행적에 대해 20세기 들어 많은 찬자들이 재평가하였다.

그들의 평가를 정리하면 만덕은 12살부터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혔다. 게다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적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생으로의 자세 곧, 예, 악, 서, 무 등을 빼어나게 익혔다. 자신이 처한 처지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행수기생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결정이 빨랐다. 기적에서 이름을 삭제해야 하겠다고 결정하면 일찍 그를 시행한 셈이다. 20대 초반이면 한창 꽃피는 나이 입에도 양인으로의 신분 변화를 과감하게 결정했다.

경제 행위에 대한 감각이 빨랐다.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경제 원리에 따르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매매하고 수익을 남기는 일이다. 만덕 역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었다면 제주에서는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육지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품을 통해

수익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출륙금지령으로 제주를 떠날 수 없는 처지에서 상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람을 다루는 인사관리가 출중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당시는 실학이 팽배해 있었고, 사농공상의 신분체제로 하류층이 아니라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글을 읽던 양반이 장사를 하는 것처럼 상업인들이 대우를 받았다.

만덕은 이러한 사회배경 하에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음을 단점으로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게다가 가족과 친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아가 제주도민들을 구하는 박애정신을 몸소 실천한 인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류애의 마음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채제공은 그의 됴됨이를 기리고자 만덕전을 지었고, 후세인의 존경을 받고있는 셈이다. 그리고 대궐 구경과 금강산 유람이라는 소원은 만덕의 포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정조가 만덕에게 상을 내리고자 할 때, 만덕의 요구는 상을 받기도 면천받기도 원치 않고 바다를 건너와서 왕성과 금강산을 보고 싶어했다는 사실이다. 당시인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 모든 재산을 국가에 바치는 상황 하에서도 그것을 거부했다는 일성록의 기록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 그러한 평범성을 벗어난 성격이 확대되어 한쪽 눈에 동공이 2개 있다는 설화적 인물로 화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에 만덕을 재탄생시키는 데는 먼저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하는 기초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만덕전 작가들의 비교표

부모 사망

김태능(1971) : 407 : 부모 유행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한치문(1973) : 94 : 유시에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어 고생하며 자랐으나 장성한 후 더욱 의탁할 곳이 없었다.

정비석(1981) : 254~255 : 그녀가 열 살 때에 김씨 문중에는 뜻하지 않았던 커다란 재앙이 닥쳐 왔다. 부처님처럼 자애롭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다. 게다가 화불단행이어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애통에 잠겨있던 아버지마저 얼마 후에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봉옥(1990) : 38 : 1월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월에는 어머니마저 호열자로 사망하였다.

양중해(1998) : 118 : 이 돌림병은 들불처럼 번져 나가더니, 드디어 만덕의 집에까지 밀어 닥쳤다. 먼저 아버지가 눕고 이어 어머니가 눕더니, 며칠 사이에 세 남매만 남겨두고, 그의 부모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꺼번에 돌아가신 것이다.

형제이별

김태능(1971) : 407 형제 : 동리 사람집에 목동이나 사동으로 고용되어 나갔을 것이다.

한치문(1973) : 없음

정비석(1981) : 255 : 그리하여 세 남매는 줄지에 사고무척한 천애의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김봉옥(1990) : 38 : 당시 만석의 나이 23세, 만덕 12세, (중략) 만석은 백부의 도움으로 동네 부씨에게 장가들어 집안을 이어 가고, (중략) 만재는 백부의 집에 의탁하게 되었다.

양중해(1998) : 118 : 며칠 사이에 세 남매만 남겨두고

외모

김태능(1971) : 408 : 재색을 겸비한 명기

한치문(1973) : 94 : 만덕은 몸이 부대하고 키가 크며 언어가 유순하였고 외모에도 후덕한 빛이 나타나며 눈은 童暗이었다.

정비석(1981) : 251 : 나이는 7~8세 가량 되었을까, 첫눈에 보아도 눈이 어글어글하게 빛나고, 용모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였다.

김봉옥(1990) : 42 : 만덕의 타고난 미모와 후리후리한 키에 상냥한 성품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고 정결한 몸가짐과 뛰어난 기예는 널리 알려졌다. 74 : 장안 화제가 된 만덕 : 만덕의 외모 : 만덕의 얼굴을 보니 나이가 60이라 하지만 40 정도로 예쁘게 보이었소. 후리후리한 키에 눈은 쌍꺼풀이고 눈매가 밝아 마치 관음보살 같았소.

양중해(1998) : 없음

기녀 입적과 삭제

김태능(1971) : 407 : 제주성내에 한 기녀가 살고 있었는데 (중략) 이 여아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잔 심부름도 시키면서 양

육하고 친딸 같이 사랑하였다. 관청에서 권유 겸 강요가 심하였고, 또 만덕의 주위사람들의 권고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치문(1973) : 94 : 할 수 없이 몸을 교방(기방)에 의지하고 생활을 영위하나 근검과 절약을 위주하니 자산이 점점 치대하여 갔다.

정비석(1981) : 250~251 : 고향은 동북리이며, 어릴 때는 말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는 퇴기 월중선이 데려다가 기생수업을 시켰다.

김봉옥(1990) : 39 : 동네 여인의 주선으로 한 기녀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39 만덕이 18세 되던 해 수양어머니가 갖은 방법으로 그를 유혹하여 기적에 올리게 하였다.

양중해(1998) : 119 : 寒梅 또는 大山이라고 불리는 한때 기생이 만덕을 데리고 살았다.

기녀 시절

김태능(1971) : 413 : 가문을 더럽힌 죄를 씻으려면 무엇이든 보람있는 일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돌렸다. 그래서 기생 만덕은 화류계에서의 방랑과 사치와 허영 등 퇴폐적인 생활에서 하루바삐 벗어나서 자기가 장래에 나갈 좌표를 정하여야 하겠다고 결심하여 분연히 일어섰다.

한치문(1973) : 없음

정비석(1981) : 269 : 게다가 나이가 들어 혼인할 나이가 되자, 제주읍에 사는 부자 한량 이시현이 천냥 거금을 낼 테니 만덕의 머리를 얹게 해달라고 하자 만덕은 일언지하에 거절

하고 제주 남자가 아니면 혼인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히 거절한다. 17세 되던 해는 관기임을 들어 신임사또가 수청을 들라 해도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량들이 머리를 얹어 주겠다는 감언이설을 거부하고 직접 고선흙을 만나 두 딸을 거느리고 가정을 꾸릴 의향이 있음을 내비치고 허락을 받아 기적에서 삭제되었으나 혼인식을 앞두고 돌림병에 죽고 만다.

김봉옥(1990) : 43 : 만덕의 기억 종사와 삭제 : 만덕은 기억에 종사한 지 5년 만에 명기로서 이름을 날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지만 항시 마음 속에는 번민이 있었다. 그것은 형제들로부터의 싸늘한 원성이었다.

양중해(1998) : 121 : 만덕의 장래에 대하여 진실로 걱정해 주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녀 스스로 관기가 되도록 기적에 오르는 것을 승낙하였으니, 17~8세를 넘기면서 만덕은 이미 기억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적에서 벗어나려는 뜻

김태능(1971) : 414 : 다시 양녀로 회복시켜 주시면 집에 돌아가 힘껏 노력하여 친가를 재흥시키고, 또 남은 힘이 있으면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다하고자 하오니,

한치문(1973) : 없음

정비석(1981) : 275~288 : 고선흙과의 사랑을 추리해 놓은 것 같다.

김봉옥(1990) : 43 : 특히 정월 12일 아버지의 기일과 6월 3일 어머니의 기일에 친척들이 모이면 선비의 집안이 만덕으로 하여 친민의 대접을 받는다는 원망의 소리다. 만덕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집안에는 타격이 컸다. 이로 인해 만덕은 조상에 대해서 면목이 없고, 자기로 인하여 동기간이 천민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양중해(1998) : 128~131 : 만덕이 기적에서 이름을 삭제하기 위해 제주 목사 신광익과 제주관관 한유추에게 탄원할 때, 그녀는 자기가 이와 같이 기방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은 조상에 대한 불효라고 눈물로 호소하였다. 또한 목사와 관관을 설득시키기 위해 이름있는 서울 손님이 오자 목사와 관관을 동석시켜 130~131 :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게 한다. 만덕은 오늘이 선친의 제사인데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어야 하는 어려움을 말한다.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관기로 있지만 자신은 양가집 처자와 같이 조상을 모시며 유학을 숭상하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위기 극복(전설)

김태능(1971) : 410 : 전해오는 이야기라 밝히고 탐욕과 호색의 목사가 부임하여 왔을 때 역시 수청들라 하자 사또님은 선대감과 얼굴이 꼭 닮으시네라 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411: 어젯밤 꿈에 선대감님을 뵈었는데 412: 이상은 장우철 편, 진선미 참조.

한치문(1973) : 없음

정비석(1981) : 270~272 : 만덕이가 17세 되던 해 제주 목사가 부임하여 관기이니 수청을 들라하자 소복단장으로 나아가 죽을 각오로 나섰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 위기를 극복한다.

김봉옥(1990) : 42 : 때로는 호색한 자들이 집요하게 유혹하며 치근거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들려준 열녀 김천덕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가무와 거문고로 응수하여 고비를 넘겼다.

양중해(1998) : 122~124 : 한양에서 순무어사 홍상성이 내려왔을 때 수청들라 하자 “어르신 얼굴이 어르신 선친의 얼굴과 그렇게도 닮으실 수가 있습니까?” 고 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어떻게 양인이 되었는가

김태능(1971) : 413 : 세 번째는 직접 파난과 목사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였다.

414 : 당시 목사는 신광익이요 판관은 한유추인 듯하며 만덕이 나이는 23~4세요, 시대는 영조 37~8년 경인 듯하다. (중략) 친가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겠다. (중략) 기적에서 기명을 삭제한 후, 다시 양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414 : 약 12년 만에 3남매가 서로 만나 한 집에 모여 살게 되었던 것이다.

한치문(1973) : 없음

정비석(1981) : 없음

김봉옥(1990) : 44 : 사또께서 이를 불쌍히 헤아려주셔서 기안에서 제명하여 양녀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소녀는 친가로 돌아가서 친가를 재건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힘이 있다면 저와 같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보겠습니다. (중략) 45면 : (양녀로 복귀) 44 :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기적 입적이 주위의

뜻이었음을 밝히고 눈물로 호소하여 기안에서 제명받았다.

양중해(1998) : 없음

객주집

김태능(1971) : 415 : 오라비 형제에겐 농사짓고 목장하게 하고 자신은 장사하기로 결심하여 그는 우선 자기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주막을 겸한 객주업을 시작한 듯하다.

416: 만덕의 영업은 불과 수년에 유수의 객주업으로 발전

한치문(1973) : 없음

정비석(1981) : 289 : 물산객주 :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무엇을 해먹고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할수록 눈앞이 막막하였다.

만덕은 지금 당장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이 290 : 돈이었다. (중략) (그렇다! 이제부터 친정을 부흥시키고, 두 고아를 어엿하게 키워서 시집 보내기 위해서도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게 결심한 만덕은 그날부터 두 팔을 걷고 나서서 부둣가에서 물산 객주집을 차리기로 하였다. (중략) 291 : 만덕은 석 달이 채 못가 수하에 쓰고 있는 고용인이 십여 명이나 되었고, 그 때부터는 돈이 쏟아지듯 모일 뿐만 아니라, 어엿한 도매 상인 행세까지 하게 되었다. 291면 : 만덕은 객주집을 시작한 지 1년 후부터 이미 천냥 부자가 되었다.

김봉옥(1990) : 45 : 1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만덕은 오빠들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었다. 한때 기녀로서의 빛을 다 청산한 기분으로 즐거웠다. 만덕이 한창 나이였으므로 기안에서 제적

되자 지체있는 집안에서 청혼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덕은 일찍이 결심한 바가 있어서 이를 물리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약간의 돈으로 객주집을 차리기로 하였다. 47면 : 만덕은 수년 동안에 자본도 축적되고 이름있는 거상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특히 창고를 지어 물건을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물물교환도 하게 되니

양중해(1998) : 없음

구휼에 대한 평가 : 돈을 벌게 된 계기

김태능(1971) : 415 : 만덕이 돈을 버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가난했기에 이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 친가를 재흥시키고, 다음은 제주를 위하여 또는 고난에 허덕이는 모든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보람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만덕의 이상과 포부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영업 전략을 보면, 물자의 유통경로와 교역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자, 기생 시절의 경험과 견문 등을 살려, 관청 용품, 관리 집안의 일용품 등을 비롯하여 기녀들의 의복감과 장신구와 화장품 등 특수인들이 쓰는 상품을 그들의 기호에 맞게 제공하고 제주와 육지의 물품을 필요한 곳에 수집·제공함으로써 큰 돈을 벌게 되었다. 특히 물건이 흔하여 가격이 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염가로 사두었다가 품귀하거나 시세가 오르게 되면 고가로 팔아 이득을 보았다. 게다가 그녀는 당시 사회 활동이 없었던 여성에 비해 여성의 능력이 과시된 표본이었으며, 자립 활력이 강한 탐라 여인의 대표적 실례로 자랑하고 있다.

한치문(1973) : 없음

정비석(1981) : 292~295 : 육지에서 장사차 오던 상인이 표류해 갔다가 겨우 제주에 도착했는데, 이미 시기가 지나 물건을 팔지 못하자 만덕에게 싸게 맡긴다. 만덕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 못해 그 물건을 맡아버렸는데, 그 해 가을에 삼남 일대의 목화가 대홍작이어서 그해 겨울에는 필목과 솜값이 다섯배로 뛰어 일약 거부가 된다. 또 제주에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물건이라도 서울에서는 귀하게 여기는 물건, 즉 우황, 모시포, 진주 등이 있음을 알고 혈값으로 사모아서 서울 장사꾼에게 넘겨 많은 이득을 남겼다. 그러던 제주에 정조 16년~19년(1792~1796)까지 4년 동안 계속하여 흉년이 들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다.

김봉옥(1990) : 46 : 게다가 만덕의 장사는 위탁매매, 물자의 유통경로와 교역에 대한 물정 인식, 장사는 물자의 유통과 수요자의 편의를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 박리다매, 육지 상인들이 제주의 토산물을 사고 가는데 적정한 값으로 구매하였다가 이득을 보고 넘겨주는 중간상인 역할, 47 : 그러면서 박리다매, 정가매매, 신용본위를 지켰다. 기녀들에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상류층 부녀자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염가로 공급, 관가의 물품까지 공급 등 오늘날 사업수완으로 견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조냥을 했으니 금방 큰돈을 벌게 되었다.

양중해(1998) : 133 : 기녀 시절의 지면과 경험과 견문을 십분 이용하였다고 한다. 134 : 만덕은 장사를 하는 데도 그녀 나름대

로의 방침이 있었다. “장시를 흥쟁흥민 상점에 내놓을 상품이 시어사 흥주미는, 그만한 분량의 상품은 늘 창고에 시어사 흥고, 그만한 물건을 살만 행전이 늘 주머니에 가정 시어사 흥다.” 131~132 : 지금 세 오누이가 뿔뿔이 헤어져서 살고 있는 것도, 조실부모한 불행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위에다 너무도 가난하였기 때문이다.

구휼의 뜻

김태능(1971) : 415 : 고생살이를 하여야 한 것이 모두 우리 집이 가난한 때문이었으니, (중략) 친가를 재흥시키기로 노력하고, 그 다음은 내 지방을 위하여 또는 고난에 허덕이는 모든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이나 보람있는 일을 해 보겠다는 것이 젊은 만덕 여인의 이상이요, 포부였던 것이다.

한치문(1973) : 없음

정비석(1981) : 없음

김봉옥(1990) : 없음

양중해(1998) : 142 : 기민들은 벌써 부황으로 여기 저기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죽기 전에 이 기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나의 재산을 바치자.’

빈민의 아사를 보고 만덕의 생각

김태능(1971) : 423 : 소녀 시절에 기생이 되어 불우했던 내가 함정에서 벗어 나와서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오로지 관인들과 이웃

사람들의 덕택이며, 나의 초지(初志)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어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었던 까닭에 내가 일평생을 여자 독신으로 식산에 전심해 온 것이 아니었던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소망이 이루어졌고 제주도 중에서 나를 가리켜 부자 여인이라 하고 있다. 내가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수전노나 탐욕의 화신도 아니다, 이제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내 재산을 죽여가는 내 지방 사람들을 위하여 하루바삐 아낌없이 유효적절하게 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식산에 노력한 목적인 것이요, 또 나의 본회이기도 하다. 부자의 길을 보여줌

한치문(1973) : 없음

정비석(1981) : 301~304 : 절량 기민들은 죽지 않으려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어 먹어서 산과 들도 적토(赤土)가 되어 버렸건만, 그래도 아사자는 속출하였다. (중략) 만덕은 그 동안에도 자기 나름대로 기민 구제에 힘을 써왔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에서조차 손을 들어버려서 제주 거리에는 가는 곳마다 아사자의 시체가 즐비하지 않은가. 만덕은 이우현 목사에게 달려가 (중략) 정비석이 만덕을 통한 평가는 관은 소극적이며, 무대책인 반면, 만덕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구휼하고, 정부에 대해 백성이 없는 통치자가 있을 수 있는가라며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오늘날 모든 권력은 백성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나, 제주 백성은 제주 스스로 지켜야 하겠다는 자주意識의 소유자가 만덕이라는 주장

김봉옥(1990) : 없음

양중해(1998) : 142~143 : 재산을 내놓을 때 비장함을 서술한다. 만덕은 그동안 근검절약하면서 이루어놓은 재산을 다 내놓는다고 생각하니 비장한 생각이 들었다. “이 고장 사람들이 날 도와주난 나도 장시를 하고 돈도 벌었다. 이 고장 사람들이 몹시 어려운 지금, 내 이 고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내 재산을 돌려주어서 헛키여.”

아사자구휼전설

김태능(1971) : 없음

한치문(1973) : 94 : 이력저력 제주도는 연하여 갑인년 같은 흉년이 들어 개국 400년 정조조 19년 봄에는 제주도민이 모두 기사지경에 당하였다. 때에 김만덕은 큰 술 두 개를 걸어놓고 콩죽을 쑤어서 매일 한 그릇씩 주며 많은 재물을 풀어 사방에서 곡식을 무역해서 1~4월까지 수만생명을 구제하였다.

정비석(1981) : 309면 : 그녀는 보리쌀을 입수하자, 제주읍내의 관덕정 광장과 삼성혈 길목에 거대한 가마솥을 십여 개씩 걸어 놓고, 거기다 죽을 쑤어서 누구든지 굶주린 사람에게 죽을 한 그릇씩 나눠주기로 하였다.

김봉옥(1990) : 없음

양중해(1998) : 144 : 가장 곤란한 사람, 나이 많은 노인, 어리거나 병약한 사람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다. 144 : 한쪽에서는 큰 가마솥을 걸고 죽을 쑤어, 비록 한 사발씩이나 나누어 먹이기도 하였다. 어느 가난한 사람도 만덕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부자가 되다

김태능(1971) : 없음

한치문(1973) : 없음

정비석(1981) : 292면 : 장롱 속에 숨겨둔 돈이 천 냥 가량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거상의 필목, 숨, 기명 장사)-(중략)
293면 : 그해 가을에 삼남 일대의 묵화가 대홍작이어서 그 해 겨울에는 필목과 숨값이 다섯 배로 뛰어 올랐다. 그리하여 만덕은 일약 만냥 부자가 되었다. 296면 : 만덕이가 몰산 객주집을 시작한 지 십 년이 넘었을 때... 수만금의 부자

김봉옥(1990) : 48 : 만덕의 검소 : 이처럼 만덕은 사업에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그렇지만 만덕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검소하여 화려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가난하였던 시절을 생각하여 음식도 소식하여 보리밥 조밥을 먹고 주택과 거실은 꾸미지 아니하고 근검과 절약으로 일관하였다. (중략) 만덕의 객주집에는 언제나 190여 명 정도 일을 도우며 기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만덕은 늘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풍년에는 흉년 때를 생각하여 절약하고.

양중해(1998) : 134 : 만덕은 사업에 성공하고 큰 재력가가 되면서도, 그 삶은 참으로 검소하였다. 그 옛날 어렸을 때 살던 시절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 쓰지 아니하는 것처럼 확실한 돈벌이는 없다.

의녀벼슬받게 된 이유

김태능(1971) : 없음

한치문(1973) : 없음

정비석(1981) : 319 : 의녀가 된 이유 : 행수내의녀 만덕

제주의 명의를었던 황을 여사는 저의 집 이웃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분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소인이 그분을 가끔 찾아 뵙고 의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생업이 따로 있는 까닭에 의술에 대해 깊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중략) 그대와 같이 총명한 여인이 명의를에게서 의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다면, 비록 명의는 못됐 320면 : 을망정 돌팔이 의원은 될 게 아니냐. 하하하... 그러면 성상을 배알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그대에게 행수내의녀의 직함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만덕은 행수내의녀라는 벼락 감투를 쓰고, 다음날은 대궐에 들어가 황궁하계도 대왕을 배알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김봉옥(1990) : 없음

양중해(1998) : 없음

임금이 잡아준 손목

김태능(1971) : 없음

한치문(1973) : 94 : 성상이 친히 만덕의 左手를 잡으시고 못내 칭찬하시되 네가 백성을 많이 구휼하였다 하니 참으로 자선스러운 사람이라 하시고 금강산을 구경시키다. 7순 노년

까지 성상이 잡으시던 左手는 주단으로 감아서 살빛을 감추었고 부처라 칭하였다.

정비석(1981) : 322 면 : 만덕에게 포상을 주고 싶으니, 명주 다섯 필을 지금 곧 가져오도록 하라. (중략) 대왕은 만덕에게 명주 다섯 필을 손수 내려주시고, 황궁하게도 손목을 가만히 붙잡으시면서, (중략) 만덕은 상감에게 손목을 붙잡히자, 황송하고도 감격스러워 얼굴을 수그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만덕은 대궐에서 물러나 오자, 상감마마께서 친히 붙잡으셨던 손목을 어찌 함부로 비바람을 쐬게 할 수 있으랴 하는 생각에서, 명주로 자기 손목을 곱게 감았다.

김봉옥(1990) : 없음

양중해(1998) : 없음

김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해석

김만덕의 삶을 통해 본 정신적 가치의 탐색

변 중 헌

김만덕 연구의 의의

여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21세기 패러다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무시되거나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 온 여성들의 삶에 대한 온정적 배려나 잃어버린 인류의 반쪽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관심과 조명이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내지 당위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조명은 새로운 접근이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것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여성 운동의 비약적인 발전과 여성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걸맞게 그 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여성의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가운데,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그리고 사회 발전

※ 위의 발표문은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제주도, 2004년 11월)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에 관한 기대와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형성해 온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부당하게 취급되었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되어 온 여성에 대한 재조명과 여성의 권리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 인물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접근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의 과거 속에 잊혀져 있던 그러나 주어진 운명과 사회에 맞서 치열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했던 많은 여성 인물에 대한 발굴과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바로 잡고 여성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는 제주 여인 김만덕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연구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지극히 제한된 지면의 사료나 일차 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만덕(1739~1812)에 관한 공식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정조실록」(정조 20년 11월 25일조), 「승정원일기」(정조 20년 11월 24일조) 등에 나타난 내용은 만덕이 기녀 출신으로 큰 재산가가 되었고, 갑인 을묘년 대기근 때 쌀을 사들여 진휼했고, 출륙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정조를 알현하고 금강산 구경을 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후에 이루어진 만덕에 관한 이야기의 전승과 작품화의 과정은 대부분 위와 같은 기본 구도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만덕 이야기의 확대 및 재생산 과정에는 화자나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만덕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과 작품들이 만덕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만덕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명하

는 가운데 그녀의 삶 속에 배어 있는 정신적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맥락에 유의한다면 관련 사료와 후대의 작품 속에 나타난 만덕의 삶과 그녀의 행적을 통해 그녀가 견지했던 생활 방식과 삶의 태도를 읽어내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한 시대를 살았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미화의 유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역사적 인물의 삶과 행적을 통해 현재를 사는 우리의 좌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만덕의 삶에 새롭게 관심을 갖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김만덕의 생애와 페미니즘

만덕의 삶과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여성주의 혹은 페미니즘(feminism)의 관점은 김만덕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주요한 채널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그 개념 정의부터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다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는 여성론, 여권신장론, 여성해방운동, 여성주의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사회 운동과 학문적 이론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는 반성차별주의의 이론 및 실천을 의미하며 여성 집단의 공동체적 이해와 유대를 강조하는 다양한 사상들을 지칭한다. 요컨대, 여성에게 불이익을 초래

하거나 여성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현존의 사고 체계에 도전하여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 규범적인 이론과 운동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 사용되어 왔다. 1970년대 중반 페미니즘의 도입기에는 여권론, 1980년대에는 여성해방론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여성주의 또는 페미니즘이라는 원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어떠한 용어로 통용되든, 그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차별과 억압에 반대하고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기본 정신이 관통하고 있다(한국여성연구소, 2004, pp.17~8).

페미니즘은 여성됨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 시작한다. 여성의 법적 지위가 과거보다 크게 신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자란 모름지기, ‘감히 여자가’ 하는 식의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이러한 관념들이 여러 가지 관행이나 법, 제도 등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페미니즘은 이처럼 당연시되는 관념과 상식에 도전한다. 이와 같은 출발선상에서 페미니즘은 역사 발전 이래 오랫동안 남성 중심으로 왜곡되어 왔던 인류 사회의 성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그 동안 은폐 내지는 평가절하되어 왔던 여성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여성의 활동과 삶을 부각시켜 궁극적으로는 성적 차이가 어떠한 차별의 근거도 되지 않는 평등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변종현 외, 2001, p.354).

만덕의 삶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즘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적어도 조선 사회의 유교적 신분 질서 속에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었던 법적·제도적 불평등을 만덕이 그의 삶과 도전 속에서 극복하였다는 사실은 만덕을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로 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개인이 지닌 인격체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관점은 법적·제도적 불평등에서 비롯

된 성차별 주의의 문제를 지적한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불공평한 출발선상에서 불리한 조건들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동일한 조건과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8세기 조선의 가부장적 유교 문화와 정절 이데올로기는 남성 위주의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서 여성에게는 불공평한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선 시대에 강조되던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과 여성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는 모두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통해 고착된 그릇된 사회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 시대의 여성에게 당연한 것으로 부과되었던 불공평한 출발선과 불리한 사회적·문화적 조건을 극복하고 만덕이 유교 사회의 중심부에서도 인정받는 여성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사실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선구적 페미니스트의 삶

만덕이 가부장적 유교 문화 속에서도 여성으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출륙금지령과 같은 법과 관례를 깨고 육지로 나가는 최초의 제주 여성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벼슬인 의녀 반수에 올랐고, 금강산 구경을 통해 여성에게 부과된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 등에서 페미니스트로서의 만덕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만덕의 행적이 유교 선비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제주 도민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18세기의 김만덕이 주변부 여성의 삶을 뛰어넘어 유교 사회의 중심부에서도 인정받는 여성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측면들이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주목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만덕이 추구했던 삶의 목표가, 그리고 그녀가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했던 많은 덕목들이 본질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치 판단을 반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애써서 생취한 업적이나 지위들이 모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이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들(예컨대, 권력이나 재력, 사회적 명성 등등)이지 본질적으로 여성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변종현, 2004, pp.107~9). 따라서 만덕이 자신도 모르게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스스로를 맞추고자 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지닌 한계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덕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남성 위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투영된 것 이외에 여성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8세기 남성 중심의 유교적 전통 문화 속에서도 여성성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바로 오늘날 피메일리스트들이 주목하는 바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즘과 피메일리즘(femaleism)의 구분은 여성 해방 내지는 남녀 평등의 이상에 접근하는 방법론적 차이에서 생겨난다(변종현 외, 2001, p.334).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차이를 모두 왜곡된 사회화의 산물로 보는데 비해, 피메일리즘은 여성적인 것의 특징들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다만 여성적인 것이 약점도 가지고 있지만 나뭇대로의 강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강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고 체격이 크며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반증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그러한 차

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다른 분야들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성차에 따른 역할을 재조정하고 분담하는 편이 좋다는 것이 피메일리스트의 생각이다. 예컨대, 타인에 대한 배려, 섬세한 예술적 감수성,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 등에서 여성이 앞선다는 사실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편이 보다 실리적이고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된 남성 중심의 유교적 신분 질서와 정절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아니라 만덕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개방적인 풍모를 보였다는 지적은 피메일리스트의 시각에서 만덕을 조명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만덕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현대 여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제주도, 1989, p.85)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함몰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과는 다른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혁신적 사고와 도전 의식 그리고 강한 의지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여성에게 부과된 경계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감정에 충실했던 주체적인 여성이 바로 만덕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만덕은 흔히 남성성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시대를 꿰뚫는 지적 능력과 불굴의 개척 정신, 강한 의지력 등과 함께 전통적으로 여성성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나눔의 미덕을 함께 지닌 양성적 인간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김경애, 2004b, pp.34-36). 따라서 만덕의 삶을 페미니즘 혹은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의적 관점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주체적인 삶의 개척자

만덕의 성공 신화는 그녀가 제주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고, 자신이 애써 모은 물질을 다른 이들을 위해 대가 없이 나누어 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기존의 제도와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의 정신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만덕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기획하고 경영했던 인물이다. 만덕이 여성과 기녀라는 성과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주체적인 인생을 개척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기녀에서 벗어나 양인의 신분을 되찾는 인생 역정이다. 만덕은 부모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기녀가 되었다가 20세에 다시 양녀로 돌아온다. 기녀로 평생을 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가에 간곡히 호소하여 기적(妓籍)에서 이름을 없앴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주체성이 확고한 여성인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주목할 부분은 다른 많은 기녀들이 선택한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적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기적에서 벗어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첩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덕은 한 남성을 선택하여 가부장제의 구도 속에 안주하고 보호받는 첩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였다.

직업이 신분이었었던 조선 시대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기녀는 그녀의 직업이며 신분이었다. 물론 조선 시대에도 신분이 상승되는 경우는 있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을 세웠을 경우에 명예직의 벼슬을 내리거나 면천(免賤)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만덕은 자신의 실력과 경제적 능력을 통해 기녀에서 양인으로 그리고 객주 주인으로 삶의 형태를 바꾼다. 이처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춘 후 사업적 수완을 발휘하여 부를 축적함으로써 자기 운명의 개척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만덕이 불가능에 가까운 낮은 확률에 도전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정신을 보여준다(박무영 외, 2004, p.197).

둘째, 양인의 신분을 회복한 뒤에 만덕이 선택한 독신으로서의 삶이다. 양인으로 돌아온 만덕은 한 남성과 결혼해 평생을 그 그늘 아래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 또한 그녀가 얼마나 주체적인 삶의 목표를 지니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노비나 기녀 등이 아닌 여성이 조선 시대에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덕이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과 더불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제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덕이 상업적 수완을 발휘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이면에는 남성들을 머슴으로 거느리는 경영 능력과 인간 관리 능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성들을 머슴으로 거느리기는 했으나 남편으로 맞이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만덕이 남성 중심의 유교 문화에 동화되어 한 지아비를 섬기며 가정에 안주하기보다는 더 높은 사회적 이상을 추구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녀로서 유교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으나 만덕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당시 활발해진 해상을 이용한 유통업에 눈뜨고 여성 기업인으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갔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었다.

셋째는, 만덕이 여성에게 부과된 한계를 뛰어넘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다. 여성에게 엄격했던 사대부들이 가난한 집안 출신의 전직 기녀였던 독신녀를 앞다투어 청송하게 된 것은, 만덕이 객주를 운영하면서 제주도 물품과 육지 물품을 교역하는 유통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고, 그 부를 계속되는 기근에 시달리는 제주 도민을 살리는 데

쾌적하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유교적 가치가 지배하는 신분 사회의 벽을 넘어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만덕은 자신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정조의 청송을 한 몸에 받았고 비록 명예직이긴 하지만 의녀 반수라는 여성으로서 최고의 벼슬에 오름으로써 유교 사회의 중심부에 우뚝 서게 되었다.

또한 대궐을 찾아 정조를 대면하고 금강산 구경을 원했다는 것은 당시 제주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출륙금지령의 테두리를 단숨에 뛰어넘어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이동의 자유를 요구하고 성취한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금강산 구경을 소망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남성에게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매우 진취적인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번 기적에 올랐다가 양녀로 돌아오는 것도 어렵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모아 빈민을 구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남성들도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금강산 구경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만덕의 진취성을 읽어낼 수 있다(윤치부, 2001, pp.57~69). 정조의 명을 받아 소원을 묻는 제주 목사 이우현에게 만덕이 다른 소원은 없사오나 오직 한 가지, 한양에서 임금님 계시는 궁궐을 우리러보는 것과 천하 명산인 금강산 1만 2천봉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모습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을 위해 멋지게 투자하는 만덕의 모습을 보게 된다.

너무도 부자유한 시대에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이것을 개척해 나간 용기있고 적극적인 그리고 진취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바로 만덕의 모습이었다. 만덕을 오늘날 다시 생각하는 것은 엄중한 유교 규범과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옥죄고 있던 시기에 시대와 불화하지 않으면서 당시 여성에게 지워진 법적·제도적·문화적 한계를 거침없이 뛰어넘어 이상을 성취한 그녀의 용기와 도전 때문일 것이다.

김만덕의 경제 활동과 자본주의 덕목

자본주의 덕목의 요체

만덕의 삶을 조망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용한 관점은 그녀의 경제 활동에서 묻어나고 있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정신(spirit of Capitalism)이다. 인간의 경제 활동 이면에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정신적 측면이 배태되어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만덕이 기녀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유통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제 활동에서의 윤리적 덕목들이다. 이것은 서구적 의미의 자본주의 정신 혹은 우리의 상도(商道)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 경제의 역기능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얼굴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도덕과는 무관한 사회라고 주장한다. 이기적인 원자적 개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공간으로서의 시장은 자원 배분을 위한 기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서 비롯된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자유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 혹은 자본주의 사회는 도덕적 감성으로부터 유리된 사회가 아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기심에 의한 이익 추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경우라면 철저하게 옳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그가 생각한 이익 추구나 경쟁의 개념은 무자비하고 무절제한 이익 추구나 경쟁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의 이념을 반영한 절제되고 규율된 이익 추구하고 경쟁이다. 따라서 견제와 절제가 전제된 경쟁이 이루어질 때 자유 사회와 시장 경제가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 자유로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와 같은 도덕적 규범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자본주의는 도덕과 관계없이 극단적

경쟁과 사적인 이윤 추구만을 지향하는 경제적 기제가 아니라 도덕적·문화적 가치를 전제로 한다.

베버(M. Weber)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내면화하고 있는 일련의 고유한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신용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본을 증식시키는 일이 자기 자신의 목적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또한 성실, 시간 엄수, 근면, 절약,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결단 등이 모두 자본주의 정신의 요체이다. 베버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 정신이 단순히 돈벌기 위한 철학이나 이윤 극대화의 철학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의 독립적인 에토스(ethos)를 상징하고 있으며, 다른 경제 체계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일련의 경제적 덕목들(economic virtues)을 내포한 윤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박성수 역, 1996, pp.37~8).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은 퀴른베르거(Ferdinand K nberger)가 소위 양키의 신앙 고백이라고 조롱했던 프랭클린(B. Franklin)의 다음의 글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박성수 역, 1996, pp.34~6).

시간이 돈임을 잊지 말라. 매일 노동을 통해 10실링을 벌 수 있는 자가 반나절을 산책하거나 자기 방에서 빈둥거렸다면, 그는 오락을 위해 6펜스만 지출했다 해도 그것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 외에도 5실링을 더 지출한 것이다. 아니, 갚다 버린 것이다.

신용이 돈임을 잊지 말라. 누군가가 자신의 돈을 지불 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고 나에게 맡겨 두었다면 그는 나에게 이자를 준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 기간 동안 그 돈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을 준 것이다. 좋은 신용을 가졌고 그것을 잘 이용한다면 대단한 액수의 돈을 쌓을 수 있다.

돈이 번식력을 갖고 결실을 맺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잊지 말라. 돈은 돈을 낳을 수 있으며 그 새끼가 또 다시 번식해 나간다. 5실링은 6실링이 되고 다시 7실링 3펜스가 되어 결국 1백 파운드가 된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은 더욱 늘어나며 결국 효용은 보다 급속하게 증가한다.

신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아주 사소한 행위라도 조심해야 한다. 당신의 채권자가 오전 5시나 오후 8시에 듣는 당신의 망치 소리는 채권자로 하여금 6개월을 유예시키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일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그가 당신을 당구장에서 보거나 주점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는 바로 다음날 상환 독촉을 할 것이며 당신이 그 돈을 쓰기도 전에 다시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망치 소리는 그 외에도 당신이 당신의 채무를 잊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당신은 조심스럽고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따라서 당신의 신용도 늘어난다.

베버는 여기에 단순한 처세술이나 사업상의 지혜가 아닌 독특한 윤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대나 중세에서는 가장 천박한 형태의 탐욕으로 간주되었을 이 글이 자본주의 정신을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다고 말한다. 신용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자본을 증식시키는 일이 자기의 목적이며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이다. 또한 정직과 신용, 시간 엄수, 근면, 검소 등도 이 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익한 미덕들이다.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는 노동이 신의 소명이며 부는 은총의 표시라는 신앙 하에 근면, 검소, 자기 수양,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는 생활 태도를 강조한 루터와 칼뱅의 신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악이 시간의 낭비이며, 전력을 다해 자발적인 삶의 향락과 그 향락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배격하라는

금융주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전력 투구해야 하며, 많은 경우에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과 장인 근성이다.

자본주의 정신의 실천

상도(商道)에 입각한 부의 축적

자본주의 정신은 이윤 추구 성향을 포함하면서도 그를 한 단계 초월하는 도덕적 자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본주의 정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혹은 교묘한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행위와 양립할 수 없다. 황금을 보기를 돌 같이 하는 행위가 자본주의 정신의 전형일 수는 없지만, 황금을 얻기 위해 모험을 마다하지 않고 경쟁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벌인다면, 이는 자본주의의 덕목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덕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 둘째 적절한 가격 매매, 셋째 정직한 신용 본위가 그것이었다(제주도, 1989, pp.34~6). 만덕은 철저히 신용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했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직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꾸려 나갔다. 만덕은 기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반층 부녀자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염가로 공급했다. 나아가서 관가의 물품까지도 조달하는 등 만덕의 객주(客主)는 큰 규모의 무역 거대소가 되었고, 몇 년 만에 만덕은 제주의 거상(巨商)이 되었다.

만덕이 따르고 보여준 경제 활동의 준칙은 베버가 분류한 바,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민 자본주의(pariah capitalism) 정신과 구별되는 성실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정신의 표현이었다. 도덕

이나 상도와는 무관한 개인적 이윤 추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의 일에 대한 엄격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극대 이윤만을 쫓기보다는 상거래의 도(道)를 지키는 가운데 필요한 최소한의 이윤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욕과 검소한 생활 태도

여성의 모든 재능이 억압받던 조선 시대에 만덕의 성공은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그만큼 많은 화제를 낳기도 하였다. 객주를 통한 유통업에 성공하여 거상이 되었지만 만덕의 일상 생활은 언제나 검소했다. 소유 자체가 유혹일 수 있었으나 그녀의 생활은 검소하고 소박했다.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만덕의 생활 철학이었다(제주도, 1989, p.36).

풍랑 때문에 육지와와의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하늘을 쳐다 볼 수밖에 없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나갔다. 평소에도 풍년이 들면 흉년들 때를 대비하여 절약하고 비상 물품을 비축하였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는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그 은덕에 감사하고, 아래로는 어렵게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하여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당부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리고 재능과 성실함을 지닌 사람은 여자라도 데려다 일을 가르치고 기회를 주는 일을 잊지 않았다.

만덕은 금강산 구경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검소한 생활을 잊지 않았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쌀을 주는 등 자선 사업에 주력하였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는 만덕의 생각 속에서 그녀가 제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김진우 편역, 2003, p.36). 이처럼 검소하고 금욕적인 삶의 모습이 그리고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자선과 봉사의 삶이 제주 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만덕 할머니로 불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나눔과 베품의 삶과 실천

베버에 따르면 이윤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자기 소명에 충실하여 자기 영혼을 구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 행위는 이웃에 대한 봉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 행위를 자본주의 원리라고 하고, 이윤 추구 행위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이웃에 대한 봉사를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한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이 전제된 이윤 추구를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이윤 추구의 경제 활동에는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자본주의 덕목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원리는 충실하게 이전되었지만, 자본주의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경영 활동을 한다. 그러나 사회가 진정 요구하는 기업은 반드시 윤리 경영이 이윤 극대화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만덕의 사업 경영과 아무런 대가 없는 자선 행위는 이웃에 대한 봉사를 전제로 한 자본주의 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제주는 정조 16년(1792)부터 흉년이 계속되었고, 1794년에는 한 해에 제주 도민의 30%가 굶어 죽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다. 정조 19년(1795) 윤2월 제주 도민을 구휼하기 위해 조정에서 보낸 곡물 1만 1천 석을 싣고 떠난 두 번째 수송 선박 중 다섯 척이 침몰하자 상황은 극에 달했다. 이 소식을 접한 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구호 사업에 회사하기로 결심하였다. 전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들여온 곡식 500여 석 가운데 450여 석을 진흙미로 내놓았다(채제공, 1977).

당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제주 도민들도 구휼에 동참하였다.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300석을, 장교(將校) 홍삼필(洪三弼)과 유학(幼學) 양성범(梁聖範)이 각각 1백 석을 내놓아 구휼하였다. 고한록의 기부 에 대해 제주 목사 이우현이 ‘무려 300석’ 이라고 말한 것이나 이 소식에 접한 정조가 “이들이 1백 석을 자원 납부한 것은 육지의 1천 포(包)와 맞먹는다.” 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만덕의 기부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 할 수 있다(「정조실록」 19년 5월 11일조). 더욱이 만덕의 기부는 기녀 출신의 여성으로서 객주 운영과 유통업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기아에 허덕이는 제주 도민을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기꺼이 내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소유 그 자체는 유혹이다.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과 근대적 직업 사상에 입각한 합리적 생활 방식은 기독교적 금욕의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다 (박성수 역, 1996, p.144). 외적인 재화에 대한 관심은 마치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얇은 겂옷처럼 인간의 어깨에 놓여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덕의 삶은 재화에 종속된 전도된 삶이기보다는 소유와 재화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이었다. 우리가 만덕의 삶 속에서 느껴야 할 것은, 그것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진정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런 선택이 진정 필요한 경우라면 무소유할 수도 있는 그녀의 자유로움이다(박무영 외, 2004, pp.208-9).

만덕이 견지한 박리 다매, 정직 매매, 신용 본위의 세 가지 상거래 원칙은 그녀의 경제 행위가 자본가 정신에 입각한 것임을 보여준다. 부의 축적 과정에서 상(商) 윤리와 도덕을 지켰으며, 막대한 부에도 불구하고 늘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점은 그녀의 경제 행위가 서구적 자본주의 의를 가능하게 했던 자본주의 정신에 상응하는 우리의 상도(商道)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소에서는 기름을 짜내고 사람에게

는 돈을 짜내는 철학'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과 베품의 미덕을 실천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경제 활동이 윤리에 의해서 지탱되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베버가 지적한 천민 자본주의(pariah capitalism)를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허만 칸(H. Kahn)은 유교 윤리와 자본주의 발달의 함수 관계에 기초하여 고도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들의 신유교자본주의 문화를 정의한 바 있다(Kahn, 1979, p.144). 베버는 유교 윤리가 자본주의 발달에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은 유교 윤리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들은 유교 윤리가 자본주의 발달에 기여한 요소를 강조하면서 신유교 자본주의 문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Jones & Sakong, 1980, p.255).

- 첫째, 자신과 가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경쟁적인 헌신
- 둘째, 발전의 도구로서의 교육에 대한 존중심
- 셋째, 일에 대한 헌신, 근면, 자기 수양에 관한 가치 존중
- 넷째, 실용적인 목적 추구에 걸림이 되는 종교적, 이념적 제약이 없음
- 다섯째, 권리보다는 의무에 충실하고 위계적인 조직에 참여하여 생산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윤리 의식

만덕의 경제 활동 속에는 서구적 의미의 자본주의 덕목 이외에도 위에서 제시한 신유교 자본주의의 요소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만덕이 자신과 가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신유교 자본주의의 핵심적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으나 그가 축적한 자본과 그가 행한 자선을 통해 결국에는 가족을 구제하고 가족과 화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경제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혼신의 과정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에 대한 헌신과 근면 등의 문화적 가치 역시 만덕의 경제 활동에 배어 있는 기본적 덕목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정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명과 장인 의식에 못지않게 전통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출경야귀독(朝出耕夜歸讀)의 정신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관춘, 2003, p.274). 만덕의 삶의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노동 중시, 즉 일에 대한 헌신과 근면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신유교 자본주의 정신의 구체적인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만덕의 치부 그리고 나눔과 베품의 실천이 서구의 자본주의 정신에 필적하는 상도와 윤리에 기초한 것이었음은 물론 오늘날 동아시아의 정신적 가치로 간주될 수 있는 신유교 자본주의의 덕목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만덕의 경제 활동과 그녀의 삶 속에는 서구 현대의 자본주의 정신이 체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을 통해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신유교 자본주의의 덕목들이 융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만덕의 성공과 기업가 정신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기업을 책임지는 21세기형 CE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찍이 슈페터(J. Schumpeter)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기업가에서 찾은 바 있듯이, 자본주의의 기둥이 되는 계층은 기업가들이다. 오늘날 CEO는 첨단 기술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경제 수단의 총합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만덕을 성공적인 여성 기업가 나아가 여성 CEO의 전형적인 모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자본과 사업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그녀는 조선 시대의 성공한 여성 기업가, 여성 CEO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박무영 외, 2004, p.207). 조선 시대의 여성으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였고 이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오늘날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만덕은 오늘날 여성 기업가의 전형적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만덕이 거상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보여준 일련의 행태가 오늘날 기업가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행태에 하나의 주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덕에게서 자선과 봉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능력을 찾는 작업은 조선 시대 한 여성의 정체성을 확대하고 그녀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여는 것이기도 하다. 만덕은 성공한 여성 경제인 그리고 여성 CEO의 모델이다. 만덕 이 18세기 조선의 주변부인 제주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세상을 꿰뚫는 안목을 바탕으로 유통업을 개척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찰력과 안목이 강한 추진력과 결합되면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른바 기업가 정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의 진작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력과 개척 정신

김만덕이 살았던 조선 영·정조 시대는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녀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었고, 그녀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길을 선택하여 과감한 투자를 결행하였다. 만덕의 이와 같은 결단은 유통업에 대한 관심과 진출로 결실을 맺게 된다. 영·정조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이에 따른 상업의 발달은 조선 후기 양반 사회는 물론 서민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상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 가운데 상품을 매점하거나 독점함으로써 이윤을 취하는 도매상인 도고(都賈)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는 서민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만덕은 운송 체계에 기초한 유통망이 상업 발전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였다. 그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한 분야가 바로 유통업이다. 18세기 중엽은 전국적 유통망이 갖추어지던 시기였다. 당시 유통망은 육상과 해상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육상 교통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해상 교통의 중심은 포구(浦口)였다.

해상 교통은 육상 교통에 비해 시간적·경제적으로 유리하였고, 물길을 통한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해상이나 강상 교통의 요지에 포구가 설치되었다. 내륙 각지에는 5일장인 장시(場市)가 컸고, 해안과 강가의 포구도 흥청거렸다. 장시와 포구가 상품 유통의 거점이 되면서,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장시와 장시, 장시와 포구, 포구와 포구가 서로 연결되어 전국이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되어 갔다. 내륙에서는 마필(馬匹)에 의한 육운(陸運)이, 연해안 또는 수로에서는 선박에 의한 수운(水運)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만덕이 주목한 것은 바로 포구가 지닌 유통망으로서의 가치였으며, 이를 위해 포구에 객주(客主)를 차리게 되었다 객주는 여관의 구실도 했지만 외지 상인들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거나 거간하는 중간상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만덕은 객주를 중심으로 제주의 양반층 부녀자에게 육지의 옷감과 장신구, 화장품 등을 팔고, 제주 특산물인 미역, 전복, 표고, 양태, 말총, 녹용과 꿀 등을 육지에 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다(제주도, 1989, pp.34~6). 그녀는 관가의 물품도 조달하게 되었고, 포구의 상품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포구주인권(浦口主人權)을 획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만덕은 자신의 포구에 적극적으로 선상을 유치했고 그 자신의 선박까지 소유하게 되었다(이덕일, 2003, pp.454~57).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예견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기업가로서의 만덕이 제주가 지닌 주변부의 지리적 한계와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태생적 굴레를 극복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과감한 도전과 성취는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만덕이 18세기 조선의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보여준 기업가로서의 능력은 21세기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고 탐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장기적 비전을 지닌 여성 기업인

성공적인 기업가는 시대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예측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은 환상이 아니라 차별화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가치이다. 현재 처한 위치와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가는 단기적 경영에 집착하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중장기적 비전에 따라 자신과 기업의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CEO의

핵심적 덕목 가운데 하나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마케팅 선견력이다.

마케팅 선견력이란 미래의 기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창조적인 예견 능력을 말한다. CEO는 근시안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시장과 상품의 개념을 뛰어넘어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 현재 비어 있는 새로운 시장)를 개척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을 보는 시각을 수정하거나 또는 고정 관념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전혀 새로운 산업을 인식하고 예견해 장기간에 걸치는 산업의 흐름을 주도함으로써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끼쳐야 한다. CEO는 마케팅 선견력을 재고해 미래의 경쟁 우위를 추구하며 꿈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망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능하다.

만덕의 사업 경영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생존에 강조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유통업을 개척하면서 신용 본위의 원칙을 견지했다는 사실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넘어서 사업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용을 토대로 결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물을 추구해야 한다(권명중, 2002, p.79). 만덕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이와 같은 신용 본위의 경영 철학에 입각한 장기적 비전을 지니고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보는 사람들은 결제와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다. 만덕의 장기적 비전에 기초한 사업 경영은 오늘날 기업가들이 지녀야 하는 전형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혁신과 모험을 통한 기업가 정신의 실천

기업가는 기존의 것을 좀더 잘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 인식한다. 기업가는 현상을 뒤집고 또 해체한다. 슈페터가 공식화한 것처럼 기업가가 수행할 과제는

창조적 파괴다. 기업가들은 변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건장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가는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들은 신의 법칙과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기업가들은 언제나 변화를 탐색하고, 그것에 대응하고,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의 정의이기도 하다(이재규 역, 2004, p.44). 따라서 기업가 정신이란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행동 양식의 문제이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위험이 크다고 인식되고 있다. 기업가는 원칙적으로 생산성과 성과가 낮은 분야에 투입된 자원을 생산성과 성과가 높은 분야로 이동시킨다. 기업가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한 투자를 행하는 도전 의식이며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 요소를 발전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이란 위험 부담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로 하여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새로이 창조하는 과정이다. 모험과 도전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남다른 인내심과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 등이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은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적 사고에 기초해야 한다. 또 혁신, 성장, 창의성, 위험 추구, 특이함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디에 기회가 있는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그와 같은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떤 구조가 가장 알맞은 것인가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따라서 의사 결정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날 요구되는 기업가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기업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변화의 추구, 모험과 도전을 통한 발전 기회의 창출 등이 오늘의 기업가들이 지녀야 하는 덕목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만덕을 18세기 조선의 여성 기업가 그리고 여성 CEO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덕이 당시에 보여주었던 기업가로서의 위와 같은 자질 때문일 것이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경제 활동의 대상과 영역이 지극히 여성적인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덕이 유통업을 개척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변화와 모험 그리고 도전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가사 노동의 종사자로 간주되어 왔으며, 따라서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가사 노동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기가 용이하였다. 기생의 하녀로 생계를 유지하다 기녀의 삶을 살았던 것이 만덕이었다. 그 후 양인의 신분을 되찾아 만덕이 시작한 일이 객주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가사 노동과 관련된, 가사 노동 연장적인 직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덕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기반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김경애, 2004a, pp.92~94).

물론 여성은 가정의 울타리 내에 머무르면서 시부모 봉양, 남편 내조, 가사일과 자녀 양육 등 전통적인 성 역할에 충실한 것이 이상적인 삶으로 간주되던 시대에 만덕이 직업을 통해 사회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일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만덕의 경제 활동이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덕은 전통 사회에서 여성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직업이나 가부장제 사회가 필요로 했던 직업에 종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분야, 즉 객주를 기반으로 한 유통업을 개척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변신은 격변하는 사회 경제적 흐름에 대한 통찰과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적극적인 도전과 모험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만덕은 가부장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 특히 기녀 출신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내는 통찰력

과 안목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이 강한 의지와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만덕의 삶 속에서 조선 시대 최초의 여성 기업인 그리고 성공한 여성 CEO의 자취를 탐색하게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혁신적 사고와 개척 정신, 정열과 집념,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 조선 시대 최초의 여성 기업인 만덕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자 기업가 정신의 표현이다.

맺음말

18세기 조선 사회를 살았던 제주인 김만덕에 관한 최근의 관심과 연구는 한 여성에 대한 전기적 차원의 접근을 넘어, 그녀의 삶이 지닌 현대적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짚어보고 나아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조명이 단순한 연대기적 이해를 넘어서는 매우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신분 질서가 부여한 귀속적 지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교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칭송받게 된 조선의 여인이 만덕이며, 오늘의 기업가 정신에 상응하는 모험과 도전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한 성공한 CEO, 나눔과 베품의 삶을 몸소 실천한 여인이 또한 만덕의 모습이기도 하다.

만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접근은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만덕의 삶을 감싸고 있었던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와 맥락을 고려할 때 가능할 것이다. 하나의 고정된 시각에서 만덕을 바라보는 것은 그녀의 삶이 지닌 의미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조선 영·정조 정치 질서와 사회 변화 그리고

당시의 거시적인 경제 체제와 제주 경제, 그녀의 경제 활동 사이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을 때, 다양한 모습의 만덕을 만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만덕의 모습은 다양하다. 만덕의 정체성의 근원은 다양한 층위를 이루고 있다. 기녀에서 출발해 불굴의 의지로 유통업을 개척한 기업가의 모습에서, 오늘날 서구 자본주의 정신의 도덕적 기초에 상응하는 우리의 상도(商道)를 실천한 경제인,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제주 도민을 위해 기꺼이 환원한 자선가, 그리고 부자유한 시대에 여성의 굴레와 한계를 뛰어넘은 자유인의 모습에서 18세기 조선 사회를 치열하게 살았던 만덕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처럼 만덕을 규정했던 다양한 정체성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과거의 만덕과 그녀의 삶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부

김만덕 기념사업의 방향

김만덕기념사업회의 활동 방향 _ 김경애

김만덕 기념사업의 정책 제언 _ 김은석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제주 경제의 활성화 방안 _ 정창권



김만덕 기념사업의 방향

김만덕기념사업회의 활동 방향

김 경 애

역사 속의 여성인물을 재평가하고 이들을 기리는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물론 출신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유관 순, 신사임당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나혜석, 빙허각 이씨, 허난설헌의 삶을 재조명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여성인물을 화폐에 수록하는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여성인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여성인물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 행사는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를 통해 역사 속의 여성인물의 업적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김만덕은 역사 속의 여성인물 중 어떠한 인물보다도 많은 업적과 시대를 뛰어넘는 용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에서는 누구나 김만덕 할머니를 알고 있다고 해도 과연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김만덕은 생소하기만 하다.

따라서 제주도와 김만덕기념사업회는 지속적으로 김만덕의 업적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평가 작업을 전개해야 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발굴되고 평가된 내용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민들에게 김만덕을 알리고 기리는 작업을 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의 한 방법이 화폐에 김만덕 초상화를 비롯하여 관련 장면을 수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폐에 수록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

초·중등 교과서에 김만덕 일대기가 수록되도록 할 것.

초·중등교과서는 역사적인 인물을 알리는 데 가장 기본적인 매체이다. 신사임당과 유관순 등 극히 소수의 여성만이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다양한 여성 위인을 교과서에 수록해야 함을 주장하고, 이와 함께 김만덕의 일대기를 수록하는 캠페인과 로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제주도가 주축이 되어 관광객에게 김만덕의 업적을 홍보할 것.

제주도는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김만덕에 대해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주도 안내책자에 김만덕에 대해 수록하고, 제주도 관광지도에 명기하여 이를 무료로 배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김만덕기념관을 재정비하여 관광 코스(특히 학생 수학여행)로 채택하도록 할 것.

김만덕 기념관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관을 만들어 학생들과 일반 관광객들이 즐겨 방문하는 코스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도가 주축이 되어 전국적 규모의 김만덕 축제를 열 것.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장이 배출한 인물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축제의 방식을 적극 채택하고 있다(강릉:신사임당, 허난설헌, 경기도: 병허각 이씨, 나혜석). 김만덕은 제주도 지역 뿐 아니라 김만덕이 한양과 금강산을 방문했던 경로를 따라 전국적으로 지역여성단체와 연계하여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다. 최종 기착지는 금강산이 되도록 하며 금강산에서 다양한 행사를 벌이도록 한다. 김만덕상 수여를 금강산에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김만덕상(賞)을 전국 규모로 키울 것.

사회 봉사에 헌신한 제주도 여성을 중심으로 수여되는 상을 김만덕의 업적과 관련된 다양한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거나 헌신한 여성에게 상을 수여할 것을 제안한다.

예 : 기예에 능한 여성

사회복지에 헌신한 사람

여성으로 금기를 깨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사람

고위 공직자로 사회에 공헌한 사람

김만덕상 수여를 일간지나 방송사, 또는 여성신문 등과 제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김만덕 초상화를 다시 제작할 것.

현재 김만덕의 초상화는 수수한 모습이다. 그러나 평상시 검소했던 모습뿐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당시 여성으로 최고 벼슬이었던 의녀반수의 복장을 한 모습과 기녀로서 아름다운 모습 등 다양하게 제작하여 교과서나 홍보물에 제공하며, 화폐 도안으로 제안할 때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김만덕 행적과 관련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할 것.

김만덕을 알리는 작업은 영상시대에 걸맞게 영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유화, 수채화, 만화 등 다양한 영상매체로 김만덕의 행적과 관련된 모습을 제작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한양을 향해 제주도를 떠나는 모습, 금강산에 가마를 타고 가는 모습, 객주집 풍경, 자선을 베푸는 모습, 기녀로서 연회하는 모습 등을 제작하여 기념관에 전시하고, 교과서나 홍보물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제공하며 화폐 도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만덕 일대기를 다양하게 제작, 배포할 것.

김만덕 삶을 동화, 소설, 전기 등 다양하게 각색, 편집하여 제작 배포할 것을 제안한다.

텔레비전 드라마화 되도록 노력하고 지원할 것.

텔레비전 드라마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김만덕 일대기가 드라마로 제작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제작 시에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화폐에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화폐의 도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화폐 도안 개정이나
고액권 발행을 대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출신 국회의원과 여성의원에게 적극 홍보하고 연대할 것.
- 화폐 관련 공청회에 대거 참여할 것.
-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축제에 중앙 언론사의 여기자 초청 등).
-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한국은행에 전달할 것.

김만덕 기념사업의 방향

김만덕 기념사업의 정책 제언

김 은 석

목적

역사란 과거의 전부를 역사화하지는 않는다. 과거 사실들 가운데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것, 즉 현실의 목적과 미래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어떤 것을 특별히 기억하기 위해 선택한 과거를 역사로 기록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선시대 한 여인, 김만덕을 기억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과 미래, 우리 자신을 위함이다.

오늘날 제주도는 과거와는 너무나 판이한 모습이다. 조선시대 물으로 진출이 금지된 변방의 섬에 이제는 수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고, 세계 주요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천혜의 관광지,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70년대 지역개발과 21세기 국제자유도시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또 한편으로 제주전통문화의 위기, 제주인의 정체성 상실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가운데 심각한 것은 주민 각자가 느끼는 세계화, 개방화 등으로 인한 개인의 황폐화이다. 이처럼 엄습해 오는 개인 황폐화의 공간에서는

‘서로 관여되어 있음’(loi de participation)이 실현되는 사회관계, 즉 제주인, 제주문화, 제주인공동체 등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이르는 가운데 김만덕이라는 한 개인을 기억함으로써 제주인의 통합과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시대의 표상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만덕은 누구인가? 우리는 김만덕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시대의 표징과 소명을 가장 정확히 읽고 실천한 선구자임을 알 수 있다. 김만덕은 정조로부터 당대 최고의 정치가, 실학자들까지 그 뜻에 감동할 정도로 도민과 지역사회를 구해내기 위하여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휴머니스트일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권위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여성의 존재 이유를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였다. 또한 주체 의식을 갖고 천명의 인류애를 주창한 선각자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기를 희망했던 위대한 여성이였다.

김만덕의 삶은 순조 12년(1812년) 10월 12일 74세로 끝맺음을 하였다. 우리는 그녀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200년 가까운 세월 우리는 역사의 궤적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대의 표징을 읽고, 다시 다가올 역사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소명을 부여받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외형적 변화는 물론 내면적 변화까지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김만덕의 숭고한 이웃사랑을 위하는 정성과 희생은 도민적 정화(精華)로 화하여 바야흐로 우리의 가슴에 진동하고 있다.

한 마디로 김만덕의 정신과 실천적 삶은 지금을 사는 우리의 표상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녀의 발자취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새로운 상을 정립할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어받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계발하고 창조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방향 및 주요 내용

우리 사회에서 의인을 기리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동일한 집합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바로 이 집합적 정체성이야말로 예컨대, 애교심, 애향심, 애국심과 같은 정치적 실천에 핵심적 자산이 된다.

슈어츠에 의하면 링컨기념사업회는 링컨을 통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북부의 해계모니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 미국인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재구성된 것이다.¹⁾

김만덕의 삶과 정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이런 문화적 자산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실천의 하나이다. 즉, 지역사회를 위한 희생과 봉사의 상징인 김만덕의 행위를 지역 사회의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은 제주인의 상징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김만덕은 잘 알다시피 1790년경 제주 지방에 불어 닥친 지독한 흉년으로 굶어 죽는 이가 속출하자 천금을 내어 도민들을 구해낸 인물이다. 추사 김정희는 만덕의 행적을 듣고 감동하여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번진다는 뜻으로 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편액을 써서 그녀의 높은 뜻을 기렸다.

김만덕의 행동에 감동한 것은 당대 최고의 서예가이자 대학자뿐이었겠는가? 당시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그녀의 은덕을 칭송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그녀를 주목하는 점은 또 하나 있다. 당시 진흙이 끝나자 제주목사가 조정에 만덕의 선행 사실을 알렸다. 이에 정조는 제주목사에게 명하기를 “만덕을 불러서 그 소원을 물어보고 난이를 논하지 말고 특별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제주목사가 임금의 유지를 전하자

1) Barry Schwarz, "The Social Context of Commemoration :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Social Forces*(1982), pp.61~2.

“다른 소원은 없고 오직 임금을 배알하고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잘 알다시피 여행이 자유로워진 것은 한 세기도 채 안 된다. 요즘 일간지 하단은 여행사의 상품 광고로 도배되다시피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제주 주민의 경우 여행은 커녕 육지 나들이조차 불가능했다. 19세기 민비를 배알한 한 영국인 저술가이자 여행가가 자기의 여행경험을 말하자 민비는 종묘제례를 위해 정기적으로 종묘를 방문할 때 지나던 길을 제외하고는 서울 거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폐쇄된 사회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그녀의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넓은 인습과 관행에 도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기에 임금을 배알하고 싶다는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소위 출륙금지령으로 여성의 육지 나들이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육지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김만덕은 기존의 관념과 규범을 뛰어넘을 수 있던 여인이었다. 사실 사농공상의 관념이 팽배한 당시만 해도 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생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객주를 운영하면서 당시 그곳을 드나들던 상인들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갔다. 당시는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해상교통이 발달하면서 포구를 중심으로 유통업이 성행 하던 때였다. 만덕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주목하면서 외지상인들의 물건을 위탁 판매하는 중간상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만덕은 여성에게 주어진 한정된 역할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다는 점에서 오늘날 시대를 뛰어 넘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다. 신분제 사회에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평범한 사람이라면 신분상승의 욕구를 피력하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육지 나들이를 자신의 소원으로 거침없이 내뱉은 것도 출륙금지령으로 억눌린 제주인들의 한

을 대면하는 일은 아니었을까?

사실 이러한 기개가 있었기에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기개는 돈을 모으는 데에만 발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부를 이웃을 위해 과감히 환원하게 했던 것이다.

18세기 제주 여성으로 태어나 수많은 인명을 구해낸 그녀의 삶은 전통적인 봉건사회의 남성들을 움직여 영의정 채제공을 비롯한 많은 유학자들로 하여금 그녀를 찬양하는 시와 전기를 쓰게 한 것이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만덕을 재조명하는 일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팽배하던 조선시대는 물론 오늘날까지 여성을 찬양하고 그 정신을 배우도록 자신의 삶을 실천에 옮긴 김만덕, 그녀의 삶은 금기를 깨는 제주여성의 진취적 기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정책 제언 : 범국민적 운동으로

논의 배경

최근 여성의 문화에 대한 논의가 부쩍 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옥죄어 왔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에 대한 기억들이 사회적 담론의 장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여성의 삶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식의 갖가지 금기사항으로 여성의 삶을 터부시하던 현실을 감안할 때 실로 도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김만덕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만덕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뿐만 아니다.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은혜의 빛을 온 세상에 번지게 한(恩光衍世) 주인 공인 김만덕의 자선의 손길을 입지 않은 당시 제주도민들이 있을까? 현재 그 후손들이 모여사는 곳이 다름 아닌 제주도이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김만덕 추모사업을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보고서는 김만덕 연구의 집대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출발이 김만덕 연구의 방향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민,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위한 역할에 일조하고, 사회의 구심점을 세우는 정신문화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또한 여기서 제시되는 정책제안이 온 도민의 관심 속에 국민적인 사업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뜻있는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시된 것이다.

추진방향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런 기록이 후손들의 삶에 유용한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청사에 길이 빛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위대한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위인들의 업적을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길이 추앙되어야 할 기념비적 역사(monumentalische Historie)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이 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책적 제언은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 김만덕에 대한 역할과 21세기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도민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

잘 알다시피 김만덕추모사업은 일단 순수한 지적 관심에서 출발하는 외형과 실재를 지닐 수 있다. 앞의 장들은 학술적 차원에서 기술한 것이지만 그 내용, 즉 김만덕 관련 학술적 접근과 이념적 지향성을 구체화하고 극대화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이는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순수한 지적 탐구를 행정적 실천과 접목시키고자 할 때 어떤 방향성을 담은 활동을 대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방향을 설정했다.

지속가능한 추모사업

김만덕 추모사업의 이념적 지향점과 기능적 효율성 내지는 효과 사이에는 수많은 내용이 존재하며 그러한 내용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선부른 정책 입안과 과도한 욕심에서 나오는 실행은 오히려 안이루어지느니만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서는 도민의 참여 속에 지속 가능한 사업을 모색했다.

공익적 차원에서의 접근

물론 김만덕추모사업이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나 사회적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이익을 낳지 않지만 공공의 이익, 사회교육적 차원을 위해 제주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잘 알다시피 지방정부가 문화예술부문의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우선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나서서 행하기 어려운 커다란 규모의 사업이나 또는 각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 공공 성격의 일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김만덕 연구 및 사업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 대안 모색

김만덕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상적이고 훌륭한 방안을 내놓으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짚다고 해도 그것이 제주 지역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재원 조달과 실천을 담당할 구체적인 인력 수급에 있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계획이 된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념사업과 관련된 문화예술정책이 입안되고 내부결정과정을 거쳐 제출되었다고 할 때 그것이 실제 실행될지의 여부는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명확한 목표 설정

도민참여로 김만덕을 기억하고 의미 있게 김만덕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박제화 된 기념행사의 관성을 극복하는 데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김만덕기념사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기대효과

- 김만덕 정신의 계승과 사회적 가치의 재발견을 통한 도민화합과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화합의 촉진
- 제주인의 정체성 제고
- 사회봉사의 이념적 지향성 확보
- 지역주민에게 이웃사랑과 봉사의 중요성 교육

정책제언

구분	내용
만덕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 종류와 상금 증액 ○ 시상 범위의 확대
학술연구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 발간 및 김만덕 관련 유물 제작 ○ 연구자료를 집대성하는 총서 발간 ○ 도민교육용 교육자료 발간 ○ 전국적인 학술심포지엄 개최
만덕묘 성역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만덕묘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발족 ○ 〈만덕비 지방기념물〉 지정 ○ 김만덕 동상 건립 ○ 김만덕 거리 조성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만덕 축제 개최 ○ 사이버김만덕기념관 ○ 화폐 인물 선정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 전개

만덕상 전국 확대

현황

만덕봉사상은 조선시대 의녀(義女) 김만덕(金萬德)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제주지역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새로운 김만덕상을 재조명하는 작업에서 보듯이 김만덕을 단지 자선가라는 차원에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스테레오 타입화된 이미지로는 21세기 상징적 인물에는 한계가 있다.

김만덕의 기본정신은 1) 평등성 2) 도전성 3) 문화성 4) 세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도에서 주관하는 만덕상을 단순히 봉사상 차원에 국한하는 시각을 수정하여,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한국여성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면 한다.

정책제언

- 시상 종류와 상금 증액
 - 시상 종류: 봉사상, 경제인상, 여성상
 - 상금 증액 : 각 500만 원
 - ※ 경제인상은 여성경제인 중에서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인물을, 여성상은 여권 신장 및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공헌도가 높은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 시상 범위의 확대
 -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학술연구사업지원

현황

김만덕 연구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즉, 역시 한국 사회에서 주변적 인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성과도 많지 않다. 신사업당, 유관 순처럼 연구물이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료 발굴이 우선이다. 다음 이러한 자료 발굴을 통해 김만덕을 재조명하는 연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제언

- 사료 발간 및 김만덕 관련 유물 제작 지원
- 연구자료를 집대성하는 총서 발간 지원
 - 지금까지 김만덕 관련 연구를 총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도민교육용 교육자료 발간 지원
 - 도민 대상의 시민의식교육 교재 개발
 - 청소년 대상의 교육 교재 개발(책자와 영상자료 개발, 제작)
- 전국적인 학술심포지엄 개최 지원

만덕묘 성역화 작업

현황

사라봉 기슭 남서쪽에 있는 모충사(慕忠祠)에는 의병항쟁 기념탑,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에 투쟁하다 순국한 지사 조봉호 기념탑, 의녀 김만덕 묘탑이 있다. 또한 그녀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만덕기념관이 있다. 그러나 기념관 내의 유물이 내용과 걸맞지 않으며, 빈약하다.

정책제언

- 김만덕묘의 지방기념물 지정
- 김만덕 거리 조성 : 참고적으로 수원지역 출신으로 국내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문인인 나혜석을 기념하기 위해 수원시가 2002년 8월 효원공원 인근길 440m 거리에 나혜석 동상과 분수대를 세우며 조성했다.(정월나혜석기념사업회)²⁾

2) 문화관광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며 여권 운동의 선구자인 정월 나혜석(晶月 羅蕙錫 : 1896~1948) 선생을 2000년 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나혜석 선생은 우리 나라 여성으로서는 일본 도쿄의 여자미술학교에서 유화를

- 김만덕동상 제작: 동상의 비용은 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것보다는 범도민적 내지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건립하는 것이 의미 있음
- 김만덕묘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공원 조성 및 성역화, 기념관 확장, 김만덕객주집 복원 등의 사업 추진

홍보사업

현황

김만덕의 이미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면 외면 당하고 만다. 현재 김만덕 관련 홍보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정책제언

- 김만덕 축제 : 제주여성은 위대하다

탐라문화제 때 김만덕축제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금년 10월 3일 대한민국여성축제가 열렸는데 여기서 축제의 첫째 테마인 ‘역사 속 여성인물 바로세우기’는 6명의 역사 속 인물(웅녀·신사임당·선덕대왕·장화황후·빙허각 이씨)³⁾에게 제례를 드리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부한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다. 1921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시회를 열었으며, 〈자화상〉, 〈스페인 풍경〉, 〈파리풍경〉 등의 작품을 남겼다. 나혜석은 단치 화가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 감각으로 소설·시 등의 문필활동까지 하여 1918년 뚜렷한 여성의식을 보여주는 소설 「경희」를 발표한 근대 최초의 여성작가이며, 3·1운동 때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중국 안동현(현재의 중국 단둥시)에서는 외교관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독립운동가들의 편의를 돌본 민족주의자이기도 하였다.

- 3) 실학자 빙허각 이씨는 《규합총서》를 쓴 조선 후기 실학자이다. 여성이 썼기 때문에 ‘가정백과’로 폄하되지만 방대한 내용을 쉽게 풀어쓴 훌륭한 실학서였다. 당시 의식주에 대한 학문적 탐구는 남녀를 떠나 실용적 학문을 추구했던 ‘실학’의

에서 기획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을 테마로 한 축제로는 빙허각 이씨축제, 허황옥실버문화축제⁴⁾가 있다. 허황옥실버문화축제의 주인공인 가락국의 왕후 허황옥은 모험심과 국제주의, 낯선 환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닌 도전적인 여성이었다. 그는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차문화, 불교문화 등 선진문화를 심고 가락국을 여왕왕국이라 부를 정도의 통치 능력도 보여주었다. 또한 두 아들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 만큼 독자적인 자존의 힘을 지닌 평등 여성이기도 했다.

따라서 황옥실버문화축제는 김해 여성노인들이 허황후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등하고 문화적이며 국제적인 여성 활동을 지향하려는 문화제로 또 그 심오한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오늘날에도 손색없는 평등 사상과 문화성으로 작년 1회 때 놀라운 감동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 사이버김만덕기념관

21세기 새로운 김만덕상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이버김만덕기념관은 이러한 총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으로 사료된다. 사이버 기념관의 구성은 〈김만덕의 생애와 시대적 분위기를 위한 전시관〉, 〈역대 만덕봉사상 관련 기획

탐구대상이었다. 주사의(술과 음식), 봉임축(바느질과 길쌈), 산가락(시골살림의 즐거움), 청낭결(병 다스리기), 술수략(집의 방향에 의해 길흉 가리는 법)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재단 실학축전집행위원회는 2004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도문화의전당, 수원효원공원, 수원화성행궁, 남양주다산유적지 등에서 “실학축전 2004 경기”를 개최했다. 여기서 조선 후기 영조 때의 대표적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씨를 새롭게 조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 4) 황옥실버문화축제는 김해 여성노인들이 허황후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등하고 문화적이며 국제적인 여성활동을 지향하려는 문화제로서, 그 심오한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오늘날에도 손색 없는 평등사상과 문화성으로 전국적인 문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성노인문화제이다.

전시관), 〈각종 사료를 전시, 열람할 수 있는 사료관〉, 〈기타 제주여성 인물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장보고사이버기념관(<http://www.changpogo.or.kr/intro.asp>)

안중근사이버기념관(<http://www.greatkorean.org>),

안창호사이버기념관(<http://www.ahnchangho.or.kr>),

세종대왕기념사업회(<http://www.sejongkorea.org>)는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화폐인물 선정을 위한 노력⁵⁾

오늘날 여성을 새 화폐의 모델로 내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성인물을 화폐에! 시민연대’는 여성화폐모델운동이 여성운동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특히 새 화폐 발행이 가시화되면서 화폐모델로 시대적 소명의식을 담은 모델 제시 역시 활발한 가운데 여성을 화폐모델로 세우는 운동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여성화폐모델 세우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강릉은 신사임당 탄생 500주년인 올해 신사임당에 대한 재해석과 사임당을 새 화폐모델로 내세우기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김만덕기념사업회(대표 : 강재엽, 고영자, 고두심, 부청자, 송동효)는 ‘김만덕을 한국화폐모델로 만들자’는 범도민운동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김만덕 학술대회를 제주와 서울에서 개최, 만덕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한편 화폐모델로 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운동을 단지 민간에게만 맡기지 말고 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5) <http://cafe.daum.net>

김만덕 기념사업의 방향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제주 경제의 활성화 방안

정 창 권

개발 목적

조선시대 서민층 여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김만덕이다. 그녀는 당시 새롭게 부각되던 유통업을 통해 수천금을 모은 여성사업가(CEO)이자, 애써 모은 돈을 서슴없이 내놓아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한 사회 사업가였으며, 서울에 올라가 왕과 왕비 및 공경대부들을 만나고, 또 남자들도 좀처럼 하기 어려운 금강산 구경을 다녀오는 등 희대의 여성영웅이었다. 그녀는 18세기 제주에 살았던 한 여인이었지만 중앙에 까지 널리 알려져 일세(一世)의 화제를 모았던 역사적 인물이었던 것이다. 16세기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17세기 안동장씨 등이 일부 상류층 집안을 중심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김만덕은 조선시대 제주의 한 거상(巨商)일 뿐이었다고 매우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 그것도 이 분야를 전공하는 역사학이나 국문학, 여성사 전공자 등 소수의 지식인들만 알고 있는 형편이다.

심지어 제주 사람들마저도 “김만덕이 누구예요?” 하고 물으면, “아~만덕! 할망이지 누구야.”라고 신화적인 인물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녀가 언제 어디서 살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으며, 왜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별로 없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김만덕의 행적을 쉽게 알려주는 책들, 예컨대 인문서나 동화, 만화 등이 아직까지 한 권도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들조차도 김만덕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으며, 김만덕을 토대로 전시나 축제, 공연,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도 감히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강릉이나 경주, 안동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떠한가. 단적인 예로서, 강릉시는 율곡과 신사임당의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하고, 그들의 생애나 작품을 동화나 만화, 단행본으로 출간토록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매년 율곡제와 같은 축제를 열어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관광산업의 진흥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물론 김만덕을 다룬 영상물로는 1976년 MBC의 <정화>라는 드라마와 2003년 EBS의 <의녀 김만덕>이란 역사극장, 그리고 만화로는 김재희 작가가 그린 <고래 만덕>이 있다. 이 작품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는 않지만, 향후 김만덕을 영상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판단된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김만덕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¹⁾를 개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김만덕 관련 단행본

1) 콘텐츠란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롭게 쓰이는 유행어인데, 쉽게 말해서 ‘내용물’, 특히 디지털시대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내용물’을 일컫는다. 보통 콘텐츠는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그를 뒷받침해주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는 콘텐츠를 담는 그릇들, 곧 영화나 드라마, 게임 같은 각종 대중매체(문화상품)를 말한다.

과 출판만화를 우선적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그녀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자세히 고찰하면서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도서들을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만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앞으로 전시나 축제, 공연, 드라마, 캐릭터 등 각종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기존 관광 도시로서의 제주의 위상을 역사와 문화 도시로까지 확대시키는데 일조(一助)를 하고자 한다.

개발 필요성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문화가 바로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중앙이나 지방 정부는 자신들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하나의 제대로 된 콘텐츠는 그 지방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소득 증대,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톡톡히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도 각 지방단체들이 자기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나 문화행사를 발굴하여 콘텐츠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수원의 실학축전, 안동의 국제탈춤 페스티벌, 강릉의 단오제나 울곡제, 금산의 인삼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경주의 세계문화엑스포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최근 한국에서는 특성화된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역시 지역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주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래 제주에는 역사가 매우 깊고,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신화와 언어, 문화 등 많은 콘텐츠 자원들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김만덕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인물이다.

앞서 말했듯이, 김만덕은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아니 남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의 한 역할 모델이자, 제주가 갖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콘텐츠의 한 자원이다.

근래 각 분야의 제주 인사들이 김만덕을 새롭게 되살리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학계에서 워크숍을 열어 김만덕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해 보고자 한 일이나,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이러한 학계의 작업을 열성적으로 후원했던 일, 또 새로운 화폐인물로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했던 일은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분명 김만덕은 제주가 새롭게 내세울 만한 역사적 인물로서의 자격을 충분한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김만덕을 현대화·대중화하기 위한 각종 문화콘텐츠 개발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김만덕에 관한 단행본과 만화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전시나 드라마, 공연, 캐릭터 같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주로 관광과 휴양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해외여행이 날이 갈수록 대거 늘어나면서, 과거와 같은 관광지로서의 위상과 호황을 계속 누리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제주가 기존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와 함께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도 점차적으로 갖추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김만덕 콘텐츠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개발내용 및 방법

조선시대 서민층 여성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경상도 선산지방의 향랑과 제주도의 김만덕이다. 그런데 향랑은 17세기 이후 강화되는 가부장제 사회의 대표적 희생자라면²⁾, 김만덕은 18세기 후반 거상이 되어 자신의 뜻을 이룬 가장 대표적인 성공한 여성이었다³⁾.

이에 따라 필자는 김만덕을 콘텐츠로 개발하여 널리 알리기 위해 몇 해 전부터 계속 자료 수집과 분석을 병행해 왔다. 그리고 지난 2004년 4월에는 제주 YWCA에서 주최한 초청강연회를 통해 김만덕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김만덕 관련 예비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 그해 9월엔 대중교양지 『좋은생각』에 김만덕에 대한 짤막하고 핵심적인 글을 기고하였다. 나아가 2005년 4월에는 몇몇 뜻있는 제주인의 후원으로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제주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⁴⁾

물론 필자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회원들 사이에서 김만덕 콘텐츠 개발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김만덕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및 콘텐츠화 방안에 대해 계속 토론해 왔다. 필자가 이번 작업을 혼자서 진행하지 않고 특별히 개발팀을 구성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흥밋거리를 찾아낼 수 있고, 그 결과 대중성 확보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2) 정창권, 『향랑, 산유화로 지다』, 풀빛,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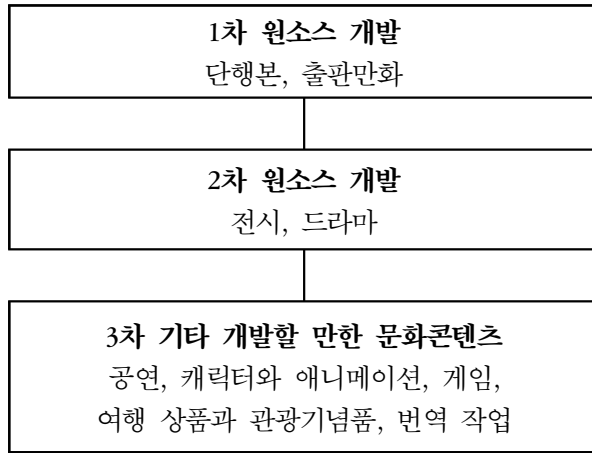
3) 정창권, 널리 덕을 베푼 여인 만덕, 『좋은생각』, 2004년 9월호.

4) 제주도 현지답사는 생활체육 제주시합기도연합회장이신 정창남 님과 학산종합건설 대표이사이신 강성훈 님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두 분의 제주에 대한 깊은 사랑에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본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선 유행을 창조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그를 뒷받침해주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또한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선 출판과 만화, 전시/공연, 영상,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콘텐츠는 하나의 소스를 개발한 뒤 그것을 다른 장르에 적용하여 파급효과를 높이는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예를 들어 얼마전 국내에서도 개봉되어 호평을 받은 〈스타워즈〉 시리즈의 경우, 먼저 영화로 개발한 후 소설, 만화, 방송,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음반,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로 연계하여 엄청난 파급효과를 얻었다. 특히 스타워즈의 연계 상품들은 영화의 단순 재활용이 아닌 각 분야별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렸으며, 배경이나 사건도 서로 일관성을 가지도록 철저히 관리되었다.

우리도 역시 기획단계부터 단행본과 만화뿐 아니라, 전시나 드라마, 공연,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로의 연계를 생각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김만덕이 하나의 역사적 인물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김만덕 콘텐츠화 과정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원소스 개발

단행본

대체로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예컨대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에반게리온〉 등을 보면, 소설이나 만화 같은 원작을 토대로 제작된 경우가 많다. 우리도 역시 김만덕 콘텐츠 개발을 단행본과 만화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김만덕의 역사적 의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후 제작될 각종 문화콘텐츠를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단행본은 딱딱한 설명이나 논문체가 아닌 이야기체, 곧 사건을 극적으로 재현하여 재미있게 들려주고자 한다. 사실 필자는 지금까지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2003, 사계절), 『향량, 산유화로 지다』(2004, 풀빛),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2005, 문학동네)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딱딱한 설명체보다 부드러운 이야기체 글쓰기를 선호해 왔으며, 그래서인지 독자들로부터 적잖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이번

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체를 구사하여, 이후 전개될 전시나 드라마의 원작으로서 활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하나(-)를 가지고 열(+)을 말하며, 삶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법인 미시사·생활사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김만덕이란 한 사람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통해 동시대 제주의 역사, 더 나아가 조선의 역사까지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김만덕과 제주 관련 문헌이나 유물, 고지도, 고회화, 답사사진 등 다양한 시각자료를 첨부하여 이후 전시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아주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스토리텔링, 곧 캐릭터 설정과 스토리 짜기에 있다. 사실 모든 콘텐츠의 성패 여부는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김만덕 캐릭터는 초기엔 억척스러움이 느껴지고, 후기엔 관음보살 같은 관대함이 느껴진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인상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필자는 의도적으로 만덕 주변인의 코믹한 제스처나 에피소드를 간간히 삽입하여 긴장을 이완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대중들의 트렌드는 무겁고 진지한 것보다는 가볍고 재밌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김만덕의 역사성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맹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권도(權道)일 뿐이다).

또한 스토리라인은 김만덕의 일생을 순차적으로 밋밋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거상(巨商)으로 성장하는 과정(상업사)과, 그 이후 자신의 재산을 서슴없이 내놓는 장면(구휼)을 중심으로 빠르고 드라마틱하게 펼쳐가고자 한다. 기타 어린 시절과 기녀생활은 중간중간 대화로 들려주고, 말년의 상경과 금강산 구경은 돌아온 지 1년 후의 한 장면을 통해 에필로그로 처리하고자 한다.

만화

만화도 또한 접근 방식이나 작품 성격은 기본적으로 단행본과 유사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만화는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는 인식이 현실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주요 소비층인 아이들에게 맞추어 개발해야 한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프레임도 큼직하게 나누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고, 많은 정보를 담으려는 욕심보다는 우선 김만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자 한다. 한 마디로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학습만화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스토리텔링도 단행본과는 약간 다른데, 우선 캐릭터는 만화의 성격에 맞게 사실을 중심으로 하되 약간의 영웅화가 필요하다. 스토리 또한 아이들의 흥미를 감안하여 역사적 사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화적 비약이나 과장을 넣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현대 인물들이 과거 김만덕과 제주의 역사를 하나씩 알아간다는 형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의 단행본을 만화의 특성에 맞게 각색하여 제작하고자 한다.

2차 멀티유즈화

우리의 당면 목표는 1차인 원소스 개발에 있다. 하지만 김만덕 콘텐츠는 기획단계부터 원소스 멀티유즈를 표방한 만큼, 2차 활용인 멀티유즈화에 대해서도 미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2차 활용은 인기 있는 작품의 캐릭터나 스토리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단순 재활용이 되어서는 안되고, 각 분야별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서 그 나름의 독자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한마디로 서로 유사하되, 매체의 특성에 따라 각색·변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2차 활용은 분야별 전문 기업과의 제휴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처럼 전문화된 시대에 원소스 개발자가 전 분야의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전문가를 영입하여 제작한다고 해도 노하우나 마케팅 능력의 부족으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점들을 유의하고 2차활용을 진행할 것이다.

전시

요즘 주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가족단위의 문화체험관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도 이 점에 착안하여 2차 활용의 하나로 우선 전시회 개최를 고려해 보았다. 여기서 전시는 단순히 전시 그 자체만으로 한정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큰 이벤트인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전시는 웹 사이트와 함께 사이버 전시관을 별도로 꾸미고 있다는 점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전시도 역시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한데, 기존처럼 정보를 유형별로 나열해두고 관람객에게 무작정 지식만을 전달하려는 지루한 전시회가 아니라, 미국의 테마박물관들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시물을 구성하여 관람객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축제와 같은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예컨대 1차 단행본이나 만화 등 원작을 바탕으로, 그 캐릭터에 따라 이야기를 들려주듯 전시물을 배치하면, 관람객은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간접 체험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시를 다 보고나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고난 느낌이 들 것이다.

물론 전시의 스토리텔링은 원작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특히 김만덕 관련 자료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전시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김만덕과 제주 역사전’이란 테마로, 1차 작업시 수집한 문헌이나 유물, 고지도, 고회화 등 각종 시각자료만이 아니라, 동시대 제주의 역사, 특히 상업사와 생활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자료가 부족하거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삽화(풍속화)나 만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영상물 등으

로 제작하여 앞의 사실적 자료들과 함께 조화롭게 설치하면 될 것이다.

끝으로 사이버 전시관은 남원시에서 제작한 ‘춘향’ 사이트와 함평군에서 제작한 ‘함평나비 축제’ 등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대표적으로 ‘춘향’ 사이트는 〈춘향전〉 텍스트만이 아니라 그 연구성과물, 남원 지역의 제반 특성과 생활문화, 영화나 음악 같은 멀티미디어물, 게임형식의 학습과 퀴즈코너 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드라마

한국에서 드라마는 영상물의 꽃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 중의 하나이다. 〈대장금〉이나 〈겨울연가〉가 보여주었듯이, 드라마는 특정 인물이나 지역의 이미지 상승효과만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 특산물 판매, 고용창출 등 많은 부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에 드라마 촬영을 유치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보기에도 김만덕 콘텐츠는 앞의 매체들로 여론의 관심을 불러모은 뒤, 곧장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듯하다.

물론 최근 드라마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하여 엄청난 인적·물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김만덕은 행적도 특이하고 요즘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원작의 스토리가 탄탄히 짜여지고 제주도청과 김만덕기념사업회 및 제주도민들이 합심하여 계속 추진한다면, 공중과 방송에서의 드라마화도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시청자들도 남쪽 섬 제주의 한 객점에서 펼쳐지는 우리네 민초들의 생활상을 한 번쯤 보고싶어 할 것이다.

원작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작업도 결코 만만치는 않으리라 본다. 특히 요즘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은 얼마 전에 종영된 〈해신〉에서 보았듯이 화려한 볼거리와 빠른 전개, 그리고 〈쾌걸춘향〉에서처럼 코믹하고

유머러스한 대사와 에피소드가 특색이다. 또 액션이나 로맨스, 가족에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는, 이른바 퓨전물이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도 이 점에 유의하여 원작을 각색할 예정인데, 필요할 경우 전문 시나리오 작가를 영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아예 원작의 드라마화 권한을 프로덕션에 넘기려고 한다.

3차 기타 개발할 만한 문화콘텐츠들

이 밖에도 김만덕 관련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만한 것들은 대단히 많다. 물론 이것들은 선행 문화콘텐츠의 성패 여부에 따라 계속 개발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야 계속 개발되어 김만덕을 한국사의 또다른 위인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지만, 불행하게도 문화콘텐츠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차 콘텐츠 개발 과제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연

김만덕의 행적 중 하나의 사건을 특화시켜 연극이나 뮤지컬로 제작하는 것이다. 사실 인물 전기 뮤지컬이라 할지라도 주인공이 살아온 인생 전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주인공의 행적 중 가장 드라마틱한 전환점을 겪었던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길게는 10년, 짧게는 1년 정도의 시기만을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한 편의 영화로 제작한다면, 그것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캐릭터·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완구나 인형, 기타 각종 캐릭터 부착 상품으로 꾸준히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캐릭터는 귀여운 디자인으로 쉽고 간단한 모습

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애니메이션도 김만덕의 인지도를 넓히는 데 매우 효과적인 분야이다. 다만 그 내용이나 장르에 따라 제작비의 차이가 심한 편인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블록버스터형이 아니라 20~30분 정도의 짧고 유니버스형 TV애니메이션이 적합할 듯하다.

문제는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이다. 우선 캐릭터는 1차 만화가 어느 정도 알려진다면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캐릭터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애니메이션도 역시 만화를 원작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꼭 원작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애니메이션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각색과 변신을 시도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게임

요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바로 게임이다.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쯤은 잘하는 게임이 있으며, 이것을 여가생활의 일종으로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김만덕 콘텐츠도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온라인, 비디오, 모바일 게임을 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만덕이 거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게임으로 개발해볼 만한데, 아직은 고민 중에 있다.

여행상품·관광기념품

김만덕 콘텐츠 관련 여행 상품으로는 제주 목관아지와 향교, 화북과 초천 포구, 김만덕기념관, 용두암, 한라산, 말목장 등이고, 만약 드라마화가 실현된다면 그 촬영지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관광기념품으로는 제주의 특산품인 다양한 종류의 굴들, 전복, 갈치, 선인장 등과 우리가 개발할 예정인 비둘기 젓가락(장수를 의미함),

김만덕 캐릭터를 활용한 많은 상품들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이것들을 원소스 개발단계부터 작품 속에 적절히 삽입해서 그 유래와 중요성까지 소개하는 등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번역작업

현대는 국제화 시대이고, 특히 제주는 국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출입이 매우 잦다. 그러므로 1차 단행본과 만화를 최소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로 번역·출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국 도서관에 기증하는 한편 국내외 항공사와 여행사에 배포한다면, 제주가 관광만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본다.

개발 인원과 일정 및 소요 예산

우리는 김만덕 콘텐츠를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공동작업으로 개발하고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흥밋거리 및 원소스 멀티유즈를 실현하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동작업은 개개인의 역량 차이로 시간이 더 걸린다는 단점도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작품의 완성도에 있다고 본다. 김만덕 콘텐츠의 1차 원소스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과 그 일정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단행본은 필자와 윤종선(고려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 자료 수집과 분석 및 개요를 작성한 후 지금은 한 장면씩 토론회하면서 이야기 짜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집필은 필자가 앞에서 해나가고, 윤종선이 뒤에서 수정·보완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발 일정은 8월말까지 모든 집필을 끝마치고, 11월 말까지 두세

차례의 수정작업과 시각자료를 첨부하여 최종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뒤, 2006년 3월 이전엔 출간할 예정이다. 출판사는 현재 문학동네의 자회사인 북하우스, 한얼미디어, 푸른역사, 황매 등이 계속적으로 원고의 완성 여부를 묻고 있다.

다음으로 만화는 단행본에도 참여하는 윤종선과 노혜진(한양대 대학원 석사졸업예정), 유정완·윤성환(고려대 대학원 문화콘텐츠 석사과정), 김완규(고려대 무역학과 4학년) 등이 시나리오를 쓰고, 필자가 그 감수를 맡고 있으며, 주경훈 작가가 콘티작업을 거쳐 만화로 옮기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호잇! 고구려』(황매)란 학습만화를 직접 제작한 바 있는 경험자들이다.

〈1차 원소스 개발 일정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단행본	집필완료										
			수정작업 및 시각자료 첨부								
						출간					
만화	시나리오 작성										
				콘티·원화·채색 작업							
								출간			

현재 만화는 자료 수집과 분석 및 개요 작성을 끝마치고, 1) 유년기, 2) 기녀생활, 3) 상업과 구휼, 4) 한양과 금강산 구경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 개발 일정은 9월 말까지 최종 시나리오 작업을 마치고, 2006년 1월 말까지 콘티와 만화 작업을 마친 뒤, 2006년 5월 이전에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출판은 단행본과 같은 회사에서 하기로 했다.

끝으로 소요 예산은 역시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오로지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문헌과 고회화, 고지도, 유물 등 각종 시각자료 구입비(저작권 포함), 만화의 채색작업비, 일부 회원만의 최종 답사비, 그리고 2차 활용을 위한 회의비나 활동비가 크게 부족해서, 이번 콘텐츠 개발의 발의자이자 책임자로서 적잖이 걱정된다.

기대효과 및 개발 의의

김만덕은 제주의 중요한 역사 콘텐츠 자원이다. 하지만 김만덕을 콘텐츠로 개발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형태로 총3차에 걸쳐 김만덕 콘텐츠를 하나씩 개발하고자 한다. 1차에서는 김만덕과 제주의 역사를 생생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단행본과 만화를 개발하고, 2·3차에서는 그것들을 토대로 전시와 드라마뿐 아니라, 기타 공연,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게임, 여행상품과 관광기념품, 번역작업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로써 김만덕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김만덕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 개발의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김만덕의 화폐인물 선정이다.

현재 고두심 공동대표를 비롯한 김만덕기념사업회는 새 화폐인물로 김만덕이 선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김만덕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김만덕을 콘텐츠로 개발해서 널리 알린다면 화제인물로 선정 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둘째, 제주의 이미지 상승 효과이다.

이번 콘텐츠 개발은 비단 김만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제주의 역사까지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그래서 현재 관광과 휴양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제주의 위상을 역사·문화의 도시로까지 확대시키고자 한다.

셋째, 경제적 효과이다.

김만덕 콘텐츠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우리는 1차 원소스 개발과제인 단행본과 만화에서부터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활사, 유적지 등을 각종 시각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다(필자가 현장 답사를 매우 중시하는 이유도 한편으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누구나 한번쯤 제주에 가보고픈 마음이 들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즉, 기존의 관광 안내책처럼 딱딱하고 틀에 박힌 방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우리는 김만덕 콘텐츠 속에 굴이나 전복, 갈치 등 제주의 특산물을 적절히 삽입하여 무의식 중에 홍보를 함으로써 그것들의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비둘기 젓가락이나 김만덕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제주 도민의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에도 최대한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별로 독특한 인물이나 문화

행사를 발굴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하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자연스런 방식으로 그 지방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해당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들은 이제 관광이나 특산품 판매도 철저하게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김만덕 콘텐츠의 개발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1부. 김만덕 전기

의녀반수 김만덕의 삶 (김창집)

왕조실록(王朝實錄)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 1880) : 유재건(劉在建)

담라인물고(耽羅人物考)

담라기년(耽羅紀年, 1910) : 김석익(金錫翼)

제주도사논고(濟州島史論考, 1971) : 김태능(金泰能)

명기열전(名妓列傳, 1977) : 정비석(鄭飛石)

구좌읍지(舊左邑誌, 1987) : 부영성(夫英性)

구원의 여인상 김만덕(1989) : 김봉옥(金奉玉) 편

제주여인상(濟州女人像, 1998) : 제주문화원

제주사인명사전(濟州史人名事典, 2002) : 김찬흠(金燦洽)

2부. 김만덕 시대의 사회경제상

18·9세기 제주사회의 진흥과 김만덕의 사회적 공헌 (진관훈)

김건우 편역(2003), “김만덕”,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문자향.

김경애(2004),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제주국제협의회
제17차 학술대회 「21세기 제주 사회와 여성」.

김봉옥(1989), 『구원의 여인 김만덕』, 제주도.

김봉옥(2000),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 김석익(1918), 『탐라기년』.
- 김준형(2000),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17, 제주학회.
- 김태능(1971),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 박용옥(1981), “만덕”, 『여성』 17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박찬식(2005), “김만덕과 조선후기 제주사회”, 김만덕기념사업회 학술 세미나.
- 변종현(2005), “김만덕 삶의 현대적 조명”, 김만덕기념사업회 학술세미나.
- 서울시스템(1995), 「朝鮮王朝實錄(1392~1863)」 CD롬.
- 소재영(1999), “제주의 여인상”, 『국문학편답기』, 아세아 문화사.
- 윤치부(2005), “만덕이야기의 전승과 연구의 사적 전개”, 김만덕기념사업회 학술세미나.
- 이순구(1998), “김만덕 : 굶주린 백성을 살린 사업가”, 『한국 역사 속의 여성인물 1』, 한국여성개발원.
- 이전문(1989), “제주의 첫 여상인 만덕”, 「조선의 상공인 열전 부자되는 이야기」, 조선일보.
- 제주도(1989),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청.
- 濟州道(1999), 「備邊司騰錄 濟州記事」.
- 濟州道(2001),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 진관훈(2002), “조선시대 제주의 공적부조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22집』, 탐라문화연구소.
- 채제공(1977), 『번암집』, 동화출판공사.
- 채제공, 「만덕전」.
- 현승환(2004), “21세기에서 다시 보는 김만덕”,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3부. 김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해석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김경애)

- 김정숙, 2002,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또』, 제주시: 각.
제주도, 1989,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청.
이덕일, 2003, 『이덕일의 여인열전』, 김영사.
최재석, 1976, 『제주도의 친족 연구』, 일지사.

3부. 김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해석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연구의 사적 전개 (윤치부)

- 강용삼·김봉옥·김종업·홍순만, 《제주선현지》, 제주도, 1988.
김건우 편역,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문자향, 2003.
김균태 편, 《문집소재전자료집》, 계명출판사, 1986.
김균태 편, 《문집소재전자료집》, 태학사, 1997.
김두봉, 《제주도실기》, (일본 대판)제주도실적연구사, 1932.
김두봉, 《제주도실기》, 제주시우당도서관, 2003.
김봉옥, 《구원의 여인 김만덕》, 제주도, 1989.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7.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김석익, 《탐라기년》, 1918.
김종업, 《탐라문화사》, 조약돌, 1986.
김찬흠,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사, 2002.

- 김태능,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1971.
-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 남만리 편, 《탐라지》(일본동경대학소장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
- 담수계 편, 《증보탐라지》(프린트판), 1954.
- 담수계 편,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4.
- 민족문화추진회, 《정조실록》 22, 민족문화추진회, 1993.
-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 부영성,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1986.
- 박제가, 《북학의》, 이익성 역, 을유문화사, 1971.
- 박제가, 《북학의》, 안대회 옮김, 돌베개, 2003.
- 북제주군, 《북제주군지》, 북제주군, 1987.
- 석주명, 《제주도수필》, 보진재, 1968.
- 승정원 편, 《승정원일기》 93, 국사편찬위원회, 1961.
- 沈老崇, 《孝田散稿》(국립도서관본).
- 沈老崇, 《孝田散稿》(연세대본).
- 심노승, 《눈물이란 무엇인가》, 김영진 옮김, 태학사, 2001.
- 우탁기, 《제주도》, 한국지리연구소, 1980.
- 劉在建, 《里鄉 見聞錄·壺山外記》, 아세아문화사, 1974.
- 유재건, 《이향건문록》,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주, 민음사, 1997.
- 이가원 교주, 《이조한문소설선》, 교문사, 1984.
- 李家煥, 《錦帶詩文鈔》(규장각본).
- 이규태, 《역사에 소문나지 않은 여인》, 기린원, 1987.
- 이덕일, 《이덕일의 여인열전》, 김영사, 2003.
- 李載采, 《五園集》.

- 이선문, 《조선의 상공인 열전 부자되는 이야기》, 조선일보사, 1989.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관계자료집 : 근세편 문집》, 이화여대출판부, 1990.
- 정비석, 《명기열전》 6, 신정사, 1981.
- 정약용, 《丁茶山全書上》, 홍익인간사, 1960.
- 정약용, 《국역다산시문집 6》, 민족문화추진회, 1997.
- 《정조실록》.
- 제주도, 《제주도지》 상, 제주도, 1982.
- 제주도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2.
- 제주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승정원일기 제주기사》하, 제주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2001.
- 제주문화원,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 제주시, 《제주시 30년사》, 제주시, 1985.
- 趙秀三, 《秋齋集》, 보진재, 1940.
- 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74.
- 진성기, 《제주도 전설》, 도서출판 백록, 1992.
- 蔡濟恭, 《樊巖集》.
- 채제공, 《번암집》, 동화출판공사, 1977.
- 《한국명저대전집》, 대양서적, 197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한치문, 《탐라실록》, 한진문화사, 1973.
- 김경애,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2004.

-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 산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96.
- 김준형,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17, 제주학회, 2000.
- 박용옥, “만덕”, 《여성》 17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81.
- 소재영, “제주의 여인상”, 《국문학 편답기》, 아세아 문화사, 1999.
- 윤치부,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
- 이순구, “김만덕 : 굶주린 백성을 살린 사업가”, 《한국 역사 속의 여성 인물 1》, 한국여성개발원, 1998.
- 이승복, “변암 채제공의 「진」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 이신복,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 《한문학논집》 12, 단국한문학회, 1994.
- 정미숙, “채제공과 이옥의 여성전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2.
- 최준하, “변암 채제공의 「진」 문학 연구”, 《어문연구》 24, 어문연구회, 1993.
- 현승환, “21세기에서 다시 보는 김만덕”,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2004.

3부. 김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해석

실존인물 김만덕의 문학화 과정 (현승환)

『정조실록』.

『삼국사기』.

- 윤치부,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 제주도, 2004.
- 이동근, 『조선후기 「전」 문학연구』, 태학사, 1991.
- 김균태, “전문학”, 『한국고전소설론』, 한국고전소설 편찬위원회.
- 유엽저, 최신희 역주, 『문심조룡』, 사전, 제16.
- AlanShelston 저, 이경식 역, 『전기문학』, 문학비평총서 16, 서울대출판부, 1979.
- 한우근,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1969.
- 현용준, “김통정 장군”,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7.
- 유몽인, “진이(황진이)”, 『한국고전문학선집』 7, 書榮出版社, 1980.
- 강용삼·김봉옥·김종업·홍순만, 『제주선현지』, 제주도, 1988.
- 김건우 편역,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문자향, 2003.
- 김균태 편, 『문집소재전자료집』, 계명출판사, 1986.
- 김균태 편, 『문집소재전자료집』, 태학사, 1997.
- 김두봉, 『제주도실기』, 제주시우당도서관, 2003.
- 김봉옥, 『구원의 여인 김만덕』, 제주도, 1989.
-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7.
-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 김석익, 『탐라기년』, 1918.
- 김찬흠,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사, 2002.
-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 남만리 편, 『탐라지』(일본동경대학 소장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
- 담수계 편,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4.
- 민족문화추진회, 『정조실록』 22, 민족문화추진회, 1993.
- 부영성,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1986.
- 북제주군, 『북제주군지』, 북제주군, 1987.
- 승정원 편, 『승정원일기』 93, 국사편찬위원회, 1961.

- 沈老崇, 『孝田散稿』(국립도서관본).
- 심노승, 김영진 옮김,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 유재건, 『이향견문록』,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주, 민음사, 1997.
- 이덕일, 『이덕일의 여인열전』, 김영사, 2003.
- 정비석, 『명기열전』 6, 신정사, 1981.
-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2.
- 제주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하, 제주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2001.
- 제주문화원,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 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74.
- 진성기, 『제주도 전설』, 도서출판 백록, 1992.
- 채제공, 『번암집』, 동화출판공사, 1977.
- 한치문, 『탐라실록』, 한진문화사, 1973.
-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 산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96.
- 김준형,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17, 제주학회, 2000.
- 소재영, “제주의 여인상”, 『국문학 편답기』, 아세아 문화사, 1999.
- 윤치부,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
- 이순구, “김만덕 : 굶주린 백성을 살린 사업가”, 『한국 역사 속의 여성 인물 1』, 한국여성개발원, 1998.
- 이신복,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 『한문학논집』 12, 단국한문학회, 1994.
- 최준하, “번암 채제공의 「전」 문학 연구”, 『어문연구』 24, 어문연구회, 1993.

현승환, “21세기에서 다시 보는 김만덕”,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2001.

3부. 김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해석

김만덕의 삶을 통해 본 정신적 가치의 탐색 (변종헌)

권명중(2002), 「거상 임상옥의 상도 경영」, 거름.

김건우 편역(2003), “김만덕”,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문자향.

김경애(2004a),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제주국제협의회
제17차 학술대회 「21세기 제주 사회와 여성」, pp.82~102.

김경애(2004b), “시대와 불화하지 않으면서 시대를 뛰어넘은 여성 기업
인 김만덕”, 「함께 가는 여성」, pp.34~36.

김영진 역(2001), 심노승 저,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김원주(1996), 「경영윤리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준형(2000),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사단법인 제주학회, 「제주
도 연구」 제17집, pp.1~26.

박무영 외(2004),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박성수 역(1996), 막스 베버 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박용옥(1981), “만덕”,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 제176호, pp.50~51.

박헌준 편저(2004), 「한국의 기업윤리」, 박영사.

변종헌(2004), 제주국제협의회 제17차 학술대회,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토론자료, pp.107~9.

- 변종현 외(2001), 「현대 사회와 이데올로기」, 인간사랑.
-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11월 24일조.
- 안진환 역(2003), 조나단 B. 화이트 저, 「애덤 스미스 구하기」, 생각의 나무.
- 윤치부(2001),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pp.57~69.
- 이관춘(2003), 「직업은 직업이고 윤리는 윤리인가」, 학지사.
- 이덕일(2003), 「이덕일의 여인열전」, 김영사.
- 이재규 역(2004), 피터 드러커 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업가 정신」, 한국경제신문.
- 「정조실록」, 정조 19년(1795) 5월 11일조; 정조 20년 11월 25일조.
- 제주도(1989),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청.
- 채제공(1977), 「변암집」, 동화출판공사.
- 한국여성연구소(2004), 「새 여성학 강의」, 동녘.
- 현승환(2004), “21세기에 다시 보는 김만덕”, 제주국제협의회 제17차 학술대회, 「21세기 제주 사회와 여성」, pp.61~81.
- Jones, L. P. & Sakong I (1980),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ahn, H(1979),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London: Croom Helm.



부록

1. 구 묘비문(舊 墓碑文)
2. 만덕묘 이장 경위
3. 義人의 묘소 벌초 홀로 60年
4. 김만덕상 관련 자료



1. 구 묘비문(舊 墓碑文)

김만덕의 본은 김해김씨요 곧 탐라의 좋은 집안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독하게 가난과 고생으로 자랐다. 그러나 살결이 곱고 아름다우므로 교방(敎坊)에 의탁한 바 되었으나 의복을 줄이고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여 재산이 대단히 커졌다. 정조 을묘년에는 제주도민이 크게 굶주렸는데 능히 재산을 기울여 곡식을 육지에서 운반하여다가 심히 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렸다.

목사가 이 착한 사실을 아뢰니 임금께서 무엇이 소원이나고 물으셨는데 대답하기를 「화려한 서울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였으므로 특명으로 고을과 고을을 이어가며 돌아보게 하고, 내의원 의녀로 삼아 여러 차례 은총을 내리시고 역마를 내려주어 일만이천봉을 두루 유람하고 급기야 서울로 돌아오니 이로 인하여 공경대부 모두가 글과 전기를 써 주었으니 비록 옛적에 착하고 아리따운 여자라 하더라도 무릇 맛보지 못한 일이다.

70이 된 용모이건만 선녀나 보살을 방불케 하였고 눈은 쌍겹눈으로 환하고 맑았다. 다만 천도가 무심하여 아이가 없는 게 애석하다. 그러나 양손 시채(時采)가 동기간에서 출계하여 유지를 잘 지키고 영구히 향화하니 또한 섭섭하지 않게 보답하고 있다. 원릉(元陵 : 영조의 陵으로 영조를 말함) 기미년(영조 15년)에 낳고 지금 임금(순조) 임신년(순조 12년) 10월 22일에 죽었으므로 다음달에 ㄱ으니 ㄴ루에 장사하니 갑좌(甲坐

: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진 서쪽)의 무덤이다. 임금이 즉위하신지 12년 11월 21일에 비를 세우다.¹⁾

(번역 : 김봉옥)

1) 金萬德 本金海 卽耽羅良家女也 幼而失恃 零丁貧苦長 而曼托跡教坊 縮衣損食 質產滋大 歲在 正宗朝乙卯 島人大飢 能傾財運穀 活命甚衆 牧伯賢之以聞 上問何所欲 對曰 願見 京華金剛之勝而已 特命縣次續食 充內醫女寵頒便蕃 因鋪馬遍覽萬二千峯 及其還 卿大夫 皆驢章立傳 雖古賢媛 盖未賞 七旬顏髮 彷彿仙釋 重腫烟澈 但天道無心 惜乎無兒 然養孫時采 出自同氣 克遵遺志 永香火赤復奚憾 生于元陵己未 終于當宁壬申 十月二二日 以翌月窆于並園旨 甲坐之原 上之卽位十二年 十一月二十一日立.

2. 만덕묘 이장 경위

옛날 제주성(濟州城)의 규모는 처음에는 산지천(山池川)과 병문천(屏門川) 사이에 높이 11척에 둘레 4천 700척의 성이었다. 그런데 명종 10년(1555년) 6월에 왜구가 4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침입하여 천여명이 하륙하여 동문 밖 높은 능선(陵線)에 진을 치고 제주성을 공격한 일이 있었다. 이 때 김수문(金秀文) 목사는 주 백성 70명으로 조직된 결사대(決死隊)가 나가서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 후 명종 20년(1565년)에 곽홀(郭屹) 목사가 제주성의 방어상 동쪽 높은 능선까지 성을 물려 쌓았으므로 성 둘레가 6천120여 척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당시 동문 밖에는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고 동쪽 공동묘지가 지금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그 후 대한말에 공동묘지가 사라봉 남쪽 기슭으로 옮겨졌다. 만덕 할머니가 처음 묻혔던 古園(고원)루(並園旨)는 당시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나가는 길가 마루이었다.

그런데 근래 제주시가 팽창하여 집들이 만덕 할머니 묘소 가까이까지 들어서게 되고 특히 묘소 앞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지어져서 묘소 주변에 오물이 쌓이게 되었다. 이에 뜻있는 사람들은 만덕 할머니의 묘소를 걱정하게 되었는데 1971년 10월에 의사(醫師) 정태무(鄭太茂)씨가 주동이 되어서 〈김만덕 기념사업회〉를 조직하여 다른 곳으로 이장(移葬)할 것을 추진하였다. 당시 회장에는 홍정표(洪貞杓) 선생이고, 부회장에는 고혜영(高惠英) 양치중(梁致鍾), 재무이사에 정태무(鄭太茂), 사업이사 고영은(高永銀), 기획이사 현용준(玄容駿) 김영돈(金榮敦) 김봉옥(金奉玉), 섭외이사 강대원(康大元) 홍성목(洪性穆) 신상범(愼相範), 이사에 백찬석(白燦錫) 강민범(康民範) 김명신(金明信) 조병직(曹秉直) 최순신(崔順信) 이정숙(李貞淑) 강염숙(姜念淑), 감사에 이재봉(李在奉) 송석범(宋錫範) 등이 선임되었다. 그 중에도 홍정표 회장과 정태무씨는 이장할 후보지를 사라

봉, 산천단 등지로 몇해 동안 물색하면서 추진하였지만 뜻대로 이루지 못하여 거의 좌절 상태에 놓였는데 마침 1976년 5월에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총력안보 제주도협의회>가 주관하여 모충사(慕忠祠)를 건립하게 되자 이곳으로 이장하게 되었다.

이장은 1977년 1월 3일에 하였는데 그 날은 몹시 춥고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다. 주관처에서는 입회인으로 홍정표(洪貞杓) 문화재 관리위원, 이인구(李仁九) 총력안보 사무국장 그리고 정태무(鄭太茂) 이사와 필자가 지명되었다. 오전 8시에 현장에 모였으나 눈보라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파분 시간이 정해졌다 하여 인부들에게는 작업을 강행하도록 하였다. 잠시 후에 개판(蓋板)이 출토되었다. 이는 만덕 할머니가 묻힌 지 165년만에 이장하는 것인데 느타나무(굴무기) 개판이 본심 목질은 그대로 단단하였다. 개판을 열고 보니 비자목(樗木) 관(棺)이 완전하였다. 관의 크기로 보아 만덕 할머니는 보통 여인보다는 키가 컸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천판을 열고 보니 관 속에는 검은 칠로 두껍게 칠하여져 있는 타인지 물이 빠지지 않아서 유해는 물이 침전(浸濺)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주관처에서 마련한 강송 무절판 관으로 유해를 옮기고 당일로 모충사 묘탑(墓塔)으로 납골(納骨)하였다.

새로 마련한 묘소는 모충사 경내 동남쪽 남향으로 자리 잡아 20미터 거리를 11계단 돌 층계를 오르면 20여평 5단으로 된 기단 위에 한 번이 2미터 높이 2미터의 세모난 납골실(納骨室)이 있고, 옆으로 높이 20미터의 장중한 기둥 세 개가 납골실 세모각을 결합하여 호위하고 있다. 또 세 기둥은 위에 가서 둥글고 우아하게 합쳐 있고, 기둥과 기둥은 화려한 24매의 당초무늬로 연결되어 있다. 또 납골실 3면에는 송사(頌祠)와 행장(行狀)이 조각되어 있고, 정면에 4개의 북석에 바친 상석(床石)과 양쪽에 2개의 큰 향로가 놓여 있다.

뒤에는 높이 3.5미터 길이 9.3미터의 반원형(半圓形) 곡장(曲牆)이 있는데 그 내부에 세로 1.2미터 가로 2.7미터 되는 2개의 부각도(浮刻圖)에 만덕이 구호곡을 배로 실어다가 목사에 헌납하는 장면과 서울에 가서 임금님을 배알하는 장면과 금강산 모양이 그려져 있다.

이 묘를 설계한 문정화(文貞化)씨의 설명에 의하면 세 기둥은 만덕 할머니가 정직한 성품으로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으로 동포를 구휼한 박애정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위에 가서 둥글게 합친 것은 위 세 가지 요소가 원만하고 아름답게 생애를 마친 것을 표현한 것이고, 당초무늬로 세 기둥을 연결한 것은 임금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아름다운 행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위에 의녀반수(醫女班首) 김만덕의인묘(金萬德義人墓)는 제주의 서예가 김순겸(金順謙)씨의 글씨다.

또 묘 남쪽으로 30미터 앞에는 옛 묘비와 문석(文石) 한 쌍과 망주(望柱) 두 개를 옮겨다 놓았다. 그 옆에는 60평의 만덕관(萬德館)을 건립하였는데 관내의 전시물은 제주 출신 한국 전통자수 연구가인 한상수(韓尙洙) 여사가 1978년 7월에 김만덕 할머니 기념사업을 돕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찬조한 것이다. 관 옆에 은광연세(恩光衍世)는 추사(秋史)가 써 준 편액의 글씨를 조각한 것으로 한상수(韓尙洙) 여사의 정성어린 봉사를 감사하는 뜻에서 그의 친구 산호(珊瑚) 양경호(梁庚浩) 여사가 기증한 것이다.

또 제주도에서는 만덕상(萬德賞)을 제정하여 근검 절약으로 역경을 이겨내어 성가한 후에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여인 한 사람을 선정하여 1980년부터 매년 한라문화제 때 시상하여 만덕 할머니의 박애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세상에는 역경을 이겨내어 성공한 사람이 많다. 또 근검 절약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도 많다. 그러나 만덕처럼 미색의 여인이 평생 을 독신으로 살면서 집념을 가지고 성공한 여인은 드물다. 또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시종 일관하여 검약한 생활을 하고 동포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여 거액의 재산을 내놓아 동포를 구한 일도 드물다. 그리고 임금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서울에 올라가서 반년이나 내의원에 머물면서 궁궐을 비롯한 서울 구경을 하고 금강산을 국비로 두루 돌아보게 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제주 여인들은 예로부터 갓은 고난을 남자와 함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공동으로 부담하여 극복하는 게 특별하다. 그리고 제주 여인들은 인내심이 강하고 활발하여 경제활동과 생활력이 강하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제주에는 청상과부가 수절하며 근검으로 시가(嫗家)를 지키고 일으킨 여인은 허다하다. 그러나 저축한 거금을 만덕처럼 사회를 위하여 환원시킨 예는 드물다.

끝으로 만덕은 성장환경으로 미루어 보아 이렇다 할 규문의 범(閨門之範)을 교육받은 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덕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알고 행적에 진선미(眞善美)를 다하였으니 이는 옛 성현(聖賢)의 말씀에 사람은 본디 선(善)한 것이라는 말을 입증한 사람이다. 못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역경 속에서도 착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고자 노력한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작성 : 김봉옥)

3. 義人の 묘소 별초 홀로 60年

지난 1월 25일 濟州市內 紗羅峰 동녘기슭에서 열린 獨立志士 및 金萬德義人 紀念塔 제막식전에서는 한 8순의 할머니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할머니는 韓桂月씨(80세). 義人 金萬德의 7대 후손의 며느리로 60개 성상을 한결같이 義人 金萬德의 묘소를 돌보고 별초를 해온 주인공이다.

宗孫 며느리 새색시

韓할머니가 義人 金萬德의 7대 宗孫인 金斗平씨에게 시집을 간 것은 그녀의 나이 17세 나던 해인 1914年. 당시 北濟州郡 舊左面 金寧里에 살고 있던 韓할머니는 이웃동네인 德泉里 마을의 義人 金萬德의 7대 宗孫 金斗平씨에게 시집을 가면서부터 60여 년에 걸친 義人에 대한 봉사의 역사가 시작된 것.

宗孫에 시집을 간 이상 조상의 제사와 명절차례 그리고 조상묘소의 별초 등을 도맡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韓할머니도 시집가는 날부터 남편을 따라 濟州市 紗羅峰에 있는 金萬德 묘소에 대한 별초에 나서곤 했다.

젊은 새댁의 별초나들이는 즐겁기만 했었다. 金萬德 義人을 위시한 조상들의 묘소를 별초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번은 濟州城안(濟州市內)을 구경할 수 있었기 때문.

그러나 이같은 즐거움도 잠깐. 하늘 같이 의지하던 남편 金斗平씨가 50세 나던 1946년에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韓할머니 혼자만 별초길에 나서야 했다. 韓할머니의 1남2녀 중 외아들인 金蓮植씨(60세)는 30년 전부터 서울에서 살고, 딸 大植씨(48세)와 明植씨(44세)는 나이가 든 후 출가해버렸기 때문.

더욱이 韓할머니가 60세가 넘으면서부터는 차멀미가 심해 젊은 시절에 즐겁기만 하던 濟州市 나들이(별초)마저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조상인 金萬德 義人의 묘소를 별초하기 위해 한차례 제주시 나들이를 한 다음에는 몸져눕기 여러날.

그러나 宗孫집 며느리 된 구실을 다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8순이 되던 지난해까지 金萬德 義人의 묘소에 대한 별초를 거른 해가 없었다.

그동안 60개 성상을 줄곧 金萬德 義人 묘소를 별초하고 돌보아왔지만 義人 金萬德의 묘소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었다. 간혹 韓할머니 혼자 별초를 하다보면 지나가던 별초꾼들이 “저집은 자손이 없어서 늙은 할머니 혼자 별초를 하는구나.” 하는 동정섞인 눈길을 받을 뿐이었다.

이럴 때마다 韓할머니는 별초하던 낫을 놓고 갓 시집을 때 시아버지에게 들었던 金萬德 義人의 행적을 회상하곤 했다.

몇 년동안 계속된 흉년으로 濟州島民들이 굶주려 죽게되자 고생하며 모은 자기의 전재산을 내놔 島民들을 살려냈다는 자랑스런 조상 金萬德 할머니.

이러한 선행이 알려지자 당시 나랏님이던 正祖 임금님을 만나 손목을 잡히는 영광을 받고 나랏님에게 잡혔던 손목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일생 동안 손을 명주수건으로 묶고 지냈다는 金萬德 조상의 이야기를 듣고 韓할머니는 어려움도 참고 이겨, 宗係집 며느리의 구실을 다하기 위해 묘소를 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어려운 생활로 고생

이제 韓할머니가 혼자서 별초를 해오기 60년만에 義人 金萬德 묘소는 濟州道民들의 정성으로 성역화된 紗羅峰 동녘 기슭의 모충사 경내로 이장됐다. 또한 높이 20m의 기념탑까지 건립되어 앞으로 전도민의 추앙을 받게 되었다. 비록 시기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80평생에 이처럼 고마운 일은 처음이지요. 道民들의 정성이 너무나 고마워서 올었습니다. 다만 우리 조상의 묘소를 후손들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道民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한스럽습니다.”고 韓할머니는 도민들의 정성에 감격해한다. 그러나 전 濟州道民을 살린 義女 金萬德의 후손인 韓할머니는 늘그막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舊左面 東金寧里 清水一組 마을에서 맏손자인 金榮活씨(32세)와 같이 살고 있는 韓桂月 할머니. 손자인 金씨도 재산이라고는 말한되기도 없이 남의 밭을 빌어 소작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 韓할머니의 생계는 막연하기만.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되어 1년에 쌀 몇말씩 面사무소를 통해 지급받는 것이 韓할머니의 유일한 수입원. 더욱이 80세가 넘다보니 노환으로 가끔 몸져눕지만 약 한 접 달여먹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형편이다.

李朝시대 전 재산을 털어 굶주리는 제주도민들을 살려낸 義女 金萬德의 후손에게 주는 제주도민의 동정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생활이 어려운 宗孫집에 시집을 가서 며느리의 소임을 다하면서 살아온 60여년. 義女의 후손답게 8순의 나이에든 곱게 늙어 정정하기만한 韓할머니.

“앞으로 金萬德조상님의 묘소는 별초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죽는 날까지는 한해에 한번씩은 꼭 묘소에 들러야겠습니다.” 韓할머니의 조상에 대한 숭배는 변함이 없다.

義人 金萬德은 앞으로도 계속 全道民들의 추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金萬德 義人의 덕을 기리는 도민들의 情을 金萬德 義人의 후손들에게도 나누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또한 간절하다.

〈昌〉

(『월간 개발제주』, 1977년 2·3월호)

4. 김만덕상 관련 자료

1) 만덕봉사상 조례[1990. 4. 9. 조례 제1596호]

개정 1993. 3. 26 조례 제1830호

1996. 2. 1 조례 제1993호(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1998. 5. 27 조례 제21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만덕 의녀의 숭고한 자주, 근면, 박애정신을 추모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모범여성에게 수여하는 만덕봉사상(이하 “봉사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의 자격) 수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55세 이상인 자. 단, 현재 본도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과거 10년 이상 거주한 자도 포함한다.
2. 자주, 근면, 박애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봉사상 수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3조(시상)

- ① 봉사상은 매년 1명을 선발, 만덕봉제시 시상하며,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 5. 27>
-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수상자의 추천)

- ① 수상후보의 추천은 시장, 군수, 도민 성인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단, 숨은 봉사자를 발굴·추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구성하는 만덕봉사상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8. 5. 27>
- ② 수상자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 ① 추천된 봉사상 수상후보자를 심사 선발하기 위하여 만덕봉사상 심사위원회(이사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삭제 <'93. 3. 25>

제5조의 2(위원회 구성)

-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93. 3. 26>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각계의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④ 제주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1인,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교육위원 1인, 사회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개정 '96. 2. 1>
- ⑤ 심사위원은 당해년 시상이 종료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된다.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결정한다. 단,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수상자의 결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 5. 27>

제7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제주도포상조례 제5조제4호에 의한 수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
-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도포상조례 제5조제4호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 〈'93. 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98. 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

전문개정 2006. 4. 12 조례 제2569호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김만덕 의녀의 숭고한 자주, 근면, 박애정신을 추모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모범여성에게 수여하는 김만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김만덕상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상 대상으로 한다.

- ① 김만덕 의녀의 숭고한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자
- ② 자주·근면·박애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여성상 정립에 기여한 자
- ③ 사회봉사와 협동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3조(시상)

- ① 김만덕상은 봉사상과 경제인상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각 1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되,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일반 여성에게는 봉사상을, 여성경제인에게는 경제인상을 수여한다.
- ② 김만덕상은 매년 만덕봉제 시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

- 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② 역대 만덕봉사상 수상자
- ③ 중앙 또는 시도단위 여성단체장

제5조(심사위원회)

- ① 추천된 김만덕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고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만덕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심사위원은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1인과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 1인, 제주도 보건복지 여성국장이 된다.
- ⑤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자에 대한 시상 종료시까지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6조(수상 후보자 심사기준) 수상 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김만덕의녀의 숭고한 자주, 근면,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① 의녀 김만덕 정신을 선양·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여성
- ② 근검절약과 나눔·배움의 정신으로 여성상 정립에 기여한 여성
- ③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성
- ④ 주체적인 삶과 개척자적 정신이 있는 진취적인 여성
- ⑤ 지금까지의 공로와 업적들이 귀감이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여성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단,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과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 2024. 8. 2 조례 제 37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만덕을 추모하고 숭고한 김만덕의 나눔과 베품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김만덕 정신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부문별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만덕상: 순수한 이웃사랑 실천 및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하는 등 헌신적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김만덕국제상: 사회봉사와 실천으로 국가 및 국제적 화합에 헌신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제3조(시상인원)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만덕상: 1명
2. 김만덕국제상: 1명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2.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교육감

3. 시장·군수·구청장
 4.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5. 역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자
 6. 국내외 각급 사회단체장 및 기관장
 7. 20세 이상으로 국내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상의 연서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까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시상) ① 도지사는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과 베품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여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호의 김만덕상을 매년 만덕제를 봉행할 때 시상하며, 제2조제2호의 김만덕국제상은 시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적 성격의 행사 등에 격년으로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제구호활동,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관한 전문가, 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김만덕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수상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6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이중시상 금지) 도지사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체 등에게 사실 확인 또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사내용의 공개 등)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진행 및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도지사의 공식 발표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현황

수상년도별	회명	성명	생년월일	비고
1980	제1회	고수선	1898. 8. 8	사망
1981	제2회	고혜영	1907. 8.24	사망
1982	제3회	이창옥	1912. 5.24	사망
1983	제4회	조금숙	1929. 9.15	사망
1984	제5회	이옥이	1920. 5.10	사망
1985	제6회	김서옥	1909. 9.13	사망
1986	제7회	성귀량	1909. 7. 7	사망
1987	제8회	고춘옥	1927. 6.18	사망
1988	제9회	김경생	1922. 8. 3	사망
1989	제10회	오테인	1909. 2. 2	사망
1990	제11회	김순이	1935.12.12	
1991	제12회	김진현	1928.10.27	
1992	제13회	홍정형	1933. 5. 6	사망
1993	제14회	박희순	1933. 5.21	사망
1994	제15회	문초실	1922. 3.16	사망
1995	제16회	장옥순	1924.12. 9	사망
1996	제17회	고경자	1925. 2.19	
1997	제18회	메리스타운튼	1922. 2.19	사망
1998	제19회	진춘자	1939. 2.20	
1999	제20회	양화순	1937. 5.30	
2000	제21회	김태화	1934. 4.14	
2001	제22회	김순자	1917. 4.22	사망
2002	제23회	고길향	1936. 5.27	사망

수상년도별	회명	성명	생년월일	비고
2003	제24회	김문자	1938. 8. 3	
2004	제25회	고추월	1938. 7.27	
2005	제26회	김인순	1942. 8.10	
2006	제27회	전귀연	1946. 2. 4	
		김정	1921. 3.12	
2007	제28회	이정자	1944. 2.13	
2008	제29회	한월자	1950. 1.16	
		유양선	1934. 3.20	
2009	제30회	김순심	1948. 8.24	사망
		오정희	1944. 4.19	
2010	제31회	김부자	1946.12. 4	
2011	제32회	김순여	1942. 2.10	
2012	제33회	김주숙	1941. 2.19	
		신언임	1932. 5.25	사망
2013	제34회	강혜전	1948. 5.17	
		송경애	1961. 5.15	
2014	제35회	홍영선	1950. 5.16	
2015	제36회	강명순	1953. 3.29	사망
2016	제37회	전혜성	1929. 7. 3	미국 거주
		전정숙	1925. 6. 2	사망
2017	제38회	강난파	1941.10. 2	
		강옥선	1959. 7. 5	

수상년도별	회명	성명	생년월일	비고
2018	제39회	강영희	1947. 6. 1	일본 거주
		좌옥화	1934. 4.12	
2019	제40회	김영순	1948. 7.24	
		박경란	1960. 3. 1	
2020	제41회	김옥산	1951. 3.30	
		김순희	1962. 5. 4	
2021	제42회	김추자	1944. 9.30	
		김경란	1963.11. 4	
2022	제43회	정정숙	1955. 7.15	
		박명순	1957.12.14	
2023	제44회	변명효	1957. 2.24	
		문영옥	1957.12.14	
2024	제45회	김춘열	1947. 5.14	
		김미자	1964. 5.10	

김만덕 자료총서 I 증보판

恩光新世

초판 인쇄 2007년 1월 30일

초판 발행 2007년 2월 1일

증보 발행 2025년 6월 1일

발행인 양원찬

발행처 김만덕재단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0길 31, 2

제 작 일신옵셋인쇄사

ISBN 979-11-90748-37-7 03090

[비매품]

恩光玆世



재단
법인

김영익재단



ISBN 979-11-90748-37-7

비매품
03090